

역사자료총서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제영 I

靑丘題詠

일러두기

1. 이 책에서는 『청구제영』의 각 첩 지역 구분을 따르지 않고, 현재의 행정구역별로 탁본을 재배치하였다.
2. 『청구제영』은 각 첩마다 미세하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로 49cm, 가로(펼침) 77cm정도이다.
이 책에서는 탁본의 크기와 편집방식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본문의 이미지의 세로를 모두 같은 크기로 편집하였다.
3. 『청구제영』의 고화질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들어가며	004
해제	006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1774~1851)와 『청구제영靑丘題詠』 - 『청구제영』 7첩의 자료적 가치를 중심으로 -	
서울 · 경기도	020
충청도	054
경상도	114
전라도	204
강원도	264

들어가며

역사자료총서는 국립중앙 박물관이 소장한 역사 자료를 연구자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발간해온 자료집이다. 이번 21집에서는 『청구제영靑丘題詠』을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청구제영』의 번역 사업과 학술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역사자료총서로 공개한다.



『청구제영靑丘題詠』(본관2035) 7첩

『청구제영』은 19세기 대표적인 경화사족京華士族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1774~1851)가 8도의 누대樓臺와 고금古今의 인물들이 쓴 현판의 제영시를 탁본하여 만든 첩이다. 총 7첩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록된 제영시만 400수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첩이다. 이와 같은 탁본첩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청구제영』이 품고 있는 자료적 가치는 그 방대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제영』 기존 문헌에 전하지 않는 인물들의 제영시를 수록하고 있어 국문학적으로는 새로운 작품의 확충이 기대되고, 시와 현판의 제작 과정과 시기를 고찰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도 충분하다. 한편 홍경모라는 개인이 제작한 작품집으로 그 인물관과 역사인식 등을 유추할 수 있는 1차 사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판의 필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예사적 가치도 풍부하다. 이번 역사자료총서의 발간으로 관련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청구제영』은 조선시대의 제영문화를 재현할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명승지를 유람하며 시를 짓고, 혹은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관내의 주요 지역에서 소회를 읊었다. 누군가는 그 시를 현판으로 만들어 누정에 걸어두었다. 이러한 누정에 대한 제영문화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대상인 누정이 파괴되면서 사라졌다. 현대에 들어 복원사업으로 건축물은 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누정 안에 걸려있던 제영시 현판은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우리는 『청구제영』을 통해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제영』은 총 7첩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1첩(경도京都, 기전畿甸, 관동關東, 해서海西) 2첩(해서海西) 3첩(호서湖西), 4첩(영남嶺南) 5첩(호남湖南), 6첩(관서關西) 7첩(관북關北)이다. 이번 역사자료총서에서는 『청구제영』 7첩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재배치하였다. I권은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의 제영시를 모았고, II권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현재 북한지역으로 묶었다. 탁본첩의 편집상의 특징과 각 탁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세로의 크기는 동일하게 편집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2022년 11월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해제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1774~1851)와 『청구제영靑丘題詠』

- 『청구제영』 7첩의 자료적 가치를 중심으로 -

김진실(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2. 『청구제영』의 제작 배경
3. 『청구제영』의 편집상 특징과 내용
4. 『청구제영』의 향후 활용과 연구과제
5. 맺음말

1.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제영靑丘題詠』(본관 2035)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경화사족인 홍경모洪敬謨(1774~1851)가 전국의 누대樓臺, 정자亭子 및 감영監營, 사찰 등 건축물에 걸려 있던 제영시題詠詩 현판懸板을 탁본하여 만든 탁본첩이다. 제영시란 특정 장소를 시제로 삼아 창작한 시로, 명현名賢들이 읊은 제영시는 해당 장소, 특히 정자 등이 있던 명승지에 시판으로 걸어두기도 했다.

『청구제영』의 존재는 홍경모의 문집인 『관암전서冠巖全書』의 「청구제영발미靑丘題詠跋尾」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홍경모는 해당 글에서 “팔도의 누대와 고급 인물들이 쓴 현판의 명구걸작名句傑作을 탁본하고 그것을 모아 7첩을 만든 뒤 『청구제영』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였다. 7첩의 구성에 대해서도 밝혀 놓았는데 1첩이 京都, 畿甸, 關東, 海西, 2첩 海西, 3첩 湖西, 4첩 嶺南, 5첩 湖南, 6첩 關西, 7첩 關北이다.¹⁾ 『청구제영』 실물에는 이 발미가 따로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발미에 언급된 체재와 동일하게 성첩된 탁본첩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제영』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탁본첩이다. 400여개의 전국 8도 제영시 탁본이 나뉘어 편집되어있고, 특정 누정을 대상으로 읊은 시라는 점에서 공간이 특정되며, 고려부터 조선후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시가 수록된 점 등은 『청구제영』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인물, 공간, 문학과 이야기가 결합된 인문학적 현상을 이 자료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 탁본첩을 만든 인물이 특정되고, 또 그 인물이 19세기 학술사의 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홍경모라는 점은 『청구제영』이 가지는 자료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2년에 걸친 『청구제영』 탁본의 학술번역으로 수록된 제영시의 내용과 그 면면이 확인되었고, 이번 역사자료총서의 발간으로 그 자료가 공개되어 관련 연구의 진작이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청구제영』의 제작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실물이 가진 형태적인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관암전서冠巖全書』 16책, 「靑丘題詠印本七帖」 “揚八道樓臺古今人題板之名句傑作。彙爲七帖。名之曰靑丘題詠。第一帖京都, 畿甸, 關東, 海西。二帖又海西。三帖湖西。四帖嶺南。五帖湖南。六帖關西。七帖關北也。第一帖京都, 畿甸, 關東, 海西。二帖又海西。三帖湖西。四帖嶺南。五帖湖南。六帖關西。七帖關北也。

2. 『청구제영』의 제작 배경

– 19세기 서화수장 문화의 성장과 관암 홍경모의 가문적 배경

『청구제영』은 감상과 소장을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의 탁본첩이다. 전국 8도를 대상으로 하고, 탁본의 수만 400여개가 넘는다는 점은 이 탁본첩의 제작을 처음 고안한 계기가 무엇일지 궁금하게 만든다. 홍경모가 당대의 고위 관료이기는 했지만 국가적 차원이 아닌 일반 사가私家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구제영』의 흔적이 홍경모의 문집에서만 발견된다는 점과 각종 파지破紙를 이용하여 배접한 형태 등을 미루어 보면 개인의 수장收藏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홍경모가 『청구제영』이라는 거질의 탁본첩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세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예술품 향유와 관련한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경화사족이란 서울에 그 근거지를 두면서 정치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몇몇 가문을 일컫는 말이다. 경화세족京華世族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가문으로 안동 김씨安東金氏, 풍산 홍씨豐山洪氏, 달성 서씨達城徐氏, 반남 박씨潘南朴氏, 청송 심씨靑松沈氏, 의령 남씨宜寧南氏 등이 있다. 홍경모는 풍산 홍씨 가문의 일원으로 조부인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1724~1802)에 이어 문장과 글씨로 이름을 날렸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요직에 진출했다. 풍산 홍씨 가문은 홍경모의 6대조인 홍주원洪柱元(1606~1672)이 선조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면서 한양에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홍주원을 거쳐 홍중성洪重聖(1668~1735), 홍양호가 가문을 이어 받으면서 명문가로 성장했다.

경화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여유로운 경제력은 더 높은 차원의 문화향유 욕구로 이어졌다. 특히 서책이나 서화수집 같은 활동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17세기 후반부터 사회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양상이 변화했다. 유력가문에서 의욕적으로 수집활동을 벌여나갔다. 우리나라 역대 명현의 글씨나 그림부터 중국의 서화, 고비의 탐본 등 그 영역도 확장된다. 특히 청나라로 사행을 다녀오는 등의 계기로 그 수집 욕구와 수요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경모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선대인 홍중성으로부터 시작된 서화, 고비탁본의 수집활동은 홍양호대에 들어 양적 질적으로 풍부해졌다. 홍경모는 본인이 태어난 곳이자 위로 6대가 살았던 사의당四宜堂에 대한 기록인 『사의당지四宜堂誌』를 저술했는데, 여기에는 조부인 홍양호로부터 수집된 각종 서화, 탐본 소장품이 정리되어 있다. 목록뿐 아니라 홍양호의 제발題跋이나 간단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사의당지』에 따르면 홍경모는 본인의 집에 서화류 94종을 소장하고 있었다.²⁾

홍양호 본인이 당대 고대 금석문 전문가였으므로 비문의 탐본을 매우 열성적으로 수집했다. 해당 지역의 누구에게 부탁하여 탁본하거나, 직접 사람을 보내 탁본하여 가져오게 하는 등 그 수집 방식은 손수 지은 제발 등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탐본의 경우 연행 당시 교류했던 인물에게서 선물 받기도 했다.³⁾ 이와 같은 조부

2) 이종목,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휴머니스트(2007), p.28~32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제독서처(夷齊讀書處)> 탁본첩(본관4975)이 그것이다. 여기에 적힌 홍양호의 발문을 보면, 연행 당시 만났던 인물이 직접 탁본을 전해 주었다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발문은 홍양호의 문집 『이계집耳溪集』에 「題韓昌黎書夷齊讀書處大字」로 실려 있다.

홍양호의 영향을 깊이 받은 홍경모 또한 명필名筆이나 고적古跡의 흔적을 수집하려는 수집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홍경모의 문집을 보면 『청구제영』외에도 『선세수묵先世水墨』이나 『역대법첩歷代法帖』, 『동국묵적東國墨跡』 등 필첩筆帖을 엮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서화의 수집 욕구가 『청구제영』과 같은 제영시판의 탁본첩 제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화사족의 예술품 향유와 수장문화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수집가로서의 수집욕구가 『청구제영』을 만들게 된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로는 홍경모의 가문의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의당지』를 저술한 목적과도 비슷하다. 홍경모는 3살 때에 부친상을 당했고 조부인 홍양호에 의해 양육되었다. 홍경모가 가진 학술적, 정치적 자산은 모두 홍양호로부터 온 것이다. 홍경모는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홍양호를 따라 평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홍경모가 29세가 되던 해 조부상을 당했으므로 홍양호는 홍경모 인생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홍경모 스스로도 평생을 잊지 못하고 흠모한다고 하였고 그 학문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⁴⁾

홍경모는 『사의당지』의 저술을 통해 홍양호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자산을 정리하였고 또 한편으로 홍양호의 글과 글씨를 모아 만년에 홍양호의 문집인 『이계집』을 간행하였다. 또 가계 관련 기록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⁵⁾ 그 과정에서 홍경모는 가문의식을 키우고 홍양호의 선양을 위한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했다. 『청구제영』 또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구제영』은 발미에서 언급했듯 주요 누정에 걸린 고금의 명구걸작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풍산 홍씨 가문 선대의 것 또한 수집대상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홍양호가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누각에서 창화唱和하고 직접 쓴 시문을 걸어두곤 했다는 홍경모의 기록이다.

문헌공(홍양호의 시호) 부군은 정조 신해년(1791)에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갯옷과 띠를 두르고 날마다 이름난 누각에 가서 시를 지어 회포를 펴고 또 그것을 손수 써서 걸었다. 또 관할지역을 순시할 때에 여러 명승지를 두루 돌며 시문을 남긴 것이 무수히 많았다.⁶⁾

홍경모는 홍양호가 평안도 등 외직으로 나갔을 때 해당 지역의 주요 명승지와 누정 등에서 시문을 남기고 그 제영시 현판을 걸어두곤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곧 홍경모가 『청구제영』이라는 거질의 탁본첩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청구제영』이 조선시대의 제영문화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청구제영』에는 홍중성, 홍양호, 홍명호洪明浩(1736~1819) 등 홍경모와 가까운 선대의 제영시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제영』에는 시기로 봤을 때 15~17세기 인물의 제영시 탁본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중에 드물게 들어가 있는 18세기의 인물이 특히 풍산 홍씨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점은 탁본의 수집과 수록과 관련하여 제작자인 홍경모

4)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17~23.; 홍경모, 『外史後篇』 「耘石外史序」.

5) 『풍산홍씨세장지豐山洪氏世葬地』, 『풍산홍씨유지지豐山洪氏遺址記』, 『풍산홍씨세승범례豐山洪氏世承凡例』 등이 그것인데, 외직을 받아 나가면서 선조의 묘를 찾거나 기록해두는 등 가문의 선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이군선, 「풍산홍씨 문중의 가문의식-홍양호와 홍경모를 중심으로-」, 한문교육논집43, 2014.)

6) 홍경모, 『外史後編』, 「樂浪勝觀帖印本」 “文獻公府君, 於正宗辛亥, 按關西節, 以裘帶, 日臨名樓, 詩以暢叙, 仍又手書以揭之. 又於行部之時, 歷遍諸名勝, 翰墨之留題者, 星羅霧列,”

의 가문의식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양호의 제영시는 총 10수가 확인된다. 이는 『청구제영』에 이름을 올린 인물 중 최다이다.(표1)

표1. 『청구제영』 각첩 수록 제영시 작자의 상한과 하한

	수록 제영시 작가 상한	수록 제영시 작가 하한
제1첩	이색(李穡, 1328~1396)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제2첩	이이(李珥, 1536~1584)	홍명호(洪明浩, 1736~1819)
제3첩	이곡(李穀, 1298~1351)	이담(李湛, 1652~1716)
제4첩	김지대(金之岱, 1190~1266)	이종성(李宗城, 1692~1759)
제5첩	김길통(金吉通, 1408~1473)	정시윤(丁時潤, 1646~1713)
제6첩	정지상(鄭知常, ?~1135)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제7첩	이직(李穰, 1362~1431)	홍양호(洪良浩, 1724~1802)

3. 『청구제영』의 편집상 특징과 내용

1) 청구제영의 편집상 특징

청구제영은 절첩식 탁본첩이다. 각 첩은 제1첩 경도京都, 기전畿甸, 관동關東, 해서, 제2첩 해서海西, 제3첩 호서湖西, 제4첩 영남嶺南, 제5첩 호남湖南, 제6첩 관서關西, 제7첩 관북關北으로 나뉘어져있다. 총 면수와 각 첩 당 수록된 제영시 탁본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청구제영』 각첩 수록 제영시의 수

	지역	면수(표지 포함)	제영시 수
1첩	경도, 기전, 관동, 해서	57	80
2첩	해서	53	69
3첩	호서	37	41
4첩	영남	48	69
5첩	호남	40	50
6첩	관서	47	56
7첩	관북	39	54
합계		321	419

서울, 경기도, 관동, 해서 등 4개 지역이 대상인 제1첩이 그 수가 가장 많았고, 제4첩 영남과 제2첩 해서가 그 뒤를 이었다. 특기할 점은 제1첩과 제2첩에 해서지역의 탁본이 연속되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해서지역의 제영시 탁본만 모아보면 총 92개가 된다. 절첩식 형태의 특성상 면수가 늘어나면 펼칠 때에 무리가 가게 되므로, 분량이 넘치는 해서지역의 탁본을 따로 제1첩과 제2첩에 나누어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장 적은 제3첩의 호서지역과 비교해서 제1첩은 2배 정도의 탁본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별 분량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편집자인 홍경모 개인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관동과 황해도 지역은 홍경모가 외직을 받아 주로 나갔던 지역이다.

지역별로 성첩된 것이 『청구제영』이 가지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지만, 편집상 오류로 해당 지역에 맞지 않는 탁본이 섞여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청구제영』 제4첩은 영남嶺南인데, 김수현金壽賢(1556~1653)의 청주 객관의 제영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또, 같은 탁본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청구제영』 제5첩 호남湖南에 화순의 협순루에서 제영한 정시윤의 시의 동일한 탁본 2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오류 사항들은 『청구제영』의 편집 과정을 그려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각 첩을 순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탁본을 수집하여 모은 다음 지역별로 분류하고, 분량이 넘치는 해서지역은 제1첩과 제2첩에 나누어 싣고,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서울, 경기, 관동 지역을 한데 묶는 작업이 선행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분류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탁본이 섞여 들어가거나, 복본이 모두 실리게 되는 편집상 오류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청구제영』의 표지와 내지의 형태와 편집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구제영』은 각 첩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로 49cm, 가로 38.5cm(펼치면 77cm) 수준이다. 오차는 각 1~2cm를 넘지 않는다. 이는 곧 『청구제영』에 수록된 제영시 현판 탁본의 세로가 49cm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역별 탁본을 모두 모은 뒤에 편집 작업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아마도 가장 큰 탁본의 크기를 미리 확인한 뒤 탁본첩 크기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도1. 『청구제영』 제4첩 영남嶺南 표지



도2. 『청구제영』 제7첩 관북關北 표지

『청구제영』의 표지는 조선후기 많이 사용되던 만권자문 능화판 표지이다. 도1과 도2에서 보이듯 표제 ‘靑丘題詠’이 왼쪽에 묵서되어 있고, 편목篇目은 각 첩의 대상 지역이 오른쪽 상단에 표제보다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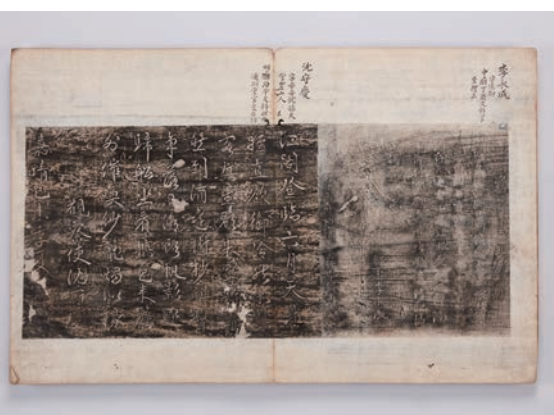
표제인 ‘靑丘題詠’은 홍경모가 직접 묵서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들은 대체로 모서리 부분의 마모와 일부 변색이 확인되고, 표제의 일부가 오염에 의해 지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 첩의 순서를 알 수 있는 숫자가 일부 지워져 있지만, 『관암전서』의 발미跋尾에 언급된 내용으로 그 순서를 확인 할 수 있다. 표지는 개장의 흔적이 없어 탁본첩을 만들 당시의 원표지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결실된 부분이 없이 양호한 편이다. 표지에 각각 붙어 있는 스티커는 유물의 관리를 위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부착한 것이다.

내지의 편집 방식은 다음과 같다. 탁본을 크기에 맞게 배접한 뒤에 각각 이어 붙였다. 탁본과 배접지를 결합시키는 방식은, 우선 일정한 크기로 탁본을 붙일 바탕 배접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탁본을 붙인 다음, 전면의 탁본의 크기에 맞게 종이를 재단하여 4면을 붙였다. 결과적으로 펼침면을 보면 펼침면의 배접지가 탁본의 사방을 덮는 모양으로 마감이 된다. 배접지 속에 탁본이 액자처럼 들어간 형태인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각 면들의 좌우를 이어 붙여서 절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지는 몇 가지 편집유형이 나타난다. 탁본의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크기는 하나의 탁본으로 마감한 면과, 서로 다른 크기의 탁본 여러 개를 이어 붙인 면이 있고, 또 탁본을 이어 붙이면서 탁본 중 글자가 없는 부분은 잘라버린 것 등이 확인된다. 가로로 긴 탁본의 경우에는 잘라서 다음 장에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이들 유형에 확연히 드러나는 편집 원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탁본첩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의상 취사선택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청구제영』의 편집유형 몇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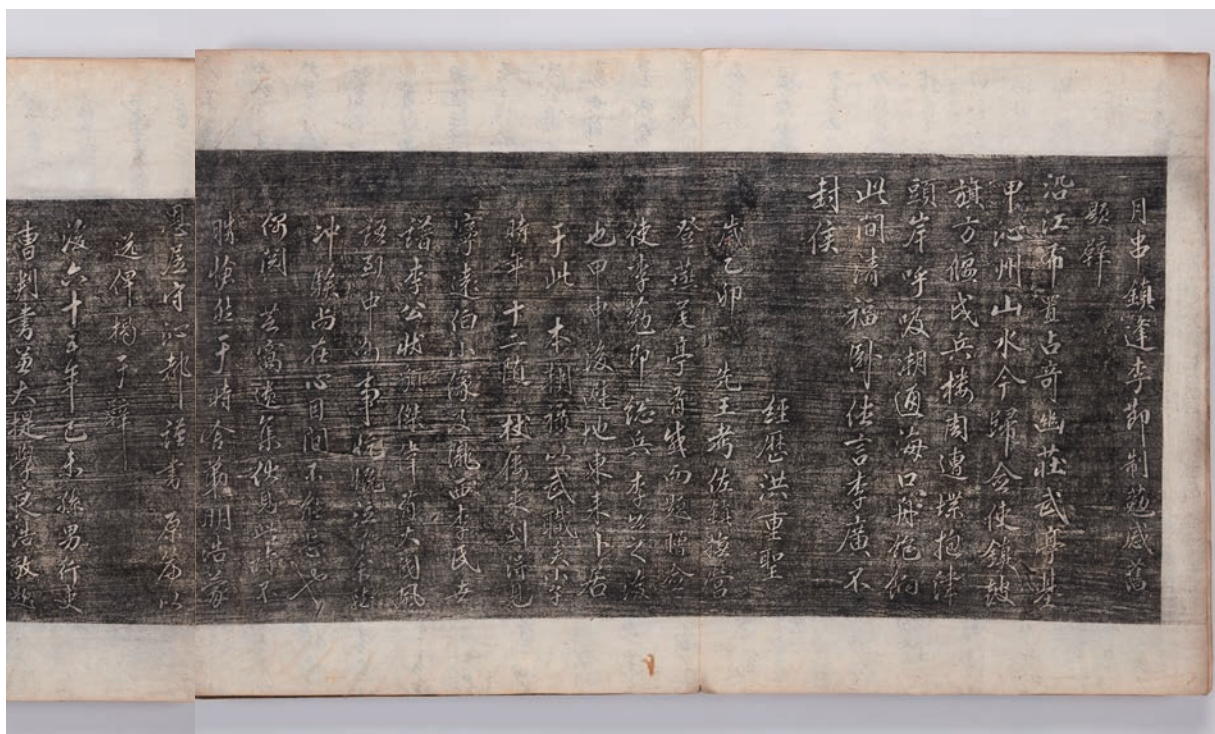
도3. 탁본 하나로 마감한 면(『청구제영』 제1첩)



도4. 서로 다른 탁본을 이어붙인 면(『청구제영』 제3첩)

펼침면 안으로 모두 들어오는 탁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편집이 되어 있지만(도3), 크기가 작거나 긴 경우에는 연속으로 이어 붙인 경우가 많다. 도4의 경우를 서로 다른 탁본임에도 아래와 위를 덮는 배접지는 동일하게 잘라 노출되는 탁본면의 크기를 동일하게 편집하였다. 하지만 다른 비슷한 경우의 다른 탁본을 보면, 크기가 다른 탁본의 경우는 상단과 하단의 배접지를 다르게 재단하여 붙인 경우도 발견된다.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탁본을 이어붙인 경우에는 배접지를 다르게 이어 붙여 서로 다른 탁본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편집되어 있다.

주목되는 점은 가로로 긴 탁본을 잘라서 다음 면에 이어붙일 때에 앞쪽의 탁본 노출면과 동일하게 편집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도5와 같이 다음면의 탁본을 잘라서 다시 이어 붙여 보면 동일한 크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글자가 있는 부분은 모두 취하되, 다음 면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뒤에 이어 오는 탁본의 크기를 고려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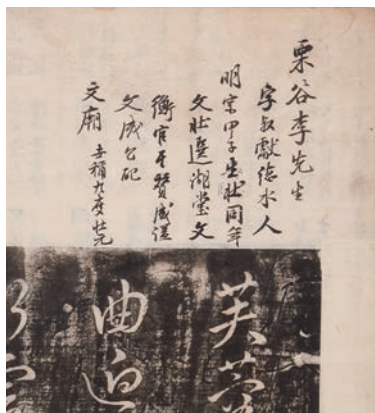
도5. 2면에 걸쳐 편집되어 있는 탁본을 이어 붙인 모양(『청구제영』 제1첩 홍중성의 시)
탁본면을 이어보면 크기가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청구제영』의 편집방식을 보면, 가로로 긴 제영시판의 탁본을 하나의 첩으로 수용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우선 탁본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부터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했을 것이고, 지면의 한계로 연속되는 탁본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또한 하나하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한 면에서 소화되는 탁본은 대체로 간단하게 마감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연속성을 보여주면서도, 종이의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여 편집하였다. 기존 제영시판의 크기가 아닌, 글자가 적힌 면을 위주로 편집하여 『청구제영』을 만든 의도가 시와 글씨의 감상, 그리고 완결성 있는 전국단위의 제영시판의 탁본첩 소장 그 자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청구제영』 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탁본의 상단에 적힌 부기附記 사항들이다. 탁본을 편집한 뒤에 그 상단에 제영시의 작자들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그 내용은 본관本貫, 자字, 문과급제文科及第, 관직명 등이며 현달하거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으면 가족관계, 시호諡號, 세칭世稱 등이 더 추가되어 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이들 부기사항들도 모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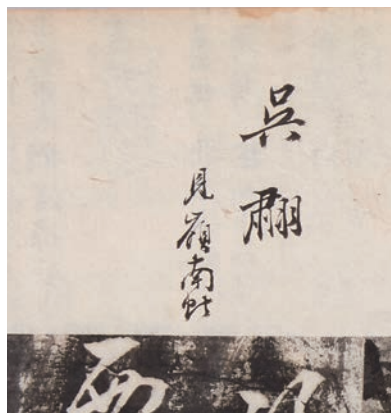
2첩(해서 지역)의 첫 면인 부용당(芙蓉堂)에 걸려있던 율곡이이(栗谷李珣, 1536~1584) 제영시 현판의 경우 아홉 번 장원해 붙여진 '구도장원(九度壯元)'이라는 별칭도 적혀있다. 또 인물이 반복해서 등장할 때에는 '견상見上'이나 '견○○첩(見○○帖)'으로 부기하여, 앞서 나왔던 인물임을 밝혀놓았다. 다만 앞서 등장하였어도 인적사항은 뒤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오숙吳翹(1592~1634)의 경우 제2첩인 해서에 먼저 제영시가 등장했지만, 여기에는 '영남첩에 보인다(見嶺南帖)'이라고 적혀 있고, 오숙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제4첩에 부기되어있다. 이는 『청구제영』 각 첩이 완성된 시기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제1첩에는 부기 사항이 없는 탁본들이 많은데 해당 탁본들의 작자는 대체로 뒤에 이어지는 첩에서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기는 편집자인 홍경모가 직접 정리하였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간에 글씨가 달라지는 것으로 미루어 여러 사람이 번갈아 작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자, 호, 문과급제년도, 시호 등 다소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으로 정리된 저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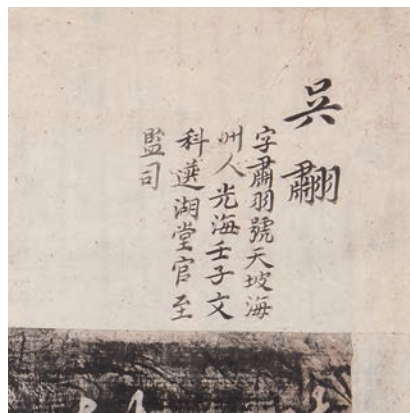
도6. 제2첩 해서海西 1면

栗谷李先生
字叔獻 德水人 明宗甲子生壯 同
年文壯 選湖堂 文衡 官至贊成
諡文成公 配文廟 世稱九度壯元



도7. 제2첩 해서海西 6면

吳翹 見嶺南帖



도8. 제4첩 嶺南 48면

吳翹 字肅羽 號天坡 海州人 光海壬
子文科 選湖堂 官至監司

2) 청구제영의 내용

『청구제영』을 이루는 요소는 크게 누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건축물, 시詩라는 문학작품, 그리고 인물이다. 누가 지은 제영시인지 확인이 되는 경우는 대개 그 시를 지은 시기까지 특정할 수 있다. 해당 인물의 행력을 훑아보면 그 지역에 언제쯤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고, 혹 그 시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면 시기뿐 아니라 내력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시기와 지역이 특정되는 공간, 시와 같은 문학작품, 그리고 역사적 인물까지 결합된 결과물이 바로 『청구제영』이라고 할 수 있다.

홍경모의 발미에는 제영시판의 탁본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까지는 언급되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언급했던 홍경모의 가문적 배경과 관력官歷을 참고하면 그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청구제영』의 전체 7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해서海西로, 황해도 지역이다. 홍경모는 1809년(순조 9)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했는데, 1811년(순조 11) 가뭄으로 인한 윤음을 선유하기 위해 황해도 해주로 갔던 것을 비롯하여, 1812년(순조 12) 황해도 송화현監松禾縣監으로 부임했고 1819년(순조 19)에는 함경도의 안변부사安邊府使로 나갔다. 1825년(순조 25)에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2년 동안 도내를 순시했고, 1836년(헌종 2)에는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71세가 되던 1844년(헌종 10)에는 광주유수廣州留守가 되었다.⁷⁾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등 북부지역으로의 외직이 대부분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홍경모의 외직 경험은 『청구제영』에도 반영되었다.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가 전체 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관찰사로 나갔던 황해도의 분량이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홍경모가 본인이

7) 이상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인사기록과 이유원李裕元이 찬술한 홍경모의 묘지를 참고하였다.

직접 순력巡歷했던 지역의 누정 제영시가 많이 수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서 지역의 탁본 수량이 많아 『청구제영』 제1첩과 제2첩에 중첩되어 편재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명승지와 이름난 누정이 많았던 서울지역의 탁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1첩의 명륜당 정도만 수록되어 있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⁸⁾

그렇다고 외적으로 인연이 없었던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이 소략한 것은 아니다. 제4첩 영남은 두 번째로 그 양이 많다. 또 내륙 뿐 아니라 제주도의 제영시까지 수습된 것을 보면 전국을 배경으로 하는 탁본첩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제작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⁹⁾

지역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해당 시가 걸려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이다. 예로부터 명승지에는 풍광을 조망하는 누정이 있었다. 홍경모의 발미에는 그 대상 건축물이 나열되어 있다. 강루江樓 · 해정海亭 · 산각山閣 · 수사水榭 · 빈관賓館 · 아헌衙軒 · 명산名山 · 대천大川이다.¹⁰⁾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다. 관동지역의 탁본 또한 그 수량이 30점에 가까운데, 예로부터 칭송되어 온 명승지인 관동팔경關東八景에 속하는 누정 대부분이 빠져있다.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정도만 포함되어 있을 뿐 경포대, 청간정, 망양정 등에 걸렸 있던 제영시판은 없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대표적인 누정으로 손꼽힐만한 곳이 빠져있어 의문을 가지게 한다. 대신에 객관客官, 아헌衙軒, 빈관賓館 등의 비중이 높다.

표2는 청구제영에 등장하는 누정 및 건축물의 명칭을 나열한 것이다. 어디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명칭만으로 보면 110여개가 넘는 누정과 건축물이 확인된다. 그 중에는 홍경모의 발미에 언급되는 명산과 대천에 속하는 금강산, 칠보산, 대동강과 같이 산과 하천명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처의 특정 건축물에 걸린 현판을 탁본했을 것이므로 건축물로 포함하였다.

표3. 『청구제영』에 등장하는 누정과 건축물의 명칭

	누정 및 건물명	개수
서울경기	명륜당, 비해당, 세심정, 강화 진해루, 세심재, 백련사, 연미정, 전등사, 청심루, 화석정, 양성현 향교	11
강원도	홍천 범파정, 청허루, 금강산, 통천 총석정, 통천 이은당, 통천 연정, 서악사, 춘천 소양정	7
황해도	풍천 영취루, 황주 태허루, 황주 월파루, 영파루, 서흥군 객관, 서흥 용천관, 익손당, 부용당, 은병정사, 공해대, 탁열정, 천림각, 병암, 취경루, 익청각, 배천 취경루, 안악 객관, 이요루, 웅진 수영, 웅진 세검루, 배천 강서사, 장연 금사사 백사정	22
충청도	가오대, 지반헌, 강각, 청주 동장, 고란사, 부여, 망선대, 영보정, 견사정, 청은당, 원우정, 태안 객사, 반월루, 부석헌, 고란사	15
경상도	합천 함벽루, 의성 동헌, 의성 문소관, 안동 동헌, 안동 영호루, 의성 문소루, 흥해 객사, 안동 남문 안기역, 동래 물운대, 영천 죽각, 안동 귀래정, 안동 애련당, 합천 해인사, 신녕 환벽정, 경주 북국사, 단성 객사	16

8) 안대회는 서울의 누정을 거의 수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서울에 존재하는 유수의 누정 중에서 겨우 명륜당 하나 정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륜당에는 역대 명현名賢들의 현판만 수십종이 넘는데 주지번의 현판만 탁본하여 제시한 것도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청구제영 연구성과 공개 학술대회 자료집』 토론문, 2021. 11.)

9) 제주도의 제영시는 『청구제영』 제4첩 영남과 제5첩 호남, 제7첩 관북에 각각 나누어져 들어가 있다.

10) 『관암전서冠巖全書』16책, 『靑丘題詠印本七帖』

	누정 및 건물명	개수
전라도	광산 경양역, 곡성 동헌, 대정현 동각, 화순 협순루, 광주 풍영정, 영암군 객관, 해남 태평정, 영암 양취루, 순창 관정루, 안심사 적설루, 담양 일아정, 강경 팔배정	12
평안도	벽서루, 부벽루, 영명사, 대동강, 망일헌, 희천, 증산 관아, 척서루, 쾌재정, 인현서원, 구성 동헌, 연기현 연희루, 망일헌, 의정헌	14
함경도	강계 동헌, 영흥 연단, 명천 칠보산, 삼수 적생역 적승관, 준원전, 삼수 별해보, 단철 오을죽보, 용흥강, 초원역, 쌍성관, 안변 망운정, 고원관, 주변루, 격구정, 낙민루	15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 동헌東軒, 객관客官, 객사客舍 등 감영이나 수영水營, 혹은 관아의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명칭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청구제영』에 수록된 제영시 작자들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관찰사, 부사, 유수, 현감 등 시를 창작할 당시 지방관으로 재임하던 인물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방관으로 있는 곳에서 손님과 함께 창화唱和한 예도 있고, 관찰사로 도내를 순력하면서 주요 명승지에서 이전의 관찰사가 지은 시에 운을 따서 지은 시도 있다. 혹은 관찰사로 부임하여 본인의 선대의 흔적을 보고 시를 읊고는 선대의 제영시와 본인의 작품을 새로 판각하여 걸어둔 경우도 있다. 이는 풍류를 즐기는 개인의 사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공간과 인물 모두 관官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유람유람으로만 그 성격을 규명할 수는 없다.

『청구제영』에 등장하는 공간과 인물은 전적으로 제작자인 홍경모의 취사取捨에 따른 것이다. 보편적으로 유명하거나 이름난 누정이나 인물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목적과 인식 하에 취사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는 곧 홍경모의 인물관과 역사관으로까지 확장시켜 논의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청구제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개 관찰사를 역임했던 인물들인 것을 보면 홍경모 본인의 관료官僚로서의 정체성이 투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모든 인물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면 대강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로 나누어 보면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려의 인물로는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유학자인 김부식金富弼, 정지상鄭知常,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조선시대에도 그 학문과 기상을 인정받는 인물들이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조선전기에는 명나라 사신인 공용경龔用卿, 주지번朱之蕃과 사육신으로 이름난 박팽년朴彭年, 그리고 기묘사화와 연관된 인물들이 보인다. 조선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병자호란과 관련한 인물들이 특히 그 수가 많았는데,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헌金尙憲과 그 후손들의 제영시, 전극항全克恒, 장신張紳, 그리고 의병을 일으켰던 홍명구洪命龜의 제영시가 수록되었다.

또 광해군대 관료로 재임하다가 광해군의 폐정, 특히 인목대비의 폐모정청에 참가하지 않고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인조반정 이후 등용된 인물들이 있다. 김세렴金世濂, 윤방尹坊, 오윤겸吳允謙, 임서林愾, 이식李植, 김대덕金大德 등이 그들이다. 홍경모의 기준으로 당대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는 홍경모의 선대인 홍양호, 홍명호의 제영시가 있다.

위와 같은 인물들의 배경과 역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홍경모가 지니고 있던 역사적 평가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당대로 가까운 시기에는 평가보다는 가문의 식이나 친교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홍경모는 다양한 저술을 통해 학문관, 역사관을 정립한 인물이다.

『관암전서』에는 홍경모가 지은 문학작품 뿐 아니라 역사서 또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¹¹⁾ 홍경모는 박학博學이라는 19세기 학술경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관료이자 학자라는 정체성을 정립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저술활동 뿐 아니라 직접 수집하여 정리한 『청구제영』은 홍경모의 역사인식과 인물관 등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구제영』의 향후 활용과 연구과제

『청구제영』의 자료적 가치는 단연 현재 전하지 않는 현판의 복사본이라는 데 있다. 탁본은 비석이나 현판의 글자와 내용을 1:1로 복제하는 1차원적 방식으로 원본 대상이 멸실되더라도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원본 그 자체를 소장할 수 없을 때에 탁본을 통해 그 수집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러한 탁본들은 지금까지 전해지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문화재를 연구하고 복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청구제영』 또한 지금은 존재하지않는 제영시판의 탁본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다.

제영시란 특정한 장소를 시제로 삼아 창작한 시로, 명인들이 남긴 제영시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학작품이지만, 『청구제영』의 탁본으로 명승지 등에서 제영을 읊고 그것으로 시판詩板을 만들어 해당 건물 혹은 누정에 걸었던 제영문화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제영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읍지, 문인들의 개인 문집 등에 수록되어 전하는 것이 많지만, 그 시를 판각하여 만들어 걸었던 현판 실물에 관련한 자료는 흔하지 않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수의 누정과 건물들이 소실되었고, 일부는 재정비되어 지금도 명승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터만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청구제영』의 번역으로 조선시대 제영문화가 남긴 문화사적 데이터를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학적 측면으로는 기존 문헌에서 전하지 않던 새로운 작품이 확충이 기대된다. 거기에 지역과 공간이 특정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의 인문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서예사적으로도 주요 인물의 필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청구제영』에 전하는 필적이 원작자의 필적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대의 명필이 글씨를 썼거나 집자하였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료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역사학적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학술사의 한 축을 이루는 홍경모의 문학, 학문적 경향과 인물관人物觀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홍경모는 활발한 학문적, 정치적 활동으로 관련 기록이 많은 인물 중 하나이다. 스스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저술 외에 수집이라는 행위 또한 한 인물의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¹²⁾ 『청구제영』 제공하는 데이터는 홍경모 개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11) 홍경모가 역대 인물에 대해 정리한 저술로는 『대동장고大東掌攷』가 전한다. 특히 여기에는 「방백고方伯攷」라는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는 전국 각 지역의 역대 관찰사를 정리하기도 했다.

12) 홍경모가 『사의당지』에서 정리한 것처럼 풍산 홍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많은 서화들이 지금은 흩어져버렸다. 홍경모는 만년에 진전鎮川으로 이거移居하였다. 본인 위로 6대조가 세거하던 사의당을 비롯한 한양을 뒤로 한 결정이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증손인 홍승헌洪承憲(1854~1914)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진척시키다가 사망하였던 것을 보면, 풍산 홍씨 가문의 서화들은 그 과정에서 멸실되거나 그 보관처가 변동되었을 것이다. 『청구제영』의 입수경로는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기증품이다.

또 『청구제영』은 그 방대한 분량 만큼 많은 배접지를 사용했다. 『청구제영』을 펼치면 바탕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도 눈길이 가게 된다. 대부분 글자가 확인되는데, 파지破紙를 재활용하였다. 파지의 유형은 크게 추수기秋收記나 수세기收稅記 등 출납장부 형태와 시의 필사본, 목판제작을 위한 판하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명이나 지역명이 등장하기도 하고, 홍양호의 저술과도 연결되는 필사본도 있다. 아마도 홍경모 가내家內에 보관하고 있던 파지들이 활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자료 또한 정리하여 모으면 한질의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5. 맺음말

『청구제영』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조선시대 제영시 현판의 집성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청구靑丘의 제영을 모아 정리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프로젝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홍경모가 어떤 경위에서 이 탁본첩을 제작하게 되었는지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청구제영』이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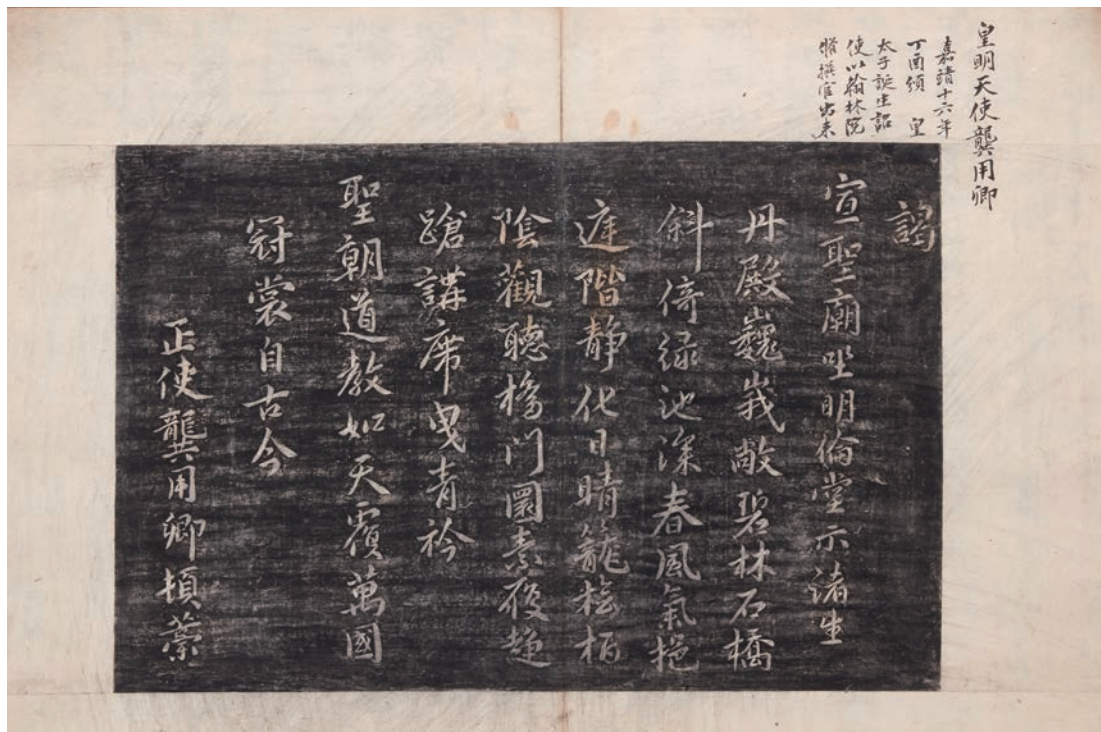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청구제영』의 제작배경과, 편집 및 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경모가 『청구제영』을 제작하게 된 배경으로 19세기 경화사족들의 서화 수집문화의 확대라는 측면과 홍경모 개인의 가문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내용적 측면으로 볼 때에 홍경모의 역사인식, 인물관이 반영되었지만 조부인 홍양호를 비롯한 풍산 홍씨 가문의 선대의 제영시를 신경 써서 모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편집상 특징에서는 가로로 긴 탁본을 첩의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기 위한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는 감상과 소장이라는 두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생각된다. 모든 첩이 만들어진 뒤 해당 제영시의 작자에 대한 인물정보를 여백에 부기하였는데, 첩의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적인 특징에서는 공간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뛰어난 승경지가 아닌 감영, 수영, 관아의 부속건물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영시의 작자들 또한 관찰사, 부사, 군수 등 지방관으로 재임하였던 인물이 많았다. 이는 홍경모의 관료로서의 정체성이 투영되어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역사적 인물의 배경에는 홍경모 개인의 역사인식과 인물관을 살펴볼 수 있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면밀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청구제영』이 가지고 있는 사료적 가치가 더욱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으로서의 시詩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청구제영』은 문학작품을 모은 시첩일 뿐 아니라 공간과 인물, 역사성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청구제영』 속의 시들은 각각의 맥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국문학, 역사학, 서예사 등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자료의 확충과 발견이 될 것이다. 또, 대상인 누정과 건축물이 멸실되면서 함께 사라진 조선시대 제영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되어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서울·경기도



皇明天使龔用卿 嘉靖十六年 丁酉 頒皇太子誕生詔使 以翰林院修撰官出來

황명(皇明)의 사신 공용경

가정16년(1537) 정유년,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사신. 한림원수찬관 신분으로 조선에 왔다.

공자의 묘당에 배알하고 명륜당에 앉아 여러 유생들에게 보이다

謁宣聖廟 坐明倫堂 示諸生

붉은 전각 높이 솟아 푸른 숲으로 열려있고

丹殿巍巍敞碧林

석교는 깊고 파란 연못에 비스듬히 기대있다.

石橋斜倚綠池深

봄바람 기운 머금어 뜰의 계단 고요하고

春風挹庭階靜

햇빛 맑게 두르자 회나무 잣나무 그늘진다.

化日晴籠檜栢陰

성균관²⁾에서 경서를 공부하느라 흰 신발³⁾ 빙 둘러섰고

觀聽橋門圓素履

강석(講席)에 나아가느라 푸른 소매⁴⁾ 끌린다.

趨蹌講席曳青衿

성스러운 조정의 도와 가르침 마치 하늘이 덮은 듯하니

聖朝道教如天覆

만국의 의관(衣冠) 절로 고금이 같구나.

萬國冠裳自古今

정사 공용경 머리 조아려 쓰다.

正使 龔用卿 頓藁

1) 공용경: 명나라 복건(福建) 회안(懷安) 사람으로 자는 명치(鳴治), 호는 운강(雲岡)이다. 공용경은 1536년(중종 31) 11월 하순, 명나라의 황태자가 태어난 것을 알리기 위해 ‘반황태자조사(頒皇太子詔使)’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이 시는 이때 공용경이 문묘(文廟)에 들러 알묘(謁廟)를 하고 지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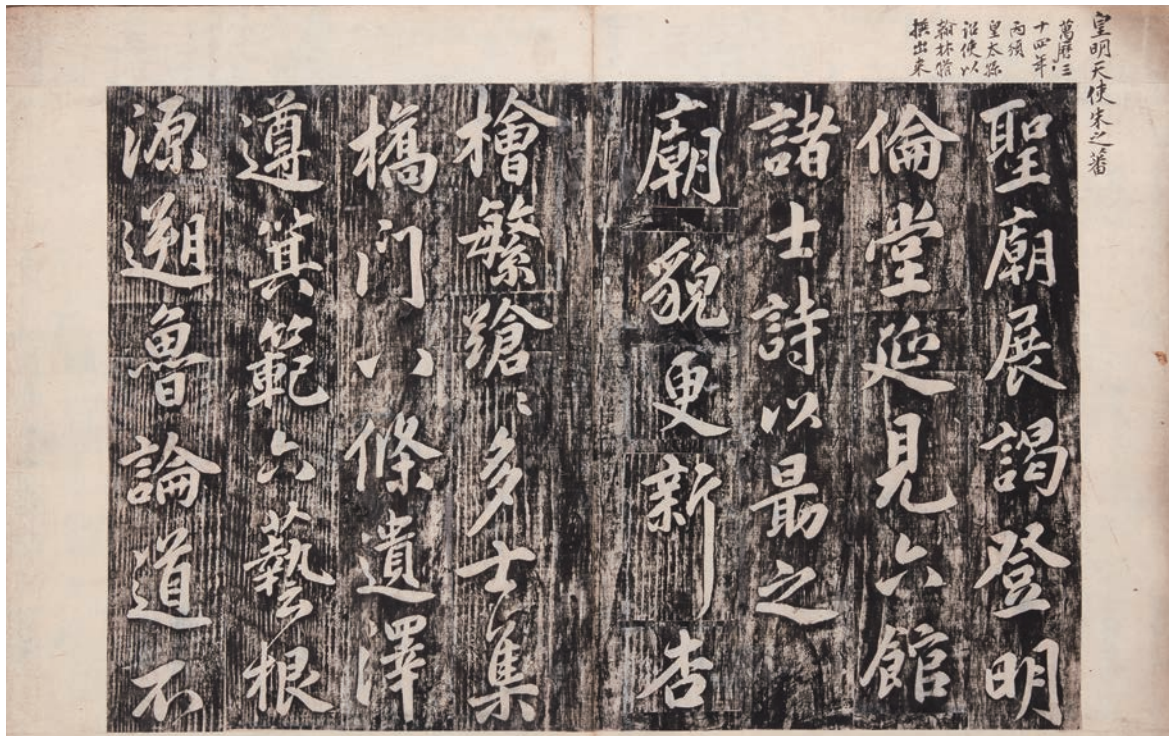
2) 성균관: 원문에는 橋門으로 되어 있다. 고대 태학(太學)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성균관을 의미한다.

3) 흰 신발: 원문은 素履. 무늬 없는 흰색 신발. 『주역』 「천택리(天澤履)의 효사(爻辭)에 “素履, 往, 无咎.”라 하였다. 평소의 도의에 따라 밝아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을 말한다.

4) 푸른 소매: 원문은 青衿. 깃이 푸른 옷으로 유생들이 입는 옷이다. 여기서는 성균관의 유생을 지칭한다.

2 주지번(朱之蕃, 1546~1624)⁵⁾

성균관 명륜당(청구제영 제1첩)



5) 주지번: 명나라 명나라 산둥(山東) 치평(茌平) 사람으로 자는 원개(元介), 호는 난우(蘭岫)이다. 이 작품은 주지번이 조선에 사신으로 왔을 때 지었다. 주지번은 황태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 1606년(선조 39) 4월 10일 한양에 입성하여 4월 20일 한양을 떠나기까지 약 10일 가량 한양에서 머무르며 많은 사람들과 시문을 주고받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다시 복원된 성균관의 '명륜당(明倫堂)' 현판 글씨 역시 이때에 주지번이 쓴 것이다.

皇明天使朱之蕃

萬曆三十四年 丙[午]⁶⁾頒皇太孫詔使 以翰林修撰出來

명나라 사신 주지번

만력 34년 병[오]년(1606) 황태손의 탄생을 알리는 사신(頒皇太孫詔使). 한림수찬 신분으로 조선에 왔다.

성묘에 배알하고 명륜당에 올라 육관⁷⁾의 여러 선비들을 불러 만나보고 시로써 그들을 격려하였다

聖廟展謁, 登明倫堂, 延見六館諸士, 詩以勗之

묘당 모습 더욱 새롭고 은행과 회화나무 무성한데

廟貌更新杏檜繁

절도 있게 걷는 수많은 선비들 태학에 모였다.

踴躋多士集橋門

여덟 조항 남긴 은택 기자(箕子)의 법도 따르고

八條遺澤遵箕範

여섯 기예의 근원은 노론(魯論)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六藝根源溯魯論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니 독실함을 기약하고

道不遠人期慥慥

신령함을 머금은 천성(天性)은 잘 보전함에 있다.

靈含成性在存存

배움을 원할진대 먼저 때로 익혀야 함을 서로 기약하나니

相期願學先時習

강상윤리를 세우고 문한(文翰)의 울타리를 굳세게 하리.

扶植天常壯翰藩

만력병오년(1606) 맹하 13일 금릉 주지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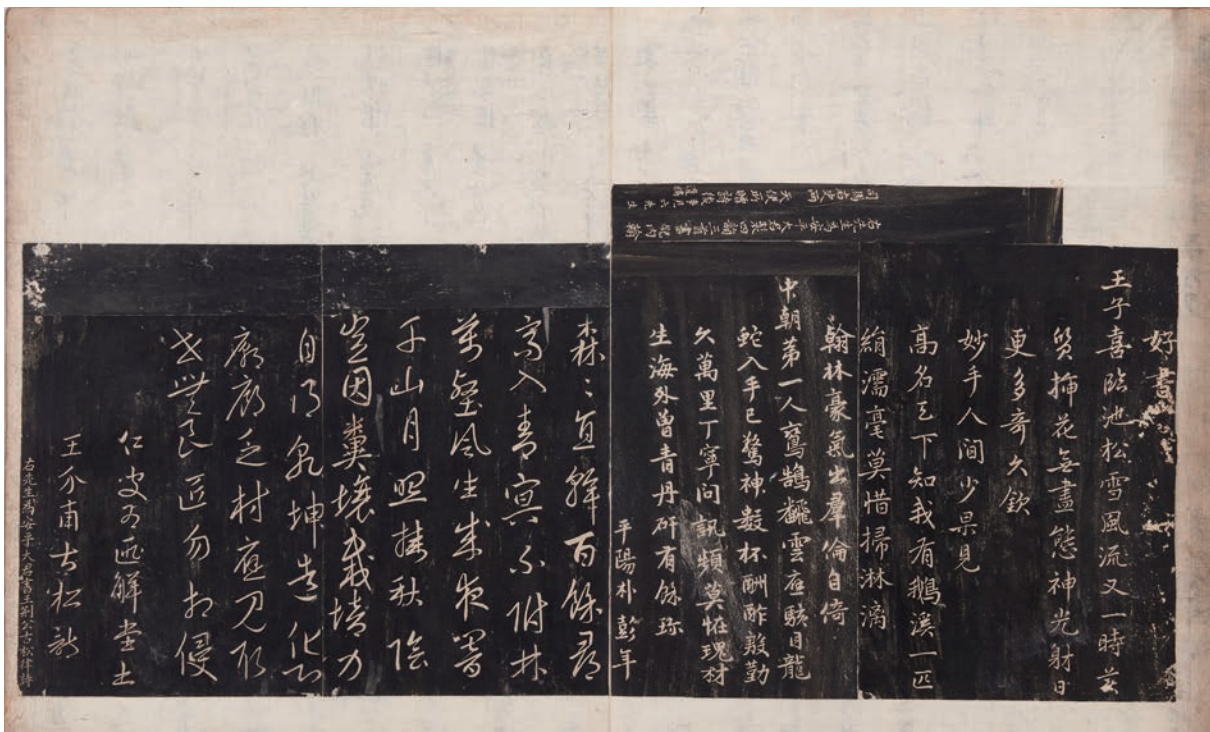
萬曆丙午孟夏十三日 金陵 朱之蕃

6) 원문에는 丙으로만 표기되었으나, 만력34년은 병오년(丙午年)이므로 보완하여 번역에 반영하였다.

7) 육관(六館): 당나라 때 국자감(國子監)에 육관을 설치하였으므로 국자감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성균관을 의미한다.

3 박팽년(朴彭年, 1417~1456)⁸⁾

비해당(匪懈堂)⁹⁾(청구제영 제1첩)



글씨 쓰기 좋아한 왕자께서 즐겨 못에 임하시니
송설의 풍류 또한 한때의 일이었지.
꽃 꽂은 듯한 아름다운 자질 다함없는 자태요
해를 쏘는 듯한 신비한 빛은 신기함 더욱 많아라.
인간 세상에 드문 오묘한 솜씨 오래도록 흠모했는데
드높은 명성 천하에 알려지는 것 과연 보았다.
나에게 아계의 비단 한 필이 있으니
붓을 듬뿍 적셔서 멋지게 글씨 싸는 것 아끼지 마오.

한림¹⁰⁾의 호기가 무리 중에 뛰어나
중국에서 최고라고 스스로 자부했지.
난새와 고니 구름 속에 뒤집으니 응당 눈을 놀라게 하고
용과 뱀이 손에 들어오니 이미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¹¹⁾
여러 잔 주고 받으니 은근함 오래고
만 리 길 간곡하게 안부 자주 묻는다.
아름다운 인재 해외에서 태어난 것 괴이히 여기지 마오,
증청과 단안같은 보배도 남아 있다오.¹²⁾
평양¹³⁾ 박팽년

好書王子喜臨池
松雪風流又一時
美質插花無盡態
神光射日更多奇
久欽妙手人間少
果見高名天下知
我有鵝溪一匹絹
濡毫莫惜掃淋漓

翰林豪氣出群倫
自倚中朝第一人
鸞鵲翻雲應駭目
龍蛇入手已驚神
數杯酬酢殷勤久
萬里丁寧問訊頻
莫怪瑰材生海外
曾青丹矸有餘珍
平陽 朴彭年

8) 박팽년: 본관은 순천,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醉琴軒)으로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학사, 우승지, 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9) 비해당: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853)이 거처하던 집이면서 당호(堂號)이다.

10) 한림(翰林): 조선에 사신으로 온 예겸(倪謙)을 지칭한다.

11) 난새와 고니 …… 들게 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매우 뛰어나서 중국의 사신을 놀라게 했다는 의미이다.

12) 이 시는 예겸(倪謙, 1415~1479)과 사마순(司馬恂)이 1450년(세종 32), 명나라 경제(景帝)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사신으로 왔을 때 지어졌다. 창작 배경에 대해서는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 중에서 「박선생유고朴先生遺稿」에 수록되어 있는 「題倪內翰司馬右史兩天使贈匪懈堂詩帖」에서 서문 형태로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원래는 모두 3수로 된 연작시인데, 『청구제영』에는 제1수와 제3수가 수습되어 있다.

13) 평양(平陽): 순천(順天)의 옛 이름으로, 박팽년의 관향이 순천이다.

右先生爲安平大君製四韻三首書倪內翰司馬右史兩天使所贈詩後【事見『六先生遺稿』】

이 작품은 (박팽년) 선생께서 안평대군을 위해 지은 율시 3수로, 내한(內翰) 예겸(倪謙)과 우사(右史) 사마순(司馬恂) 두 사신이 준 시의 뒤에 적었다. 【이 사적은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에 보인다.】

무성한 곧은 가지 백 여 길이나 되는데
높이 푸른 하늘로 솟아 홀로 우뚝 서있네.
온갖 골짜기에 바람 일면 밤에 소리를 내고
온 산에 달빛 비치면 가을 그림자 걸어놓는다.
어찌 거름으로 북돋아 기른 힘이겠는가,
스스로 천지조화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지.
낭묘에 좋은 재목이 없으면 응당 쓰이리니
세상에 뛰어난 장인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森森直幹百餘尋
高入青冥不附林
萬壑風生成夜響
千山月照掛秋陰
豈因糞壤栽培力
自得乾坤造化心
廊廟乏材應見取
世無良匠勿相侵

인수가 비해당을 위해서 왕개보¹⁴⁾의 「고송」시를 쓰다.

仁叟爲匪懈堂書 王介甫古松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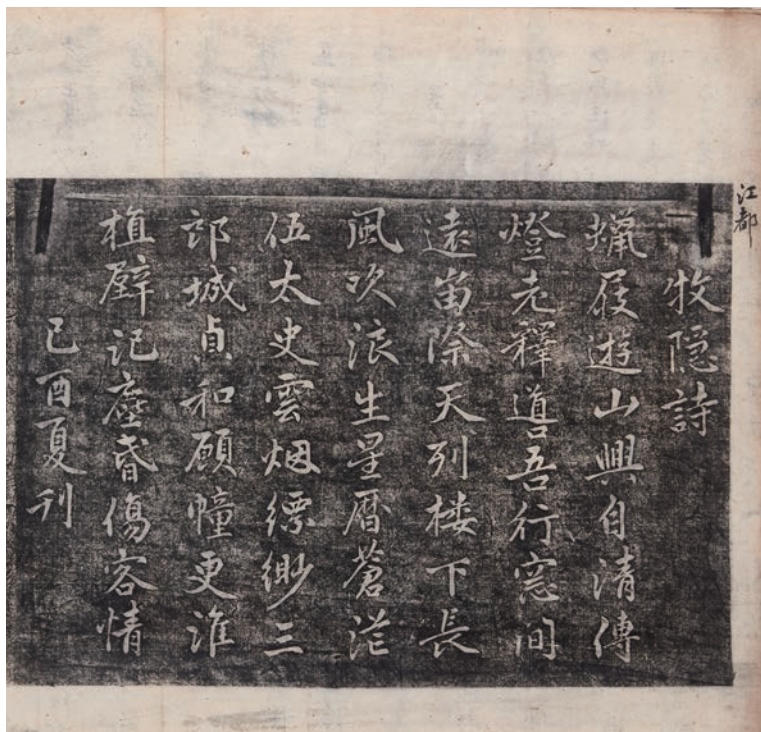
위의 것은 선생께서 안평대군을 위해 왕형공의 「고송」 율시를 쓴 것이다.

右先生爲安平大君書 王荊公古松律詩

14) 왕개보(王介甫): 왕안석(王安石, 1026~1086)을 지칭한다. 송나라 때의 문신이면서 명문장가로 당송팔대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신종 때 발탁되어 신법(新法)을 주도함으로써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다.

4 이색(李穡, 1328~1396)¹⁵⁾

강화(江華) 진해루(鎭海樓)¹⁶⁾(청구제영 제1첩)



江都

강화도

목은시

牧隱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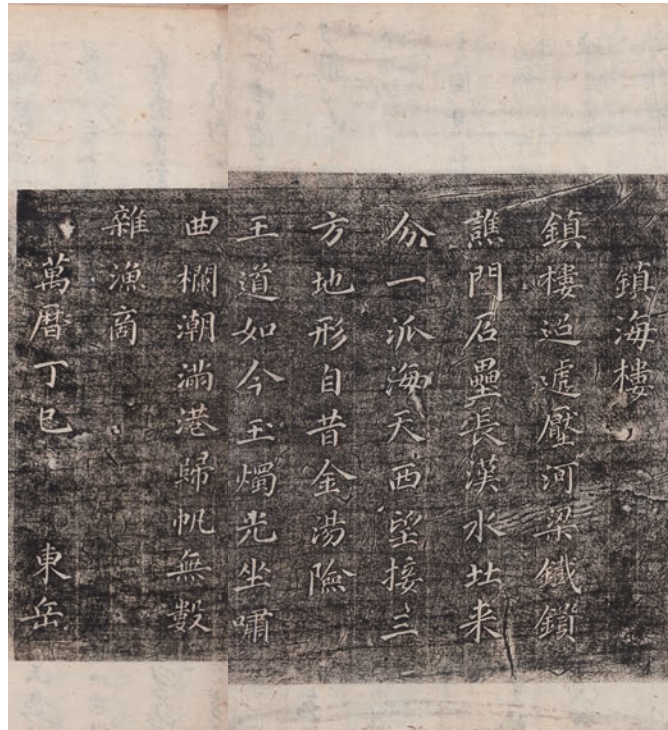
납극¹⁷⁾ 신고 산에 노니니 흥취 절로 맑아
전등사 늙은 스님 나의 산행 인도한다.
창문 사이 먼 산봉우리 하늘 끝에 벌여있고
누각 아래 긴 바람 물결 불러 일으킨다.
별자리 돌고 돌아 아득하니 오태사¹⁸⁾ 생각나고
구름 안개 자욱하니 삼랑성¹⁹⁾ 우뚝하다.
정화공주 원당²⁰⁾은 누가 다시 세우랴?
벽의 시문에 먼지 자욱하여 나그네 마음 아프게 한다.

蠟屐游山興自清
傳燈老釋導吾行
窓間遠岫際天列
樓下長風吹浪生
星曆蒼茫伍太史
雲煙縹緲三郎城
貞和願幢更誰植
壁記塵昏傷客情

기유년(1369) 여름 판각

己酉夏刊

- 15) 이색: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조선에 협조하지 않아 여주, 장흥 등으로 유배되었다가, 1396년(태조 5) 여강(驪江)으로 가던 도중에 죽었다. 이 작품은 『목은집』에 「傳燈寺」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때에 이색은 1369년(공민왕 18) 과거시험을 관장하며 신진관료들을 선발하는 일을 하던 중 강화도 전등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 16) 진해루(鎭海樓): 강화도의 외성(外城) 문루(門樓) 중의 하나로, 갑곶나루를 통해 내륙에서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고려 고종 때 축조된 외성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어 숙종 때 다시 전면 축조되었다.
- 17) 납극(蠟屐): 나막신에 밀랍을 칠해서 매끈하게 만든 것으로, 진(晉)의 완부(阮孚)의 고사에 나온다.
- 18) 오태사(伍太史): 고려 시대 태사국(太史局)의 관원이자 충신인 오윤부(伍允孚, ?~1304)를 말한다. 충렬왕 때 공주가 여러 신하들을 불러 궁실을 짓게 하자 불길하여 택일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파직 당했다.
- 19) 삼랑성(三郎城):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쌓았다고 하는 강화도의 성이다.
- 20) 정화공주 원당(願幢): 충렬왕의 왕비인 정화공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공덕을 바치면서 세운 석당(石幢)을 말한다.



진해루

진해루 아득하여 강의 다리 압도하고
 망루의 문은 잠겨있고 돌로 만든 보루는 길다.
 북에서 흘러오는 한강은 한 줄기 나누어지고
 바다 하늘 서쪽 바라보니 세 지역이 접해있다.
 땅의 형세는 예부터 힘준한 금성탕지(金城湯池)²²⁾라
 왕도(王道)는 여전히 촛불처럼 빛난다.²³⁾
 굽은 난간에 앉아 휘파람 부니 조수는 항구에 가득한데
 무수히 돌아오는 배에 어부와 상인이 뒤섞여있다.

만력 정사년(1617) 동악

鎮海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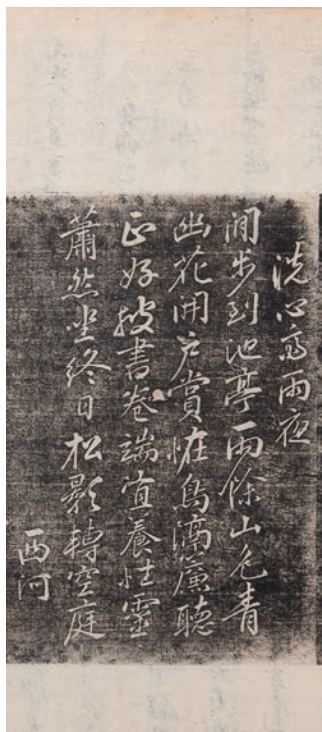
鎮樓迢遞壓河梁
 鐵鎖譙門石壘長
 漢水北來分一派
 海天西望接三方
 地形自昔金湯險
 王道如今玉燭光
 坐嘯曲欄潮滿港
 歸帆無數雜漁商

萬曆丁巳 東岳

21) 이안눌: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이다. 1599년(선조 32)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부서의 좌랑(佐郎)을 지냈으며, 명나라에 사신으로 여러 차례 다녀왔다. 시문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다. 이 작품은 이안눌의 문집 『동악집』에 「鎮海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2) 금성탕지(金城湯池): 쇠로 만든 성과 펄펄 끓는 못이라는 뜻으로, 견고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23) 촛불처럼 빛난다: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세심재의 밤비

한가로이 걷다가 못 옆 정자에 이르르니
 비 온 뒤 산빛이 푸르러라.
 그윽한 꽃은 문 열고 감상하고
 괴이한 새소리 주렴 너머에서 들려온다.
 책 펼치기 진정 좋은 때요,
 성령(性靈) 기르기 적당하구나.
 조용히 종일토록 앉아있으니
 솔 그림자 빈 뜨락을 돌아간다.

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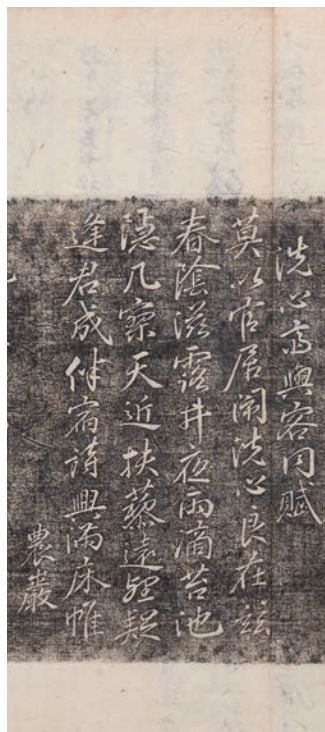
洗心齋雨夜

閑步到池亭
 雨餘山色青
 幽花開戶賞
 怪鳥隔簾聽
 正好披書卷
 端宜養性靈
 蕭然坐終日
 松影轉空庭

西河

24) 이민서: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이증(彝仲), 호는 서하(西河)이다. 정언, 지평, 교리 등을 시작으로 대사간, 대제학, 예조 및 호조, 이조의 판서를 지냈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다. 이 작품은 이민서가 1683년(숙종9) 강화부유수로 재임하던 때에 지어졌다. 그의 문집인 『서하집』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5) 세심재(洗心齋): 강화부(江華府) 관아 안에 있던 건물.



세심재에서 손님과 함께 짓다

관청이 소란하다 말하지 마오,
마음 씻을 곳 진실로 여기 있나니.
봄날 흐려서 우물물 불어나고
밤비는 이끼 낀 못에 떨어진다.
안석(案席)에 기대면 아득한 하늘 가깝고²⁷⁾
청려장 짚고 나서면 깊은 골짜기인 듯.
그대 만나서 함께 묵으니
시흥(詩興)이 이 방에 가득하구려.

농암

洗心齋與客同賦

莫以官居鬧
洗心良在茲
春陰滋露井
夜雨滴苔池
隱几寥天近
扶藜遠壑疑
逢君成伴宿
詩興滿牀帷

農巖

26) 김창협: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안동,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이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대사간, 대사성 등을 거쳐 청풍부사로 있을 때인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아버지인 김수항이 사사(賜死)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였다. 성리학에도 뛰어났으며 시문과 글씨에도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은 김창협의 문집인 『농암집農巖集』에 「洗心齋用池字, 與成進士環同賦」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7) 안석에 기대면~가깝고: ‘안석에 기대고’의 원문은 은궤(隱几)로, 이는 책상이나 안석에 기대는 뜻이다. 『장자莊子』에서 좌망(坐忘)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자세이다. ‘아득한 하늘’의 원문은 요천(寥天)인데, 이는 아득하고 먼 하늘이라는 뜻으로 『장자』에서 텅 비어 있는 허무(虛無)의 경지를 의미한다.



세심재, ‘지(池)’자 운으로 짓다.

바닷가 마을에 아득히 비 내리다
 날이 개자 맑디맑은 못 하나.
 한가한 세심재엔 밝은 해 비치고
 아름다운 새 스스로 높은 가지에 앉아있다.
 일 밖에 먼 산 푸르고
 눈 안에 가느다란 풀 무성하여라.
 조용하여라 손님과 주인의 뜻이여,
 오언시에 솟구치는 흥을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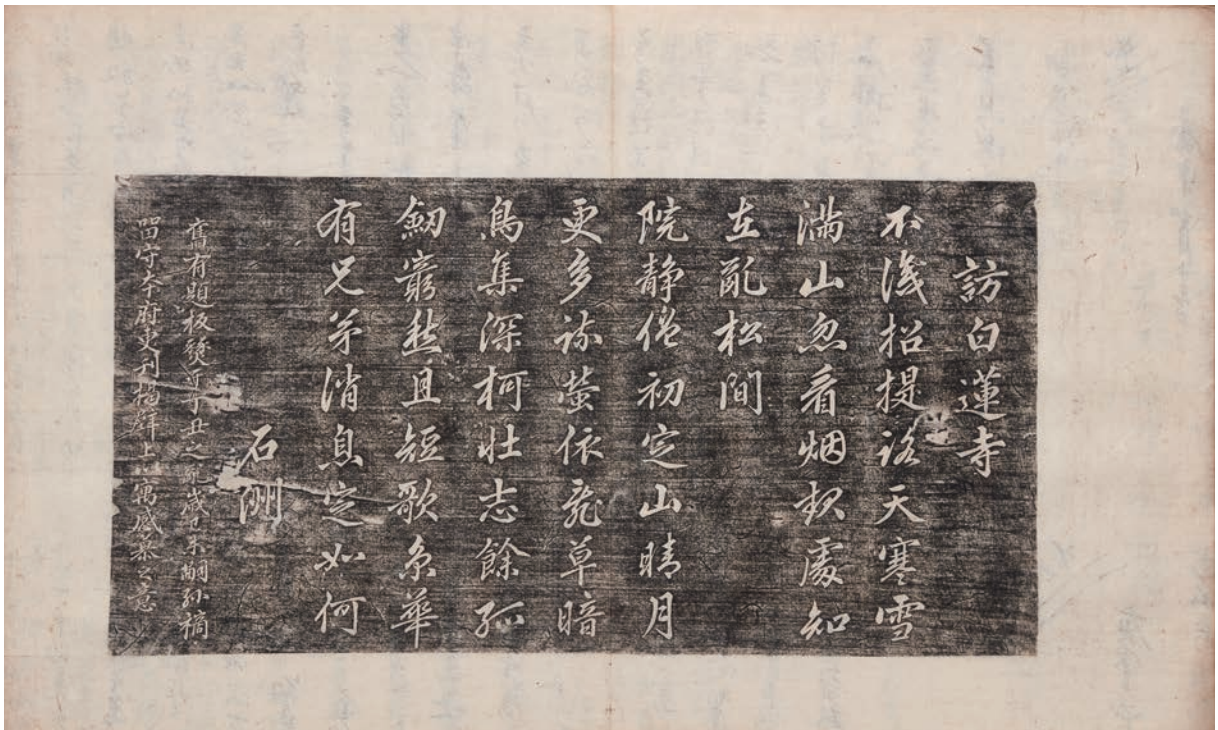
삼연

洗心齋得池字

海國茫茫雨
 晴來湛一池
 閒齋有白日
 好鳥自高枝
 事外遙山綠
 眠中細草滋
 蕭然賓主意
 漫興五言詩

三淵

28) 김창흡: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학자로, 앞에 나온 김창협과 동생이다. 호가 삼연(三淵)이다. 형인 김창협과 마찬가지로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항이 사사(賜死)되자 영평, 강원도 설악산 등지에 은거하여 성리설을 연구하고 많은 시문을 지었다. 이 작품은 김창흡의 문집인 『삼연집三淵集』에 「沁州洗心齋得池字」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심주(沁州)’는 강화도의 옛 이름이다.



백련사를 찾아가다

절로 가는 길을 몰랐나니,
 날은 춥고 눈은 산에 가득.
 문득 연기 일어나는 곳을 보자
 어지러운 숲 사이에서 있는 걸 알겠네.

절은 고요하고 스님은 막 선정에 들었는데
 산 맑아지자 달은 더욱 빛난다.
 성근 반딧불이는 어지러운 풀 사이에 앉아있고
 밤새는 무성한 나뭇가지에 모여 있다.
 장쾌한 뜻은 외로운 검에 남아있고
 곤궁한 시름은 또한 짧은 노래에 부친다.
 서울에 형제들 있지만
 소식은 진정 어떠한지.
 석주

舊有題板，燹于丁丑之亂，歲己未，嗣孫禧 留守本府更刊，揭壁上以寓感慕之意。

옛날에 시를 쓴 시판이 있었는데 정축년 난리에 불탔다. 기미년(1739)에 후손 권적이 본 부에 유수로 부임하여 다시 새겨 벽 위에 걸어 감격스럽고 사모하는 뜻을 부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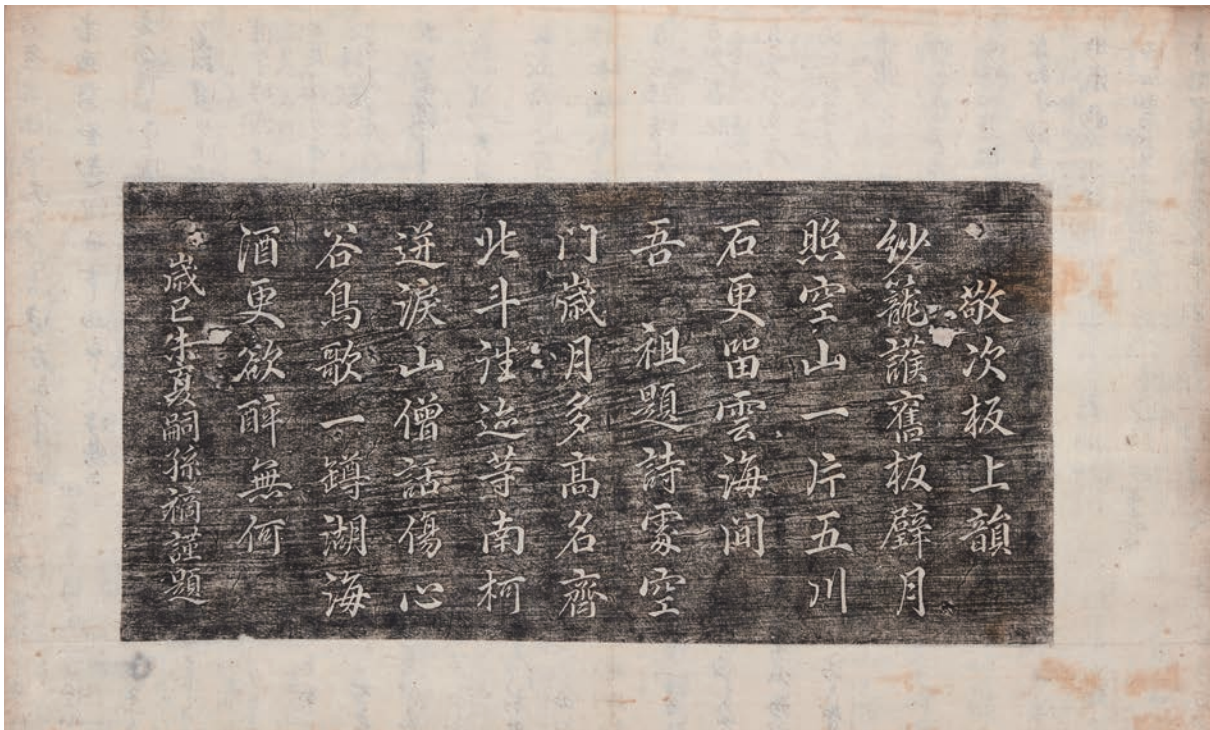
訪白蓮寺

不識招提路
 天寒雪滿山
 忽看烟起處
 知在亂松間

院靜僧初定
 山晴月更多
 踈螢依亂草
 暗鳥集深柯
 壯志餘孤劍
 窮愁且短歌
 京華有兄弟
 消息定如何
 石洲

29) 권필: 본관은 안동,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이다. 벼슬을 싫어하여 평생 포의(布衣)로 지냈으며, 강화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 두 작품은 권필의 문집인 『석주집石洲集』에 「白蓮寺, 訪鄭德容林子慎」, 「白蓮寺夜坐書懷」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30) 백련사(白蓮寺):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려산 산록에 위치한 사찰이다. 고구려 장수왕 때 인도 승려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공경하게 시판의 시에 차운하다

敬次板上韻

비단으로 감싸서 옛 시판³²⁾ 보호하고
 옥 같은 달빛은 텅 빈 산을 비친다.
 한 조각 오천³³⁾의 바위
 다시 구름 낀 바다 부근에 머문다.

紗籠護舊板
 璧月照空山
 一片五川石
 更留雲海間

우리 선조 시를 쓰신 곳
 공문엔 오랜 세월 흘렀다.
 높은 명성은 북두(北斗)와 같고
 지난 자취는 남가일몽(南柯一夢) 같아라.
 눈물 흘리며 산승(山僧)과 대화하고
 마음 아픈데 산새는 노래한다.
 한 동이 강호에서의 술로
 다시금 근심 없는 곳에서 취하고 싶어라.

吾祖題詩處
 空門歲月多
 高名齊北斗
 往迹等南柯
 迸淚山僧話
 傷心谷鳥歌
 一罇湖海酒
 更欲醉無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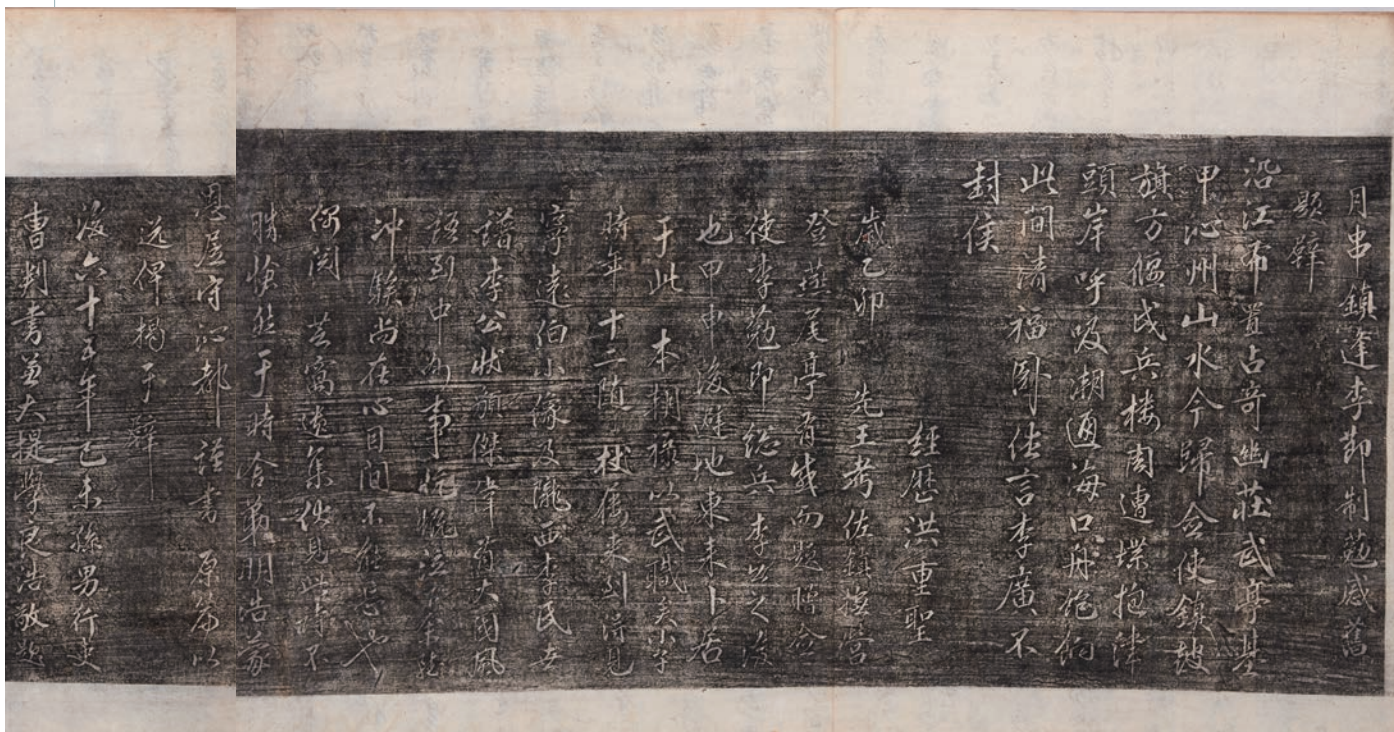
기미년(1739) 여름 후손 권적 삼가 쓰다.

歲己未夏 嗣孫權 謹題

31) 권적: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경하(景賀), 호는 창백헌(蒼白軒)·남애(南厓)·계형(繼亨) 등이 있다. 정언, 수찬, 교리, 대사간,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호성이 지극하여 정문(旌門)을 받았으며, 1745년(영조21)에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32) 옛 시판: 앞에 나온 권필의 시를 새겨놓은 시판을 말한다.

33) 오천(五川): 권필이 강화도에서 살 때, 오천에 초당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월곶진에서 절제사 이면을 만나 옛일을 생각하며 벽에 걸다

月串鎮逢李節制勉感舊題壁

강 따라 펼쳐져서 기이하고 그윽한 곳 점유했으니
장무정 터는 심주(沁州)에서도 최고로다.
산수는 이제 침사의 진(鎭)으로 돌아왔고
북과 깃발은 바야흐로 수자리 병사들의 망루에 누웠네.
사방 둘러싼 성가퀴는 나루터 언덕을 감싸고
드나드는 조수는 해구(海口)의 배를 통하게 하네.
이 사이에서 맑은 북 듬뿍 누리며 누웠으니
이광(李廣)이 제후에 봉해지지 못한 일 말하지 마오.

沿江布置占奇幽
莊武亭基甲沁州
山水今歸僉使鎭
鼓旗方偃戍兵樓
周遭堞抱津頭岸
呼吸潮通海口舟
飽餉此間清福臥
休言李廣不封侯

경력 홍중성

經歷 洪重聖

34) 홍중성: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군칙(君則), 호는 운와(芸窩)이다. 1696년(숙종 22) 진사시에 급제한 뒤 세자익위사 세마, 공조 및 호조 정랑 등을 거쳐서 강화경력(江華經歷)을 지내는 동안 재임 중에 사망하였다. 이 작품은 홍중성의 문집 『운와집芸窩集』에 「月串鎮逢李節制勉感舊題壁」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35) 연미정(燕尾亭):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에 있는 정자로, 건립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고려 고종 때 구재(九齋)의 생도들을 모아 놓고 하과(夏課)를 시행한 곳이라고 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파손된 것을 1744년(영조 20) 강화부유수 김시혁이 중건하였고, 1891년(고종 28) 조동면(趙東冕)이 중수하였다. 한국전쟁 때 파손되었는데, 1976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歲乙卯 先王考佐鎮撫營，登燕尾亭，有感而題，贈僉使李勉，卽總兵李公之後也。甲申後避地東來卜居于此，本朝祿以武職矣。小子時年十二，隨杖屨，來到得見寧遠伯小像及隴西李氏世譜，李公狀貌傑偉，有大國風。語到中州事，忼慨泣下。余雖冲駿，尙在心目間，不能忘也。偶閱『芸窩遺集』，伏見此詩，不勝愴然。于時舍弟明浩蒙恩居守沁都，謹書原篇以送，俾揭于壁。

後六十五年己未，孫男行吏曹判書兼大提學良浩 敬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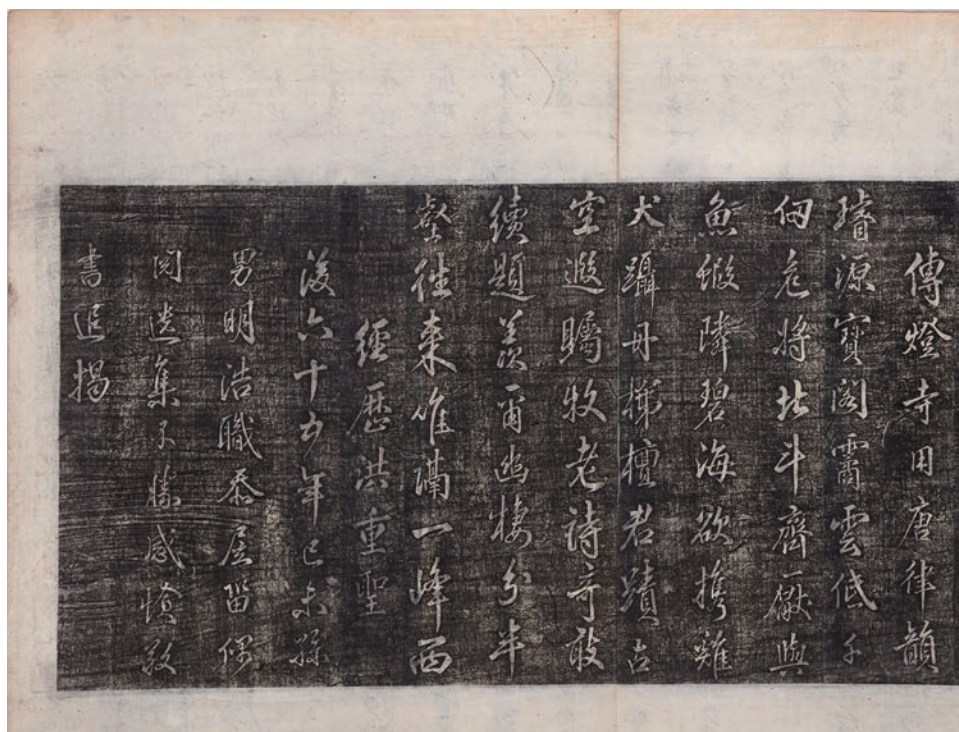
을묘년 선왕고(先王考)³⁶⁾께서 진무영(鎭撫營)³⁷⁾을 돕고 계실 때 연미정에 올라 느낀 바가 있어 시를 지어 첨사(僉使) 이면(李勉)에게 주었으니, 그이는 바로 총병(總兵) 이공(李公)³⁸⁾의 후손이었다. 갑신년 이후 피난을 갔다가 동쪽으로 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으니, 우리 조정에서 무직(武職)으로 근무를 했다. 나는 당시 열두 살이었는데, 어른을 모시고 이곳에 와서 영원백(寧遠伯)의 작은 초상과 농서이씨(隴西李氏)의 세보(世譜)를 보았다. 이공의 모습은 자못 영결차고 뛰어나서 대국의 품모가 있었다. 이야기가 중국의 일에 이르자 강개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내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아직도 마음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연히 『운와유집』을 살피다가 이 시를 삼가 보게 되자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이때 동생 명호(明浩)가 강화도를 담당하는 자리에 임명되어 삼가 원래의 시를 써서 보내어 벽에 걸어놓도록 하였다.

시가 지어진 지 65년 뒤인 기미년(1799), 손자 행이조판서겸대제학 양호가 공경히 씀.

36) 선왕고(先王考): 돌아가신 할아버지. 홍중성은 홍양호의 조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37) 진무영(鎭撫營): 조선 시대 해상 방어를 맡은 군영으로, 그 본영(本營)은 강화도에 있었다. 홍중성이 강화경력(江華經歷)의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였다.

38) 총병(總兵) 이공(李公):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돕기 위해 파병되었던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 1549 ~ 1598)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여송의 자는 자무(子茂), 호는 양성(仰城)으로, 임진왜란 당시 방해어왜총병관(防海禦倭總兵官)으로 임명되어 파병되었다. 그의 사후 소보영원백(少保寧遠伯)에 봉해졌다.



전등사 당시의 운자를 써서 짓다.

傳燈寺用唐律韻

선원보각⁴⁰⁾에 상서로운 구름 낮게 드리우고
천 길 아스라한 장대(將臺)는 북두칠성과 나란하다.
물고기와 새우와 함께 바다를 이웃하기 싫고
닭과 개를 데리고 붉은 계단 오르고 싶어라.
단군의 옛 자취는 부질없이 멀리 보이고⁴¹⁾
목은 노장의 시⁴²⁾ 기이하니 어찌 감히 뒤이어 지으랴.
부러워라, 그윽한 집은 골짜기를 반이나 나누어 가졌으니
왕래하매 그저 한 봉우리 서쪽만 사이하고 있을 뿐.⁴³⁾

璿源寶閣靄雲低
千仞危將北斗齊
厭與魚蝦隣碧海
欲携雞犬躡丹梯
檀君蹟古空遐曠
牧老詩奇敢續題
羨爾幽棲分半壑
往來唯隔一峰西

경력 홍중성

經歷 洪重聖

後六十五年己未, 孫男明浩, 職忝居留, 偶閱遺集, 不勝感愴, 敬書追揭.

65년 뒤 기미년(1799), 손자 명호가 강화유수로 부임하여 우연히 남기신 문집을 살피다가 느껴온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공경히 써서 뒤따라 걸다.

39) 전등사(傳燈寺): 인천광역시 강화군 정족산성 안에 있는 사찰.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이 전하지만 고려 이전의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고려 충렬왕의 비인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옥등(玉燈)을 시주한 데에서 '전등사'라는 이름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40) 선원보각: 전등사가 위치한 정족산성에는 실록과 함께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을 보관하는 선원보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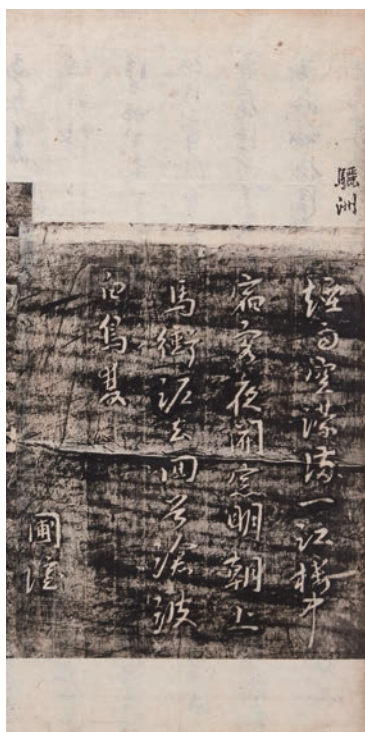
41) 단군의 보이고: 강화도에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하는 삼랑성(三郎城)이 있다.

42) 목은 노장의 시: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傳燈寺」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바가 있다. 『청구제영』 제1첩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43) 이 작품은 홍중성의 문집 『운와집』에 「傳燈寺用唐律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두 2수로 된 연작시인데, 위의 시는 그 중 제1수이다. 이 시판은 홍양호의 동생 홍명호(洪明浩, 1736~1819)가 조부 홍중성의 시를 새긴 것이다.

13 정몽주(鄭夢周, 1337~1392)⁴⁴⁾

여주(驪州) 청심루(淸心樓)⁴⁵⁾(청구제영 제1첩)



여주

驪洲

안개 비 허공에 흩뿌려 온 강에 가득한데
누각 안에 머무는 나그네, 밤에 창을 열었다.
내일 아침 말에 올라 진흙땅 차며 떠나다가
고개 돌리면 푸른 물결에 흰 갈매기 쌍쌍이 노닐겠지.⁴⁶⁾

煙雨空濛滿一江
樓中宿客夜開窓
明朝上馬衝泥去
回首滄波白鳥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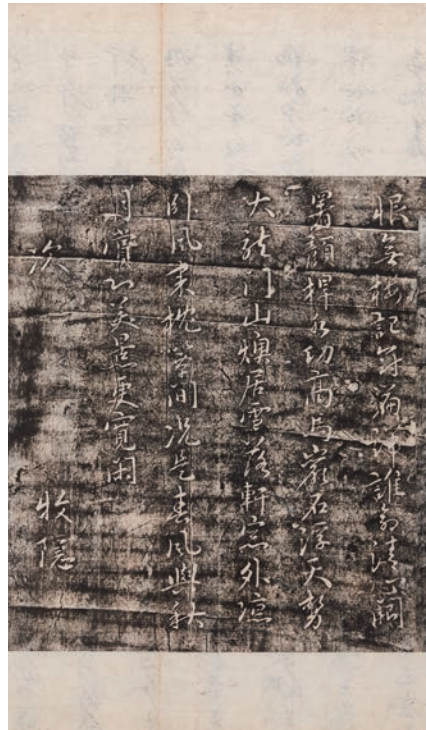
포은

圃隱

44) 정몽주: 고려 말의 문신이자 성리학자로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1350년(충정왕 2)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나온 이후 문하찬성사, 예문관제학, 인물추변도감제조관 등을 역임하였다. 명나라와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이방원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45) 청심루(淸心樓) : 현재의 경기도 여주시 창동 여주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누정으로, 여주 관아의 객관(客館) 역할을 하던 건물이다. 여강을 바라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강정(江亭)으로도 병칭되었다.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3세기의 문인인 이규보(李奎報)의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때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46) 이 작품은 정몽주의 문집 『포은집(圃隱集)』에 「題驪興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수로 된 연작시인데, 이 탁본첩에서는 제2수만 수습되어 있다.



첫머리에 누정기(樓亭記) 없는 것 한스러운데
누가 청심(淸心)이라 명명하고 글을 빠뜨렸을까?
물을 막아 공이 높은 것은 마암석⁴⁷⁾이요
하늘에 떠서 형세 큰 것은 용문산⁴⁸⁾이라.
따스하게 살 때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시원하게 누웠을 때는 대자리 사이로 바람 불어온다.
하물며 봄바람과 가을 달 안에서
아름다운 경치 감상하는 마음⁴⁹⁾ 더욱 느긋하고 한가로움에랴.⁵⁰⁾

恨無樓記冠篇端
誰命淸心闕署顏
捍水功高馬巖石
浮天勢大龍門山
燠居雪落軒窓外
涼臥風來枕簟間
況是春風與秋月
賞心美景更寬閑

목은

牧隱

- 47) 마암석(馬巖石): 지금의 경기도 여주(驪州)를 흐르는 여강(驪江)에 있는 바위로, 누런 망아지가 물에서 나왔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있다.
- 48) 용문산(龍門山): 지금의 경기 양평군 용문면(龍門面)과 옥천면(玉泉面) 경계에 있는 산.
- 49) 아름다운 경치와 감상하는 마음: 원문은 상심(賞心)과 미경(美景)이다. 감상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으로, 좋은 계절(良辰)과 즐거운 일(樂事)을 합쳐서 보통 사미(四美)로 일컫는다.
- 50) 이 작품은 『목은시고』에 『驪興淸心樓題次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두 4수로 된 연작시인데, 위의 시는 제2수이다. 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이색이 여러 차례 이곳을 지나면서 청심루에 걸려있는 시판을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마침 여주군수를 지내고 있는 단련사(團練使) 이공(李公)의 부탁으로 차운시를 지었다고 한다.



차운하다

次

백 척 높은 누각 구름 끝에 꽃혀 있어
호기로운 원룡(元龍)의 옛 얼굴 보는 듯하여라.
배 옮겨 흰 새 놀라게 하지 마오,
마땅히 홀(笏)로 턱을 괴고 푸른 산을 보리니.⁵²⁾
학은 밝은 달을 따라 하늘로 돌아가고
용은 여의주를 품고 물속에서 잠을 잔다.
감호(鑑湖)를 하사받는 것⁵³⁾은 생각하기 어려우니
산을 사서 끝내 이곳에 와서 한가로이 지내고 싶어라.

樓高百尺挿雲端
豪氣元龍似舊顏
莫遣移舟驚白鳥
也宜拄笏看青山
鶴隨明月歸天上
龍抱光珠睡水間
天錫鑑湖難自料
買山終欲此來閑

서거정

徐居正

51) 서거정: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로, 본관은 대구,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 정정정(亭亭亭) 등이 있다. 23년 동안 문형(文衡)을 잡은 대표적인 문장가로 많은 저술을 남겼다. 홍문관부수찬, 공조참의, 예조참판,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이 작품은 서거정의 문집인 『사가시집四佳詩集』에 「次驪州淸心樓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52) 마땅히 …… 보리니: 이 부분은 환온(桓溫)의 참군(參軍)으로 있던 왕자유(王子猷)가 환온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홀(笏)로 턱을 괴고 앉아서 서산의 서늘한 기운을 말했다는 고사인 '주휴간산(拄笏看山)'을 빌려온 표현이다. 즉 관직에 있으면서도 한가로운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말한다.

53) 감호를 하사받는 것: 감호(鑑湖)는 중국 절강성에 있는 호수로, 경호(鏡湖)라고도 한다. 당(唐) 현종(玄宗) 때 하지장(賀知章)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현종이 감호의 섬계(剡溪) 한 구비를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띠풀집 가시 울타리 끝에 배를 매었으니
물고기와 새들이 어찌 일찍이 내 얼굴 알았으랴.
병 뒤에 오히려 지팡이와 신을 갖출 수 있었나니
귀양 와서야 겨우 강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십 년 세상일은 외로이 읊조리는 속에 지냈고
팔월 가을 모습은 어지러운 나무 사이에 있구나.
잠깐 난간에 기대 북쪽을 바라보는데
뱃사공이 배 오르기를 재촉하며 한가롭지 못하게 한다.

점필재 김종직

維舟茆⁵⁵⁾舍棘籬端
魚鳥何曾識我顏
病後猶能撰杖屨
謫來纔得賞江山
十年世事孤吟裏
八月秋容亂樹間
一雲倚欄⁵⁶⁾仍北望
篙師催載不教閑

佔畢齋 金宗直

54) 김종직: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로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효관(孝鑑) 또는 계운(季畛), 호는 점필재(佔畢齋)이다. 조선 사림파의 조종으로 추앙되었으며, 그가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 때문에 사후 무오사화를 일으키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시문에 뛰어났다. 이 작품은 김종직의 문집 『점필재집(佔畢齋集)』에 「病後將赴善山舟過驪州步履登清心樓不與主人遇徑還舟中忽忽次稼亭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병을 앓고 난 뒤 선산(善山)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여주(驪州)를 지나다가, 걸어서 청심루에 올랐으나, 주인과 만나지는 않고 곧장 배 안으로 돌아와서 서둘러 가정(稼亭) 이곡(李穀)의 운을 빌려서 지었다는 뜻이다.

55) 茆: 『점필재집』에는 茅로 되어 있다.

56) 欄: 『점필재집』에는 闌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 올라 좋은 시구(詩句) 없어도 괜찮지만
 속세에 찌든 내 얼굴이 물고기와 새를 놀라게 할까 두렵구나.⁵⁸⁾
 나무 무성한 가운데 신록사 앞의 탑,
 아스라이 떠있는 가운데 양근 땅 성 밖의 산.
 강가 길은 휘어져 반달처럼 둘러있고
 여울물은 빨라서 황간(黃間)⁵⁹⁾을 쓴 듯하다.
 조각배에서 또 돌아가자 재촉 받으니
 덧없는 인생 종일토록 한가한 시간 없구나.

음취헌 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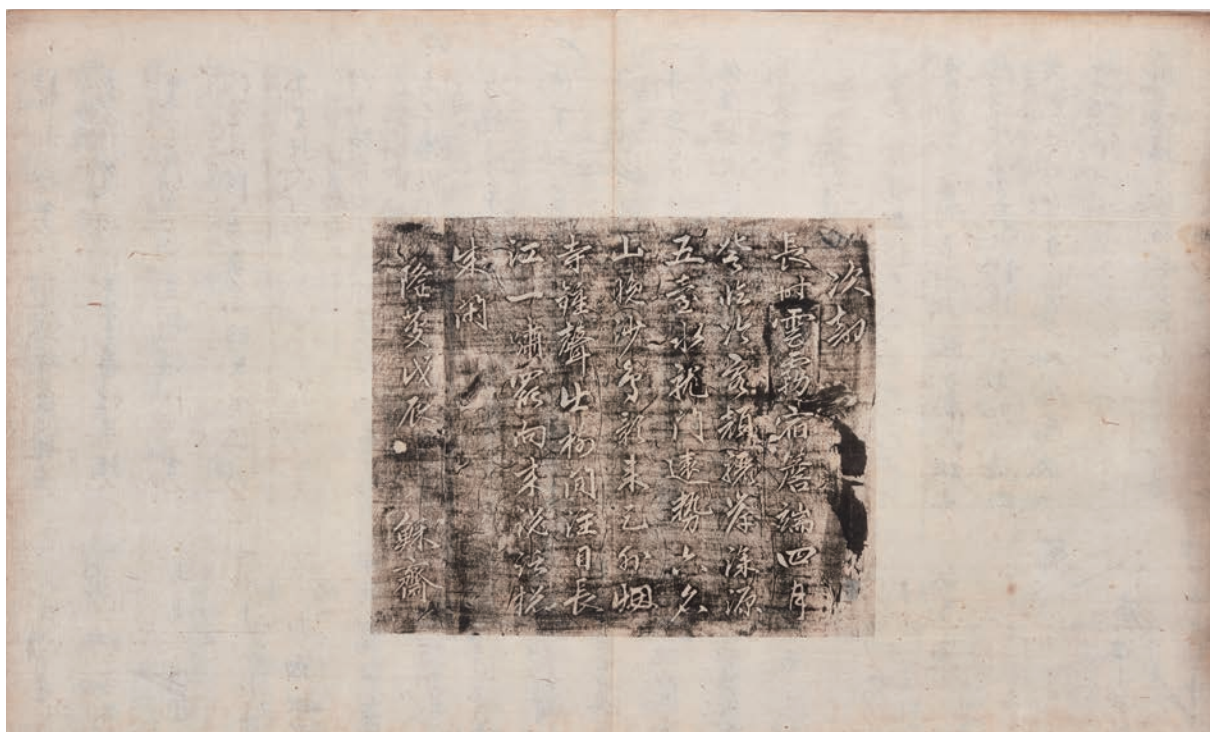
可使登臨無好句
 恐教魚鳥駭塵顏
 鬱蔥神勒寺前塔
 縹緲楊根郭外山
 江路迂如環半月
 灘流疾似發黃間
 扁舟又被催歸去
 未遣浮生終日閒

揖翠軒 朴闇

57) 박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로 본관은 고령, 자는 중열(仲說), 호는 음취헌(揖翠軒)이다. 승문원 권지, 경연관 등을 지냈다. 유자광 일파에 의해 파직되었고, 이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했다. 이 작품은 문집인 『음취헌유고揖翠軒遺稿』에 「壬子 自神勒寺下 棹舟登淸心樓 次牧隱韻」으로 수록되어 있다.

58) 이곳에 …… 두렵구나: 두보(杜甫)의 시 「春水生」에 “사람됨이 좋은 시구를 몹시도 좋아하여 시구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가 아니면 죽어도 쉬지 않노라. 늙어 가매 시편이 모두 속절없는 흥뿐이니, 봄이 오매 꽃과 새들은 깊이 시름하지 말라.”(爲人性僻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 老去詩篇渾漫興, 春來花鳥莫深愁.)고 하였다. 이는 꽃과 새들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 작품을 인용하여 박은은 청심루처럼 좋은 곳에 올라서 좋은 시구를 짓지 못하니 물고기와 새들이 자신의 속전에 찌든 얼굴을 보고 놀라게 할까 두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59) 황간(黃間): 매우 강한 쇠뇌로, 황견(黃肩)이라고도 한다. 한나라의 이광(李廣)이 황간으로 활을 잘 쏘았다고 한다. 여기서는 쇠뇌로 쏘는 매우 빠른 화살을 의미한다.



차운하다

次韻

오랫동안 구름 안개는 처마 끝에서 머물러
사월에 올랐는데도 나그네 얼굴 서늘하다.
여강 언덕 깊은 물은 오대산에서 오는 물이요⁶¹⁾
용문산 먼 산세(山勢)는 여섯 명산에서 받은 것.
저물녘 모랫벌에 새 그림자는 하늘 밖에서 날아오고
안개 낀 절 종소리는 숲 속에서 들려온다.
긴 강에 눈길 주며 한바탕 휘파람 끝내니
이전 이야기 모두 한가로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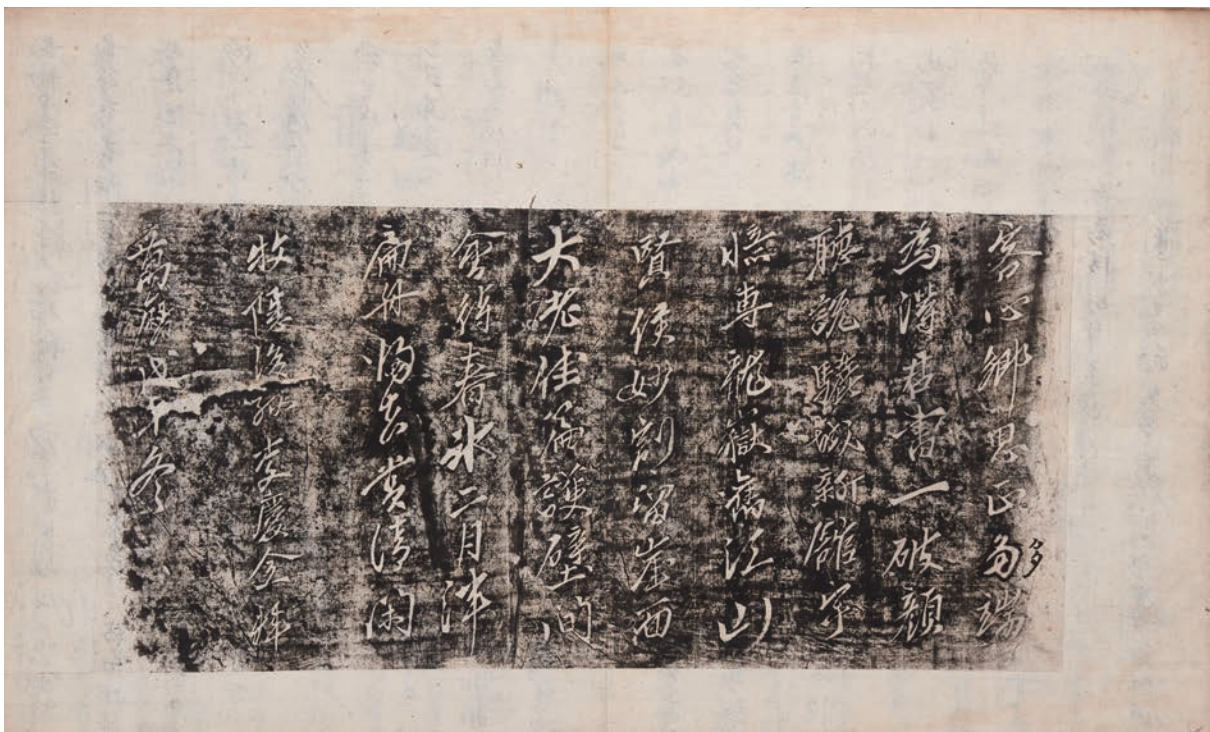
長時雲霧宿簷端
四月登臨冷客顏
驪岸深源五臺水
龍門遠勢六名山
晚沙鳥影來天外
烟寺鐘聲出樹間
注目長江一嘯罷
向來說話總成閑

용경 무진년(1568) 소재

隆慶戊辰 蘇齋

60) 노수신: 조선전기 문신이자 문장가로,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蘇齋) 이재(伊齋) 암실(暗室) 여봉노인(茹峰老人) 등이다. 정언, 교리, 대사헌, 이조판서, 영의정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을사사화와 관련하여 19년간 귀양살이를 했으며, 양명학을 연구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장과 글씨에 능했다. 이 작품은 노수신의 문집 『소재집蘇齋集』에 『淸心樓次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두 2수의 연작시인데, 이 작품은 제1수이다.

61) 여강 언덕 …… 물이요: 오대산 우통수(于筒水)에서 발원한 물이 남한강의 원류라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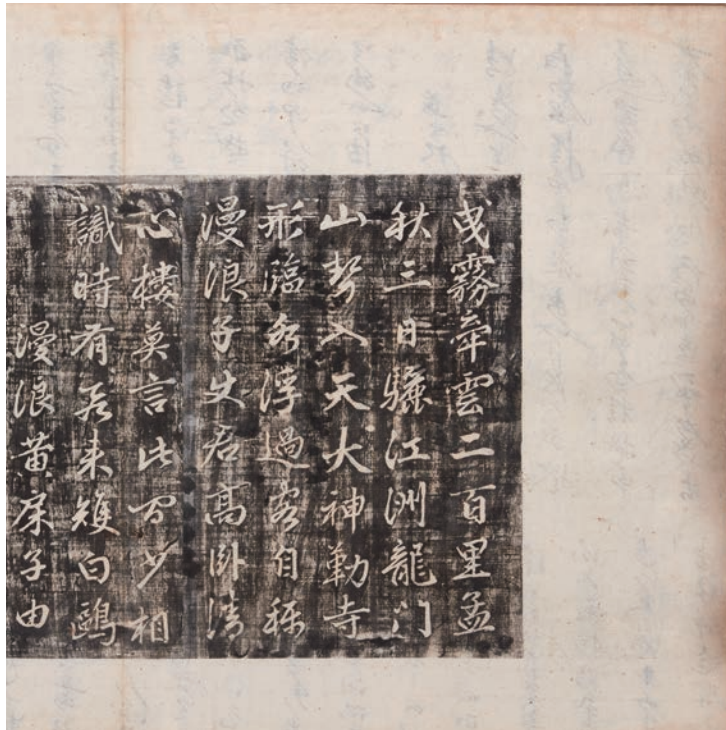
나그네 마음 고향 생각 진정 어지러운데
그대 편지 받고 한 번 활짝 웃는다.
듣자하니 여주 새로운 객관(客館)이
용문산 옛 강산을 온전히 차지했다고 하네.
어진 부사(府使) 절묘하게 갈라 절벽에 남겼고
노대가(老大家)는 아름다운 시편 벽 사이에 감췄다.
봄날 얼음 녹는 2월을 기다렸다가
조각배로 고향 돌아가 청한(淸閑)을 완상하려네.

목은의 후손 이경전 절하며 짓다.
만력 무오년(1618) 겨울

客心鄉思正多端
爲得君書一破顏
聽說驪城新館宇
憶專龍嶽舊江山
賢侯妙割留崖面
大老佳篇護壁間
會待春氷二月泮
扁舟歸去賞淸閑

牧隱後孫 李慶全 拜
萬曆戊午冬

62) 이경전: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한산,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이다. 영창대군의 옹립을 꾀하는 유영경을 탄핵하다가 강계로 유배를 갔다. 광해군 때 충청도 및 전라도의 관찰사, 좌참찬을 지냈고, 인조반정 이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였다. 문장가로 이름이 높다. 이 작품은 이경전의 문집 『석루유고石樓遺稿』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시판에 표기된 것처럼 창작 연대는 1618년(광해군10)으로 좌참찬 겸 동지경연으로 근무할 무렵으로 추정된다.



흐르는 안개와 구름 이백 리에 걸쳤는데
칠월 초사흘날 여강 모래톱에서 지난다.
용문산 기세는 넓은 하늘로 들어가 크고
신록사 모습은 물가에 힘해 떠있다.
나그네 스스로 '만랑자'⁶⁴⁾로 칭하고
사군(使君)께서는 높이 청심루에 누우셨네.
이 사이에 서로 아는 것 적다 마오,
때때로 흰 갈매기 쌍쌍이 날아든다.

만랑 황호 자유

曳霧牽雲二百里
孟秋三日驪江洲
龍門山勢入天大
神勒寺形臨水浮
過⁶⁵⁾客自稱漫浪子
使君高臥清心樓
莫言此間少相識
時有飛來雙白鷗

漫浪黃床子由

63) 황호: 조선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자유(子由), 호는 만랑(漫浪)이다. 인적 사항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관에 대과에 급제하여 대사성,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일본과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시문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 작품은 황호의 문집 『만랑집漫浪集』에 「驪江舟行」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64) 만랑자(漫浪子): 마음대로 떠돌면서 세상의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서는 시의 작가인 황호 자신의 호를 지칭한다.

65) 문집에는 過가 行으로 되어 있다.

21 정두경(鄭斗卿, 1597~1673)⁶⁶⁾

여주 청심루(청구제영 제1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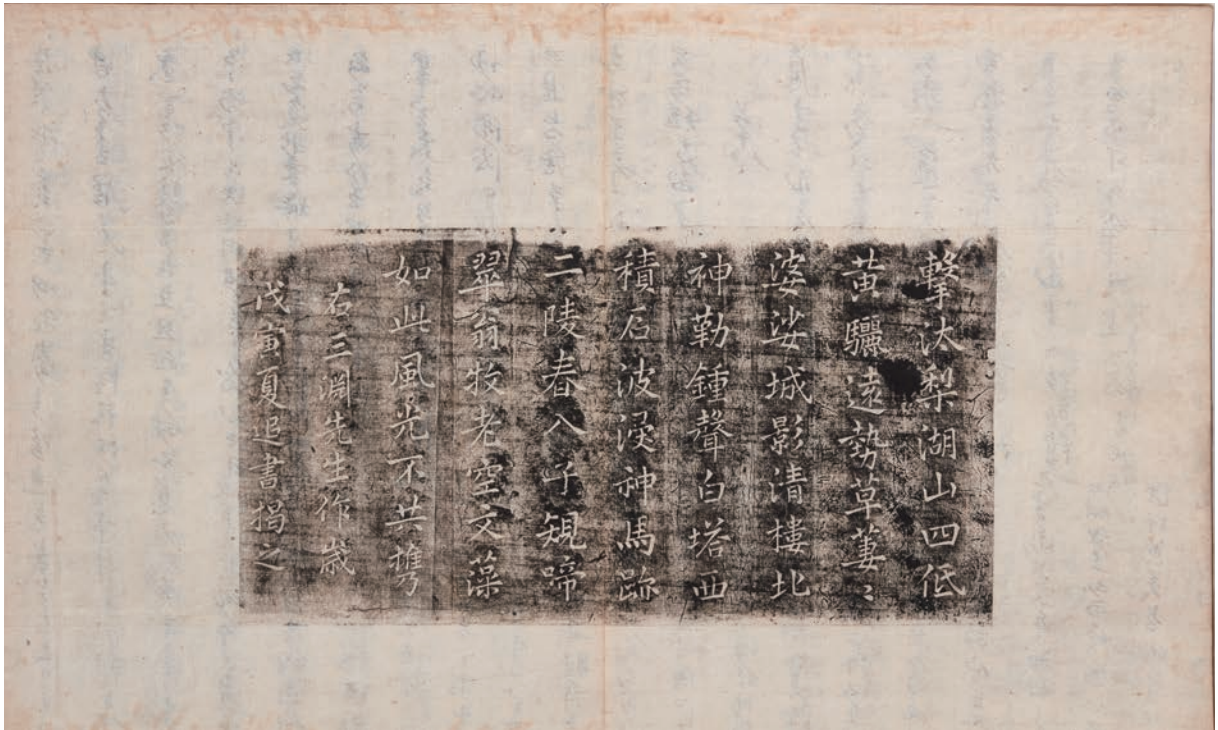
높은 누각에서 손님 보내며 가을밤 지새울 제
백로 한 쌍 앞 여울에 노닌다.
술기운 얼큰한 채 일어나 검푸른 빛을 보니
달은 지고 강은 맑은데 서리 이슬 차갑다.

동명 정두경 군평

送客高樓秋夜闌
一雙白鷺在前灘
酒酣起望蒼蒼色
月落江清霜露寒

東溟 鄭斗卿 君平

⁶⁶⁾ 정두경: 조선중기 문신이자 문인으로,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군평(君平), 호는 동명(東溟). 14세에 별시 초시에 합격하여 이름을 날렸으며,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부수찬, 정언 등을 역임하였으나 병자호란 이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정두경의 문집 『동명집東溟集』에 「驪江樓與韓使君亨甫 會一夜飲」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형보(亨甫)는 한회일(韓會一, 1580~1642)의 자로, 호는 협소(愜素), 본관은 청주이며,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아들이자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오빠이다.



이호(梨湖)⁶⁷⁾에 물결 치고 사방 산은 나지막한데
 황려(黃驪)⁶⁸⁾ 먼 형세에 풀은 무성하여라.
 파사성(婆娑城)⁶⁹⁾ 그림자는 청심루 북쪽에 있고
 신록사 종소리는 백담 서쪽에서 들린다.
 쌓인 돌에 물결 들이치니 신마(神馬)의 자취요⁷⁰⁾
 두 왕릉⁷¹⁾에 봄이 드니 소쩍새 운다.
 취옹(翠翁)과 목로(牧老)의 부질없는 저 글이여⁷²⁾
 이 같은 풍광을 함께 지니지 못하다니.⁷³⁾

擊汰梨湖山四低
 黃驪遠勢草萋萋
 婆娑城影清樓北
 神勒鐘聲白塔西
 積石波浸神馬迹
 二陵春入子規啼
 翠翁牧老空文藻
 如此風光不共携

이 시는 삼연 선생이 지은 것으로 무인년(1698) 여름에 추서(追書)하여 걸었다.

右三淵先生作, 歲戊寅夏, 追書揭之.

67) 이호(梨湖): 현재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있던 포구로, 지금의 이포(梨浦) 지역을 지칭한다.

68) 황려(黃驪): 여주(驪州)의 옛 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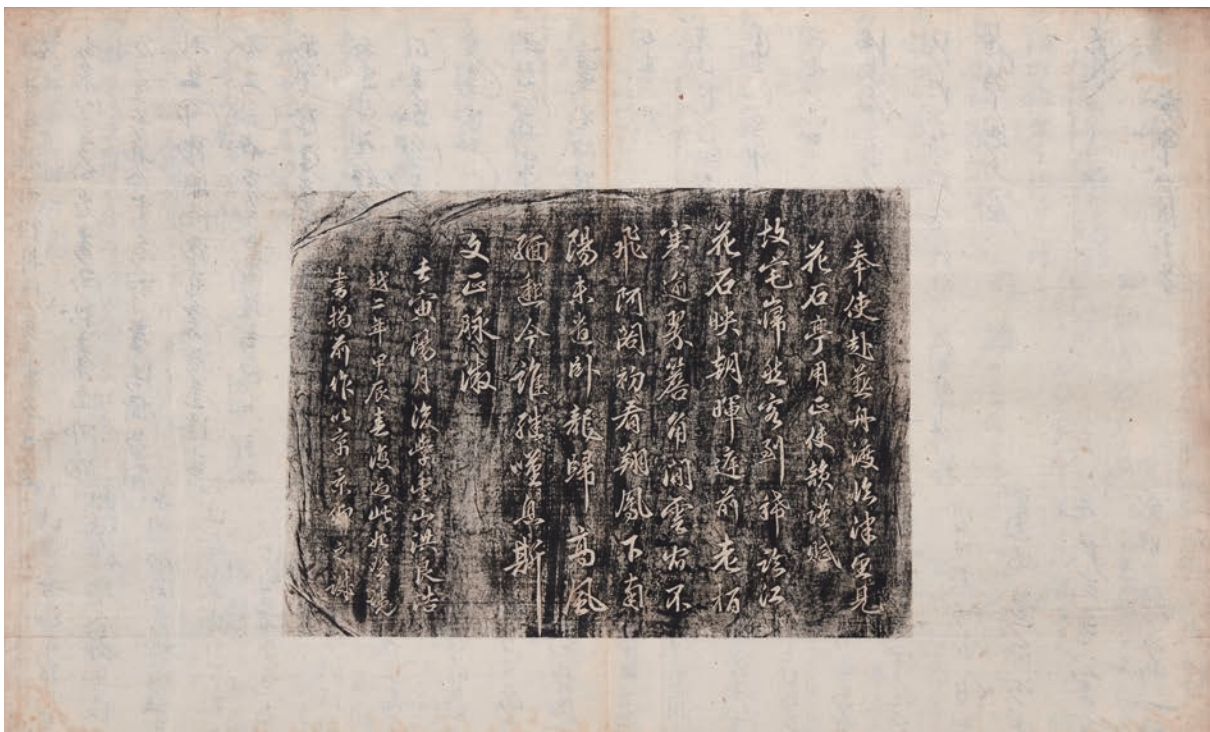
69) 파사성(婆娑城):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성으로, 사적 제2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전한다.

70) 쌓인 돌에 …… 자취요: 전설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 때 강가의 큰 바위 아래에서 푸른 물결이 치더니 황룡마(黃龍馬)와 여룡마(麗龍馬)가 출현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이름을 황려(黃驪)라고 했다 한다. 또한 그 바위를 마암(馬巖)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71) 두 왕릉: 여주에 있는 세종의 왕릉인 영릉(英陵)과 효종의 왕릉인 영릉(寧陵)을 말한다.

72) 취옹과 …… 저 글이여: 읍취헌(攄翠軒) 박은(朴聞)과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지칭하며, 모두 청심루에 시를 쓴 바 있다.

73) 이 작품은 1698년(숙종 24)에 창작되었으며, 김창흡의 문집 『삼연집三淵集』에 「驪江」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사신의 임무를 받들어 연경(燕京)으로 가다가 배가 임진 나루를 건너게 되었는데, 화석정을 바라보면서 정사(正使)의 시운을 사용하여 삼가 짓는다.

우뚝 솟은 오래된 저택에 찾아오는 손님 드문데
임진강 옆 화석정에 아침 햇살 비친다.
뜰 앞 오래된 잣나무는 추울수록 더욱 푸르고
처마 끝 한가로운 구름은 잠자는 듯 날지 않는다.
아각(阿閣)에서 처음으로 봉황 날아 내리는 것을 보고⁷⁶⁾
남양(南陽)에서 아직도 와룡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아득한 높은 풍모 지금 누가 이었는가
사문(斯文)의 바른 맥이 미미한 것 탄식하노라.
임인년(1782) 10월, 후학 풍산 홍양호

奉使赴燕, 舟渡臨津, 望見花石亭, 用正使韻謹賦

故宅巋然客到稀
臨江花石映朝暉
庭前老栢寒逾翠
簷角閒雲宿不飛
阿閣初看翔鳳下
南陽未遣臥龍歸
高風緬邈今誰繼
嘆息斯文正脉微
壬寅陽月 後學 豐山 洪良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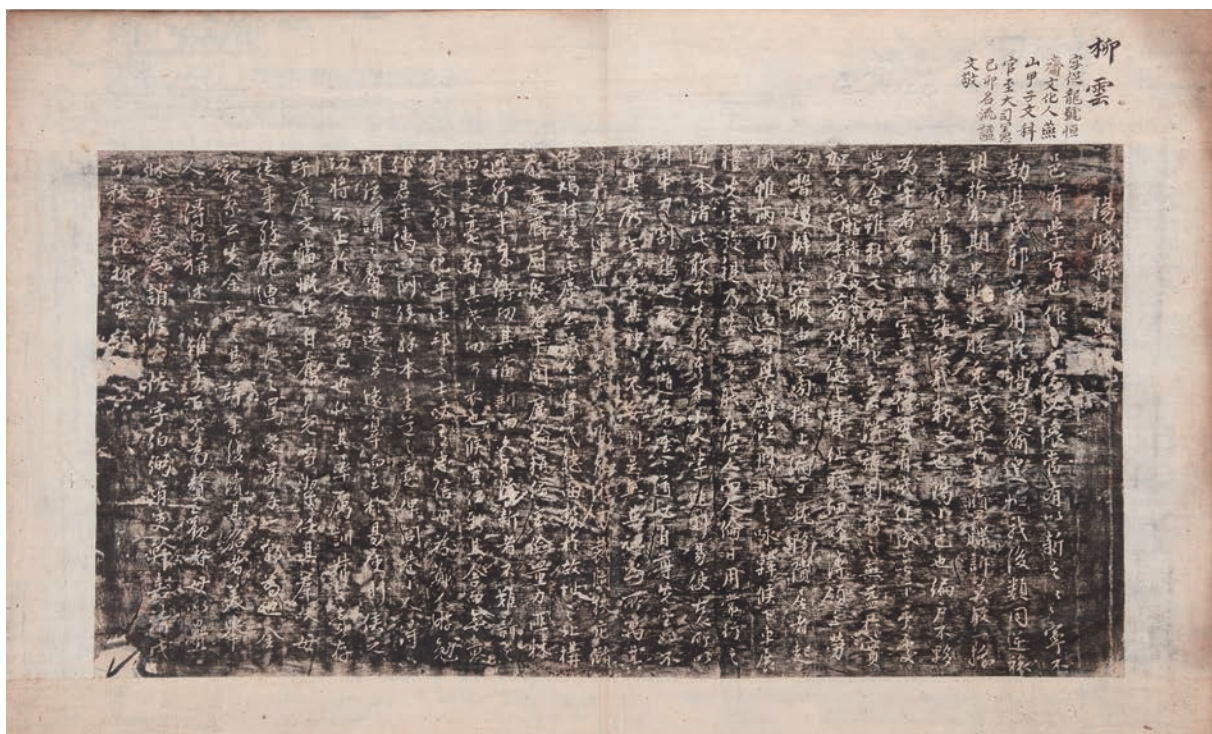
2년 뒤 갑진년(1784) 봄, 다시 이곳을 지나다가 비로소 화석정에 올랐는데, 이전에 썼던 작품을 써서 걸어놓음으로써 존경하고 우러르는 정성을 부쳤다.

越二年甲辰春, 復過此, 始登覽, 書揭前作以寓景仰之誠

74) 홍양호: 조선 후기 문신이자 문장가로, 본관은 풍산,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耳溪)이다. 『청구제영』을 제작한 홍경모의 조부이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몇 차례 다녀오면서 청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하여 금석문을 중심으로 하는 19세기 학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문에 능하였다. 이 작품은 홍양호의 문집 『이계집耳溪集』에 「花石亭敬次正使鄭公存謙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75) 화석정(花石亭):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임진강변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초기 지돈녕(知敦寧)을 지낸 이명신(李明晨, 1392~1459)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 뒤 손자인 이의석(李宜碩, 1440~1498)이 이곳에 정자를 다시 짓고 화석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손인 율곡 이이(李珣, 1536~1584)의 본가이자 그의 시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76) 아각에서 …… 보고: 요일금이 정치를 하는 17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봉황이 뜰에 날아와서 머물렀으며 궁궐의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고 하는 고사가 있다. 아각(阿閣)은 원래 사방으로 처마가 있는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화석정을 높여서 지칭하였다.



字從龍 號恒齋 文化人 燕山甲子文科 官至大司憲 己卯名流 諡文敬

자는 종룡, 호는 항재, 문화 사람이다. 연산군 갑자년(150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기묘년의 명류(名流)이며 시호는 문경이다.

양성현에서 학교를 새롭게 한 글

陽城縣(新學)記

邑有學古也。作之舊必壞，當有以新之，新之，寧不勤其民耶？茲用玩愒苟偷，遑恤我後，類同逆旅視指瓜期，更逝如脫兔，或督於米鹽牒訴，莫敢一搖手，竟以傷錦去，難矣哉，新之也！陽小邑也。編戶不夥，爲宰者，厚誣十室，以爲俊秀有幾，作成無下手處。學舍雖新，文翁之化，亦不得施，則新之無益於實，加之以(地轄諸道 政棼多科)，行李便蕃，供億之費，征賦細碎，簿領之勞，勾稽趨辦之不暇。由是旁摧上漏，日就墜隕，居者，起風帷兩面之歎，過者，興麟泣鳳悲之咏。韓侯下車，展禮先聖，旋視乃嘻，曰：吾職在治人，而人倫日用常行之道，本諸此。敢不先務其本，小人學道，則易使。古人所以用牛刀割鷄也。敢不以道爲重？重道必自尊先聖始，不新其廟，無以妥其神。神不妥，則是無其神安所寓其尊。於是連遭大侵，卹荒之暇，能游刃裁闊狹，它儲侍鳩材璧，無橐公藏，無聳民聽，面勢於故址之北，構廟廡齋廚，總若干間，廣輪稱位，宏儉量力，匪棘匪紆，半歲僦功 其當新而久不得新者，不難新之，而無一毫勤其民功方表也。候豈但新其舍而無意於文翁之化乎？此邦之士，必有忠信，毋爲鄭人游，勉作君子儒，以副侯務本重道之意，俾閭巷小人，得聞絃誦之聲，日遷善遠臯，而至於易使，則侯之功，將不止於文翁而已也。然其率厲訓督之責，存乎廣文，當慨然自奮，日光雪潔，任其羣吠，毋徒事醉飽，遭官長之罵，受弟子之朝爲也。金觀察公，先余記之甚詳，余復續其貂者，美舉人人得而稱述之，雖千百不爲贅，觀者毋以疊牀架屋爲誚。候名佐，字伯弼，有吏幹。嘉靖戊子秋，文化柳雲記。

77) 유운: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1504년(연산군 10) 문과에 급제한 이래 충청도관찰사, 대사헌 등을 지냈다. 호탕한 시풍으로 이름이 높았다.

78) 양성현(陽城縣): 지금의 경기도 안성의 옛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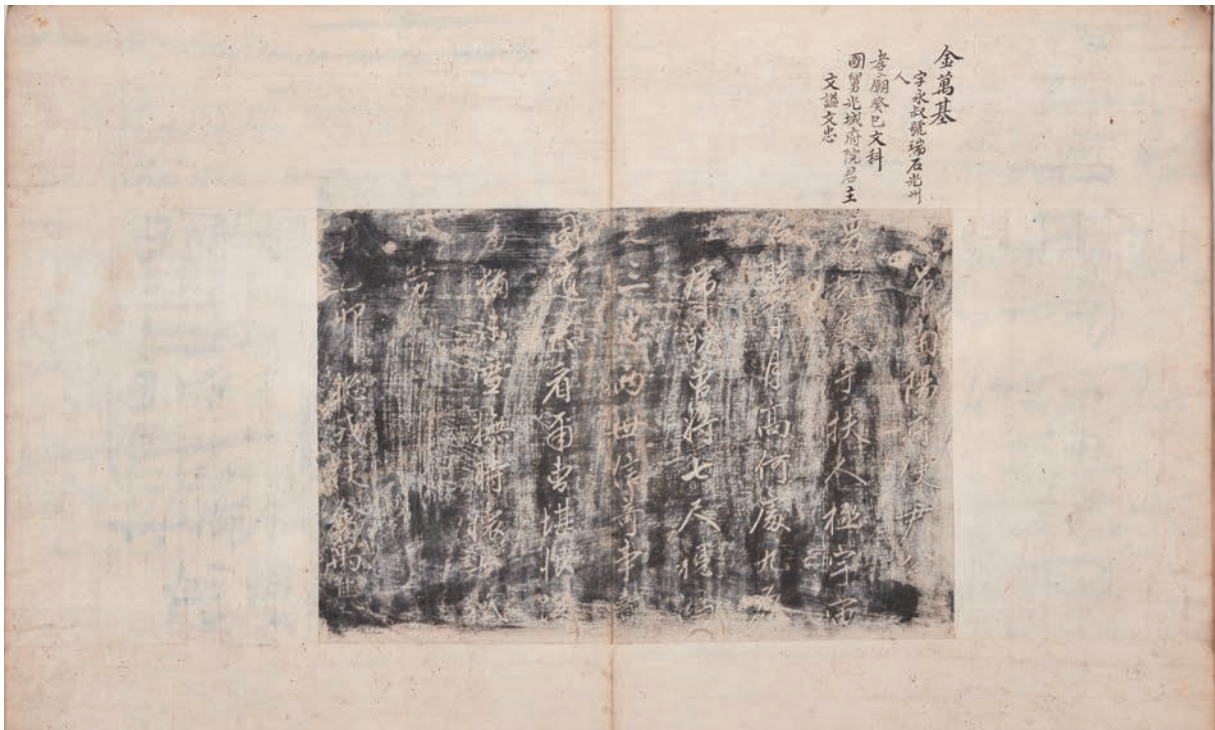
고을에 학교를 둔 것은 오래되었다. 지은 지 오래되면 반드시 허물어지니, 마땅히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면 백성들을 어찌 수고롭게 하지 않겠는가. 이로써 세월을 허송하며 안일하게 지내느라 뒷일을 걱정하지 못하였다.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살피고 손꼽다가 달아나는 토끼처럼 빨리 떠나가 버리고, 혹은 하찮은 소송 서류로 눈이 멀어 감히 손도 한 번 대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무능한 관리로 떠나버리니, 어렵구나, 학교를 새롭게 함이여!⁷⁹⁾ 양성현이 작은 고을이라 호구(戶口)가 많지 않아서 읍재(邑宰)가 10개 호구를 준수한 것이라고 속이려 해도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곳이다. 학사(學舍)가 비록 새로워졌다 해도 문옹(文翁)의 교화 역시 베풀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을 새롭게 했다 해도 실질에 있어서 이익되는 바가 없었다. 더욱이 (땅은 여러 도(道)로 나뉘어 있고 정치는 많은 분과로 구획되어 있어서) 공무(公務)로 오가는 사람들은 빈번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비용이 들고 세금은 잠달면서도 번쇄하여 문서 처리에 수고로워서 핵심을 상고하여 급히 비용을 마련해 낼 틈이 없음에랴. 이 때문에 위에서 새는 것을 널리 막고 날마다 무너진 곳으로 나아갔으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풍우양면(風雨兩面)의 탄식을 일으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린이 울고 봉황이 슬퍼하는 영탄을 일으켰다. 한후(韓侯)께서 수레에서 내려 옛 성현을 배알(拜謁)하고 돌아보며 탄식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직분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있는데, 인간의 윤리로 날마다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도(道)는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러니 감히 먼저 그 근본에 힘을 쓰지 않겠는가. 소인이 배우며 나아간다면 부리기 쉽다. 옛 성인이 소 잡는 칼로 닭을 잡겠느냐고 말씀하신 까닭이다.⁸⁰⁾ 어찌 감히 도를 중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도를 중히 여기는 것은 반드시 옛 성현을 높이는 일에서 시작한다. 묘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신을 모실 수 없고, 신을 모시지 못하면 그 신이 없을 것이니 그 존송하는 마음을 어디에 부치겠는가. 이에 큰 흉년을 연이어 만나서 백성을 구휼하는 여가에 칼날을 놀려서 넓고 좁음을 재단하여 예산을 비축하고 절약하며 재목과 벽돌을 모으되 공공의 재산을 문드러지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게 함이 없이 옛 터의 북쪽 방면에 묘(廟), 무(廡), 재(齋), 주방 등 약간 칸을 지을 정도의 면적을 마련했다. 적절한 넓이에 지위에 맞추어 널리 절약하고 힘을 헤아려서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반 년에 걸쳐서 공력을 기울였다. 마땅히 새롭게 해야 했지만 오래도록 새롭게 하지 못한 것들은 어렵지 않게 새롭게 하면서도 터럭 하나라도 백성들의 공력을 억지로 동원하지 않았다. 후(侯)가 어찌 그 건물을 새롭게 하면서 문옹(文翁)의 교화에 뜻을 두지 않았겠는가. 이 고을의 선비들은 반드시 충신(忠信)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인(鄭人)의 유락⁸¹⁾을 하지 않고 군자유(君子儒)가 되기를 힘씀으로써 후(侯)가 근본에 힘쓰고 도를 중시하는 뜻을 도울 것이다. 여향의 소인들로 하여금 경서를 읽고 글공부를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여 날로 선(善)으로 옮겨가서 죄를 멀리하게 함으로써 쉽게 부릴 수 있는데에 이르게 할 것이니, 후의 공적이 창창 문옹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면려(勉勵)하고 가르치는 책임은 광문(廣文)에 있으니 마땅히 개연히 스스로 분발해야 할 것이다. 햇빛과 흰 눈을 보고 마구 짓어대는 개처럼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기를 일삼다가 관장(官長)의 꾸짖음을 당할 뿐 아니라 제자들의 조롱을 받기까지 한다. 관찰사 김공(金公)께서 나보다 먼저 그것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셨으니, 나는 다시 그 글을 이어서 쓴 것이다. 사람마다 아름답게 들어서 칭송하며 조술(祖述)하니 아무리 많은 말이라도 군더더기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침상 위에 또 침상을 겹쳐놓고 집 위에 또 집을 짓는다고 비난하지 마시라. 후(侯)의 이름은 좌(佐)이고 자는 백필(伯弼)이니 정계(政界)의 뛰어난 재원이다.

가정 무자년(1528) 가을, 문화 유운 쓰다.

79) 마침내 …… 어렵구나: 원문은 “竟以傷錦去難矣哉”이다. ‘상금(傷錦)’은 『좌전左傳』에 나오는 말이다. 자피(子皮)가 윤하(尹何)를 자기 봉읍(封邑)의 읍재(邑宰)로 삼으려 하자 자산(子產)이 나이가 어려서 어렵다고 거절하면서, “당신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다면 재단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단을 주어 재단하는 법을 배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직 경험이나 나이가 일천하여 한 고을을 다스릴 때 실수를 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양성현감 한좌(韓佐)를 칭찬하는 표현이다.

80) 옛 성인이 …… 까닭이다: 『논어』 『양화陽貨』장에 나오는 고사이다. 공자가 무성(武城)에 가서 현가(絃歌)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며, “닭을 잡는 데에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하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子游)가 대답하기를,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으니,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81) 정인의 유락: 옛날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노래는 경박하고 음란한 것이 많았다고 한다. 여기서는 백성들이 생계를 돌보지 않고 유락만을 일삼는 것을 지칭한다.



字永叔 號瑞石 光州人 孝廟癸巳文科 國舅光城府院君 主文 諡文忠
 자는 영숙(永叔), 호는 서석(瑞石), 본관은 광주. 효종 계사년(1653) 문과 급제. 국구(國舅) 광성부원군. 문형(文衡)을 주관했으며, 시호는 문충이다.

남양부사 윤공을 조문하다

弔南陽府使尹公

남아는 한 손으로 강상(綱常)을 떠받치고
 온 우주에 그 이름 걸어 일월처럼 높아라.
 저승 어느 곳에 호백(虎魄)⁸³⁾을 묻으랴,
 칠척의 몸을 홍모처럼 보노라.
 이대(二代)에 걸친 세 번의 충성 진실로 기이한 일이니
 나라 팔아먹고 임금 버린 너희들을 본다.
 깊은 부끄러움 아직 설욕하지 못한 것 한스러워 하나니
 시절을 어루만지고 옛일을 회상하며 그저 마음만 수고로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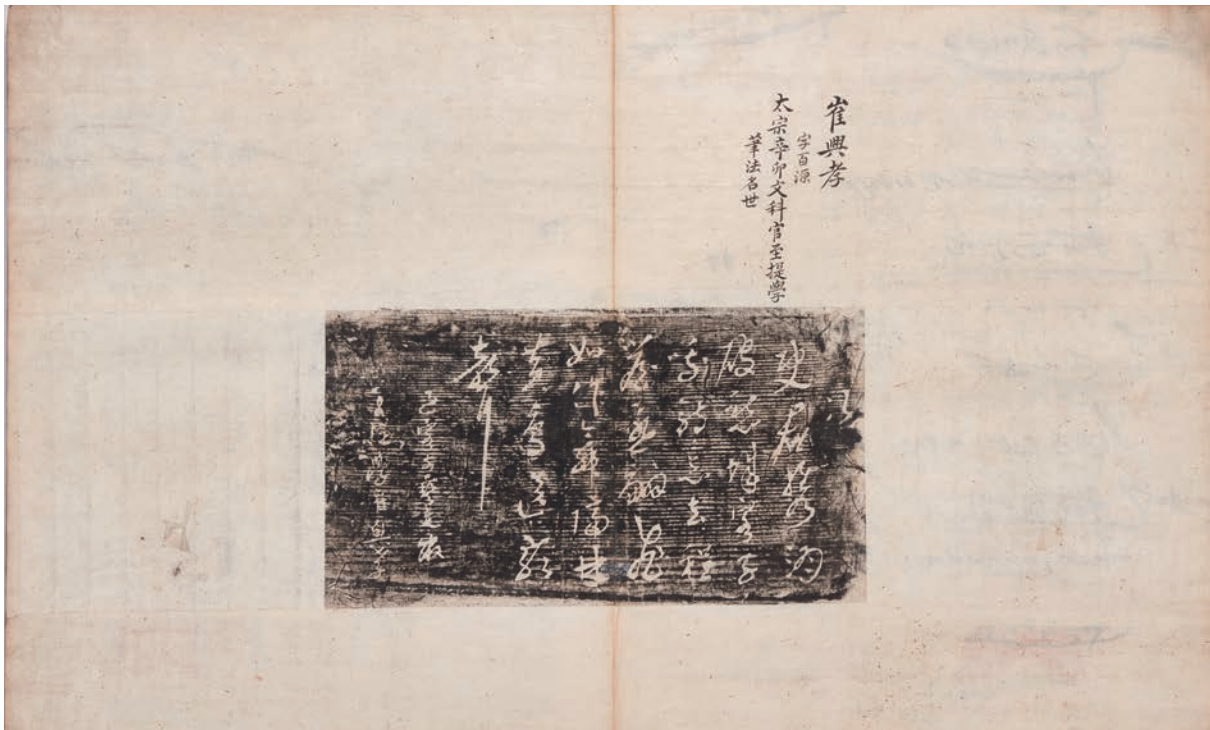
男兒隻手扶人極
 宇宙名懸日月高
 何處九原理虎魄
 曾將七尺視鴻毛
 三忠兩世信奇事
 賣國遺君看爾曹
 堪恨深羞猶未雪
 撫時懷古祇心勞

을묘년(1675) 충용사 김만기

乙卯 摠戎使 金萬基

82) 김만기: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이다. 숙종의 비인 인경왕후의 아버지이다. 노론 과격파로 활동하였으며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때 허견의 역모를 다스려 보사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이 작품은 김만기의 문집 『서석집瑞石集』에 「弔南陽府使尹公, 用老杜詠懷古跡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남양부사를 지낸 윤공(尹公)을 조문하는 만시(挽詩)인데,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만시가 누정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윤공의 후손이 거처하는 사가(私家)에 걸어둔 시판으로 추정된다.

83) 虎魄: 호박(琥珀). 여기서는 남양부사 윤공의 몸을 가리킨다.



字百源 太宗辛卯文科 官至提學 筆法名世

자는 백원(百源). 태종 신묘년 문과 급제. 관직이 제학에 이르렀으며, 필법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차운하다

次

부사(府使)가 술을 잡아 근심을 깨버리니
나그네는 시 읊으며 갈 길을 잊었다.
처마 끝 제비 펄펄 날아 춤추는 듯하고
숲 저편 뾰꼬리는 노랫소리 보내네.

使君携酒破愁城
客子哦詩忘去程
簷燕翩飛如作舞
隔林黃鳥送歌聲

과객 전 예문관제학 최흥효

過客 前藝文館提學 崔興孝

84) 최흥효: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로 예문관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초서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 받으며, 안평대군 이용과 더불어 각각 초서와 행서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 작품은 전(前)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이라고 쓴 것을 보면 최흥효가 만년에 창작한 시로 보인다. 어느 정자에 걸려있던 시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군(使君)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관청에서 경영한 정자였을 것이다.



見上
앞에 보인다

세심대 석상

첫서리가 내리지 않아 일찍 핀 국화가 밝고
흰 돌이 울퉁불퉁하여 길이 평평하지 않네
숲 너머 작은 정자에 손님들이 편안하고
자리 옆의 가을 물이 사람 향해 맑게 흐르네
 시내와 산은 이르는 곳마다 흥을 일으키는데
이별과 만남은 어찌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나
진중한 뒷날 기약을 반드시 손에 넣으리니
봄바람에 서울에서 웃으며 만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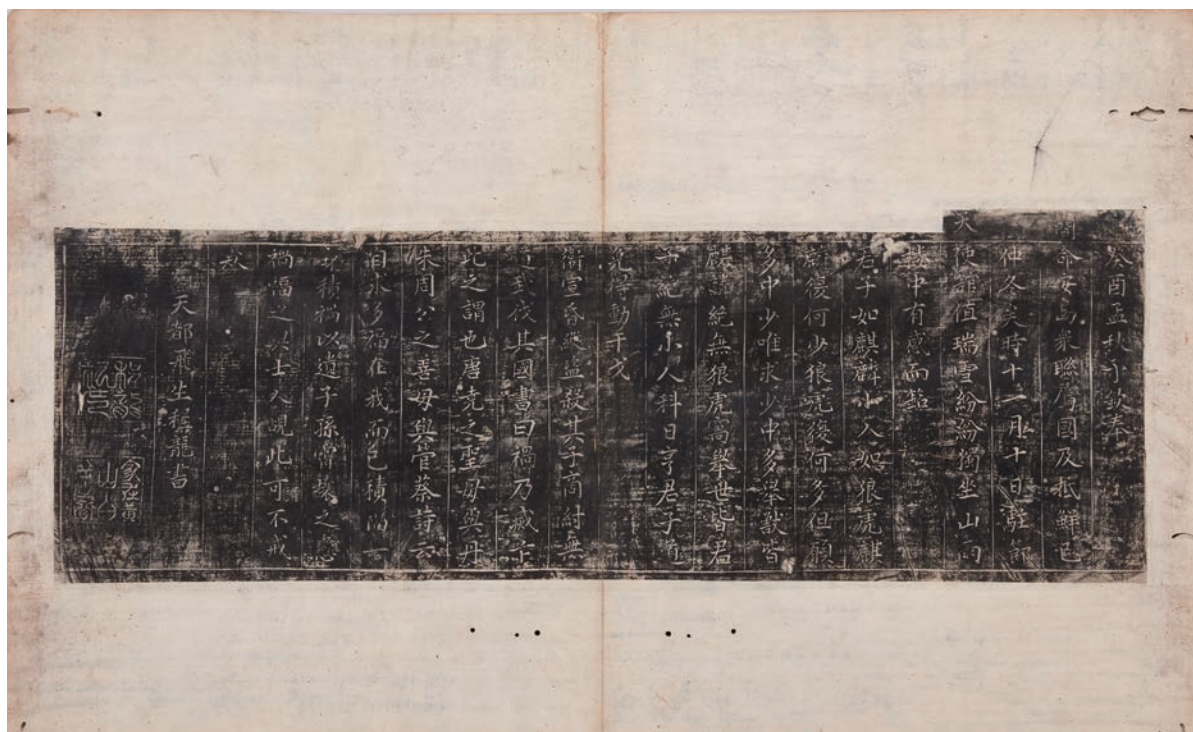
洗心臺席上

初霜不落早花明
白石參差路未平
林外小亭供客穩
席邊秋水向人清
溪山到處堪牽興
離合如何最惱情
珍重後期須入手
春風相笑洛陽城

한평군(韓平君) 겸 도순찰사(都巡察使) 이경전 만력(萬曆) 을묘년(1615) 윤8월 모일

韓平君 兼都巡察使 李慶全 萬曆乙卯閏八月日

85) 이경전: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예조좌랑, 병조좌랑을 역임했다. 아버지는 영의정 이산해이며, 영창대구의 용립을 피하는 유영경(柳永慶)을 탄핵하다가 유배갔다. 이 시는 이경전이 1615년(광해군 7) 서울 세심정(洗心亭)에서 지은 시이다. 세심정은 오늘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었던 정자로, 세조의 아들 은천군(銀川君)이 지었다. 서거정(徐居正)과 이승소(李承召)가 지은 기문(記文)이 남아있다. 문집인 『석류유고 石樓遺稿』에 제목이 「洗心亭鄭西澗潭陽朴寒泉僉席上」으로 되어있다.



癸酉孟秋 予欽奉簡命安島衆聯屬國 及抵鮮 已仲冬矣 時十一月十日駐節天使館 值瑞雪紛紛 獨坐山雨樓中 有感而銘 君子如麒麟 小人如狼虎 麒麟復何少 狼虎復何多 但願多中少 唯求少中多 舉獸皆麒麟 絕無狼虎窩 舉世皆君子 絕無小人科 日亨君子道 免得動干戈 衛宣昏縱 盜殺其子 商紂無道 武伐其國 書曰 禍乃滅卞 此之謂也 唐堯之聖 母與丹朱 周公之善 母與管蔡 詩云 自求多福 在我而已 積德一身 積禍以遺子孫 霄壤之懸 禍福之與士人 覩此可不戒哉

天都飛生 程龍 書

계유년(1633) 7월에 안도증련속국으로 선발한다는 명을 받아 조선에 도착하니 이미 11월이었다. 때는 11월 10일 천사관에서 서설이 흩날리는 것을 산우루⁸⁶⁾에 홀로 앉아 보고 소감이 있어 명을 짓는다.

군자는 기린과 같고, 소인은 이리나 호랑이와 같다. 기린이 또 어찌 적으며 이리나 호랑이는 또 어찌 많은가. 다만 많음 중에서 적음을 원하고 오직 적은 가운데서 많기를 구한다. 온 짐승이 모두 기린이라면 호랑이 굴이 하나도 없고, 온 세상에서 모두 군자는 소인과에 하나도 없다. 하루라도 군자의 도를 접했다면 무기를 동원함을 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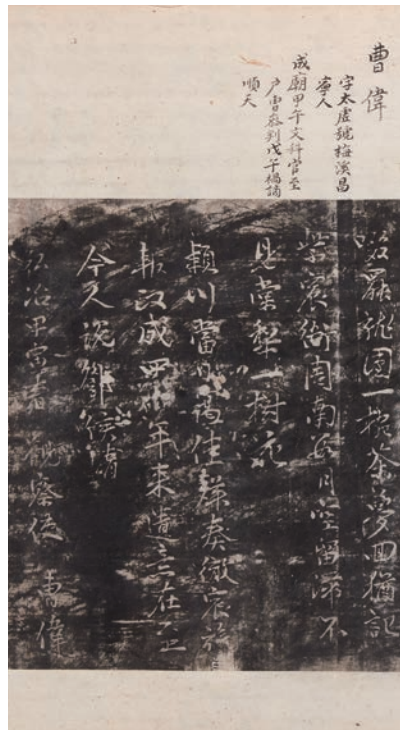
위나라 선공은 어리석게도 함부로 그 자식을 죽였고, 상나라 주왕은 무도하여 무왕이 그 나라를 정벌하고 말하기를, “화가 곧 멸망으로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이름이다. 당뇨의 성모와 단주, 주공의 선모가 관숙·채숙의 시에서 말하길,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달렸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을 일신에 쌓아 화를 쌓아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하늘과 땅처럼 현격한 화복을 사대부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도비생 정룡 씀

86) 산우루(山雨樓): 조선시대 남별궁에 있던 누각을 말한다. 남별궁은 원래 태종의 딸인 경정공주가 거주하던 궁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 관원을 접대하는 곳으로 쓰였다. 남별궁의 있던 대표적인 누각이 산우루였으며, 영조대에는 명설루(明雪樓)로 바뀌었다.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충청도



字太虛 號梅溪 昌寧人 成廟甲午文科 官之戶判 戊午被禍 順天

자는 태허(太虛), 호는 매계(梅溪), 본관은 창녕이다. 성종 갑오년(147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화를 입어 순천으로 귀양을 갔다.

용단차²⁾ 한 사발 마시고 나니
꿈에서 돌아와도 여전히 자신전(紫宸殿)³⁾이 생각나네.
주남에서 몇 달 동안 부질없이 머물렀지만
팔배나무 한 송이도 못 보았지.

啜罷龍團一椀茶
夢回猶記紫宸衙
周南數月空留滯
不見棠梨一樹花

영천에서 머물던 당시 아름다운 소리 들렸는데
임금에게⁴⁾ 알려져 정사(政事) 아뢰는 소리.
사십 년 동안 남긴 뜻 전해져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등후의 말을 말하네.⁵⁾

潁川當日藹佳聲
奏徹宸旒報政成
四十年來遺意在
至今人說鄧侯清

- 1) 조위: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도승지, 충청도 관찰사, 중추부동지사 등을 지냈다. 성리학의 대가로서 당시 사림 간에 대학자로 추앙되었고, 김 종직과 함께 신진사류의 기수였으며, 글씨도 잘 썼다.
- 2) 용단차(龍團茶): 송나라 때 황제에게 진상하던 귀한 차로, 둥근 떡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차병(茶餅) 위쪽에 용의 문양이 있어서 용단차로 불린다.
- 3) 자신전(紫宸殿): 당나라 때 황제가 조회를 받던 궁전의 명칭.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 4) 원문은 신류(宸旒)로, 제왕이 쓰는 면류관과 같은 관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왕을 뜻한다.
- 5) 이 작품 두 편은 조위의 문집인 『매계집』에 「洪州題詠」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문집의 주석에 ‘忠淸方伯時作’(충청도의 방백을 지낼 때 지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홍주’는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지역을 지칭한다.



字景敏 德水人明廟壬子文科 官至大司諫

자는 경민(景敏)이고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명종 임자년(1552)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현함의 시에 차운하여 주인 영공에게 적어 올림

次軒韻 錄奉主人令公

한바탕 동이술로 마음을 열만 한데
천년 만의 훌륭한 모임 다행히 오늘 보네
장군이 무력을 좋아하지 않음을 스스로 아는데
벽 사이 걸린 쇠구 마음을 상쾌하게 하네

一場尊酒可開心
勝會千年幸觀今
自識將軍不好武
壁間群玉爽煩襟

막부의 여러 관료 모두 세심하지만
원용²⁾의 신이한 전략 지금에 으뜸이네
손님 맞아 술자리 베풀어 길고 긴밤 이으니
담박하게 웃으면서 옛 회포를 풀어놓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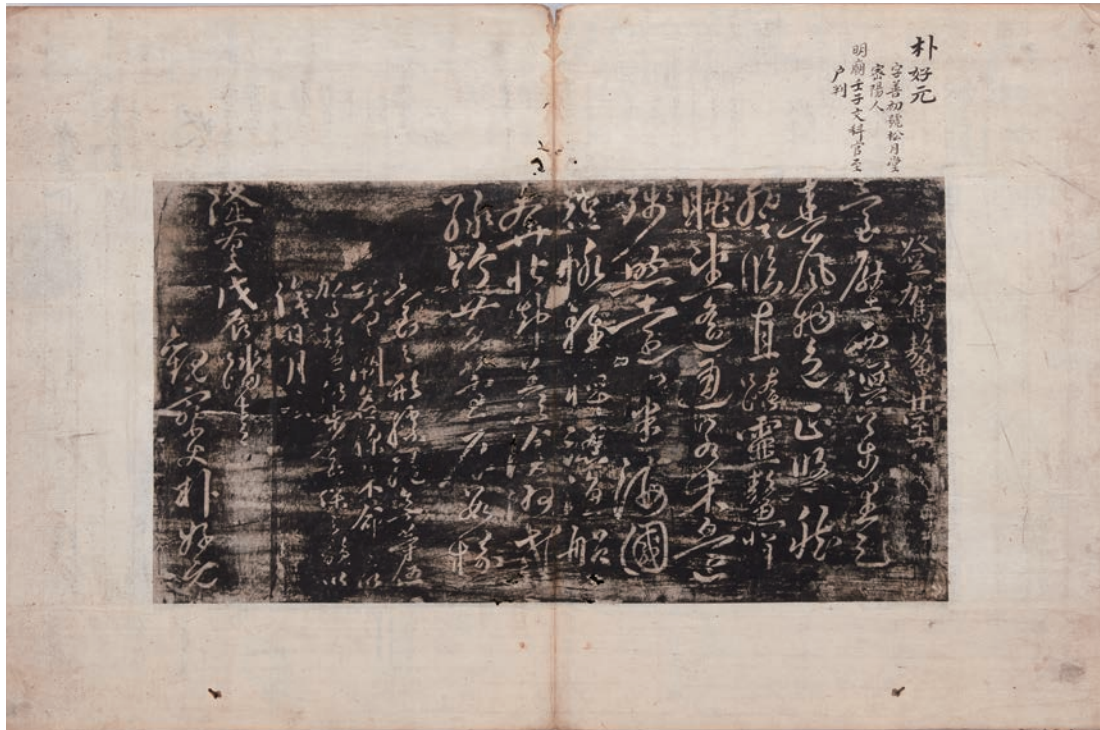
幕府群僚總小心
元戎神略冠當今
迎賓置酒良宵永
淡笑從容叙舊襟

만력 병술년(1586) 관찰사 이인

萬曆丙戌仲冬 觀察使李詔

1) 이인: 이인은 조선 명종, 선조대 활동한 문신이다. 1552년(명종 7)에 문과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2) 원용(元戎)은 군대의 선봉을 맡은 큰 병거(兵車)를 가리키는데, 곧 총사령관 등을 말한다.



字善初 號松月堂 密陽人 明廟壬子文科 官至戶判

자는 선초(善初), 호는 송월당(松月堂)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명종 임자년(155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가오대에 올라

登駕鰲臺

누대가 서쪽 바다 만 리 하늘을 누르고
봄바람에 물색이 정말로 유유하네
올라서 신령한 자라 등에 바로 걸터앉고
바라봄에 해지는 약목⁴⁾ 가로 멀리 통하네
석양 무렵 먼 산이 바다의 나라인가 헛갈리고
작은 돛의 빠른 노를 어선이라 생각하네
매우 바빠 도리어 부럽네, 창주 노인이
푸른 대와 누런 갈대 두른 몇 칸 집에 살던 것이

臺壓西溟萬里天
春風物色正悠然
登臨直跨靈鰲背
眺望遙通若木邊
殘照遠山迷海國
短帆輕棹認漁船
奔忙却羨滄洲老
綠竹黃蘆屋數椽

대의 형승은 절대로 같이 비교할 것이 없다. 이름을 누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오라고 할 수 없는데, 인하여 영보의 운자로 일월을 적는다.

臺之形勝絕無等伍 可見闕名 □不命之以駕鰲 仍步永保之韻 以識日月云

용경 무진년(1568) 3월 관찰사 박호원

隆慶戊辰踏青 觀察使朴好元

3) 박호원: 명종, 선조대 문신으로 홍문관 수찬, 부교리, 사간원 헌납등을 역임하였다. 1562년(명종 17) 임격정 등 도적을 진압하였다. 문집이 전하지는 않는다.

4) 약목(若木): 고대 신화에 나오는 나무 이름으로, 서방의 해가 지는 곳에서 자라는 큰 나무이다.

4 이영성(李永成, ?~1543)⁵⁾

지반헌(池畔軒)(청구제영 제3첩)



字遠期 中廟丁酉文科 官至禮正

자는 원기이다. 중종 정유년(1537)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예조정랑에 이르렀다.

차운하다

次韻

가을날 한가로이 지반헌에 올라
서리맞은 과일 담장에 기대니 난만한 가지가 무성하네
머리 향해 관쓰고 잠을 꺾고는
정원에 소나무 국화 있는 것도 감상하지 못했네
하늘 멀리 구름과 산 북쪽 시야를 가로막고
깊은 밤 먼 앞 마을에서 사람 소리 들리네
난간에 기대 슬픔을 달래기 어려움을 다시금 깨닫노니
누가 맑은 술잔을 잡고 내게 취할 것을 권하겠는가

秋日閑登池畔軒
倚牆霜果爛枝繁
爲向頭上冠簪繫
未賞園中松菊存
天遠雲山遮北眼
夜深人語隔前村
凭欄更覺懷難遣
誰把清樽勸我昏

도사 이영성

都事 李永成

을묘년(1555) 맹하 1일 현손 이득구 찍어내다

乙卯孟夏初吉 玄孫 李得龜 叩出

5) 이영성: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중종 때에 과거에 급제한 이후 승정원을 거쳐 정언(正言)으로 전직되어 경권을 권 외척(外戚)의 비위를 거슬러 형조 좌랑(刑曹佐郎)이 되었다가 병조 좌랑(兵曹佐郎)으로 전직되었다. 그때 공의 아버지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었으므로 문안드리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충청 도사(忠淸都事)를 청하여 보임되었는데 이 때 지은 시이다.



字希安 號聽天堂 豐山人 明廟丙午文科壯元 選湖堂 官至右相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聽天堂)이며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명종 병오년(1546)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독서당에 선발되었으며 관직은 우의정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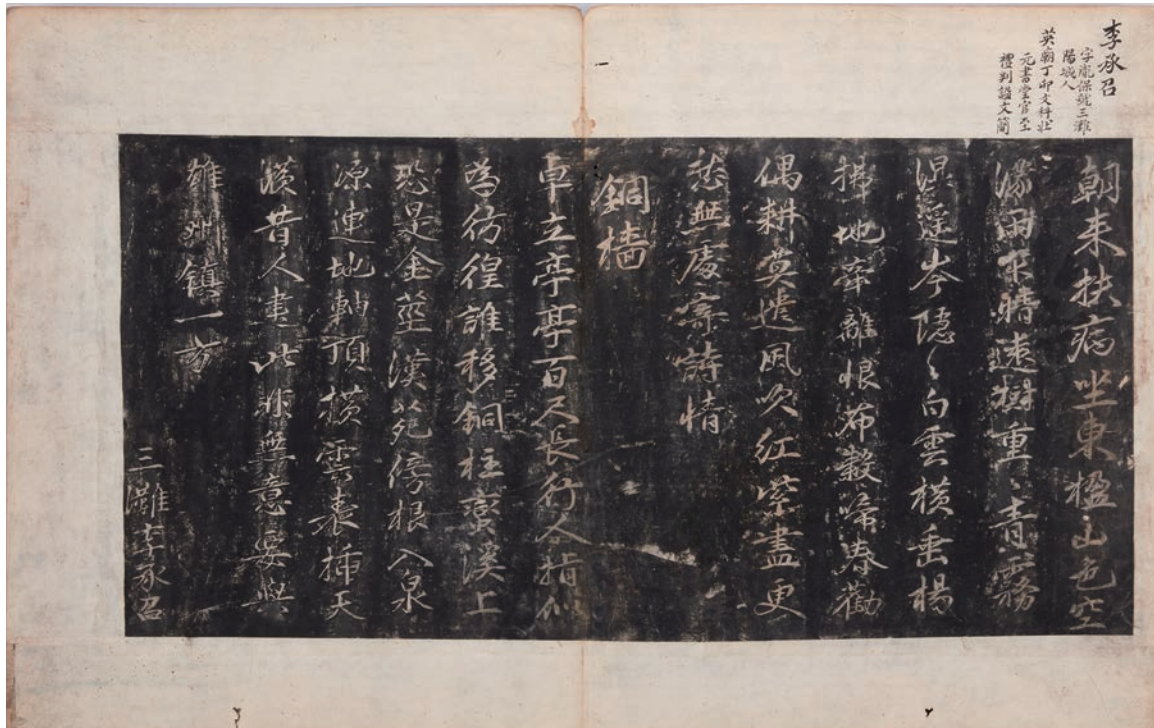
강각에 올라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니
가벼워진 몸 사뿐히 바람을 타네
나그네 흥 노래가락 나오는 것 금할 수 없으니
어찌 술자리에 객수가 이르게 하랴
나뭇가지 속 매미소리 지는 해에 다투고
밀물 위 돛배 그림자 가는 배를 따르네
주렴 밖으로 오는 어두운 빛 앉아서 바라보니
서둘러 서까래같은 청사초롱을 불렀네

관찰사 심수경
가정 기미년(1559) 계하

江閣登臨六月天光
身輕直欲御冷然
未禁客興生歌裏
寧許羈愁到酒邊
樹抄蟬聲爭落日
潮頭帆影逐歸船
坐看暝色來簾外
催喚紗籠燭似椽

觀察使 沈守慶
嘉靖己未季夏

6) 심수경: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이후 정언, 호조좌랑, 홍문관 직제학 등을 거치고 강원도 관찰사, 한성부 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시문을 모은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과 『청천당견한잡록聽天堂遣間雜錄』이 있고, 왕희지의 필법에 심취하였다.



字胤保 號三灘 陽城人 英廟丁卯文科壯元 書堂 官至禮判諡文簡

자(字)는 윤보(胤保), 호는 삼탄(三灘)이다. 본관은 양성(陽城)이다. 세종 정묘년(1447)에 문과에 장원을 하였고, 독서당 출신이다. 관직은 예조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병든 몸 아침나절 동쪽 기둥 아래 앉아 있자
 산 빛 멀리 아득한데 비가 잠깐 개었구나
 먼 숲 모습 울창하여 푸른 안개 자욱하고
 먼 산 모습 아스라해 흰 구름 비껴 있네
 수양버들 땅을 쓸어 이별의 한 자아내고
 뻐꾸기⁸⁾ 또 울어 대며 발 갈기를 재촉하네
 바람 시켜 붉은 꽃잎 모두 떨어지게 하여
 시정 부칠 곳 없어서 시름 짓게 하지 마소

朝來扶病坐東楹
 山色空濛雨乍晴
 遠樹重重青霧濕
 遙岑隱隱白雲橫
 垂楊拂地牽離恨
 布穀啼春勸耦耕
 莫遣風吹紅紫盡
 更愁無處寄詩情

7) 이승소: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문장으로 유명하다. 44세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가므로 두 편의 시는 이때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8) 뻐꾸기: 포곡(布穀)은 뻐꾸기의 별칭이다. 뻐꾸기가 울 때 ‘뻐꾹뻐꾹 [布穀布穀]’ 하고 울어서 마치 ‘씨 뿌려라, 씨 뿌려라’ 라고 하는 듯이 들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구리 돛대⁹⁾

높다랗게 우뚝 솟아 백 척이나 드높은데
 행인들은 이를 가리키면서 어정거리네.
 어느 누가 만계 가의 구리 기둥 옮겨 왔나
 한원 곁에 세워 있는 금줄기인 것만 같네¹⁰⁾
 그 뿌리는 깊이 박혀 지축까지 닿아 있고
 정수리는 구름 밖에 솟아 은하 꿰뚫었네
 옛사람이 세운 것은 뜻이 없지 않거니와
 큰 고을과 함께 일방을 진압하게 한 거라네

삼탄 이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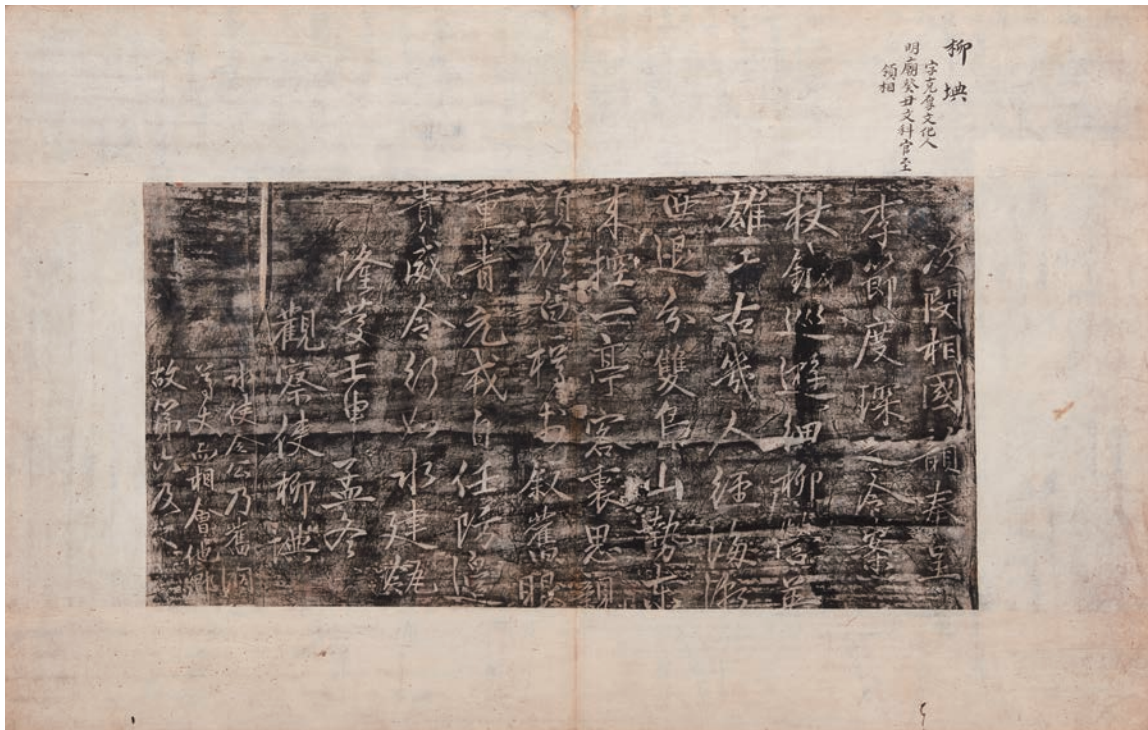
銅檣

卓立亭亭百尺長
 行人指似爲彷徨
 誰移銅柱蠻溪上
 恐是金莖漢苑傍
 根入泉源連地軸
 頂橫雲裏插天潢
 昔人建此非無意
 要與雄州鎮一方

三灘 李承召

9) 『청구제영』 제3첩에는 ‘銅檣’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삼탄집』에는 「淸州城中鐵刹」라고 되어 있다. 동장, 곧 구리돛대는 국보 41호로 지정된 청주 용두사지(龍頭寺址)에 있는 철당간(鐵幢竿)을 말한다.

10) 한원 곁에 … 같네: 한 무제가 신선술에 미혹되어 감로를 받아 마셔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여 만들었던 승로반(承露盤)을 말한다. 한 무제는 건장궁(建章宮)에神明대(神明臺)를 세우고 동으로 선인장(仙人掌) 모양을 만들어 세워서 동반(銅盤)을 떠받치고서 감로를 받게 하였다.([한서]「郊祀志上」)



字克厚 文化人 明廟癸丑文科 官至領相

자는 극후(克厚)이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명종 계축년(1553)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영의정에 이르렀다.

민 상국의 시에 차운하여 절도사 이침(李琛)의 영안에 삼가 올림

次閱相國韻 奉呈李節度琛之令案

부월을 잡고 세류영(細柳營)¹²⁾을 순행하니
영웅은 천고에 몇이나 지났는가
바다 조수 서쪽으로 물러가 두 섬을 나누고
산세는 동쪽으로 와서 정자 하나 만들었네
객지에서 어버이 생각에 머리만 희어지는데
옛정을 펼치는 술자리 다시금 반갑게 보네
원용은 변방을 막으려는 책임을 자임하고
위엄있는 명령은 급속하게 이행되네¹³⁾

杖鉞巡遊細柳營
英雄千古幾人經
海潮西退分雙島
山勢東來控一亭
客裏思親頭欲白
樽前叙舊眼重青
元戎自任防邊責
威令行如水建瓴

용경 임신년(1572) 맹동
관찰사 유전

隆慶壬申 孟冬
觀察使 柳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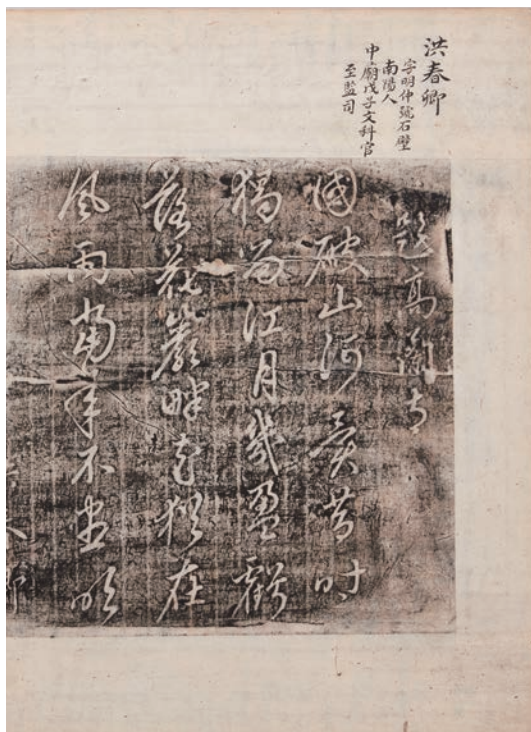
수사(水使) 영공은 곧 옛 같은 동네의 존장인데 타향에서 서로 만났으니 제6행에서 언급하였다.

水使令公 乃舊洞 尊丈 而相會他鄉 故第六及之

11) 유전: 명종, 선조대 문신이다. 한성부 판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12) 세류영(細柳營): 군율이 엄정한 군영(軍營)을 말한다.

13) 위엄있는 ... 이행되네: 위령(威令)은 위엄이 있는 명령을 말한다. 건령은 건령수(建瓴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옥상에서 병의 물을 밑으로 쏟는 것과 같이 세력이 급속함을 말하므로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字明仲 號石壁 南陽人 中廟戊子文科 官至監司

자(字)는 명중(明仲), 호는 석벽(石壁)이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중종 무자(1528)년에 문과에 합격하였으며, 관직은 감사(監司)에 이르렀다.

고란사에서 읊음¹⁵⁾

題高蘭寺

나라 망하니 산과 물이 예전과 다른데
홀로 남은 강과 달은 몇 번이나 차고 기울었나
낙화암 가의 꽃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당시 비바람 불어 날리지 못하였네

國破山河異昔時
獨留江月幾盈虧
落花巖畔花猶在
風雨當年不盡吹

14) 홍춘경: 1536년(중종 31) 문과중시에 장원하여 사성, 보덕, 집의, 예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좌승지 한성부우윤 이조참의를 지내고, 1545년(인종 1) 중종의 지문(誌文)을 짓기도 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권세에 굽히지 않았으며, 글씨에 뛰어났는데, 특히 김생체(金生體)에 능하였다.

15) 이 시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충청도(忠淸道) 우도(右道) 공주진(公州鎭) 부여현(扶餘縣) '낙화암(落花巖)'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목이 없는데, 현판 탁본을 통해 이 시의 제목이 '題高蘭寺'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홍춘경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시기는 미상이다.



字君受 號萬竹 扶餘人 宣廟己巳文科 官至義州牧使

자는 군수(君受)이고, 호는 만죽(萬竹)이다. 본관은 부여다. 선조(宣祖) 기사년(1569)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의주목사에 이르렀다.

차운하다

次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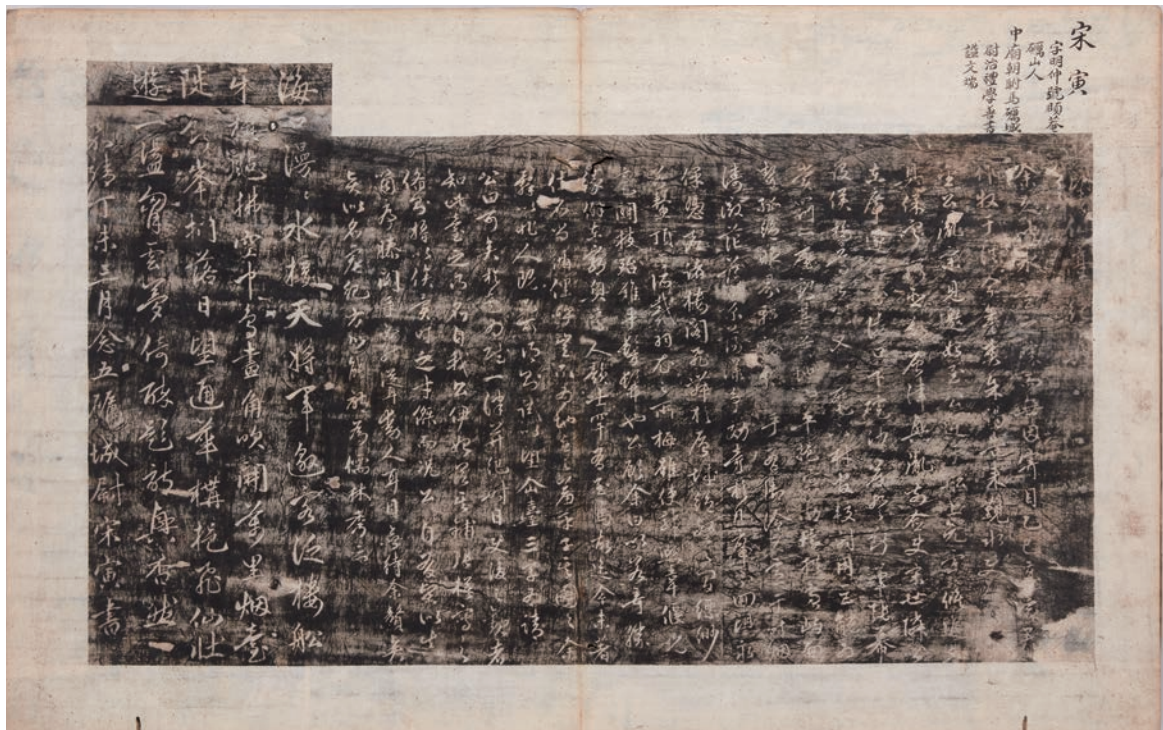
백제 왕기 쓸쓸한지 한참인데
봄나들이 나선 나그네 짧은 노 멈추었네
승상의 높은 명성은 강 위에 떠돌고
장군의 대첩은 응당 바위도 녹이네
숲속 사당 가는 지름길은 뻣뻣한 대밭을 뚫고
찬비 오는 빈 성에 저녁물결 일어나네
울려퍼지는 통소소리 무한한 한에
물속 늙은 교룡 두 눈물은 말라버렸네

扶蘇王氣已寥寥
有客行春駐短橈
丞相高名江共在
將軍一捷石應銷
叢祠小逕穿深竹
寒雨空城生晚潮
吹徹洞簫無限恨
老蛟波底淚雙凋

만죽 서익

萬竹 徐益

16) 서익: 선조대 문신으로, 서천군수, 안동부사, 의주목사 등을 지냈다. 문장과 도덕, 기개와 절조가 뛰어나 이이, 정철이 뜻이 통하는 벗으로 여겼다고 한다. 문집으로 『만죽헌집萬竹軒集』이 전한다.



字明仲 號頤菴 礪山人 中廟朝駙馬礪城尉 治禮學善書 諡文端

자는 명중(明仲), 호는 이암(頤庵)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중종 때에 부마(駙馬)가 되어 여성위(礪城尉)에 봉해졌다. 예학(禮學)에 정통하였고, 글씨에도 능하였다. 시호는 문단(文端)이다.

余久聞水營之勝 而無因寄目 乙巳歲 家君作牧于洪 今年春 余謁告來觀 水使金公胤宗見邀 始至 公逆于船上 元虞侯進文 具保寧弼臣 鄭唐津興胤 前僉使宋世隣皆在席 遂棹至海口 下碇沙岸 登斷峯 張幕設侯 移尊與飲 又引麾下材官較射 用巨觥爲賞罰 一座歡甚 茲地也 平挹溟渤 環拱島嶼 面勢孤¹⁸⁾絕 眼界軒豁 飄飄乎有御冷之意 于時 煙濤微茫 落景蕩漾 爭効奇於几席 而回望永保 憑虛諸樓閣 飛舞於層城絕壑之間 縹緲若鰲頂之所戴 羽衣之所栖 雖使郭熙韋偃吮毫鬪技 殆難乎髣髴也 公顧余曰 以若奇勝 緣僻在窮奧 高人韻士 罕有至焉 故迄今未著佳名 尚循俚呼 豈不爲地主之羞乎 子其圖之 余辭以非人 既不可得 則試以望仙臺三字爲請 公曰 可矣 於是 爲賦一律 并紀時日 使後之觀者 知此臺之得名 自我公伊始 若其鋪張模¹⁹⁾寫之備 則將以俟異時之才傑 而況公自有賢似 眞箇序滕閣手 必能聳動人耳目 無待余贅矣 賢似名震紀 方以能詩爲儒林秀云

17) 송인: 조선중기의 학자이며 서예가이다. 1526년(중종 21) 10세에 중종의 셋째 서녀인 정순옹주(貞順翁主)와 결혼하여 여성위(礪城尉)에 봉해졌고, 명종 때 여성군(礪城君)에 봉해졌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이황 조식 이민구 정립 이이 성혼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였다. 이황에게서 당대 최고의 금석문 서예에 능한 이로 평가받을 정도로 서예에 능하였다. 조맹부체의 해서를 잘 썼다. 전하는 문집으로 『이암선생유고頤庵先生遺稿』가 있다.

18) 『이암선생유고』에는 迥으로 되어 있다.

19) 『이암선생유고』에는 摹로 되어 있다.

내가 수영의 아름다움은 들은 지 오래이지만 인연이 없어 찾지 못하였다. 을사년(1545, 명종 즉위년) 초에 부친께서 홍주에 수령이 되셨기에 금년 봄에 내가 휴가를 얻어 찾아보러 왔더니 수사(水使) 김윤종(金胤宗) 공께서 맞이해 주셨다. 도착할 때에 공께서 직접 배 위까지 오셔서 맞아주셨다. 우후(虞候) 원진문(元進文),²⁰⁾ 보령 현감 구필신(具弼臣), 당진 현감 정흥윤(鄭興胤), 전 첨사 송세린(宋世隣)이 모두 자리에 있었다. 드디어 노를 저어서 바다 입구에 도착하여 모래 언덕에 닻을 내리고, 깎아지른 봉우리에 올라 장막을 펴고 과녁을 설치하며 술 동이를 옮겨 술을 마셨다. 또 휘하의 무관들로 하여금 활쏘기를 겨루게 하고, 큰 빨모양 술잔으로 상이나 벌을 주면서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마음껏 즐겼다. 이 지역은 큰 바다를 멀리 바라보며 섬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외로우며 시야가 확 트였으니 시원한 바람이 나부낀다. 이에 바다안개와 파도가 아득하며, 떨어지는 해 일렁이고 자리에서 기이한 모습을 비추었다. 그런데 눈을 돌려 영보정을 보니 허공에 기댄 여러 누각이 층층이 끊어진 절벽사이에 나는 듯 솟아있어 아득하기가 마치 자라가 머리에 이고 있는 삼신산에 신선이 살고 있는 듯하였으니 비록 광희(郭熙)²¹⁾이나 위원(韋僊)²²⁾이 붓을 들고 기량을 다투어도 방불하게 그리는 것이 거의 어려울 것이다. 공이 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와같이 기이한 경치가 궁벽한 곳에 외따로 있기에 뜻이 높은 선비와 시인로서 여기에 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여전히 속된 호칭을 따르니 어찌 수령으로서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대가 한번 해 보겠는가?”하였다.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양하였으나 이미 그럴 수 없어서 시험삼아 ‘망선대(望仙臺)’ 세 글자로 요청해 보았더니 공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읍시 1수를 짓고, 일시를 같이 적어서 나중에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이 누대가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나와 공으로부터 된 것임을 알게 하였다. 펼쳐 서술하고 묘사하기를 자세하게 함과 같은 것은 또한 훗날의 걸출한 인재를 기다려야 하리라. 그리고 하물며 곧은 훌륭한 아들을 두어 참으로 등각서를 지은 왕발과 같은 솜씨가 있어서 반드시 사람들의 이목을 진동시킬 수 있으리니, 나의 군더더기 같은 말을 기다릴 것이 없다. 아들 이름은 진기(震紀)이니, 바야흐로 시에 능함으로 유럽에 뛰어나다고들 한다.

바다입구의 물결 하늘가에 넘실대는데	海口漫漫水接天
장군께서 다락배를 띄어 객을 맞이하네	將軍邀客泛樓船
아기(牙旗) ²³⁾ 는 공중에 나는 새처럼 훑날리고	牙旗颭拂空中鳥
화각(畫角) ²⁴⁾ 소리는 만리의 바닷안개에 퍼지네	畫角吹開萬里煙
끊어질 듯 솟은 봉우리의 대는 지는 해를 어루만지고	臺陟斷峯捫落日
사방으로 뿔린 아름다운 정자는 나는 신선처럼 보이네 ²⁵⁾	望通華構挹飛仙
장쾌한 유람 가슴 속 먹구름을 씻어내니	壯遊一盪胸雲夢
술에 취해 시를 지어 흥취가 아련하네	倚醉題詩興杳 ²⁶⁾ 然

가정 정미(1547) 3월 25일 여성위 송인 씀

嘉靖丁未三月念五 礪城尉 宋寅 書

20) 조선전기의 무신으로, 송인(宋寅)의 문집에 그와 함께 망선대(望仙臺)를 유람하면서 지은 시가 실려 있다.

21) 광희(郭熙): 중국 북송 때의 화가이다. 북방계 산수화 양식의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다. 현실의 자연경치에 얽매어 사생적인 것에 지나지 않던 그때까지의 산수화를 이상화된 마음속의 산수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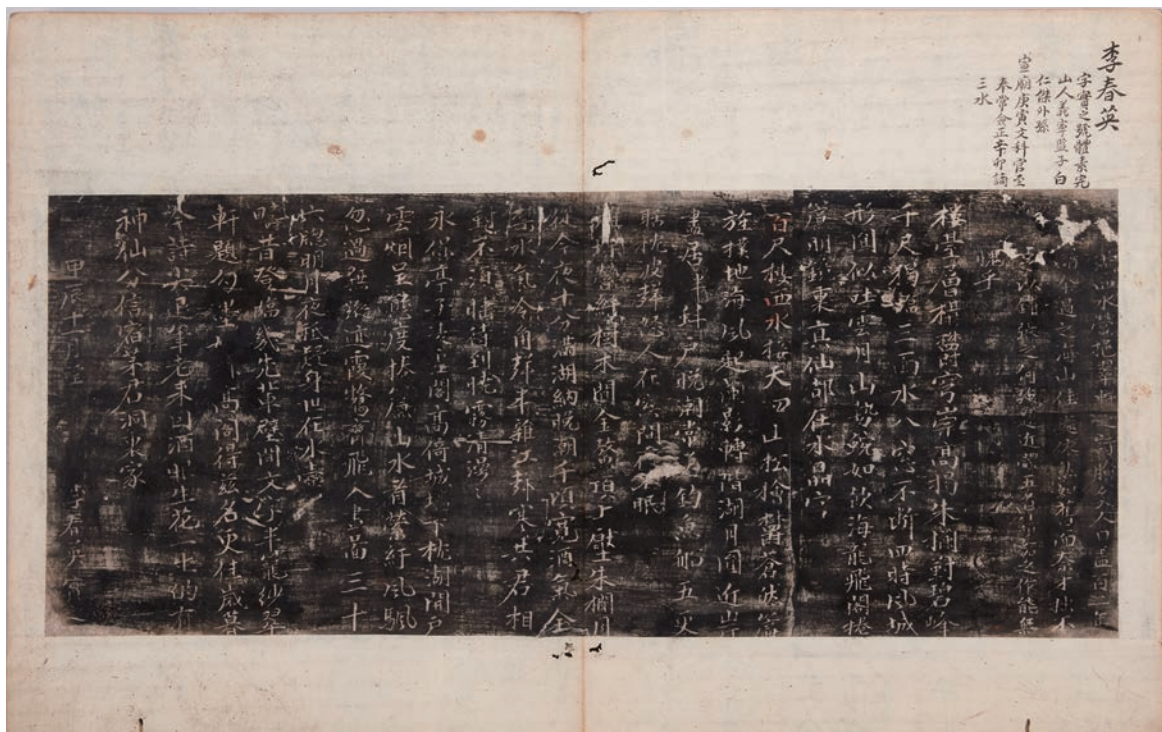
22) 위원(韋僊): 당나라 때의 화가. 산수(山水)와 인물, 대나무를 잘 그렸다.

23) 아기(牙旗): 임금이나 대장의 거소(居所)에 세우는 상아로 만든 큰 기(旗)를 말한다.

24) 화각(畫角): 악기의 한가지. 쇠뿔 같은 것에 그림을 그려 불도록 만들었다.

25) 끊어질 듯 … 보이네: 대(臺)는 바다 굽어진 곳의 일두봉이고, 여기에서 낙조를 바라본다고 한다. 이곳에서 눈을 돌려 영보정을 보면 마치 자라 이마의 선궁과 같다고 하였다.

26) 『이암선생유고』에는 杳로 되어 있다.



字實之 號體素 完山人 義²⁸⁾寧監子白仁傑外孫 宣廟庚寅文科 官至奉常僉正 辛卯謫三水

자는 실지(實之), 호는 체소(體素)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의령현감(宜寧 縣監) 이윤조(李胤祖)²⁹⁾의 아들이며, 백인걸(白仁傑)의 손자이다. 선조 경인년(1590)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봉상시 첨정에 이르렀으며 신묘년(1591)에 삼수에 유배갔다.

湖西水營挹翠軒之詩 膾炙人口蓋百二年 而余過之 海山佳處 依然如舊 而奈才拙不足以鋪張之何 強題近體五首 續紹之作 能無愧乎

호서의 수영(水營)에 있는 읍취헌(挹翠軒: 박은)의 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 102년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곳을 찾으니 바다와 산이 아름다운 곳이 옛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재주가 부족해서 표현해내지 못하니 어찌하랴. 억지로 근체시(近體詩) 5수를 지었는데, 훌륭한 시에 잇다른 부족한 작품이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층층이 지은 누대 우뚝히 하늘에 닿았고
높이 걸린 붉은 난간 푸른 산 마주보네
천 길 높이 홀로 삼면 바다에 임하니
여덟 창문에는 사시 바람 끊이지 않네
성 모양 둥글어 구름 토한 달 같고
구불한 산 형세 바다 마시는 용 같네
날 듯한 누각 발 견히자 밝은 거울 속 같으니
참 신선들 모두 수정궁에 있겠네

樓臺層構鬱穹崇
高揭朱欄對碧峯
千尺獨臨三面水
八窓不斷四時風
城形圓似吐雲月
山勢蜿蜒如飲海龍
飛閣捲簾明鏡裏
眞仙都在水晶宮

27) 이춘영: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이며, 시문(詩文)에 능했고 『해동사부海東辭賦』에 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28) 宜의 오기이다.

29) 의령 현감을 지낸 이윤조는 정종(定宗)의 4대손으로 원문에는 없지만 추가하였다.

백척의 누각 서쪽 수면은 하늘에 닿았고
사방 산에 소나무와 잣나무 울창하네
주렴 자락 땅을 치며 바닷바람 일으키고
난간 그림자 계단 돌며 호수의 달은 둥그네
해안 가까운 곳 조개 따는 집들 모두 살고
저녁 조수(潮水)는 낚시배를 종일 보내주니
새벽녘까지 파도소리 베갯머리 깨워서
창문 사이에서 밤새 잠을 못 이루네

百尺樓西水接天
四山松檜鬱蒼然
簾旌撲地海風起
闌影轉階湖月圓
近岸盡居拌蚌戶
晚潮常送釣魚船
五更聒枕波聲怒
人在窓間夜不眠

성가퀴는 나무 사이 구불구불 둘러있고
금오봉 정상으로 붉은 난간 위압되어
달은 오늘 밤 따라 가득 밝아있고
호수는 저녁 조수(潮水) 들어 무한 넓어졌네
술기운은 썰렁한 물기운 온전하게 막아주고
호각소리 찬 강물 소리에 섞여 들려오네
마주한 그대 잠은 잘 필요 없고
맑은 새벽안개 자욱하길 기다려야 하겠네

雉堞縈紆樹木間
金龜頂上壓朱欄
月從今夜十分滿
湖納晚潮千頃寬
酒氣全禁水氣冷
角聲半雜江聲寒
共君相對不須睡
待到曉霧清漫漫

공중에 솟은 정자 영보정³⁰⁾
높이 성에 기댄 채 호수 베고 있네
문 여니 구름 안개 속 온갖 풍광 드러나고
주렴 걷히자 산과 물 어우러져 나타나네
돛단배 홀연히 지나가 자취없이 사라지고
지는 놀 물오리 나란히 날아 그림 속에 드네
서른여섯 개 창문 밝은 달 비치는 밤
빙호(氷壺)³¹⁾ 속에 내 있는가 싶네

永保亭子凌虛閣
高倚城牆下枕湖
開戶雲煙呈態度
捲簾山水看縈紆
風颿忽過無蹤跡
霞鷺齊飛入畫圖
三十六窓明月夜
祇疑身世在氷壺

옛날 이곳에 오른 선배 몇이던가
벽 위에 쓰인 쇠구 비단 깃으로 감쌌네
읍취헌(攄翠軒: 박은)의 쇠구 어제 쓴 듯하고
높은 정자 이를 얻어 명성이 더욱 아름다워지네
세월에 읊은 시 퇴필(退筆)을 예리하게 하고
늙어서 취흥에 눈앞이 가물거리네³²⁾
한평생 신선과는 떨어져 살았지만
진실로 모군(茅君)³³⁾이 사는 동네 집에 자네

疇昔登臨幾先輩
壁間文字半籠紗
翠軒題句墨如昨
高閣得茲名更佳
歲暮吟詩尖退筆
老來因酒眼生花
一生的有神仙分
信宿茅君洞裏家

갑진년(1604) 11월 15일 실지 이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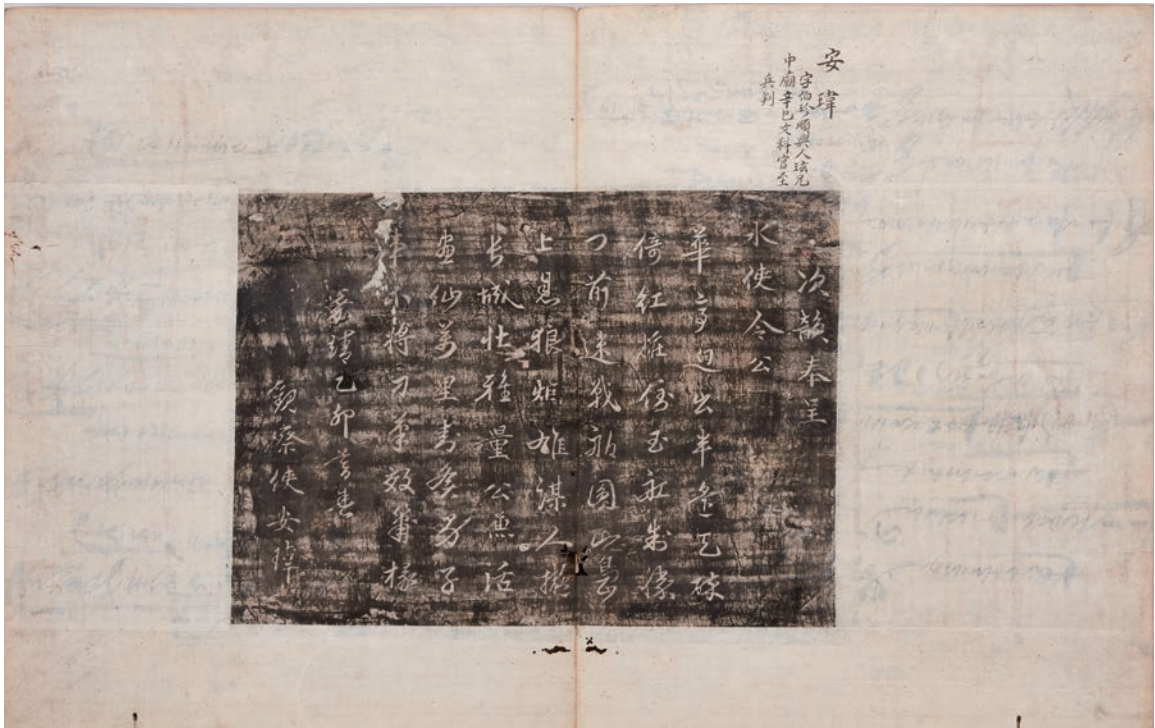
甲辰十一月 望 李春英實之

30) 영보정(永保亭): 영보정은 충남 보령의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 성내에 있던 정자이다. 영보정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여서 수많은 제영시의 창작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영보정의 명성은 뒤에 나오는 박은(朴聞)의 제영시 덕분에 더욱 높아졌는데, 그가 지은 다섯 수가 영보정 경관의 특징인 '기이함'을 온전히 담아낸 전범으로 인식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다수의 제영시들이 창작되었다

31) 빙호(氷壺): 얼음으로 만든 호리병을 말한다.

32) 늙어서 ... 가물거리네: '眼生花'는 늙어서 눈앞이 가물가물한 것을 말한다.

33) 모군(茅君): 전설상의 인물로서 제(齊)나라 사람이다. 구곡산(句曲山)에서 수도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모씨(茅氏) 형제를 말한다.



子伯珍 順興人 玆兄 中廟辛巳文科 官至兵判

자는 백진(伯珍)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안현(安玆)의 형이다. 중종 신사년(1521)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차운하여 수사 영공에게 올림

次韻奉呈水使令公

뛰어난 화정 한쪽 하늘가에 있고
미인에게 기대어 옥술잔을 기울이네
제승당 문 앞에는 전함이 아득하고
원산도 위에는 낭연이 그쳤네
큰 계책과 높은 재주 장성처럼 장중하니
아량은 공변되고 살아있는 신선같네
만리후³⁵⁾에 봉해짐은 남자의 일이라
자잘한 도필³⁶⁾로 소하를 본받을까

華亭迤出半邊天
醉倚紅粧倒玉缸
制勝門前迷戰船
圓山島上息狼煙
雄謀人擬長城壯
雅量公兼活畫仙
萬里封侯男子事
小將刀筆效蕭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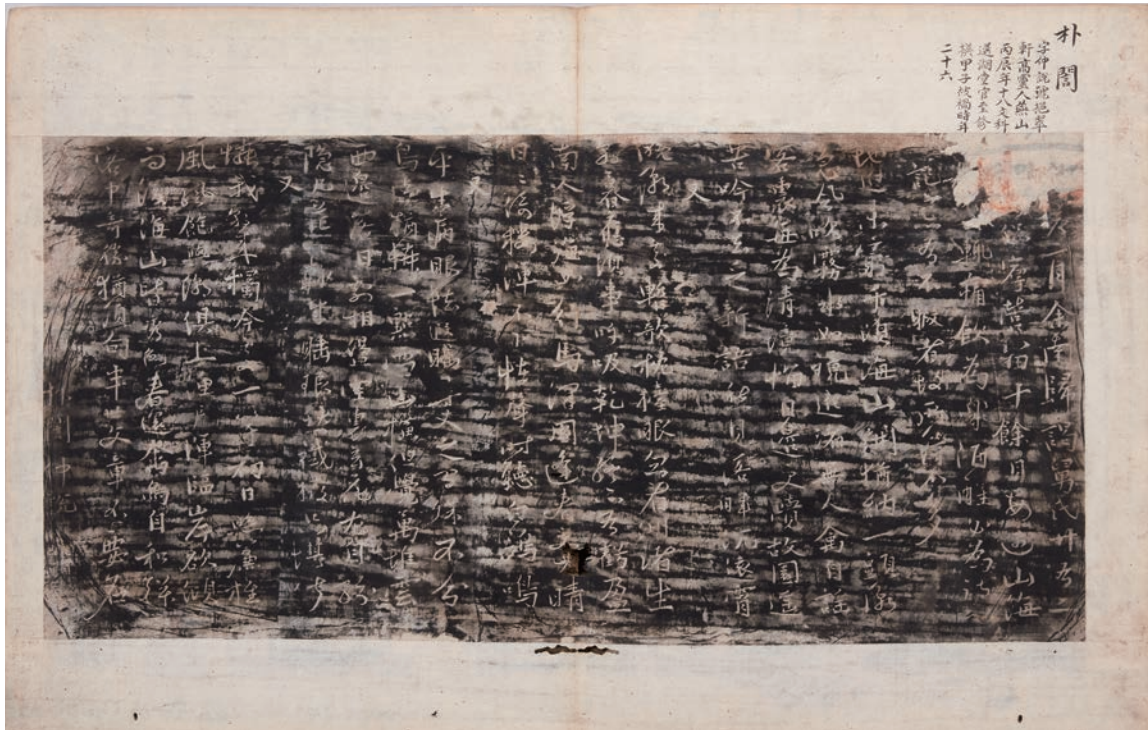
가정 을묘년(1555) 모춘
관찰사 안위

嘉靖乙卯暮春
觀察使 安瑋

34) 안위: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지방의 외직으로 나가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병학(兵學)에도 재능이 있어 병조판서까지 역임하였다. 1554년(명 중 9) 청흥도관찰사를 역임하였는데, 이때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35) 만리후(萬里侯): 만 리 먼 변방에서 공을 세워 제후에 봉해짐을 말한다. 후한의 반초(班超)가 집이 가난하여 문서를 서사(書寫)하는 품을 팔아 모친을 봉양하고 살았는데, 관상 보는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제비턱에 범의 목덜미이니, 만리후(萬里侯)에 봉해질 상(相)이다.” 하였다.(『후한서後漢書』班超列傳.)

36) 도필(刀筆): 문서를 기록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옛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갈로 대나무에다 문자를 새겼다



字仲說 號挹翠軒 高靈人 燕山丙辰年十八文科 選湖堂 官至修撰 甲子被禍時年二十六

자는 중열(仲說), 호는 읍취헌(挹翠軒)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연산군 병진년(1496) 18세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호당(湖堂,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수찬에 이르렀고, 갑자년(1504)에 사화를 입었을 때는 26세이다.

癸亥二月 余南歸謁舅氏 廿有二日到保寧營 淹留十餘日 每遇山海勝處輒痛飲爲樂 酒醒必爲詩以記而亦有不暇者 故所得不多

계해년(1503) 2월에 내가 남쪽으로 돌아가 외삼촌을 뵈고, 22일에 보령영(保寧營)에 이르러 10여 일 동안 머물면서 매번 산과 바다의 경치가 좋은 곳을 만나면 통음(痛飲)하며 즐겼다. 그리고 술이 깨면 반드시 시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하였으나 시를 지을 겨를이 없을 때도 있었으므로 당시에 지은 시가 많지는 않다.³⁷⁾

땅이 좁아 드넓은 바다 다 용납하지 못하지만
산은 열려서 한 가닥 조수를 받아들이네
급한 바람이 안개 불어 흩으니 물은 거울 같은데
가까운 물가에 사람 없고 새만 스스로 노래하는구나
객지에서 매양 맑은 경치에 마음이 심란한데
해지는 곳에서 다시금 고향이 아득히 멀을 깨닫네
고심해 시 읊느라 못 떠나면서 새 시구가 모자라니
석양이 먼 하늘에 잠기는 광경 근심에 겨워 보는구나

地迫未窮千頃海
山開猶納一頭潮
急風吹霧水如鏡
近渚無人禽自謠
客裏每爲清境惱
日邊更覺故園遙
苦吟不去乏新語
愁見落暉沈遠霄

37) 이 작품은 박은이 보령에 있는 충청 수영(水營) 뒤의 정자인 영보정(永保亭)에서 지은 것이다.

또

늦은 조수 밀려드는 곳에 잠시 베개 기대 누웠다가
 눈을 들어보니 홀연히 새 물가 생겨났네
 아침저녁 모르지기 호흡하는 것이리니
 하늘과 땅도 마침내 차고 기움을 거둬하네
 남쪽 사람들 말 타듯 배 타고
 바닷가는 봄을 만나 날씨 약간 개는구나
 날마다 누각에 기댄 채 내려갈 줄 모르니
 괴이하게 우는 백구 울음 때때로 들리노라

또

평소에 눈병 앓아 멀리 보기 겁내다가
 눈 앞 사물 전혀 분간치 못하네
 새가 날아가니 한 점 흰 눈 같아 어여쁘고
 비껴 있는 산은 만 무더기 구름만 같구나
 서녘으로 떨어지는 해 몹시도 일렁거리고
 허공 보는 눈동자 절로 더욱 어지러워라
 책상 기댄 채 아득히 바라보다 문득 잠이 드니
 낭랑하게 울리는 쇠거문고 소리 들을 만하네

또³⁸⁾

아침에 와 홀로 시 읊는 나를 가없이 여김인가
 한 발쯤 뜬 해 발 머리를 비추네
 바람 가득한 돛단배 조수와 함께 오르고
 어촌의 집 바닷가 언덕에서 기울어져 있네
 비 온 뒤 바다와 산 모두 빼어난 빛을 띠고
 봄이 돌아오자 새들 절로 소리 조화롭네
 객지에서 좋은 경치 만나면 시구를 읊어야지
 반평생 문장에 이름 필요 없어라

중열 박은

又

晚潮來處暫欹枕
 擡眼忽看洲渚生
 朝暮應須事呼吸
 乾坤終亦有虧盈
 南人浮海如行馬
 澤國逢春更少晴
 日日倚樓渾不下
 怪聲時聽白鷗鳴

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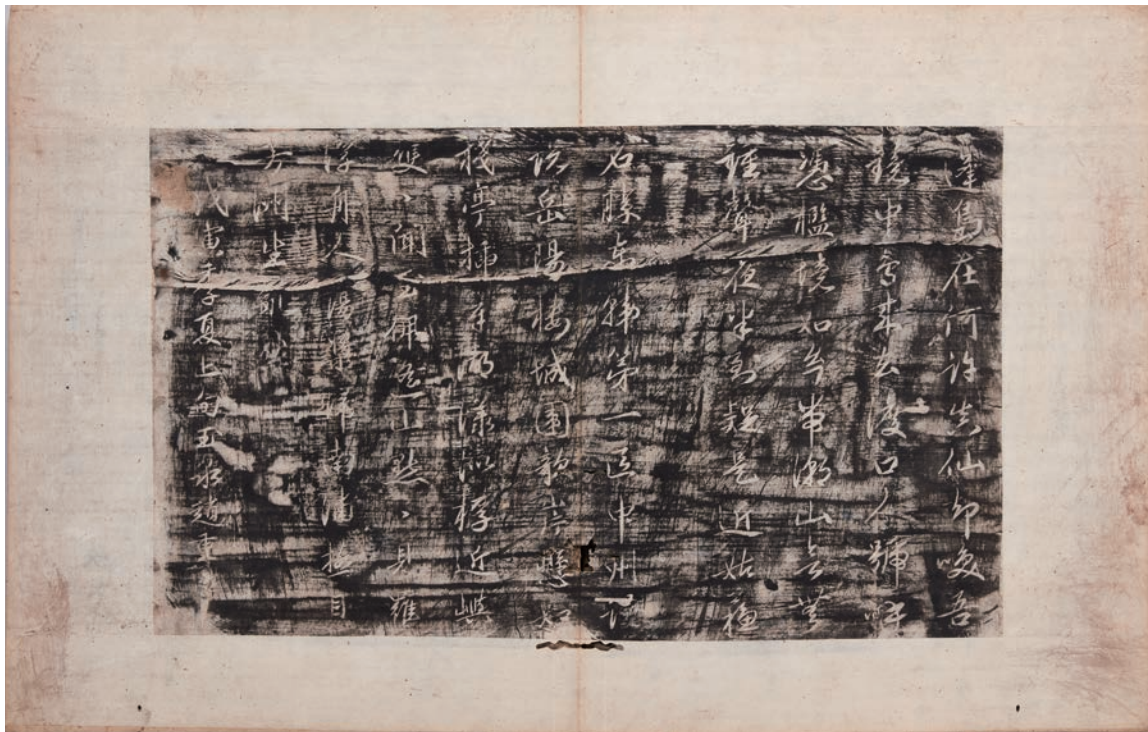
平生病眼怯遐矚
 尋丈之間殊不分
 鳥過猶憐一點雪
 山橫但覺萬堆雲
 西邊落日劇相盪
 空裏玄花尤自紛
 隱几茫茫輒成睡
 琅然鐵撥只堪聞

又

憐我朝來獨吟處
 一竿初日照簾旌
 風飄飽與潮俱上
 漁戶潭臨岸欲傾
 雨後海山皆秀色
 春還禽鳥自和聲
 客中奇勝猶須句
 半世文章不要名

仲說 朴聞

38) 『음취현유고』에는 동일한 시가 실려 있지만 총 5수이다. 이 시 앞에 제4수의 시가 있지만 『청구제영』에는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시는 다음과 같다. “땅은 새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려는 형국 地如拍拍將飛翼 누각은 한들한들 매인 데 없는 배 같아라 樓似搖搖不繫篷 북쪽으로 바라보매 운산은 어디메가 그 끝인가 北望雲山欲何極 남쪽으로 와 띠처럼 두른 산세 이곳이 제일이네 南來襟帶此爲雄 /바다기운은 안개가 되고 이어서 비를 뿌리며 海氛作霧因成雨 물결 기세는 하늘에 닿고 절로 바람을 이네 浪勢翻天自起風 어둑한 중에 마치 새 울음 들리는 듯 暝裏如聞鳥相叫 앉아서 모도 경계도 빚을 깨닫네 坐間渾覺境俱空”



봉도³⁹⁾는 어디에 있는가

蓬島在何許

진선이 문득 나를 부르네
 호수 속에는 새가 오가고
 나루터 머리에서 사람이 부르네
 난간 끝에 기대어 꿈꾸는 듯
 조수에 둘러싸여 산은 보이지 않네
 멀리 종소리는 한 밤중에 울리니
 아마도 고소성이 아닌가 하네⁴⁰⁾

眞仙却喚吾
 鏡中鳥來去
 渡口人號呼
 憑檻境如幻
 帶潮山欲無
 鍾聲夜半到
 疑是近姑蘇

39) 봉도(蓬島): 선인(仙人)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동해 봉래산(蓬萊山)을 가리킨다.

40) 아마도 ~ 아닌가 하네: 고소(姑蘇)는 고소성(姑蘇城)을 말하는 것으로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의 수도이다.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월(越) 나라를 격파하고 나서 미인 서시(西施)를 얻고는 고소산(姑蘇山) 위의 대(臺)에서 날마다 서시와 함께 유연(游宴)만 즐기다가 끝내는 월나라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였다.

경치로는 조선의 첫 번째이니
 중국으로는 악양루⁴¹⁾로네
 언덕을 둘러싼 성은 잔도가 매어달린 듯
 잔잔한 호수에 정자는 뗏목처럼 출렁거리네
 가까운 섬에서는 쟁글쟁글 패옥소리 들리고
 묵묵히 있는 먼 산 나부산처럼 보이네

뱃놀이하던 사람들 남포로 돌아오고
 눈닿는 향기로운 물가에 ~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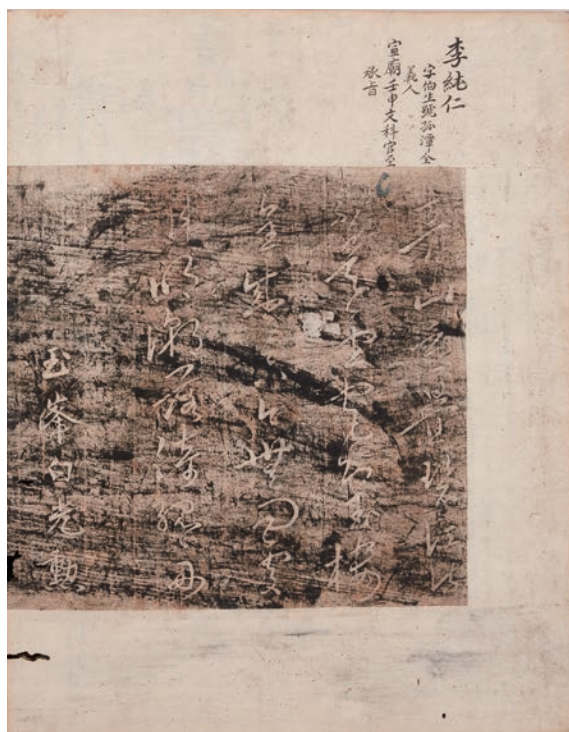
무인년 계하 상순 옥천 조중

名勝東韓第一區
 中州說岳陽樓
 城圍欹岸懸如棧
 亭插平湖漾似桴
 近嶼雙雙聞玉佩
 遙山默默見羅浮

舟人湯漿歸南浦
 極目芳洲生

戊寅季夏上旬 玉泉 趙重

41) 악양루(岳陽樓): 중국 후난성 동정호구 악주부(岳州府)에 있는 부성(府城)의 서쪽문 누각이다. 동정호의 동안에 위치하여 호수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고 풍광이 아름다운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첩첩한 푸른 산 사이로 푸른 강물 흐르고
이곳은 궁궐 아니면 옥루로네
왕성했던 시절 지금 물을 곳 하나 없고
달밝은 밤 조수 따라 외로운 배에 몸을 싣네

옥봉 백광훈

靑山重疊碧江流
不是金宮卽玉樓
全盛只今無間處
月明潮落倚孤舟

玉峯 白光勳

42) 이 작품은 백광훈의 작품으로, 『청구제영』 오른쪽 상단에는 ‘이순인李純仁’의 정보가 적혀 있다. 바로 옆의 시가 이순인이기 때문에 혼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순인의 인물정보는 다음 장에 넣었다. 따라서 작자를 백광훈으로 바로잡았다. 백광훈은 조선전기 문신으로 박순의 문인이었다. 노수신 등에게서도 수학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노수신을 따라 제술관이 되어 사신을 감탄하게 하여 백광선생의 칭호를 얻었다. 최경창(崔慶昌)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렸다.



字伯生 號孤潭 全義人 宣廟壬申文科 官至承旨

자는 백생(伯生), 호는 고담(孤潭)이다.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선조(宣祖) 임신년(1572, 선조 5)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승지에 이르렀다.

남쪽 호수 가을에 배 띄우니 객의 시름이 깊고
성 위에 우는 까마귀 소리 야밤의 다듬이 소리와 함께 하네
천년이 지난 일 물을 곳은 없는데
옛 사당 곁에는 깨진 비석에 잡초 시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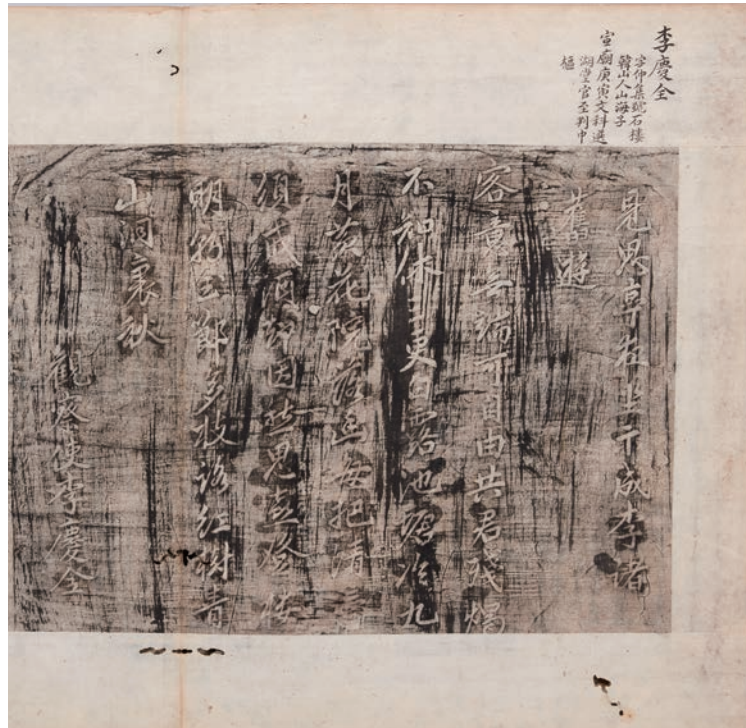
南湖秋泛客愁深
城上啼鴉伴夜砧
事去千年無問處⁴⁴⁾
斷碑裏草古祠陰

고담 이순인

孤潭 李純仁

43) 이순인: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이황, 조식의 문인이다.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등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하다가 왕명으로 중전과 동궁을 모시고 성전에 이르러 과로로 사망하였다. 문장에 뛰어나서 이산해(李山海),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 등과 함께 ‘팔문장’으로 불리웠다.

44) 이 구절은 이순인의 문집 『고담유고孤潭逸稿』에는 ‘欲吊成忠何處是’로 되어 있어서 현판과는 차이가 있다.



字仲集 號石樓 韓山人 山海子 宣廟庚寅文科 選湖堂 官至判中樞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이산해(李山海)의 아들이다. 선조(宣祖) 경인년(1590)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독서당에 들어갔고, 관직은 판중추에 이르렀다.

견사정⁴⁶⁾에 밤에 앉아서 성(成)·이(李) 여러 옛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보임

見思亭夜坐示成李諸舊遊

나그네 향수 이유없이 제멋대로인데
그대와 남은 촛불 함께 하며 그칠 줄을 모르네
한밤의 흰 이슬은 연못에 차갑게 내리고
구월의 국화는 경내에 그윽하네
매양 파리하고 여윈 몸 술을 경계하니
다시 근심으로 누각에 오르기 좋아하네
내일 아침 옥절(玉節)⁴⁷⁾ 갈 길이 여러 군데인데
단풍나무 푸른 산골짜에 가을이 저무네

客意無端可自由
共君殘燭不知休
三更白露池塘冷
九月黃花院落幽
每把清羸須戒酒
却因愁思喜登樓
明朝玉節多歧路
紅樹青山洞裏秋

관찰사 이경전

觀察使 李慶全

45) 이경전의 시는 『청구제영』 제1첩에도 나왔지만, 인물정보의 부기는 제3첩에 적혀있다.

46) 견사정(見思亭):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의 관아에 있던 정자이다. 원래는 포정정(布政亭)이라 하였는데, 관찰사 안침(安琛)이 고쳤다고 한다.

47) 옥절(玉節): 옥으로 만든 부신을 말한다. 옛날 관직(官職)을 받을 때에 증표로 받은 물건인데, 여기서는 이 옥절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관찰사인 자신을 지칭한 것이다.



字汝溫 礪山人 中廟庚辰文科壯元 官至判尹

자는 여온(汝溫)이고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중종 경진년(1520)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고, 관직은 한성 판윤에 이르렀다.

동헌에서 읍음

題東軒

멀리 봉수산⁴⁹⁾ 탁 트인 작은 집
 쓸쓸한 못의 누대 수목은 번성하네
 황량한 사당은 다만 소정방을 모시는 것을 알뿐
 남아있는 성첩 임존성인 줄 누가 알겠는가
 천리의 풍진세상 용이 싸우던 들이요
 백 년 동안 연기 오르고 개 짖는 마을이라네
 가을 바람에 특별히 일어나는 감회가 있으니
 날 저무는 때에 복신⁵⁰⁾을 홀로 대하는 듯 하네

鳳首山前敞小軒
 池臺寥落樹材繁
 荒祠但識尊蘇別
 毀堞誰知是任存
 千里風塵龍鬪野
 百年煙火犬鳴村
 秋風別有興懷處
 獨對霜岑日欲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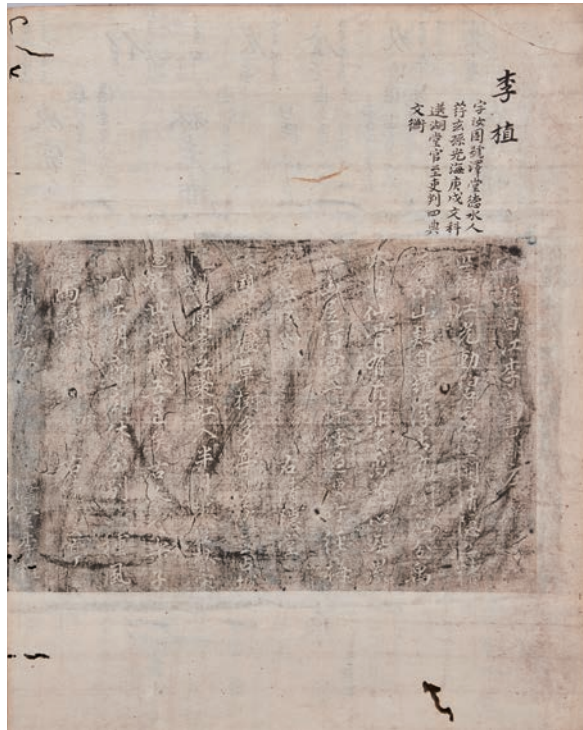
관찰사 송겸

觀察使 宋謙

48) 송겸: 조선 중기 문신으로, 사간원헌납, 고원군수, 충청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49) 봉수산(鳳首山): 충청남도 홍성군의 동쪽 금마면에 위치하는 산이다. 예산군 대흥면과 경계에 있다.

50) 복신: 상감(霜岑)은 백제 무왕의 조카인 복신(福信)을 말한다. 복신이 승려 도침(道琛)과 더불어 주류성(周留城)에 웅거하고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 군사가 매우 성대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 장수 유인원(劉仁願)이 있는 도성을 포위하였다. 유인원(劉仁軌)이 신라와 합공하여 그 포위를 풀자 복신이 임존성(任存城)으로 물러가 지키면서 자칭 상감장군(霜岑將軍)이라 하였다. 뒤에 부여풍에게 살해되었다.



字汝固 號澤堂 德水人 苐玄孫 光海庚戌文科 選湖堂 官至吏判四典文衡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이다.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이행(李苐)의 현손(玄孫)이다. 광해군 경술년(161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네 번 문형(文衡)을 맡았다.

백강 이상서의 호반 별장⁵²⁾에 제하여 부친 시⁵³⁾

寄題白江李尙書湖庄

흰 비단 펼친 강물에 일렁이는 하늘빛
 정려와 가깝게 청은당 집을 열었네
 자그마한 산언덕은 나부⁵⁴⁾에서 옮겨 온 듯
 누대 또한 우혈⁵⁵⁾의 책들을 나누어 받았구나
 원래 선풍 도골(仙風道骨)이니 신선을 부러워하겠지만
 도심을 지닌 이 숨어서 살기엔 그만이네
 어떡하면 한번쯤 배 저어 지나가는 편에
 대숲 길에 매화 처마 왔다 갔다 해 볼거나
 이는 청은당(淸隱堂)⁵⁶⁾을 읊은 것이다.

匹練江光動碧虛
 堂開淸隱近精廬
 小山疑自羅浮出
 高閣應分禹穴書
 仙骨有眞非素尚
 道心無累合幽居
 何當一棹經過便
 竹徑梅簷任所如
 右淸隱堂

51) 이식: 명문가의 후손으로 광해군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다가 폐모론이 일어나자 지평에 낙향하여 지냈다. 인조반정 이후 중용되어 대사헌과 여러 판서를 역임하였다. 문명(文名)이 높아서 문형이 되었으며, 한문사대가의 하나로 꼽혔다.

52)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가 소유했던 백마강변의 별장을 말한다. 원래 이경여의 기반은 서울이며, 선친들의 묘소 역시 경기도 포천에 있다. 이경여의 장인 영의정 윤승훈(尹承勳)이 부여 백마강변의 부산 진변리의 땅을 사위에게 물려주었다고 전한다.

53) 『택당선생집澤堂先生續集』에는 ‘寄題李直夫尙書湖莊’ 二首로 실려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순서도 원우정과 청은당의 순으로 『청구제영』과는 역순으로 실려 있다.

54) 나부(羅浮: 진(晉) 나라 갈홍(葛洪)이 신선의 도를 닦았다는 곳이다. 도교에서 ‘제칠동천(第七洞天)’으로 부르는 산 이름이다.

55) 우혈(禹穴): 우(禹) 임금이 서책을 보관해 두었다는 곳으로서 회계산(會稽山)에 있다고 한다.

56) 청은당(淸隱堂)과 원우정(遠憂亭)은 이경여가 낙향했을 때 거처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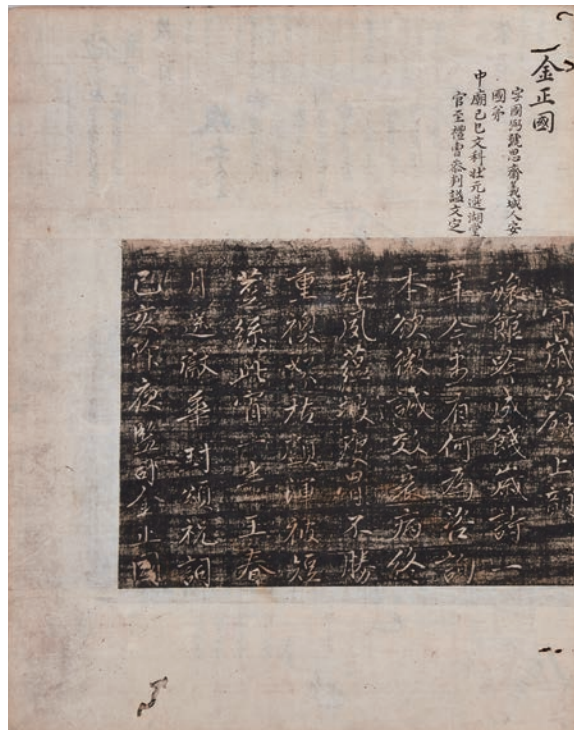
백제 땅 옛 도읍지 초목이 무성한 곳
 산언덕 마음대로 독차지한 정자네
 고란사 가까이 배 타고서 들어가고
 반월성 빈 뜨락에 지팡이 짚고 지나가리
 난세의 나의 행장 이미 끝장났소마는
 옛사람의 즐거움과 근심 그대는 어찌할지
 강호니 조정이니 분별할 게 뭐가 있소
 하나같이 풍진 속에 흰머리만 날리는 걸
 이는 원우정(遠憂亭)을 읊은 것이다.

송정 경진년(1640) 택당 이식

故國遺墟草樹多
 亭臺隨意占坡陀
 阜⁵⁷⁾蘭寺近乘舡入
 半月城空杖策過
 亂世行藏吾已矣
 古人憂樂子如何
 江湖廊廟休分別
 一種風塵雨鬢皤
 右遠憂亭

崇禎 庚辰 澤堂 李植

57) 『택당선생속집』에는 ‘高’로 되어 있다.



字國弼 號思齋 義城人 安國弟 中廟己巳文科壯元 選湖堂 官至禮曹參判 諡文穆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이다.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김안국의 아우이다. 중종 기사년(1509)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예조참판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수세⁵⁹⁾하며 벽에 시를 읊음

守歲次壁上韻

여관에서 한해 전별하는 시를 지으니
일 년 다하는 지금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자문함에 작은 정성 바치고자 하였으나
늙고 병들어 일찍 품은 마음 펴기 어렵네
뼈만 앙상하여 갓옷 솜옷도 감당하기 어렵고
메마른 머리 짧은 흰머리로 어지럽네
오늘밤 지나면 거의 정월이니
멀리 화봉의 송축하는 말을 올리네⁶⁰⁾

旅館吟成餞歲詩
一年今盡有何爲
咨詢本欲微誠效
衰病終難夙蘊披
瘦骨不勝重襖絮
枯顚渾被短莖絲
此宵一半王春月
遙獻華封頌祝詞

기해년(1539) 제야 감사 김정국

己亥除夜監司金正國

58) 김정국: 조선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김안국의 동생이며 김굉필의 문인이다. 기묘사화로 삭탈관직이 되어 고양에 가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복직 이후 전라도 관찰사, 병조참의,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59) 수세(守歲): 음력 설날 그믐날 제야(除夜)에 등촉을 집안 구석구석에 밝히고 온 밤을 새우는 풍습이다.

60) 멀리 ... 올리네: 화봉(華封)의 축수는 요(堯)임금이 화봉 지방을 순행하였을 때, 화봉인(華封人)이 요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聖人)은 수(壽)하시고, 성인(聖人)은 부(富)하시고, 성인(聖人)은 다남(多男)하시라.'고 축복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로서 여기서는 화봉의 송축하는 말을 가리킨다. 임금의 덕을 찬양한다는 말이다.



字得之 號蘇逢 光山人 宣廟辛丑文科 官至刑曹參判

자는 득지(得之), 호는 소봉(蘇峰)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선조(宣祖) 신축년(1601)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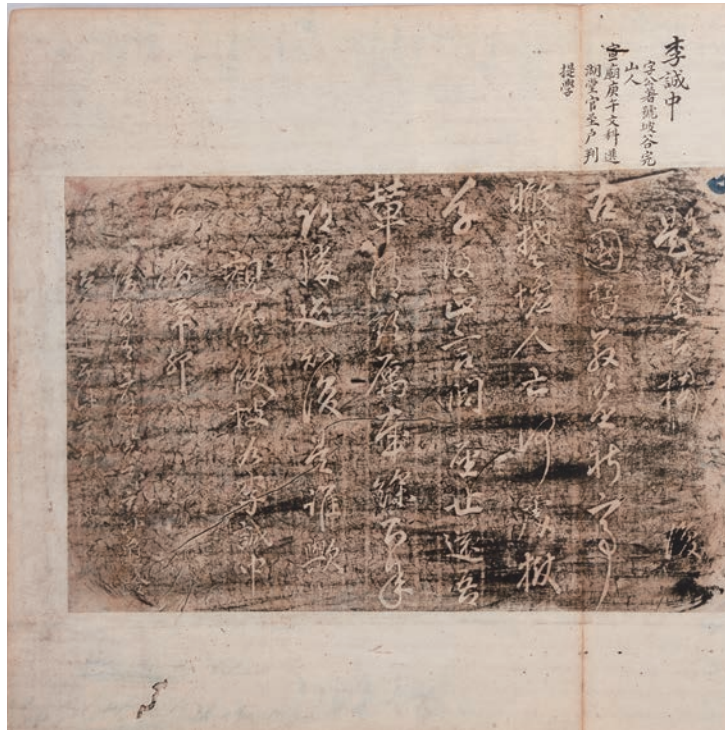
□□□ 홀로 돌아오고
긴 모래톱에 새는 쌍쌍으로 나네
흥하고 망함은 물을 길 없고
항아리 가득 술있음에 의지하네

만력 신해년(1611) 9월
광산 김대덕 씀

□□□歸獨
長洲鳥去雙
無由問興廢
賴有酒盈缸

萬曆辛亥九月
光山金大德稿

61) 김대덕: 선조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서산군수를 지냈으므로 이 작품은 이때 지은 시로 추정된다.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극력 반대하다가 삭직당하였고, 인조반정 후에는 인조의 사친추숭의 잘못도 주장하였다. 글씨에 뛰어나 초서, 예서에 능하였다.



字公著 號坡谷 完山人 宣廟庚午文科 選湖堂 官至戶判提學

자는 공저(公著), 호는 파곡(坡谷)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선조(宣祖) 경오년(1570, 선조3)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호조판서와 제학(提學)에 이르렀다.

감고루에서

題 鑑古樓

옛 도읍지는 거울삼을 일 남겼는데⁶⁴⁾
새 정자에서 황량한 옛터 바라보네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갇혀 죽었던가
풀은 바른 말 있던 마을을 물어버렸네
태평성대는 우리에게 왔는데
맑게 기뻐함에 마침 세밀이네
백년의 인생 뛰어난 고적 찾으니
알아줄 사람 다시 누가 있겠는가

古國留殷鑑
新亭瞰楚墟
人亡何處獄
草沒正言閭
聖世還吾輩
清歡屬歲餘
百年尋勝迹
知復是誰歟

관찰사 파곡 이성중

觀察使坡谷李誠中

만력 신묘년(1591, 선조24) 후 103년 계유년(1693) 현손 귀령

萬曆辛卯後 百有三年癸酉 玄孫龜齡

좌막(佐幕)⁶⁵⁾이 여기에서 다시 판각하여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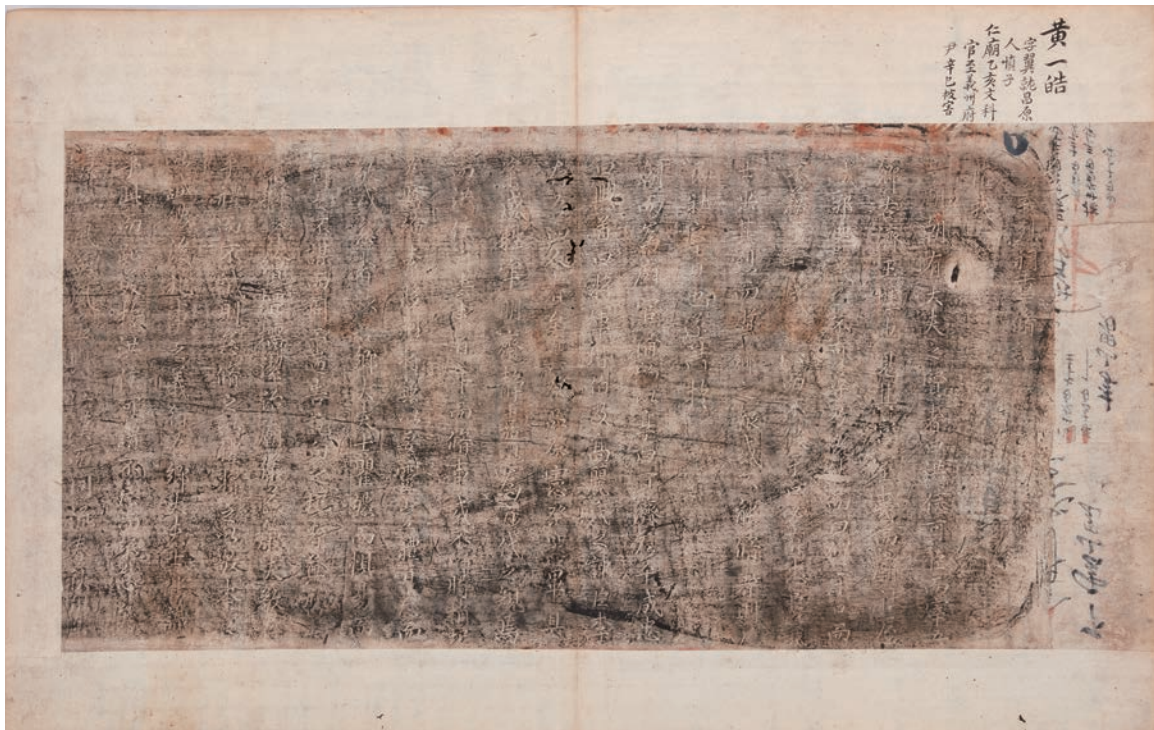
佐幕于此. 重刻以傳

62) 이성중: 선조대 문신이다. 홍문관 부제학, 대사헌,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이 작품은 1591년(선조 24) 충청감사를 지낼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문집으로는 『파곡유고波谷遺稿』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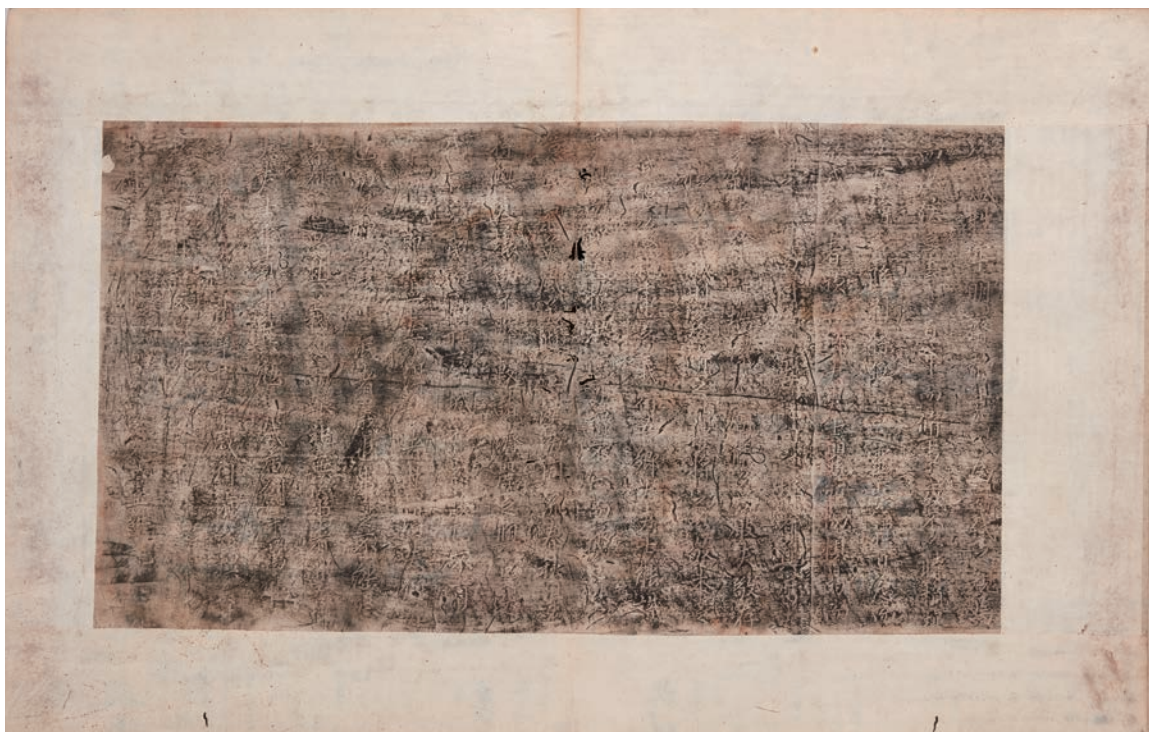
63) 감고루(鑑古樓): 부여에 있던 정자이다.

64) 옛 도읍지는 ~ 남겼는데: 여기에서 은감(殷鑑)은 은(殷)나라 주왕(紂王)이 거울로 삼아야 할 일은 바로 전대(前代)의 하(夏)나라 걸왕(桀王)이 무도한 정치를 하다가 망한 데에 있다는 뜻으로, 후세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과거의 선례(先例)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65) 좌막(佐幕): 비장(裨將)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비장은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따위에 따라 다니는 관원의 하나이다.



66) 황일호: 인조대 문신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척화를 적극 주장하였다. 1638년(인조 16)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명나라를 도와 청나라를 치고자 최효일(崔孝一) 등과 모의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1641년(인조 19) 청나라 병사에게 피살되었다.



字翼就 昌原人 慎子 仁廟乙亥文科 官至義州府尹 辛巳被害

자는 익취(翼就)이며, 본관은 창원(昌原)이고, 황신의 아들이다. 인조(仁祖) 을해년(1635)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의주부윤에 이르렀다. 신사년(1641)에 해를 당하였다.

義烈祠重修記

惟我宣廟朝 有大夫之賢者 曰洪侯可臣 而宰吾鄉 古濟王墟也 見其宮室夷而廟社屋城郭器設已不可尋 乃慨然而曰 碑于口而不藉于手 感于心而不假于口 必有忠臣義士 垂其烈而口鄉之報 或不能脩者 則民社之責也 遂請於朝而爲廟 官備物以享 曰百濟左平成忠 曰興首 曰將軍階伯 及高麗氏之諫臣李存吾 四人者矣 其祭品祭憲祭器畢具 粢盛牲牢 明齋靜嘉 以爲百代之規焉 而洪侯之去未百年 而脩事或不以時 桷圯瓦腐 繪素彫剝 將無以妥靈 豈禮日忘而敬或怠者歟 吾鄉大夫士 瞿然而惧 易而刊之 不謀而同工 邁告訖 向之圯者奠 腐者剝者繪 壇壝潔治 廟儀益嚴 夫敬存乎禮 而不誠則怠 脩之以禮 將之以敬 求以誠然後 祀事之義行 吾鄉大夫士 能識乎此而趾美於洪侯 可謂不忘而不怠矣 噫 正氣英風 竝與江漢而同流 春秋且將與天壤而不弊 較諸濟麗之興亡 先代宮室夷而廟社屋城郭器設 已不可尋 而冷節一盂 亦不得設者 其得失何如也 而況理之不可泯者義也 事之不能忘者烈也 思其義烈 而報祀無窮者 非吾鄉大夫士之責耶 其勉之哉 廟創于萬曆乙亥 重修于崇禎辛巳 盖歲周有六禩矣 其事跡具前記不復贅

崇禎辛巳八月 日 昌原後人黃一皓記

의열사 중수기

우리 선조(宣祖) 때에 현명한 대부인 홍가신이 우리 고향에 수령이 되니, 곧 옛 백제의 수도이다. 그 궁실과 묘사(廟社)가 무너지고 성곽과 시설을 이미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개연히, “입으로 비석을 세우나 손으로 쓸 수 없고, 마음에 느끼나 입으로 빌 수 없네. 반드시 충신의사는 그 의열을 후세에 드리워야 보답이 되는 것이다. 혹시 수리할 수 없다면 이는 민사(民社:백성과 사직)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조정에 청하여 묘를 세우고 관에서 제수를 준비하여 제향하기를, 백제의 좌평 성충, 홍수, 장군 계백과 고려의 간신(諫臣) 이존오 4인에 대해서 하였다. 제수와 제사절차, 제기를 모두 마련하고, 재물과 희생 고기를 재를 깨끗이 하여 정갈하게 하는 것을 상규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홍가신이 가신 지 채 1백 년이 되지 않아 제사는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까래와 지붕이 무너지고, 벽칠도 떨어져나가 장차 혼령을 안정시키지 못하게 되니 어찌 예가 날마다 잊히고서도 공경하는 것이겠는가? 우리 지방의 향사대부는 두려워하여서 바꾸어 간행하고 모의하지 않고서도 힘을 합쳐서 빨리 마친 것을 고하여 지난번에 무너진 곳은 고치고, 썩은 곳은 다시 칠하여 정결하게 고치니 묘는 이전보다 더욱 엄숙해졌다. 대저 예의에 공경을 다했으나 성실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니 예로써 정비하고, 공경으로서 함께 하며, 정성으로 구한 연후에 이 일이 올바르게 행해진 것이다. 우리 지방의 향사대부는 여기에서 알 수 있으니 홍후에게 훌륭한 경지가 이르니, 잊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아, 바른 기운과 영결스러운 기풍이 사당에 더불어 흐르지만, 역사에 어찌 장차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제와 고구려의 흥망이 교체하여 선대의 궁실과 묘사가 무너지고 성곽과 시설을 찾을 수 없으나 한식에 물 한사발 역시 두지 못하는 것은 그 득실에서 어째서 반드시 그런 것인가? 하물며 이치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의이며, 일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열이니 그 의열을 생각하여 무궁한 것에 보답하여 제사하는 것이 우리 향사대부의 책임이 아니겠으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묘는 만력 을해년(1575)에 창건되고 승정 신사년(1641)에 중수되어 대개 66년이 지나, 그 사적을 앞과 같이 갖추었으니 다시 덧붙일 것은 없겠다.

승정 신사년(1641) 8월 창원 후인 황일호 쓰다



字仲父 號稼亭 韓山人 忠肅時中元朝科 卽授國史檢閱 官至侍中 諡文孝
 자는 중보(仲父), 호 가정(稼亭)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충숙왕 때에 시중에 이르렀다. 원나라 과거에 합격하여 국사검열이라는 관직을 받았으며, 고려에서의 관직은 시중에까지 이르렀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청구⁶⁸⁾의 빼어난 기운 황하에 응하여
 온왕이 동명의 집에서 태어났네
 부소산 아래로 옮겨 와 나라를 세울 적에
 기이한 징조 그 얼마나 많았던가
 인재들이 즐비하고 문물이 성대하여
 틈 엿보아 신라까지 합치려고 하였네
 못난 자손들 그 덕 제대로 잊지 못해
 고대광실 조각하며 사치를 일삼았네⁶⁹⁾
 하루아침에 금성⁷⁰⁾ 허망하게 무너지자

靑丘孕秀應黃河
 溫王生自東明家
 扶蘇山下徙立國
 奇祥異蹟何其多
 衣冠濟濟文物盛
 潛圖伺隙并新羅
 在後孱孫不嗣德
 雕牆峻宇紛奢華
 一旦金城如解瓦

67) 이곡: 고려후기의 학자로 이색(李穡)의 아버지이다. 원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있다가 고려에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고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후에도 원과 고려를 오가며 관직을 했다. 일찍부터 문명을 떨쳤으며 성리학을 현실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였다. 이 작품은 이곡의 문집인 『가정집稼亭集』에 「扶餘懷古」로 수록되어있다.

68) 청구(靑丘):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이다.

69) 고대광실 … 일삼았네: 담장을 조각하고 높고 큰 집을 짓는다(雕牆峻宇)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방탕하고 사치한 생활을 뜻하는데 우 임금이 경계한 말이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만 좋아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높고 큰 집을 짓거나 담장을 조각하는 일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內作色荒 外作禽荒 甘酒嗜音 峻宇雕牆 有一於此 未或不亡)”라고 하였다.

70) 금성(金城): 금성탕지(金城湯池)에서 온 말로서 매우 튼튼하여 손쉽게 쳐부수기 어려운 성(城)과 그 둘레에 파놓은 못이라는 뜻이다. 견고한 본거지나, 또는 방비가 아주 견고하여 공격하기 어려운 성을 비유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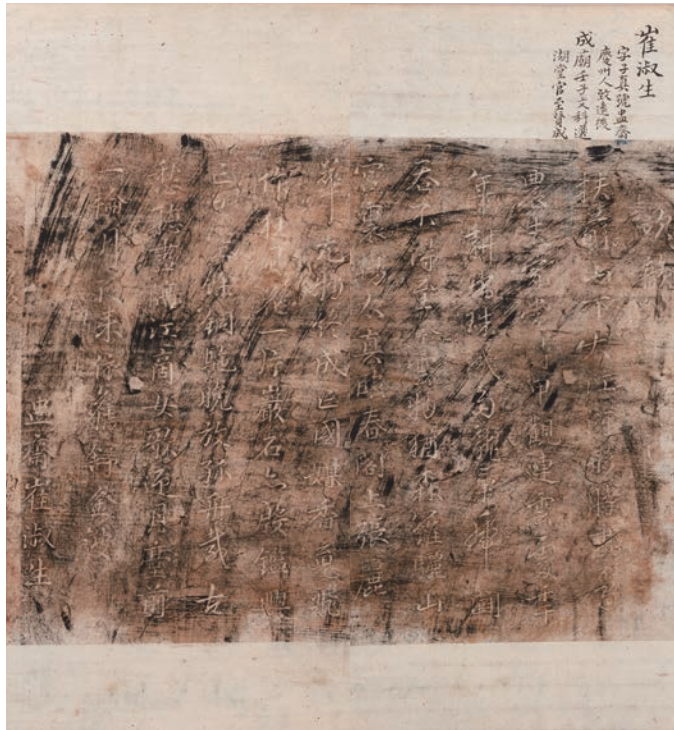
천척 푸른 바위에 낙화의 이름 붙었네
 공후의 동산에는 농부가 밭 갈고
 깨어진 비석 기울고 구리 낙타가 파묻혔네⁷¹⁾
 내 와서 고적 찾다 문득 눈물 흘리는데
 옛일은 모두 어부와 초동의 노래 속에 들었네
 천 년 왕기는 씻어진 듯 사라지고
 조룡대 아래 강물만 출렁이네

가정 이곡

千尺翠岩名落花
 野人耕種公侯園
 殘碑側畔埋銅駝
 我來訪古輒拭淚
 故事盡入漁樵歌
 千年佳氣掃地盡
 釣龍臺下江自波

稼亭 李穀

71) 깨어진 ... 파묻혔네: 진(晉)나라 장한(張韓)이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낙양(洛陽) 궁문에 있는 구리쇠로 만든 낙타를 가리키며 탄식하기를, “장차 네가 가시덤불 속에 누워 있는 모양을 보리로다.” 하였다는 고사를 염두에 둔 구절이다.



字子眞 號忠齋 慶州人 致遠後 成廟壬子文科 選湖堂 官至贊成

자는 자진(子眞), 호는 충재(忠齋)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최치원의 후손이다. 성종 임자년(149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찬성을 지냈다.

차운

次韻

부소산 아래 큰 강하(江河) 펼쳐있고
뛰어난 풍경 모두 농부들 집에 귀속되었네
당시 구름에 닿았던 갑관(甲觀)⁷³⁾
해마다 밭갈이에 주옥(珠玉)들 많이 나오네
용호(龍虎)가 서로 싸워 삼키지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풍경(風景)만은 여전히 펼쳐져있네
여산궁(驪山宮) 속의 양태진(楊太眞)이요⁷⁴⁾
임춘각(臨春閣) 위의 장려화(張麗華)라⁷⁵⁾
미색(美色)은 끝내 망국의 씨 되니

扶蘇山下大江河
形勝盡屬農夫家
當時甲觀連雲處
季年耕出珠璣多
龍爭虎鬪吞不得
至今雲物猶森羅
驪山宮裏楊太眞
臨春閣上張麗華
尤物終成亡國媒

72) 최숙생: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성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연산군 때 관직생활을 하다가 연산군의 상복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유배되었다. 중종반정 후에 대사간, 대사헌, 우찬성을 역임하였다. 기묘사화 때에 파직되었다.

73) 갑관(甲觀): 한나라 때의 궁궐 이름으로, 제일관(第一觀)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 이곳에 황태자가 거처하였으므로 후대에는 태자궁(太子宮)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여기서는 궁궐을 뜻한다.

74) 여산궁 … 양태진이요: 여산궁(驪山宮)은 중국 당 현종이 양귀비를 위해 지은 궁전인 화청궁(華淸宮)을 말한다. 양태진(楊太眞)은 양귀비의 본명이다.

75) 임춘각 … 장려화라: 장려화(張麗華)는 후주의 비로서 총애를 받았다. 임춘각에서 후주는 비빈, 궁녀와 가무에 탐닉했고, 장려화는 그의 무릎에 늘 안겨 있어 국정이 문란했음을 상징한다.

향기로운 그 녀 광풍(狂風)의 꽃 되었네
 한덩이 바위 또한 은감(殷鑑)이라⁷⁶⁾
 흥망은 이미 사라지고 동타(銅駝)만 남았구나⁷⁷⁾
 느지막이 배를 대어 만고의 시름 싣고
 강 건너 장사하는 여자의 노래 다 듣는구나⁷⁸⁾
 영월대(迎月臺) 앞에 뜬 둥근 달은
 밤 되어 옛날 같이 금물결 일렁이네

香魂飛作狂風花
 一片巖石亦殷鑑
 興亡已空餘銅駝
 晚放孤舟載古愁
 聽盡隔江商女歌
 迎月臺前一輪月
 夜來依舊舒金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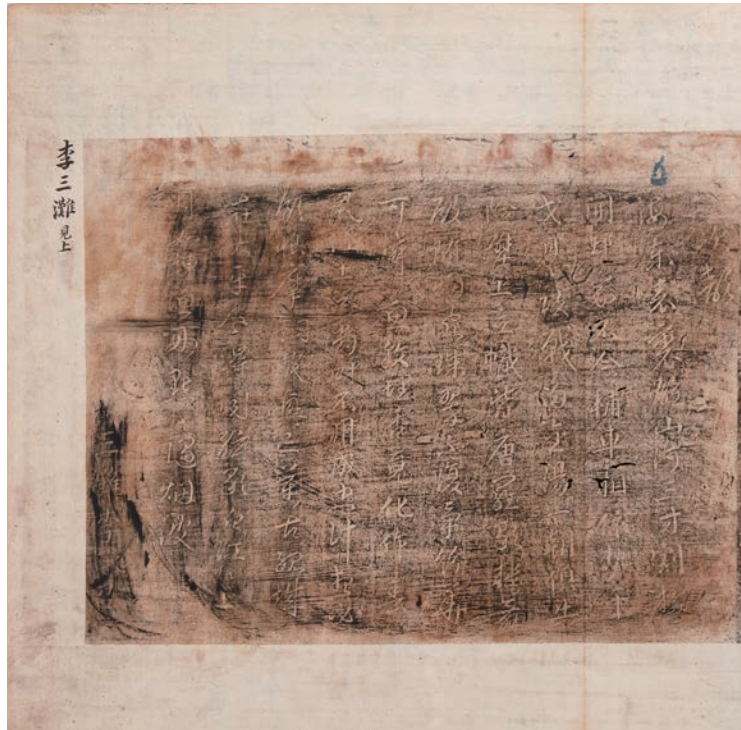
충재 최숙생

忠齋 崔淑生

76) 한덩이 … 은감(殷鑑)이: 한덩이 바위는 낙화암을 말하며 백제의 멸망을 상징한다.

77) 흥망은 … 남았구나: 동타(銅駝)는 구리[청동靑銅]로 만든 낙타상(駱駝像)이다. 서진(西晉) 때 낙양(洛陽) 왕궁 앞 네거리에 마주 대하여 세워졌다. 삭정(索靖)이란 사람이 세상의 혼란을 미리 짐작하고 동타를 보면서, ‘얼마 안 있어서 너를 폐허 속에서 보게 되겠구나.’ 하더니, 과연 오호(五胡)의 침입이 있어 낙양이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동타만 남았으므로 멸망한 것을 말한다.

78) 강 건너 … 듣는구나: 당 나라 말년인 목종(穆宗) 때에 두목(杜牧)이라는 시인이, “장사하는 계집은 망국의 한도 알지 못하고, 강을 격해서 지금도 후정화를 부른다.”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하여 남경에서 읊었다는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중국 남경(南京)은 남북조 시대에 300년 동안 남조(南朝)의 수부였던 것이 진(陳) 나라 후주(後主) 때에 수(隋) 나라에게 정복되어 망하고 남북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진 후주가 지어서 부르던 노래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라는 것은 오래 유행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

차운⁷⁹⁾

次韻

우리 해동 안팎 산하 몹시 웅장하여
세 방면 할거하여 각각 나라 세웠네
보거(輔車)되어 서로 형세 의지하려 하지 않고⁸⁰⁾
창칼 들고 날마다 치고받고 싸웠네
금성탕지 하루아침에 소용없게 되어버려
성벽 위에 꽃힌 깃발 모두 당과 신라였네
가무하던 누각 궁전 연기 따라 사라지니
주옥과 비취 다시 화려함을 자랑하지 못하네
가련하다 물고기의 뱃속 묻힌 향기로운 넋
변하여 봄바람 부는 강가 꽃이 되었겠지
그 당시에 성충 세운 계책 쓰지 않았으니
아마도 한 품고 구리 낙타 만지리라
만고 흥망에 외로운 성 남아 있는데
태평 세상 오늘날에 현가 소리 들리네
백마강의 위에 뜬 달 하얀 비단 같은데
고기잡이배 여기저기 안개와 파도 따라 뜨네

海東表裏雄山河
三方割據開邦家
不念輔車相依勢
干戈日日攻戰多
金湯一朝俱失險
壁上立幟皆唐羅
歌樓舞殿隨煙飛
珠翠不復爭紛華
可憐魚腹埋香魂
化作春風江上花
當時不用成忠計
想必飲恨摩銅駝
興亡萬古孤城在
太平今得聞絃歌
白江江上月如練
漁舟點點隨煙波

삼탄 이승소

三灘 李承召

79) 『삼탄집』에는 ‘扶餘懷古次稼亭詩’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있다.

80) 보거 되어 … 하지 않고: 보거에서 보(輔)는 수레의 덧방나무로 수레를 움직이는데 힘을 덜게 해주는 부분으로, 전(轉)하여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 관계를 뜻한다. 삼국이 서로 의지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字文叔 號鶴洲⁸²⁾ 慶州人 仁祖乙亥文科 官至監司 甲午疏救姜嶽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인조 을해년(163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감사에 이르렀다. 갑오년(1654)에 강빈의 옥사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영보정에서 짓다.

題永保亭

오악⁸³⁾이 굽이쳐 달리던 형세 끝나자
기이한 바위 푸른 파도 가운데 우뚝하네
북극성 가로지른 누대에서 별자리가 가깝고
확트인 대지 위로 남쪽바다 눈 앞에 펼쳐지네
삼신산의 달빛, 창가에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고⁸⁴⁾
새벽바람에 성난 파도소리 울려나네
뗏목 타고 지기석 묻고자 하니⁸⁵⁾
은하수와 원래 하나의 물로 통하네

烏岳龍蟠走勢窮
奇巖削立碧波中
樓橫北極星文近
地坼南溟眼界空
霽色窓涵三島月
驚濤城撼五更風
乘槎欲問支機石
銀漢元來一水通

겸순찰사학주김홍욱 임진년(1652) 3월

兼巡察使鶴洲金弘郁 歲在壬辰暮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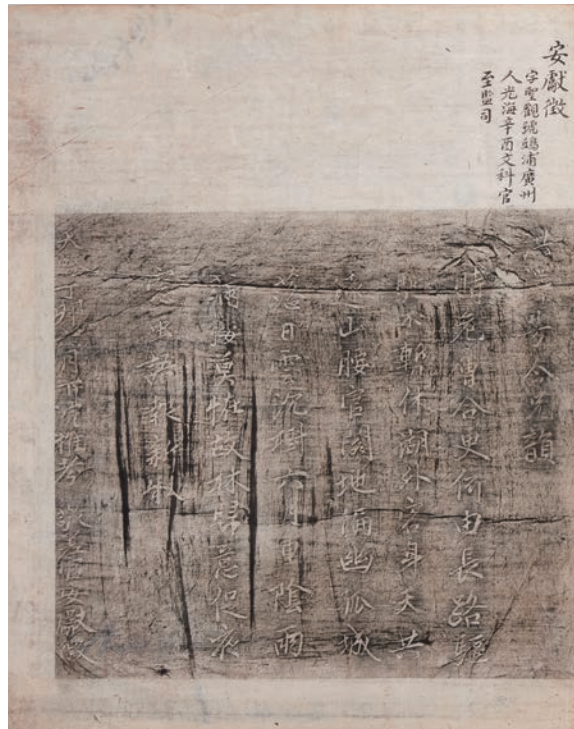
81) 김홍욱: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650년(효종 1) 사인(舍人)이 된 뒤 집의, 승지를 거쳐 홍충도 관찰사(洪忠道觀察使)가 되어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했다. 이 시는 홍충도관찰사 시절인 1603년(효종 3)에 지었다.

82) 『청구제영』에는 卍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83) 오악(烏岳): 오서산(烏棲山) 오성산(五聖山)이라고도 한다. 홍주 남쪽 18리에 있다. 여러 산 가운데 가장 우뚝하고, 그 위는 높고 평평하여 병풍을 편 듯하다. 보령현(保寧縣)과 결성현(結城縣)에도 보인다.

84) 삼신산의 ... 가득하고: 삼도는 십주삼도(十洲三島)에서 온 말로서 도교에서 말하는 바닷속의仙境(仙境)이다.

85) 뗏목 타고 ... 묻고자 하니: 지기석(支機石)은 직녀성(織女星)에 있는 직녀(織女)가 베를 짤 적에 베틀을 끈다는 돌이다.



字聖觀 號鷗浦 廣州人 光海辛酉文科 官至監司

자는 성관(聖觀), 호는 구포(鷗浦)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광해군 신유년(1621)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감사에 이르렀다.

삼가택방(澤芳) 홍영(洪羹) 영형의 시에 차운하다

奉次洪澤芳令兄韻

위태로운 시기 모임 무슨 수로 보리오
긴 여정에 말 달리는 일 잠시도 쉬지 못하네
강호의 나그네 신세 하늘과 함께 먼데
산 허리의 관각은 땅이 더욱 구석지네
외로운 성에 지는 해, 구름은 숲을 덮고
유월의 짙은 구름 비로 내려 누각에 내리네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 급함을 괴이해 마시라
창가의 풀벌레소리 가을이 옴을 알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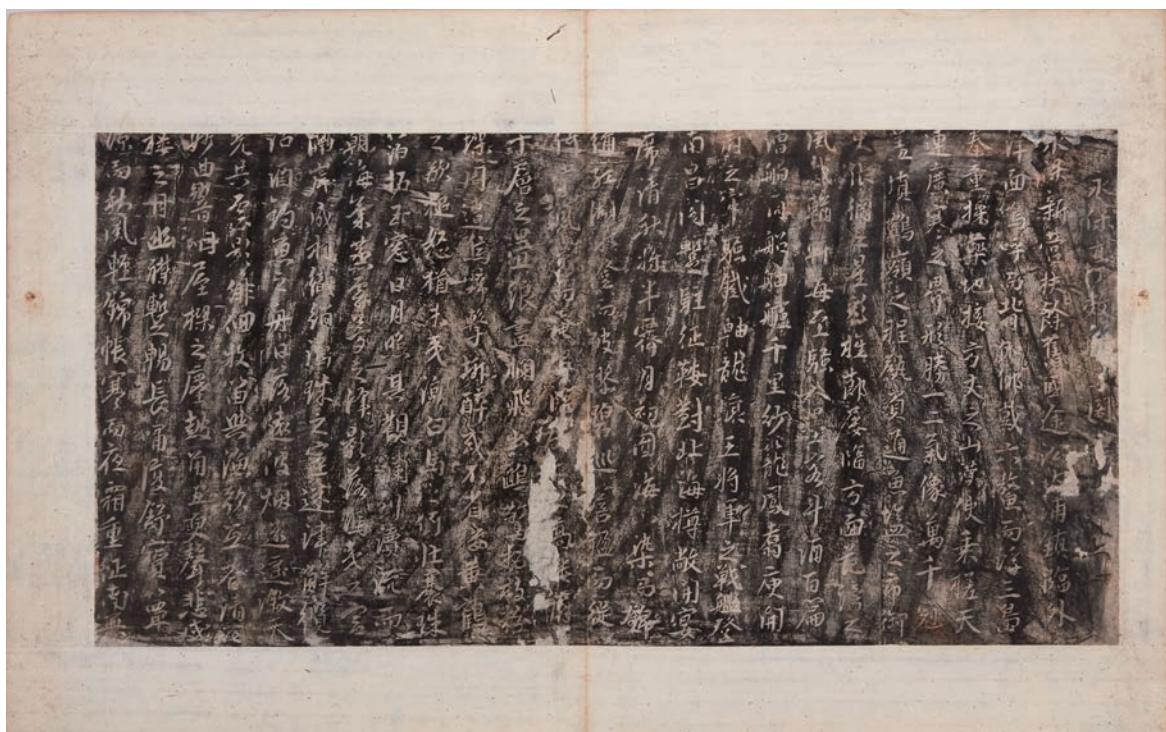
時危會合更何由
長路驅馳不暫休
湖外客身天共遠
山腰官閣地偏幽
孤城落日雲沉樹
六月重陰雨滿樓
莫恡故林歸意促
夜窓虫語報新秋

천계 정묘년(1627) 6월 하순 추고경차관⁸⁷⁾ 안헌징

天啓丁卯六月下浣 推考敬差官 安獻徵

86) 안헌징: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어릴 때부터 문사에 뛰어났다. 영의정 이산해의 외손이다. 글재주가 있어 문장에는 뛰어났으나 조정에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문집으로 『구포집鷗浦集』이 전한다.

87)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 죄의 혐의를 살피기 위하여 임금의 명령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경차관(敬差官)을 말한다.



永保亭效■■■閣■

永保新營 扶餘舊國 途沿內浦 鎮臨外洋 面嗚呼而背伽倻 戴六鰲而浮三島 秦童採藥 地接方丈之山 漢使乘槎 天連廣寒之界 形勝一二 氣像萬千 冠蓋填鶴嶺之程 熱負通魚鹽之市 御史張綱之星彩 旌節屢臨 方面范滂之風 哉 輜軒每至 騷人墨客 斗酒百篇漕舶商船 舳艫千里 紗籠鳳翥 庾開府之牢騷 鐵軸龍驤 王將軍之戰艦 登南昌閣 覽駐征鞍 對北海樽 敞開宴席 清秋將半 霽月初圓 海山染而錦通紅 湖水澄而被瓊碧 巡簷檻而徙 何當風■■而奄 ■■臨■■■■高樓俯十層之疊浪 畫欄飛出鷗鷺拓枝粉堞周遭 鳥啼擊壑 醉或不省 樓黃鶴之欲槌 怒猶未夷 潮白馬之何壯 褰珠箔 拓玉窓 日月照其觀瀾 川瀆流而朝海 氣蒸雲夢之澤 影落馮夷之宮隔岸成村 織綺灣珠之室 迷津解纜沽酒釣魚之舟 日落遠波 烟迷遙澈 天光共雲影徘徊 牧笛與漁歌互答 清詞妙曲 響咽屋樑之塵 鼓角五更 聲悲戍樓之月 幽襟暫暢 長嘯復舒 寶簾涼而秋風輕 錦帳寒而夜霜重 征南無事 不下益州之船 望北有心 長懸魏闕之眼 江山古 風月新 償夙願於平生 恣壯遊於今日 泛梗身世 覺寒暑之易遷 倚樓行裝 歎東西之難定 失途道於地角 指鄉關於天涯 東風草綠 幾恨欲去之王孫 春樹花紅 每悲思歸之杜宇 望長安而西笑 懷美人而北呼嗚呼 人無哲愚 時有利鈍 賢猶跡晦 聖亦轍環 訪臥龍於隆中 惟昭烈帝聞歌鳳於門外 曰文宣王 所賴上有明君 下多良佐 河清海晏聖 應千一之期 水麗山明 國有百二之勢 祝南山而舞蹈 酌北斗而詠歌邊境無虞 馬歸牛放 昇平有像國泰民安 舉目山河 豈效伯仁之泣處身江海 誰懷仲淹之憂 德溫早志桑蓬 晚誤書劒 慈母投杼 若曾參之同名 私從裝珠 慕鴟夷之變姓 南溟水濶 涸魚戢鱗 北極路脩 羈禽斂翼 非江淹之■■■■之錦衾 ■■■■■捧授■■■畫棟 濫揭編詩 李白清高 咏鳳凰而留跡 崔顥偃蹇 題鸚鵡而流名

嗚呼 槐市光陰 桑田朝暮 白鶴華表 青蛇岳陽 詠月吟風 辭雖乏於幼婦 採奇選勝 興不淺於老夫 敢效捧心 自取抵掌 繼以四韻 資之一吟

영보 신영은 부여 옛나라의 도로 인근의 내포에서 진은 바다에 면해 있다. 아아! 뒤로는 가야산을 등지고 육오(六鰲)⁸⁸⁾를 싣고 있으며 바다에 뜬 삼신에 진나라 동자가 선악을 캐러오니 땅은 방장의 산에 접해 있다. 한나라 사신이 배를 타고 하늘에서 달[廣寒宮]⁸⁹⁾의 경계까지 왔는데, 형승은 첫째 둘째를 다투고, 기상은 드높으며, 사신은 학령의 길을 메우고, 어염의 이익까지 있어서 어사 장강(張綱)이 별의 광채를 입어 부절을 받아 여러 번 온 것이나 지방으로 나가는 범방(范滂)의 풍모로구나.⁹⁰⁾ 유현(輜軒, 천자의 사자가 타는 수레)이 매번 이를 때마다 시인과 묵객이 술 한 말에 시 백편을 짓고, 화물을 운반하는 상선과 편대를 이룬 전투선은 봉황이 나는 듯한 다. 문장을 잘 하던 유개부(庾開府)⁹¹⁾의 불평스런 철축과 용양⁹²⁾장군 왕준의 전함은 남창각에 올라서 잠시 멈춰서 북해(北海)의 맑은 물로 잔치자리를 마련하여 맑은 가을에 달빛이 처음 둥글 때이다. 바다와 산은 물들어 비단이 붉은 것과 같고, 호수는 맑아서 파란 처마와 난간을 두른다. … 십층이나 되는 겹겹의 파도는 날아갈 듯한 정자를 아른거리게 하고, 갈매기는 놀라서 달아나 주위로 날아가며, 새들은 울고 취기는 깨웠으나 혹 누각에서 취한 술이 깨지 않았다. 황학이 따라가려 하였으나 오히려 조수를 잠재우지 못했고 어떤 백마가 구슬을 거두겠는가? 옥창에 비친 햇빛과 달빛은 그 파도를 비추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기운은 운몽(雲夢)에서 증발하고, 그림자는 풍이(馮夷)⁹³⁾의 궁으로 떨어진다. 언덕 너머의 마을은 물들어 온 굽이에 보석이 있는 듯하며, 나루터에서 닢줄을 걷어 올려 고기잡이배에서 술 한 잔하며, 해는 먼 파도 속으로 떨어져 안개가 휘감아 돌고, 하늘빛은

88) 육오(六鰲): 바다의 삼신산을 자라가 떠받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89) 광한궁(廣寒宮): 달의 별칭. 고대 중국의 전설에서 달에는 태음성군(太陰星君, 월신(月神) 또는 월광낭랑(月光娘娘)이라고도 함)과 오강(吳剛), 항아(嫦娥), 두꺼비, 토끼 등이 산다고 여겨졌으며, 달나라 궁전은 섬궁(蟾宮)이라고도 불렀다.

90) 후한(後漢) 범방(范滂)이 기주 자사(冀州刺史)로 나갈 적에,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서는 천하를 정화할 뜻을 개연히 품었다. [登車攬轡 慨然有澄清天下之志]”는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 장관으로 부임할 때, 혹은 난세에 혁신 정치를 행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비유한다.([후한서]「黨錮列傳」)

91) 유개부(庾開府): 문장을 잘하는 막부의 책임자를 가리킨다. 북주(北周)의 문장가 유신(庾信)이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과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역임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유개부(庾開府)라고 일컫는다.

92) 용양(龍驤): 수군(水軍)을 가리킨다.

93) 풍이(馮夷): 강신(江神)의 이름으로, 풍수(馮脩) 또는 풍지(馮遲)라고도 한다.

구름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배회하여 머물고 어가(漁歌)를 지으니 참신한 시구와 묘한 곡조는 음향이 지붕과 마루에 가득 울리고 북은 오경의 소리를 울린다. 슬픈 누각에 뜬 달 때문에 회포를 잠시 풀고, 긴 휘파람을 다시 불며, 보배로운 자리에 가을 바람이 가벼이 불고, 비단 휘장 차가운데 밤서리는 무거우며, 남쪽을 정벌하는데 무사하여 내려가지 않고, 익주(益州)로 가는 배는 북쪽을 바라보며 마음을 두고, 길게 대궐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보며, 강산에 부는 옛 바람은 달로 새로워 평생의 원을 이루었고, 금일의 뱃놀이에서 마음대로 장쾌한 유람을 하니 신세가 더위와 추위도 쉽게 바뀌는 것을 깨닫는다. 누각에 기대어 동서를 안정시키기가 어려움을 탄식하며, 변두리에서 길을 잃고 하늘가의 고향을 가리킨다. 동풍과 초록은 언제까지 본받을 수 있으며, 봄나무와 붉은 꽃은 매번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두우(杜宇)⁹⁴가 천자가 사는 도성을 간절히 바라는 듯하고 미인을 생각하며 막힌 듯 하구나. 사람에게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없지만 때에는 유리함과 둔함이 있다. 현명한 이는 오히려 자취를 감추고 성인 역시 천하를 돌아다니니, 용중(隆中)에 있는 제갈량을 찾은 이는 오로지 소열제(昭烈帝)이다. 문밖에서 봉황을 노래하는 것을 듣고 말하길, 문선왕이 의지한 것은 위로는 현명한 임금이고 아래로는 좋은 보좌를 하는 많은 신하이니 어찌 천하의 성인이 천년에 한 번 맞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산수가 아름다운 나라가 2백 년 지속되어 남산(南山)⁹⁵을 축원하여 무도(舞蹈)하고, 북두(北斗)에 술을 올려 노래를 부르니, 변경은 걱정이 없고, 소나 말은 제자리로 가고 승평(昇平)의 기상이 있어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고 눈을 들어 산하를 보니 어찌 백인(伯仁)이 울면서 강해(江海)에 처신하는 것을 본받을 것이며, 누가 범중엄의 걱정을 품을 것인가? 덕온이 천하에 경영하려는 뜻을 일찍 세웠으나 책과 검을 잘못 쓰니 어진 어머니가 벼를 던진 증삼의 경우와 같은 이름이며, 범려가 성을 바꾼 경우이고, 남명의 물은 어둡고 학어(涸魚)⁹⁶와 집린(戢鱗)⁹⁷이 있으며, 북극의 머나먼 길 외로운 새는 날개를 접는다. 단정한 기둥에 걸린 시가 많은데 이백은 맑고 높게 봉황대를 읊어서 흔적을 남겼고, 최호(崔顥)는 오만하게 앵무(鸚鵡)⁹⁸를 노래하여 이름을 남겼다.

아아 태학의 세월은 상전벽해의 큰 변화이고, 화표로 돌아오는 백학, 푸른 뱀과 악양루 등 세월을 노래하는 시는 비록 어린아이나 부인이 뽑은 절경은 아니지만 흥은 늙은이에 못지 않다. 대저 마음을 받들어 스스로 손뻗치며 사운(四韻)을 바탕으로 하여 읊는다.

어느 해에 강호의 모래톱에 만들었는가
높은 기둥 훨훨 나는 듯하며 처마는 봉황이 춤추듯 하네
행상이 탄 배 대나무 섬으로 돌아드니
어부는 그물 거두고 갈대섬에 비가 내리네
하늘이 비친 강물 속 물은 유유히 흐르고
달빛과 물빛이 어울려 봄 가을이 지나네
누각 위 여동빈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니
오래남을 잊고 예전의 멋진 풍류네

何年結構湖之渚
高棟翬飛簷鳳舞
估客舸迴竹嶼烟
漁翁網捲蘆洲雨
江涵天影水悠悠
月色波光春復秋
樓上洞賓人不識
吟聲長留舊風流

94) 두우(杜宇): 전국 시대 촉왕(蜀王) 망제(望帝)의 죽은 낮이 변해서 새가 되었다는 두견이를 말한다.

95) 남산(南山): 남산(南山)은 종남산(終南山)으로 원대 주(周) 나라 도성인 호경(鎬京)의 남쪽에 있는 산인데, 후세에는 모든 도성의 남산을 종남산이라 칭한다.

96) 학어는 학절어(涸轍魚)의 준말이다. 길바닥의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빗물에 있는 붕어이다. 장주(莊周)가 길을 가다가 수레바퀴 자국을 보니 붕어가 혈떡이고 있었다. 장주가 묻기를, “붕어가 왔구나. 그대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하니 붕어가 대답하기를, “나는 동해(東海)의 파신(波臣)이다. 그대는 몇 말의 물로 나를 살려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97) 『진서(晉書)』에 “집린잠익(戢鱗潛翼)”이라 하였는데, 뜻을 기르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고기나 새가 고요히 잠복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98) 이백(李白)도 보고서 감탄했다는 당(唐)나라 최호의 「등황학무(登黃鶴樓)」시에 “맑은 냇물 저 너머엔 한양의 나무숲 역력하고, 봄풀은 앵무주를 무성하게 덮었다. 晴川歷歷漢陽樹 春草萋萋鸚鵡洲”라는 구절이 나온다.



字尙夫 號痴溪 咸陽人 宣廟辛卯文科 官至監司

자는 상부(尙夫), 호는 치계(癡溪)이다. 본관은 함양(咸陽)으로 선조 신묘년(1591)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감사에 이르렀다.

동쪽으로는 일본과 북쪽으로는 중국까지¹⁰⁰⁾

삼한 땅 끝나는 곳까지 두루 다녔네

이번 생 한바탕 꿈이려니 비로소 깨닫는데

바다 성루에 기대어 지는 석양 보고 읊조리네

東遊日域北觀周

迹遍三韓地盡頭

始覺此生眞一夢

夕陽吟倚海城樓

만력 무오년(1618)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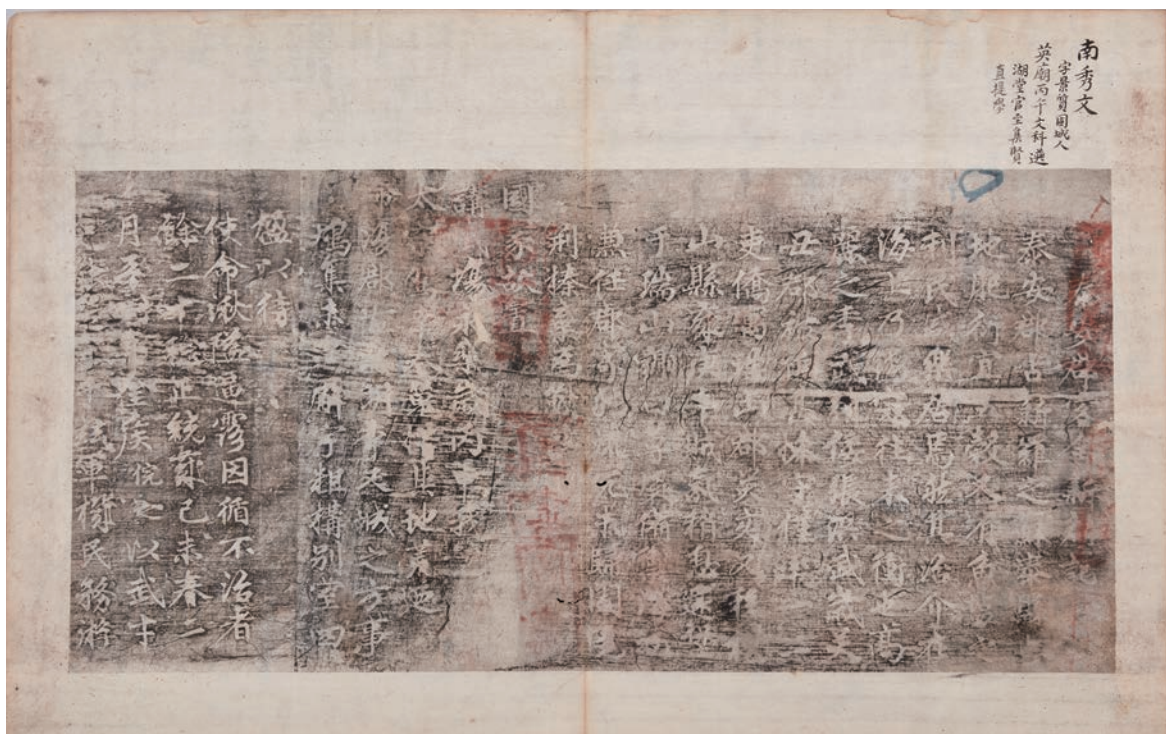
관찰사 여우길

萬曆戊午秋

觀察使呂祐吉

99) 여우길: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96년(선조 29) 사신의 일행으로 명나라와 다녀와 병조정랑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에 내왕하면서 포로 쇄환 등에 공이 많았다.

100) 동쪽으로는 … 중국까지 : 일역(日域)은 일본을 가리키며 관주(觀周)는 중국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101) 남수문: 조선전기의 학자이다. 집현전 직제학으로 있으면서 문명(文名)을 날렸다. 이 기문은 『경재선생유고敬齋先生遺稿』에 「泰安客舍新扞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景質 固城人 英廟丙午文科 選湖堂 官至集賢直提學

자는 경질(景質)이며, 본관은 고성이다. 세종 병오년(1426, 세종8)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집현전 직제학에 이르렀다.

泰安客舍新勅記

泰安郡 古新羅之蘇泰縣也 地肥衍 宜五穀 又有魚鹽之利 民咸樂居焉 然其治介在海上 乃海寇往來之衝也 高麗之季 武弭倭張 洪武歲癸丑 郡被禍甚慘 守僅率一二吏 僑寓瑞山郡 癸亥 又移禮山縣 歲庚午 賊氛稍息 還堡于瑞山 號曰蓴堤 備禦海寇 兼任郡寄 然流穴未歸 闔境荆榛 棄爲獸藪 國家故置講武場 永樂歲丙申 我太宗駕幸春蒐 惜其地荒 迺命復郡古治 明季 又城之 方事鳩集 未遑靡宇 粗構別室四楹 以待使命 湫隘逼露 因循不治者餘二十稔 正統歲己未春二月 吾同年金侯侁之 以武才吏能 選守于茲 軍機民務 游刃措置 慨然有志於興廢 乃謀於衆 作新公館 邑人李懷 李地等若干人 應募佐費 材貞陶良 游手效力 乃建大廳五架凡三楹 左右中房五架各五楹 南廳五架三楹 東西軒五架各四楹 左右中房五架各三楹 廚庫庖湍 厥位咸備 以楹計者八十有三 肇役於己未冬十月 藏事於辛酉秋八月 規制端大 丹雘明鮮 蔚爲一邑之榮觀矣 侯走書於余 請記其事 余忝史氏 興作必書職也 況其關世道者乎 是郡乃於播遷之極 遭世昇平 得賢太守 治荆榛而復城池 斥湫隘而開¹⁰²⁾ 一洗因循之陋 賁飾藩垣之壯 寧不爲世道喜 是可書也已 南豐曾氏有曰 凡縣之得能令爲難 幸而得能令 而興事尤難 幸而事興而得後人不廢毀之又難也 今郡既幸其所難得矣 但未知後之人 有能繼侯之志乎否耶 此又不得不書 以警來者云

正統壬戌秋九月仲澣 奉列大夫 直集賢殿藝文應教 知製教 經筵檢討官 兼春秋館記注官

敬齋南秀文謹記

102) 『경재선생유고』에는 輪으로 되어 있다.

태안군은 옛 신라의 소태현(蘇泰縣)이다.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의 생장에 적당하고 소금이나 고기잡이에도 편리하여 백성들이 모두 안락하게 살았다. 그러나 고을이 바닷가에 있어 바다의 도적들이 왕래하여 부딪치는 요충지였다. 고려 말엽에 경계가 느슨해지자 왜적이 성해져서 홍무(洪武) 계축년(1373, 공민왕22)에 고을이 매우 참담한 피해를 입었고 군수는 겨우 한 두명의 서리를 데리고 서산군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계해년(1383, 우왕 9)에는 또 예산현으로 옮겼다. 경오년(1390, 공양왕2)에는 도적들의 기세가 점차 수그러들어 다시 서산으로 돌아와 성보(城堡)를 만들어 순제(尊堤)라고 이르고 바다의 도적들을 방어하고 군수의 직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떠도는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온 고을의 경내는 가시밭로 변하여 버려진 채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강무장(講武場)을 이곳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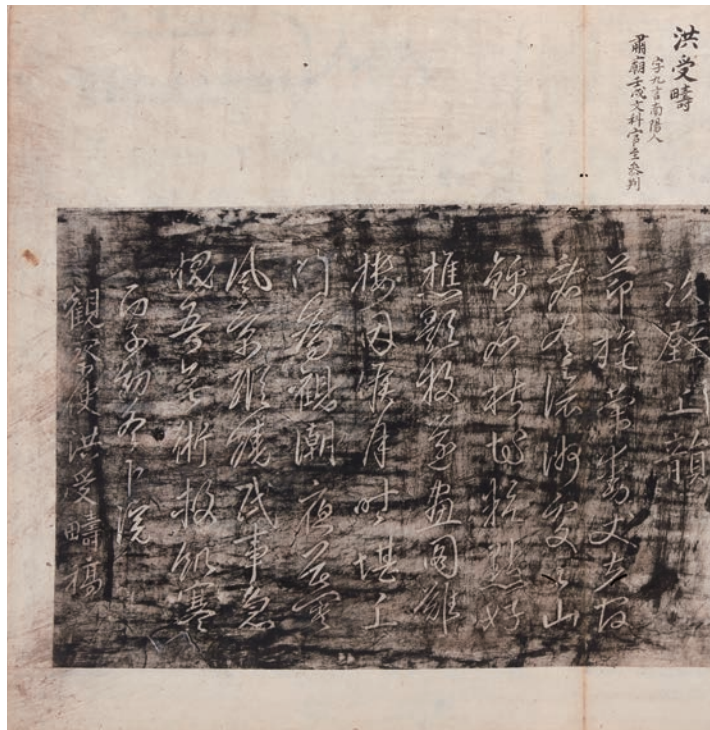
영락(永樂) 병신년(1416, 태종16)에 우리 태종대왕은 봄 사냥에 거동하였다가 그 땅이 황폐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에 군의 옛 읍치를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다음해 또 성을 쌓았는데, 바야흐로 막 일을 시작하는데 공관을 미처 짓지 못하고, 별실 4칸만을 대충 만들어서 사신(使臣)을 접대하게 되었지만 너무 좁고 웅색함에도 그런대로 고치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었다. 정통(正統) 기미년(1439, 세조21) 봄 2월에 나와 과거 급제 동기인 김후(金侯) 흔지(愼之)가 무재(武才)와 행정능력이 있어서 선발되어 이곳에 수령이 되자 군기(軍機)와 대민업무의 조치에 능숙하였다. 또 개연(慨然)히 황폐한 것을 일으키는 데에 뜻을 두고 이내 대중들과 상의하여 새로 공관을 지었다.

고을사람인 이회(李懷) 이지(李地) 등 약간 명이 모금에 응하여 비용을 보조하니, 재목도 견고하고 기와도 좋았으며, 손이 빠른 사람은 힘을 다하여 대청은 5가(架)로 무릇 3영(楹)이며, 좌우 중방(中房)은 5가로 각각 5영이며, 남쪽 청은 5가로 3영이며, 동서의 헌(軒)은 5가로 각각 4영이며 좌우 중방은 5가로 각각 3영이었고, 주방과 곳간, 포주간, 세척소 등이 모두 제 자리를 갖추었으니, 계산하면 83칸을 세운 셈이다. 기미년(1439, 세조21) 겨울 10월에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신유년(1441, 세종23) 가을 8월에 마쳤는데, 규모가 대단하고 단청이 선명하여 한 고을의 찬란한 볼거리가 되었다.

김후(金侯)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실을 기술해 달라고 청하였고, 나는 사관(史官)의 직을 가졌으니, 감흥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나의 직책이다. 하물며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일에서랴. 이 고을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태평시대를 만나고 어진 수령을 만나서 가시밭을 다듬고 성읍을 복구하였으며, 비좁고 초라한 것을 물리치고 굉장히 큰 집을 지어 나쁜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습속 누속을 모두 씻고 장엄한 기세의 번원(蕃垣:지방을 지키는 울타리)을 꾸몄으니, 어찌 세도(世道)를 위하여 기쁘지 않겠는가. 이것은 충분히 기록할 만한 일이다.

옛날 증남풍(曾南豐)의 말에, “무릇 현(縣)이 수령을 잘 만나기가 어렵고, 다행히 수령을 잘 만났더라도 업적을 이루기가 어렵고, 다행히 업적이 이루어졌더라도 뒤에 오는 수령을 잘 만나서 폐지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군이 이미 다행히도 그 얻기 어려운 것을 얻었으나 다만 뒤에 오는 사람이 김후의 뜻을 계승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또한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오는 자를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정통(正統) 임술(壬戌) 가을 9월 중순 봉열대부직집현전에문응교지제교경연검토관겸춘추관기주관
경재(敬齋) 남수문(南秀文)이 삼가 적음



字九言 南陽人 肅廟壬戌文科 官至參判

자는 구언(九言)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숙종 임술년(168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참판에 이르렀다.

벽위의 시에 차운하다

次壁上韻

절모¹⁰⁴⁾를 받아 영광스레 장부로서 관리가 되어
창주와 같이 절경인 이곳 곳곳의 산을 다 보네¹⁰⁵⁾
비단바위와 가을 꽃 아름답게 단장하니
초동 목수의 노래소리와 피리 그려내기 어렵네
달뜨기를 기다려 누각에 때때로 오르고
물결보려고 밤에도 문을 닫지 않네
풍경이 비록 넉넉하지만 백성의 일 급하니
춡고 배고픔을 구할 방법 없음을 내 부끄러워하네

節旄榮動丈夫官
看盡滄洲處處山
錦石秋花粧點好
樵歌牧笛(竹)筵圖難
樓因候月時堪上
門爲觀潮夜莫關
風景縱饒民事急
愧吾無術救飢寒

병자년(1696) 초동 하순
관찰사 홍수주

丙子初冬下浣
觀察使洪受疇稿

103) 홍수주: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이다.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동부승지로 원접사가 되어 청 사신을 맞았는데 뛰어난 문장과 글씨로 격찬을 받았다. 그림에도 능하여 매화, 포도, 대나무 그림을 잘 그렸는데 특히 포도로 유명하였다.

104) 절모(節旄): 임금이 사신(使臣)에게 부신(符信)으로 주는 것인데, 모(旄)는 깃대 머리에 다는 쇠꼬리 털, 또는 그 기(旗)를 말한다.

105) 창주와 ... 다 보네: 창주(滄洲)는 삼국 시대 위(魏)나라 안적(阮籍)이 지은 「위정충권진왕전(爲鄭冲勸晉王箋)」의 “창주를 굽어보며 지백에게 사례하고, 기산에 올라가 허유에게 읊을 한다(臨滄洲而謝支伯 登箕山而揖許由)”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경치 좋은 은자의 거처로 흔히 쓰인다.



字汝章 號石洲 安東人 進士 光海朝坐詩案冤死 贈持平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광해군 때에 시안(詩案)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었다. 지평에 추증되었다.

월사(月沙)의 운(韻)을 써서 부여현의 재에서 지어 부치다¹⁰⁷⁾

用月沙韻寄題夫餘縣齋

부소는 유서 깊은 명승지이니
백제 왕의 도읍이라 전해 오네
땅이 외지니 산수가 빼어나고
관직이 청렴하니 공무가 드무네¹⁰⁸⁾
바야흐로 습지의 취흥을 기약했더니
사군의 서찰을 먼저 받았네¹⁰⁹⁾
다시금 남쪽에서 노니는 흥이 일어나니
서풍이 길손의 소매를 움직이네

扶蘇古名勝
傳是濟王居
地僻溪山秀
官清簿牒疏
方期習池醉
先得使君書
更起南遊興
西風動客裾

무신년(1608) 중추 석주 권필

戊申仲秋石洲權韜

106) 권필: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시문에 능했던 부친 권벽(權璧)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시문에 재주가 있었다. 이안눌(李安訥) 등과 시사(詩社)를 만들어서 교유하고 산수를 찾아 시주(詩酒)를 즐겼다. 광해군을 비판을 시를 지었다가 유배되어 죽었다. 『청구제영』 제1첩에도 탁본이 수록되었지만 인물 정보는 제3첩에 부기되어 있다.

107) 『청구제영』에는 『석주별집石洲別集』에는 「寄題鳧島軒 用月沙相公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108) 관직이 … 드무네: 부첩은 관아의 장부나 문서를 말한다. 청한한 자리임을 뜻하는데, 이백(李白)의 「기종제선주장사소寄從弟宣州長史昭」에 “네가 선성군의 보좌로 있으니, 관직 생활이 맑고 한가롭구나(爾佐宣城郡 守官清且閒)”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109) 바야흐로 … 받았네: 권필 자신이 부석헌으로 가서 술을 마시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신을 초청하는 서찰이 먼저 왔다는 뜻이다.



字一之 號滄洲 豐川人 肅廟乙卯文科 官至司藝

자는 일지(一之), 호는 창주(滄洲)이며 본관은 풍천(豐川)이다. 숙종 을묘년(167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사예에 이르렀다.

백제의 옛 산하 거니니
 눈길 닿은 곳마다 그 감개 어떠하리
 패업은 먼 하늘 외로운 새와 같이 사라지고
 변화했던 곳 폐사에는 한 스님이 지나가네
 층암절벽에 떨어지는 꽃 봄자취도 없어지는데
 옛나루에 용은 가고 물은 스스로 요동치네
 가장 건디기 어려운 건 밝은 달빛 가득한 강에서
 바람결에 들려오는 망국의 노래라네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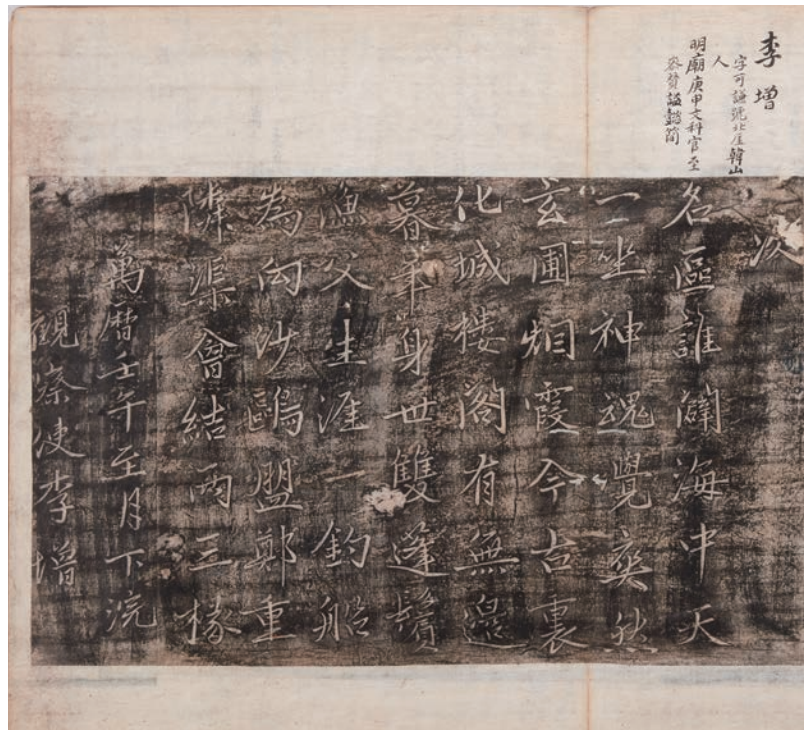
逍遙百濟舊山河
 舉目其如感慨何
 霸業長天孤鳥沒
 繁華廢寺一僧過
 層巖花落春無迹
 古渡龍亡水自波
 最是滿江明月夜
 不堪風送後庭歌

계유년(1693) 모춘 서하 임도삼

癸酉暮春 西河 任道三

110) 임도삼: 숙종대 문신으로, 성균관 사예(司藝)를 역임하였다.

111) 후정가(後庭歌)는 원래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라는 곡으로, 진(晉)나라 후주(後主)가 궁의 뒷뜰(後庭)에 빈객을 청하여 궁녀와 더불어 불렀다는 고사의 곡이다. 후주는 이렇게 주색에 빠져 지내다가 결국 수나라에 망했으므로 망국의 노래라고 한 것이다.



字可謙 號北厓 韓山人 明廟庚申文科 官至參贊 諡懿簡

자는 가겸(可謙), 호는 북애(北崖)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명종 경신년(1560)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의간(懿簡)이다.

차운하다

次

명승을 누가 바다 가운데 만들었는지
 앉으니 정신까지 상쾌해지네
 현포(玄圃)의 연하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곳인데¹¹³⁾
 화성(化城)¹¹⁴⁾의 누각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노년의 신세 귀밑머리 희끗희끗
 어부의 생애는 낚싯배 하나에 있네
 갈매기를 향하여 정중히 맹세하노니
 두세 칸 작은집에서 이웃할 것을 약속하네

名區誰闢海中天
 一坐神魂覺爽然
 玄圃烟霞今古裏
 化城樓閣有無邊
 暮年身世雙蓬鬢
 漁父生涯一釣船
 爲向沙鷗盟鄭重
 隣渠會結兩三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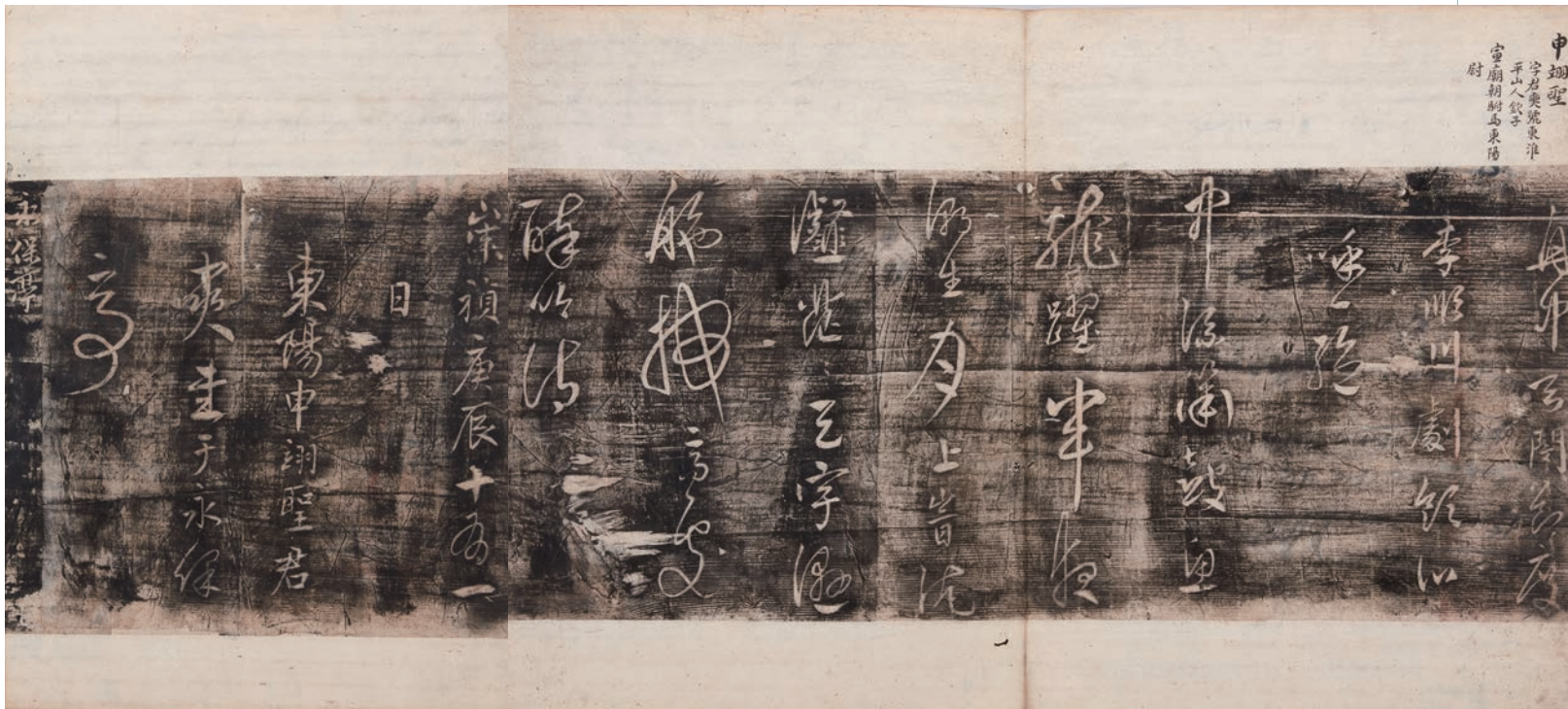
만력 임오년(1582) 11월 하순
 관찰사 이증

萬曆壬午至月下浣
 觀察使李增

112) 이증: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육조의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외직도 황해, 충청, 전라, 경상도의 관찰사를 역임했다.

113) 현포(玄圃)의 ... 곳인데: 현포(玄圃)는 위로 천계(天界)와 통한다고 일컬어지는 곤륜산(崑崙山)의 정상에 있다는 신선의 거처를 말한다. 보통仙境(仙境)의 뜻으로 쓰인다.

114) 화성(化城): 법화도사(法華道師)가 험한 길 가운데에서 변화를 부려 한 성(城)을 만들고 피로한 대중들을 그 안에 들어가 쉬게 했다고 한다.



字君爽 號東淮 平山人 欽子 宣廟朝駙馬 東陽尉

자는 군석(君爽), 호는 동회(東淮)이며, 본관은 평산이고 신희의 아들이다. 선조의 부마로서 동양위(東陽尉)이다.

중천에 배를 타고 민 절도사와 이 순천과 함께 실컷 마신 후에 한 구절을 읊음

舟中天閔節度 李順川 劇飲以呼一絕

강가운데 풍악소리에 물고기와 용이 뛰놀고

中流簫鼓魚龍躍

한 밤중에 조수 일고 달 떠오르는 때로네

半夜潮生月上時

항해(沆漚)¹¹⁶⁾는 망망하게 하늘가를 적시고

沆漚茫茫天宇濕

타루(舵樓)¹¹⁷⁾의 높은 곳에서 취해서 시를 읊네

舵樓高處醉吟詩

승정 경진년(1640) 10월 1일 동양위 군석 신익성이 영보정에서 쓰다

崇禎庚辰十有一日 東陽申翊聖君爽 書于永保亭

115) 신익성: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로, 선조의 부마였다. 부친인 신희의 재주를 이어받아 문장과 서화에 능하였다. 인조반정에 가담하였고,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한 인물 중 하나이다. 소옹의 상수학에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전서와 왕희지체의 필법에 능하여 당대에 쓰여진 금속문이나 옥책 등 국가적 수요에 크게 기여하였다.

116) 항해(沆漚): 야간(夜間)의 수기(水氣)가 엉긴 맑은 이슬을 말하는데, 보통 선인(仙人)의 음료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17) 타루(舵樓): 키를 조종하는 선실(船室)



字仲久 號靜存齋 龍仁人 中廟戊戌文科 選湖堂 官至副提學

자는 중구(仲久)이며 호는 정존재(靜存齋)이고 본관은 용인(龍仁)이다. 중종 무술년(1538)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부제학에 이르렀다.

영보정

永保亭

꽃의 빛깔과 대나무의 색이 갠 하늘과 어울리니
넓은 바다 평평한 파도에 눈이 활짝 트이네
맑은 물 속에 칼같은 바위 마주 서 있고
흰구름 가에 푸른 봉우리 점점이 솟아있네
어룡은 황금 부절을 보고 놀라 움츠러들고
횡횡나는 백로와 갈매기 그림배를 피하네
강신에게 알리노니 나를 그만 괴롭히시라
서까래같은 큰 붓으로 읊지 못함을 한하노라¹¹⁹⁾

花光竹色媚晴天
海闊潮平眼豁然
石劍對抽明鏡裏
螺鬟亂點白雲邊
魚龍瑟縮驚金節
鷗鷺回翔避畫船
爲報江神休惱我
恨無吟筆大於椽

용경 임신년(1572) 봄

隆慶壬申春

관찰사 이담

觀察使李湛

118) 이담: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중종 때 과거에 급제하였고, 을사사화 때 삭직되고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었다. 『명종실록』의 편찬에 관여하였고, 성리학자로서 의약, 천문, 산수, 궁술에 능했고, 서화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119) 서까래같은 … 한하노라: 서까래 같은 붓이란 대문장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때 왕순(王珣)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서까래만 한 큰 붓을 주는 꿈을 꾸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대문장(大文章)을 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윽고 황제(皇帝)가 붕어하여 애책(哀冊), 시책(諡冊)을 모두 그가 초(草)하게 되었던 데서 온 말이다.〔진서(晉書) 王珣傳〕



字孝彦 號五峰 延安人

宣廟甲申文科 選湖堂 官至延陵府院君 典文衡諡文僖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峰)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선조 갑신년(1604)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연릉부원군을 지냈으며 문형을 맡았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己酉抄秋 余在松峴草堂 白進士振南 自湖南計偕來訪 家豚景嚴時爲扶餘宰在側 正□酒清譚閒進士 說其先人玉峯公及孤潭李伯生白馬江兩絕俱係一時高唱其後縣館適再建余語家豚令板刻而奉掛以發揮馬江物色□余於二公從遊且舊遂感而次之使覽者知危樂之在後也

기유년(1609) 9월 나는 송현초당에 있었는데, 진사 백진남이 호남으로부터 와서 방문하였다. 우리 집 아이인 경엄이 마침 부여의 수령이 되어서 옆에 있었는데, 담소하는 사이에 진사가 얘기하였는데, 자기의 돌아가신 부친인 옥봉공과 고담 이백생은 백마강을 잘 읊은 두 분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마침 현관(縣館)을 재건하여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여 판각하여 걸어두어서 백마강의 생김새를 발휘하게 하였다. 내가 두 공과 따라 논 것이 또 한 오래되었는데 드디어 느끼어서 차운하여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뒤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120) 이호민: 선조, 광해군대 문신이다. 문장에 특히 뛰어나 임진왜란 때에 왕명으로 각종 글을 작성하였는데, 교서의 내용이 간결하고 표현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오봉집五峯集』이 전한다.

좁은 골짜기 바위를 돌아 물이 흐르고
 신선은 가장 높은 누각에 임하여 있네
 밝은 달 아래 피리소리 찾을 곳 없고
 외로운 학은 펄럭이며 손님이 탄 배를 지나네
 부소산 아래 큰 강은 깊고
 고국의 행인은 길에서 다듬이소리를 듣네
 밝은 달이 높이 솟아 기러기 울음 끊기고
 단풍 숲 그늘에 작은 배를 옮겨 의지하네

오봉 이호민

崎來巖回一水流
 神仙應在最高樓
 月明長笛詩無處
 孤鶴翩然過客舟
 扶蘇山下大江深
 古國行人聽野砧
 明月漸高鳴雁斷
 楓林移賴小舟陰

五峯李好閔



朴松月 見上

박송월[박호원] 앞에 보인다.

낙촌 종형의 시에 차운하여 주인 영전에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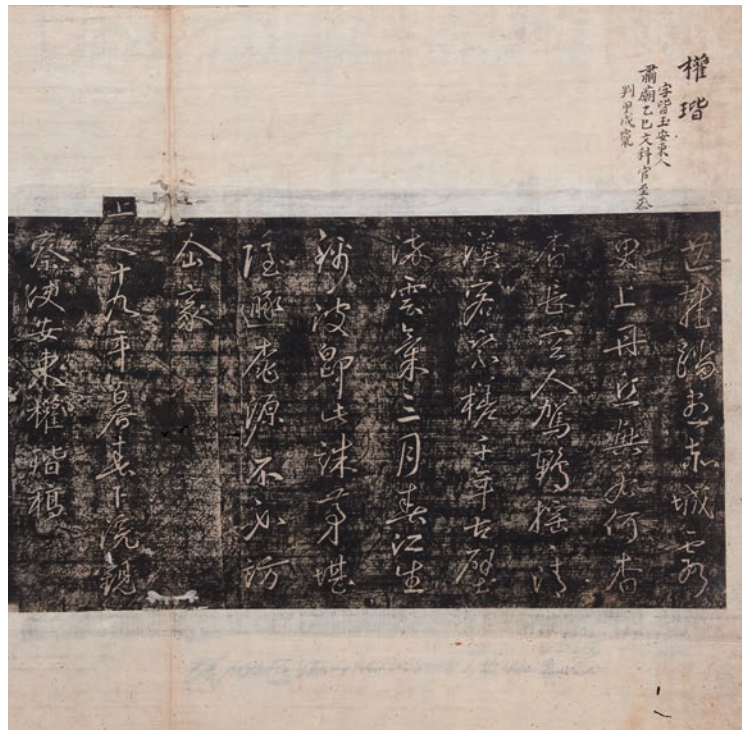
우뚝한 정자 아스라이 물결 가운데 잠기고
바다의 달과 강구름은 세월이 얼마였던가
진중한 주인께서 반겨주심이 좋아서
종일 난간에 기대 회포를 푸네

정묘년(1567년) 초동
감사 박호원

次駱村從兄韻呈 主人令前

危亭縹渺蘸波心
海月江雲幾古今
珍重主人青眼好
倚欄終日叙幽襟

丁卯抄冬
監司朴好元



字皆玉 安東人 肅廟乙巳文科 官至參判 甲戌竄

자는 개옥(皆玉)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숙종 을사년(1685)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참판에 이르렀다. 갑술환국 때에 귀양을 갔다.

짚신 신고 적성의 노을을 다 밟아
다시 단구(丹丘)¹²²⁾에 오르니 흥취가 어떻겠는가
먼하늘 아득히 사람이 학을 타고
흔들흔들 은하수에 손님이 뗏목 타네
천 년된 오랜 성벽에는 구름기운 흐르고
삼월의 봄강에는 금빛 물결 일렁이네
이곳 당장 집 지어 은둔할 만하니
도원에 가서 선가를 방문할 필요 없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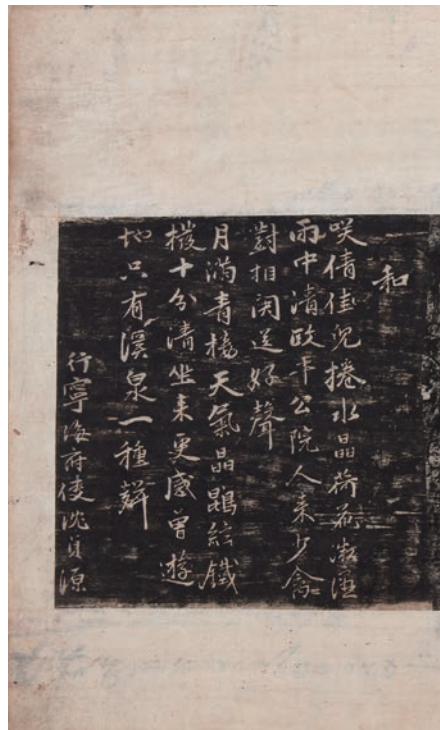
芒鞋踏盡赤城霞
更上丹丘興若何
杳杳長空人駕鶴
搖搖清漢客乘槎
千年古壁流雲氣
三月春江生錦波
卽此誅茅堪隱遯
桃源不必訪仙家

상(숙종) 19년(1693) 모춘 하순 관찰사 안동 권해 씀

上之十九年暮春下浣 觀察使安東權瑨稿

121) 권해: 현종과 숙종대의 문신으로 관직을 역임하다가 기사환국으로 복관되었고 이후 다시 갑술환국때 위리안치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122) 단구(丹丘):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은 땅으로, 선인(仙人)이 산다는 전설적인 지명이다.



웃으며 미인 시켜 수정 주렴 걸어 올리니
연꽃이 빗속에 살짝 젖어 맑구나
정사가 공평하자 관청에 오는 사람이 적으며
새들은 마주하여 좋아하는 소리 보내네¹²⁴⁾
달빛 푸른 누각에 가득하니 기후 청명하고
비파를 연주하는 숨씨는 십분 말끔하네¹²⁵⁾
앓았노라니 다시 일찍이 노닐던 곳 느껴지는데
다만 시냇물 한 가지 소리만 들리네

행 영해부사 심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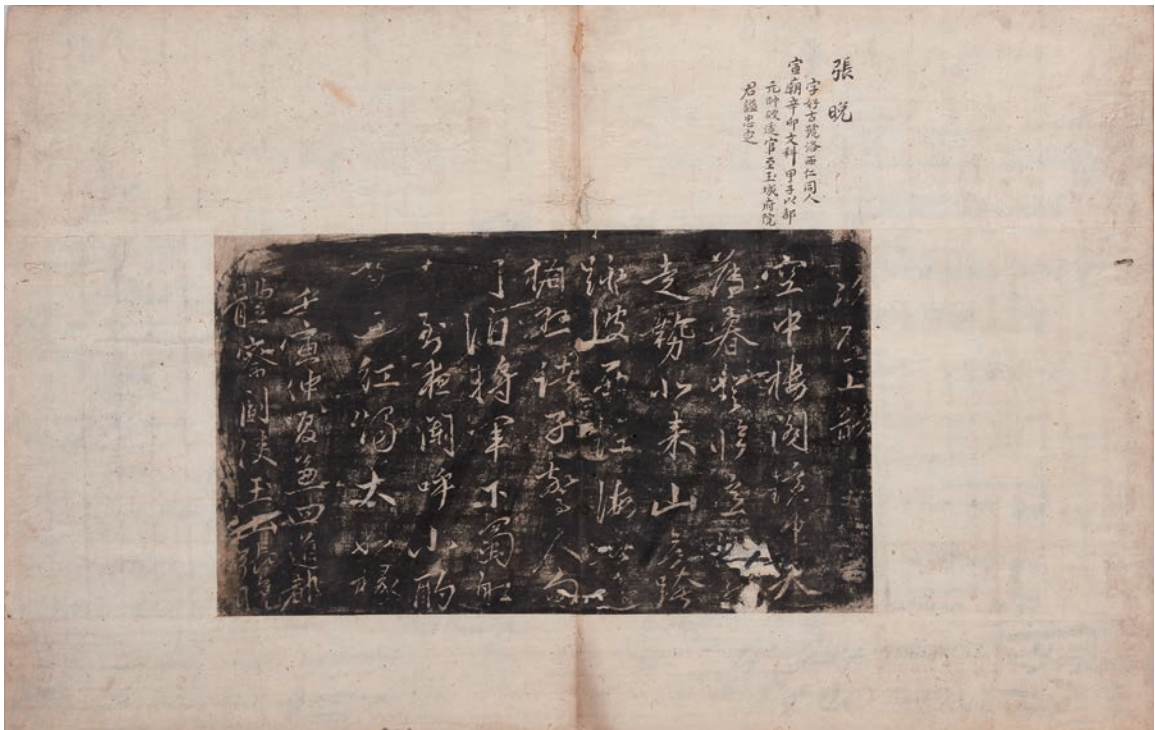
笑倩佳兒捲水晶
荷花微濕雨中清
政平公院人來少
禽對相關送好聲
月滿青樓天氣晶
鵲絃鐵撥十分清
坐來更感曾遊地
只有溪泉一種聲

行寧海府使沈貞源

123) 심정원: 성종대 영해부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을 때, 외딴 섬을 개간한 일로 추국을 당하기도 하였다. 행 판동년 부사 심결(沈決)의 아들이다.

124) 즐거운 마음 … 보내네: ‘禽對相關’은 석연년이 지은 구절에서 온 것이다. 석연년(石延年)은 송나라 진종(眞宗) 때 대리시 승을 지낸 시인이다.

125) 곤계의 … 말끔하네: 이 말은 『산당사고山堂肆考』 「계근작현雞筋作絃」에 나오는 시구에서 유래하였다. “당 개원(開元) 연간에 악공 하회지(賀懷智)가 비파를 잘 연주하였는데, 돌로 조(槽)를 만들고 곤계(鵲雞)의 힘줄로 현(絃)을 만들어 쇠로 통겼기 때문에, 소식(蘇軾)의 시에 ‘곤계의 현줄을 철로 통기는 숨씨여,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도다(鵲絃鐵撥世無有)’라는 표현이 있게 된 것이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字好古 號洛西 仁同人 宣廟辛卯文科 甲子以都元帥破适 官至玉城府院君 諡忠定

자는 호고(好古)이고 호는 낙서(洛西)이며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선조 신묘년(1591)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갑자년(1624)에 도원수로서 이괄의 난을 진압하였다. 관직은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에 이르렀고,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벽위의 시에 차운하다.

次壁上韻

공중누각¹²⁷⁾은 거울 속 하늘에 솟아 있고
저녁 무렵 여기 오르니 마음마저 아득하네
북쪽에서 내달려온 산을 넘고자 하고
서쪽에서 쏟아져 드는 바다는 끝이 없네
누각 머리에 뛰어난 싯귀 걸려 있고
문 밖에는 축으로 내려온 장군의 배 매어 있네
밤늦게까지 작은 술잔을 기울이니
술자리 붉은 촛불 서까래처럼 커져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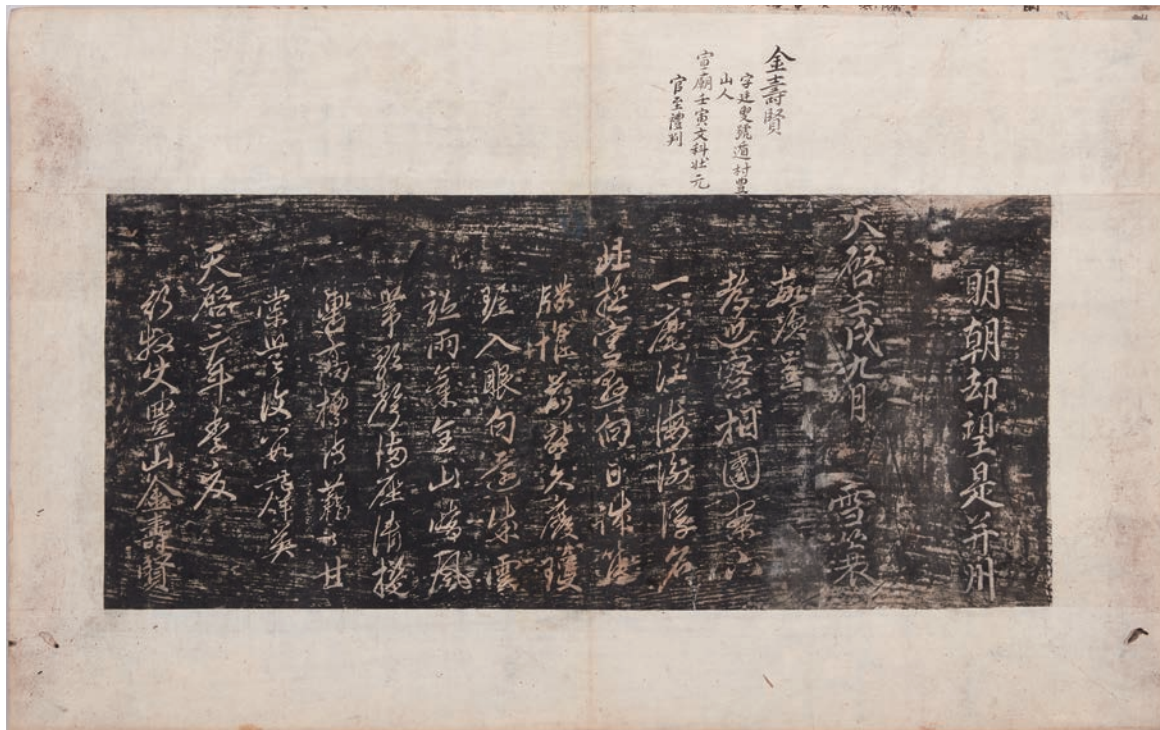
空中樓閣鏡中天
薄暮登臨意渺然
走勢北來山欲跨
跳波西注海無邊
楣懸諸子驚人句
門泊將軍下蜀船
直到夜闌呼小酌
當筵紅燭大如椽

임인년(1602) 5월 겸사도도체찰부사 옥산 장만

壬寅仲夏兼四道都體察副使玉山張晩

126) 장만: 선조,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인조반정으로 팔도도원수가 되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다. 이 작품은 『낙서집洛西集』에 「題忠清水營永保亭」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27) 공중누각(空中樓閣)은 소옹이 낙양(洛陽)에 살 때에 지은 공중누각과 같은 것을 말한다..



字廷叟 號遁村 豐山人 宣廟壬寅文科壯元 官至禮判

자가 정수(廷叟)이고 호가 둔촌(遁村)이며 본관이 풍산(豐山)이다. 선조 임인년(1602)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예조 판서에 이르렀다.

삼가 차운하여 도순찰사 재상의 책상 아래에 올리다

敬次呈都巡察相國案下

수령으로 나가서¹²⁹⁾ 헛된 명성 사양하고
북쪽에 공연히 임금 향한 정성을 보이네
문서가 앞에 쌓여 시를 그만둔 지 오래인데
좋은 시가 눈에 들어와 도리어 시를 짓네
구름이 빗기운을 몰아 온 산이 어둡고
바람이 노래를 실어와 온 자리가 맑아지네
고삐 잡은¹³⁰⁾ 높은 품모가 자자하게 전해지지만
감당으로 칭송해 줄 영재들이 다시 없네

一麾江海謝浮名
北極空懸向日誠
簿牒堆前詩久廢
瓊琚入眼句還成
雲驅雨氣全山暗
風帶歌聲滿座清
攬轡高標傳藉藉
甘棠無復數群英

천계 3년(1623) 계하 행직 청주 목사 풍산 김수현

天啓三年季夏 行牧使 豐山 金壽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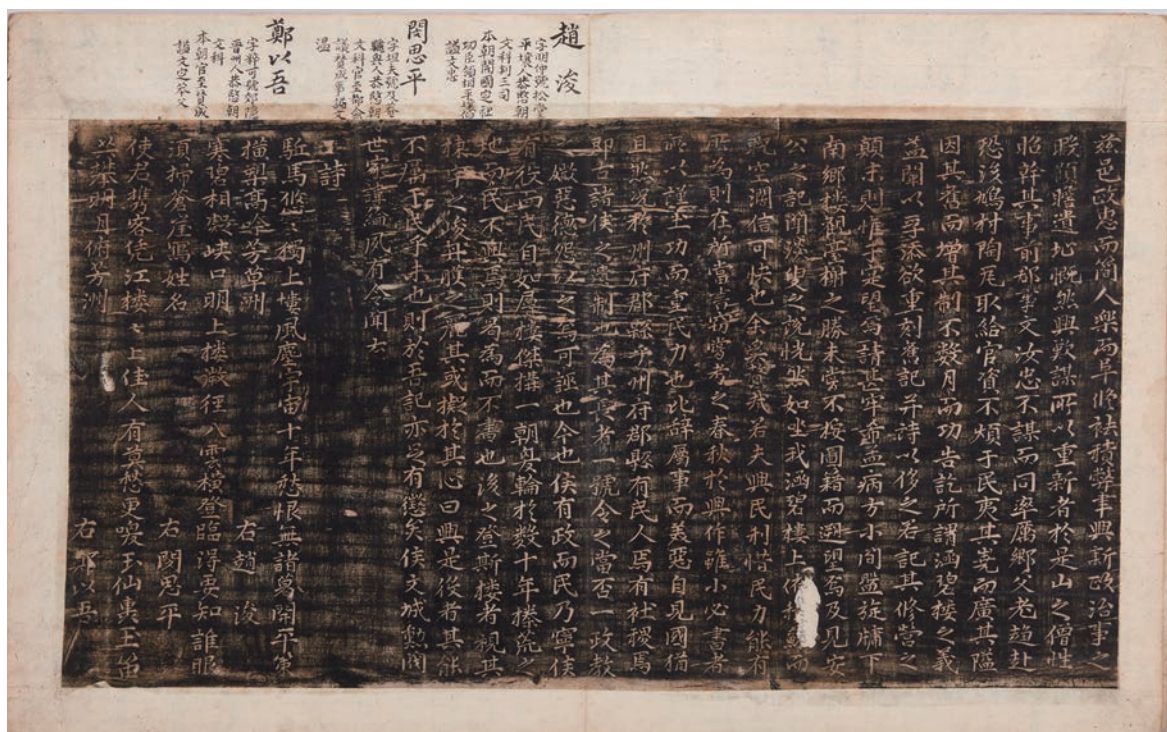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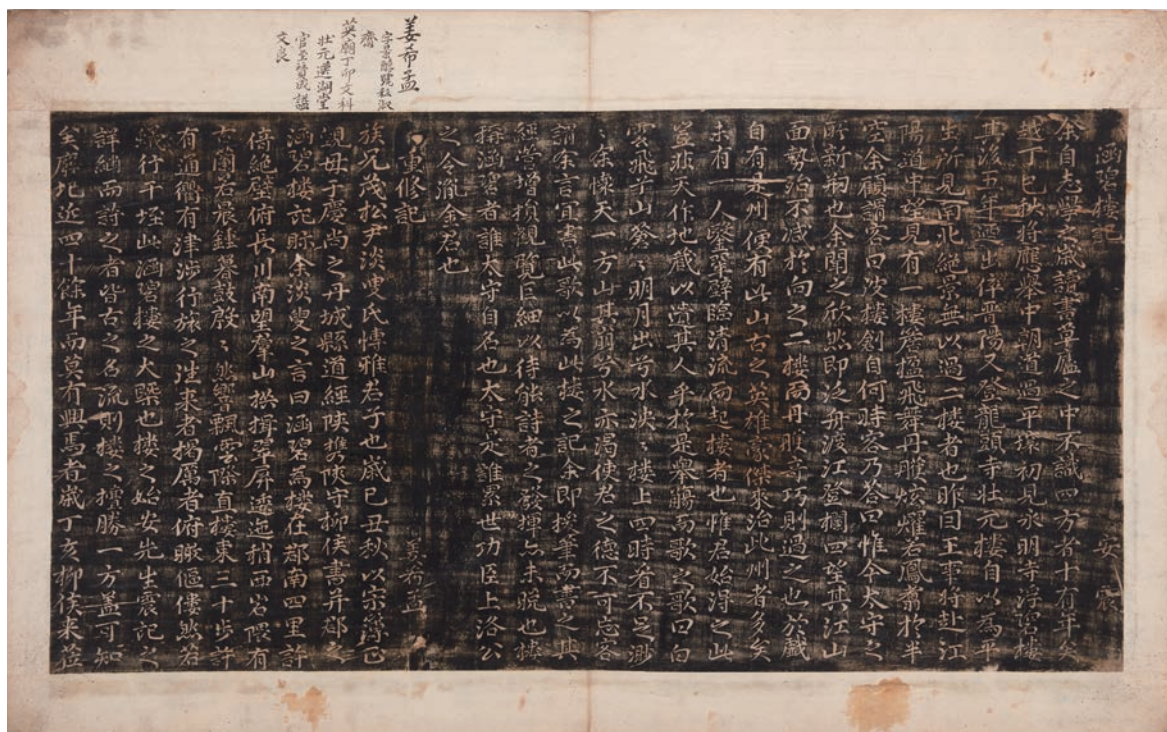
128) 김수현: 조선후기 문신이다. 인조대 도승지, 이조참판,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끝까지 척화를 주장한 신하 중 하나였다. 이 시는 김수현이 1623년(인조 1) 6월에 청주 객관에서 도순찰사(都巡察使) 이덕형(李德衡, 1566~1645)을 맞이하여 지은 시이다. 이덕형은 1623년(인조 1) 3월 18일에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29) 수령으로 나가서: 원문의 '일휘강해(一麾江海)'는 깃발을 들고 강해(江海) 고을로 나간다는 뜻으로, 지방 수령으로 부임함을 말한다.

130) 고삐 잡은: 원문의 '남비(攬轡)'는 고삐를 잡는다는 뜻으로 외직에 나감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덕형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때 기주(冀州)에 기근이 들고 도적이 들끓자, 범방(范滂)을 청조사(淸詔使)로 삼아 진무(鎮撫)하게 하였다. 범방이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 천하를 맑게 하려는 강개(慷慨)한 뜻이 있었다.『후한서後漢書』『黨錮列傳』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경상도



趙浚 字明仲號松堂 平壤人 恭愍朝文科 判三司 本朝開國定功臣領相 平壤伯 諡文忠

조준(趙浚, 1346~1405)¹⁾자가 명중(明仲)이고 호가 송당(松堂)이며 본관이 평양(平壤)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에 급제하여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지냈다. 본조(本朝, 조선)에서 개국공신(開國功臣)과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책봉되고 영의정을 지냈다. 평양백(平壤伯)에 책봉되고 시호가 문충(文忠)이다.

閔思平 字坦夫號及菴 驪興人 恭愍朝文科 官至都僉議贊成事 諡文溫

민사평(閔思平, 1295~1359)²⁾ 자가 탄부(坦夫)이고 호가 급암(及菴)이며 본관이 여흥(驪興, 여주)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와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다. 시호가 문온(文溫)이다.

鄭以吾 字粹可號郊隱 晉州人 恭愍朝文科 本朝官至贊成 諡號文 莘父

정이오(鄭以吾, 1347~1434)³⁾ 자가 수가(粹可)이고 호가 교은(郊隱)이며 본관이 진주(晉州)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본조(本朝, 조선)에서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고, 시호가 문정(文定)이다. 정분(鄭莘)의 아버지이다.

姜希孟 字景醇號私淑齋 英廟丁卯文科壯元 選湖堂 官至贊成 諡文良

강희맹(姜希孟, 1424~1483)⁴⁾ 자는 경순(景醇)이고 호는 사숙재(私淑齋)이다. 영조 정묘년(1747)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涵碧樓記⁵⁾ 안진

涵碧樓記 安震

余自志學之歲 讀書草廬中 不識四方者 十有年矣 越丁巳秋 將應舉中朝 道過平壤 初見永明寺浮碧樓 其後五年 乃出倅晉陽 又登龍頭寺狀元樓 自以謂平生所見南北絕景 無以過此二樓者也 昨因王事 將赴江陽 道中望見一樓 簷楹飛舞 丹雘眩曜 若鳳翥於半空 余顧謂客曰 彼樓創自河時 相地者誰 客乃答言 惟今太守之所新創也 余聞之欣然 卽泛舟渡江 登欄四望 其江山面勢殆不減向之二樓 而丹粧奇巧則過之也 於戲 自有是州 便有此山 古之英雄豪傑 來治此州者多矣 未有一人鑿翠壁臨清流而起樓者也 唯君始得之 此豈天作地藏以遺其人乎 於是舉觴而歌之 歌曰 白雲飛兮山蒼蒼 明月出兮水泱泱 樓上四時看不足 渺渺余懷天一方 山其崩兮水亦竭 使君之德不可忘 客謂予言 宜書此歌 以爲此樓之記 予卽援筆而書之 其經營增損 觀覽巨細 以待能詩者之發揮 亦未晚也 樓稱涵碧者誰 太守自名也 太守是誰 累世功臣上洛公之令胤金君也

- 1) 조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고려 말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조선 개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 전 후로 이방원의 세자책봉을 주장했으며, 태종을 옹립하였다. 토지제도에 밝은 학자로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하였다.
- 2) 민사평: 고려시대의 문신이다. 충정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던 공으로, 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찬성사·상의회의도감사를 역임했다. 시서를 좋아하고 학문에 뛰어나, 문명을 날렸다. 『급암선생시집』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 3) 정이오: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시에 있어서는 자연을 매개로 한 당시풍의 격조 높은 작품을 남겼다.
- 4) 강희맹: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하자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었다. 남이(南怡)의 옥사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익대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 문집 『금양잡록衿陽雜錄』을 남겼다.
- 5) 함벽루(涵碧樓): 경상남도 함천군 함천읍 함천리에 있는 누각이다. 1321년에 함주 지주사(陝州知州事) 김영돈(金永墩)이 창건하였고, 그 뒤 1467년(세조 13)에 군수 유윤(柳倫), 1681년(숙종 7)에 군수 조지항(趙持恒), 1871년(고종 8)에 군수 조진익(趙鎭翼) 등이 여러 차례 중건하였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5량(樑) 구조의 팔작지붕 목조 건물이다. 1983년 7월 20일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59호로 지정되었다.

내가 15세 되던 해부터 초가집에서 글을 읽으며 사방을 모른 지가 10년이다. 정사년 가을에, 조정의 과거에 응시하려고 평양으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영명사(永明寺) 부벽루(浮碧樓)를 보았고, 5년 뒤에 진양(晉陽)의 원로 나가서 또 용두사(龍頭寺) 상원루(狀元樓)에 올라 평생에 본 남북의 절경이 이 두 누대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어제 왕사(王事)로 인하여 강양(江陽)으로 가는데 도중에 한 누대를 바라보니, 처마와 기둥이 날아 춤추는 듯하고 단청이 눈부서 봉황이 반공에 나는 것 같았다. 내가 객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저 누대는 어느 때에 지은 것이며 터를 잡은 이는 누구인가.” 하니, 객이 대답하기를, “지금의 태수가 새로 창건한 것이다.” 하였다. 내가 듣고 기뻐하여 배를 띄워 강을 건너 난간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그 강산의 면모와 형세가 지난번에 본 두 누대보다 못하지 않고 단장의 기이함은 그보다 나았다. 아, 이 고을이 있는 때로부터 곧 이 산이 있었고, 옛날의 영웅 호걸들이 와서 이 고을을 다스린 자도 많았으나, 한 사람도 푸른 산을 파고 맑은 물 가까이 누대를 세운 자가 없었는데, 오직 태수가 비로소 얻었으니, 이 어찌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감추었다가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술잔을 들어 노래하니,

흰 구름이 나는데 산은 푸르고
밝은 달이 떴는데 물은 질펀하도다
누대 위를 사시사철 보아도 부족하니
아득한 내 회포여, 멀고 먼 하늘 저쪽이로다
산이 무너지고 물이 마르더라도
태수의 덕은 잊을 수 없도다

白雲飛兮山蒼蒼
明月出兮水泱泱
樓上四時看不足
渺渺余懷天一方
山其崩兮水亦渴
使君之德不可忘

하였다. 객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 노래를 써서 이 누대의 기(記)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내가 곧 붓을 가져다 썼다. 그 경영(經營)의 보태고 뻥 것과 관람의 크고 적은 것은 시(詩)에 능한 자가 밝힘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누대를 함벽(涵碧)이라고 일컬은 자는 누구이나. 태수가 스스로 이름 지은 것이다. 태수는 누구인가. 여러 대 동안 공신인 상락공(上洛公)의 아들 김군이다.

중수기 강희맹

重修記 姜希孟

族兄茂松尹淡叟氏 博雅君子也 歲己丑秋 以宗簿正 觀母於慶尙之丹城縣 道經陝 携陝守柳侯書并郡之涵碧樓記視余 淡叟之言曰 涵碧爲樓 在郡南四里許 倚絕壁 俯長川 南望羣山拱揖 翠屏邐迤 稍西巖隈有古蘭若 晨鍾暮鼓 殷殷然響飄雲 直樓東三十許步 有通衢 有津涉 行旅之往來者揭厲者俯瞰 僂僂然若螳行于垤 此涵碧樓之大槩也 樓之始 安先生震 記之詳 繼而詩之者 皆古之名流 則樓之擅勝一方 盖可知矣 廢圯近四十餘年 而莫有興焉者 歲丁亥 柳侯來莅茲邑 政惠而簡 人樂而阜 修祛積弊 聿興新政 治事之暇 顧瞻遺址 慨然興歎 謀所以重新者 於是山之僧性昭幹其事 前郡事文汝忠 不謀而同 率厲鄉父老 趨赴恐後 鳩材陶瓦 取給官資 不煩于民 夷其嶢而廣其隘 因其舊而增其制 不數月而功告訖 所謂涵碧之義 益闡以孚 添欲重刻舊記并詩以侈之 若記其修營之顛末 則惟子寔望焉 請甚牢 希孟病方小間 盤旋牖下 南鄉樓觀臺榭之勝 未嘗不按圖籍而遡望焉 及見安公之記 聞淡叟之說 恍然如坐我涵碧樓上 俯積蘇而睨空闊 信可快也 余奚贅哉 若夫興民利 惜民力 能有所爲 則在所當書 竊嘗考之春秋 於興作雖小必書者 所以謹土功而重民力也 比辭屬事而美惡自見 國猶且然 況於州府郡縣乎 州府郡縣 有民人焉 有社稷焉 卽古諸侯之遺制也 爲其長者 一號令之當否 一政教之嫩惡 德怨以之 焉可誣也 今也 侯有政而民乃寧 侯有役而民自如 層樓傑構 一朝奐輪於數十年榛荒之地 而民不與焉 則曷爲而不書也 後之登斯樓者 視其棟宇之峻 丹雘之麗 其或擬於其心曰 興是役者 其能不屬于民乎未也 則於吾記 亦足有懲矣 侯文城勳閥世家諱綸 夙有令聞云

족형(族兄)인 무송(茂松) 윤담수(尹淡叟)는 박학다식하고 고상한 군자이다. 기축년(1469) 가을에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경상도 단성현(丹城縣)에 모친을 뵈러 갈 때 길이 합천을 경유하였는데, 합천 군수 유후(柳侯, 柳綸)의 편지와 합천군 함벽루(涵碧樓)의 기문(記文)을 함께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담수가 말하기를 “함벽루는 합천군 남쪽 4리쯤에 있다. 절벽에 의지하여 긴 강을 굽어보아서 남쪽을 바라보면 여러 산이 읊하는 듯 푸른 산이 빙 둘러있고, 약간 서쪽의 바위 언덕에는 오래된 절이 있어서 새벽종과 저녁 북소리가 은은하게 구름 가에서 울려 온다. 함벽루 바로 동쪽 30보쯤에 사방으로 통하는 큰길과 나루터가 있어서 나그네로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옷을 입고 건너거나 옷을 걷고 건너는⁶⁾ 이들을 굽어보면 허리를 굽혀서 마치 개미가 개미집으로 기어 다니는 듯하다. 이것이 함벽루 경치의 대강이다.

함벽루의 창건은 안진(安震) 선생이 지은 기문(記文)에 자세하고, 잇달아 시를 지은 사람은 모두 옛날에 이름난 선비들이니, 함벽루가 한 지방의 제일가는 명승임을 알 수 있다. 함벽루가 황폐하고 무너진 지 40년 가까이 되었어도 부흥시키는 사람이 없었다. 정해년(1467)에 유후(柳侯)가 이 고을에 와서 다스리면서 정치가 은혜롭고 간략하여 백성들이 즐기고 번성하였으며, 누적된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일으켰다. 공무의 여가에 함벽루의 남은 터를 돌아보고 개연히 탄식하여 다시 새롭게 하기를 꾀하였다. 이에 산사(山寺)의 승려 성소(性昭)가 공사를 주관하였고,⁷⁾ 전임 지합천군사(知陝川郡事) 문여충(文汝忠)이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동참하여 고을 부모(父老)들을 거느리고 격려하니, 공사에 달려오기를 혹시라도 뒤처질까 두려워하였다. 목재를 모으고 기와를 구울 때 관가의 재물에서 공급하여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높은 곳을 평평하게 하고 좁은 곳을 넓혀서 옛날 모습대로 하되 규모를 크게 하였다. 두어 달이 되지 않아 공사를 마쳤는데, 이른바 함벽루(涵碧樓)라는 뜻이 더욱 드날려서 믿음직하게 되었다. 옛날에 걸렸던 기문과 시를 다시 목판에 새겨서 함벽루를 꾸미고자 하는데, 함벽루를 중건한 전말(顛末)을 기록하는 일은 오직 그대에게 바랄 뿐이다.”라고 하며 굳게 청하였다.

나는 바야흐로 병이 약간 차도가 있어 창문 아래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남쪽 지방의 누각과 정자의 명승에 대해 일찍이 그림과 도서를 상고하여 둘러보고자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안진(安震) 공(公)의 기문을 읽어보고 담수의 말을 들으니, 황홀하게 내가 함벽루 위에 앉아서 산천(山川)⁸⁾을 굽어보고 드넓은 곳을 엿보는 듯하여 진실로 장쾌하다고 할만하다. 내가 어찌 군더더기 말을 더하겠는가? 그러나 백성의 이익을 일으키고 백성의 힘을 아끼면서 함벽루를 중건한 일은 마땅히 글로 써야 한다. 일찍이 『춘추春秋』를 살펴보면 공역(工役)을 일으킨 것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썼으니, 토목공사를 삼가고 백성의 힘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글을 지어 사적을 엮으면 아름다움과 나쁨이 저절로 드러난다. 나랏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주부(州府)와 군현(郡縣)의 일은 어떠하겠는가? 주부와 군현에 백성이 있고 사직(社稷)이 있으니, 바로 옛날 제후국(諸侯國)의 남은 제도이다. 고을의 수령이 된 사람의 한 번 호령의 정당함과 정당하지 않음, 정교(政敎)의 아름다움과 나쁨에 따라 언덕과 원망이 뒤따르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지금 유후(柳侯)가 정치를 행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고 유후가 공사를 하여도 백성들이 태연자약하며, 몇 층의 뛰어난 함벽루가 수십 년이나 황폐했던 땅에 하루아침에 화려하게 빛나게 되었어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것을 글로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일에 이 누각에 오르는 사람이 함벽루의 우뚝함과 단청의 화려함을 보고서 간혹 마음속으로 의심하여 말하기를 “이런 공사를 일으킨 사람이 어찌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한다면 나의 기문이 또한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유후는 문성(文城, 문화)의 훈벌세가(勳閥世家) 자손으로 이름이 윤(綸)이며 일찍부터 아름다운 명망이 있었다.

6) 옷을……건너는: 원문의 ‘계려(揭厲)’는 그다지 깊지 않은 강물로, 강물을 건널 때 옷을 입거나 걷은 채 건넌다는 뜻이다.

7) 산사(山寺)의……주관하였고: 원문의 ‘山之僧性昭幹其事’가 『사숙재집』에는 ‘鄉之獻前護軍金自輝’로 되어있다.

8) 산천(山川): 원문의 ‘적소(積蘇)’는 쌓아둔 마른 풀이란 뜻인데,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는 산천이 그와 같다는 뜻이다. 『열자(列子)』 ‘주목왕(周穆王)’에 “궁궐과 정자가 흙더미와 땀감용 풀더미 같았다.[其宮樹若累塊積蘇焉]”라고 하였다.

아득히 말을 몰아 누각에 홀로 오르니
 풍진 세상에서 십 년 동안 근심했네
 한스럽게도 제갈량의 개국과 평천하 계책이 없어서
 풀이 우거진 섬에서 창을 비껴들고 높게 읊조리네⁹⁾
 위는 조준의 시이다.

驅馬悠悠獨上樓
 風塵宇宙十年愁
 恨無諸葛開平策
 橫槊高吟芳草洲
 右趙浚

차고 푸른 기운이 서로 엉겨 골짜기가 밝은데
 누각에 오르는 오솔길이 구름으로 들어가네
 올라서 구경하는 요령을 얻은 것은 누구의 안목인가¹⁰⁾
 반드시 푸른 벼랑을 쓸고서 성명을 새기리라¹¹⁾
 위는 민사평의 시이다.

寒碧相凝峽口明
 上樓微徑入雲橫
 登臨得要知誰眼
 須掃蒼崖寫姓名
 右閔思平

군수가 길손 이끌어 강가 누각에 기대니
 누대 위에 막수¹²⁾ 같은 미인이 있네
 신선을 다시 불러 옥피리를 크게 불며
 밝은 달에 함께 올라 고운 물가를 굽어보네¹³⁾
 위는 정이오의 시이다.

使君携客凭江樓
 樓上佳人有莫愁
 更喚玉仙轟玉笛
 共攀明月俯芳洲
 右鄭以吾

9) 아득히……읊조리네: 조준(1346~1405)의 『송당집松堂集』 제목이 「次陝州涵碧樓詩韻」으로 되어있다. 2수 가운데 제2수이다.

10) 올라서……안목인가: 합천 군수 김영돈(金永墩, 1285~1348)이 1321년에 산천 경관을 관망하기 좋은 곳에 함벽루를 세웠다는 뜻이다.

11) 차고……새기리라: 민사평의 『급암시집』 제목이 「題陝州涵碧樓」로 되어있다.

12) 막수(莫愁): 고악부(古樂府) 가운데 나오는 전설적인 미인인데, 당(唐)나라 석성(石城) 출신으로 13세에 시집가서 노씨(盧氏)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며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함벽루에 함께 오른 가기(歌妓)를 가리킨다.

13) 사군(使君)이……굽어보네: 정이오(1347~1434)의 『교은집郊隱集』에 제목이 「登陝州涵碧樓」로 되어있고, 4구의 '부(俯)'가 '부(付)'로 되어있다.



字士純號鶴峯 義城人 宣廟戊辰文科 官至嘉善監司 諡文忠

자가 사순(士純)이고 호가 학봉(鶴峯)이며 본관이 의성이다. 선조(宣祖) 무진년(1568)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가선대부(嘉善大夫) 감사(監司)에 이르렀다. 시호가 문충(文忠)이다.

일본에 사신으로 갈 때 동헌의 시에 차운하다

奉使日本時 次東軒韻

문소관¹⁵⁾에서 이틀 묵으며
 불현듯 한바탕 꿈을 꾸었네
 높은 수레 타고 고향을 지나며
 쇠뇌를 등에 지는 은혜를 입었네¹⁶⁾
 역로에서 봄이 장차 다하려 하고
 산성에 비가 오다 언뜻 그치네
 어찌하여 춘삼월 좋은 시절에
 만 리 길을 쉬지 않고 가는가

信宿聞韶館
 居然一夢成
 高車過鄉國
 負弩被恩榮
 驛路春將盡
 山城雨乍晴
 如何好時節
 萬里不停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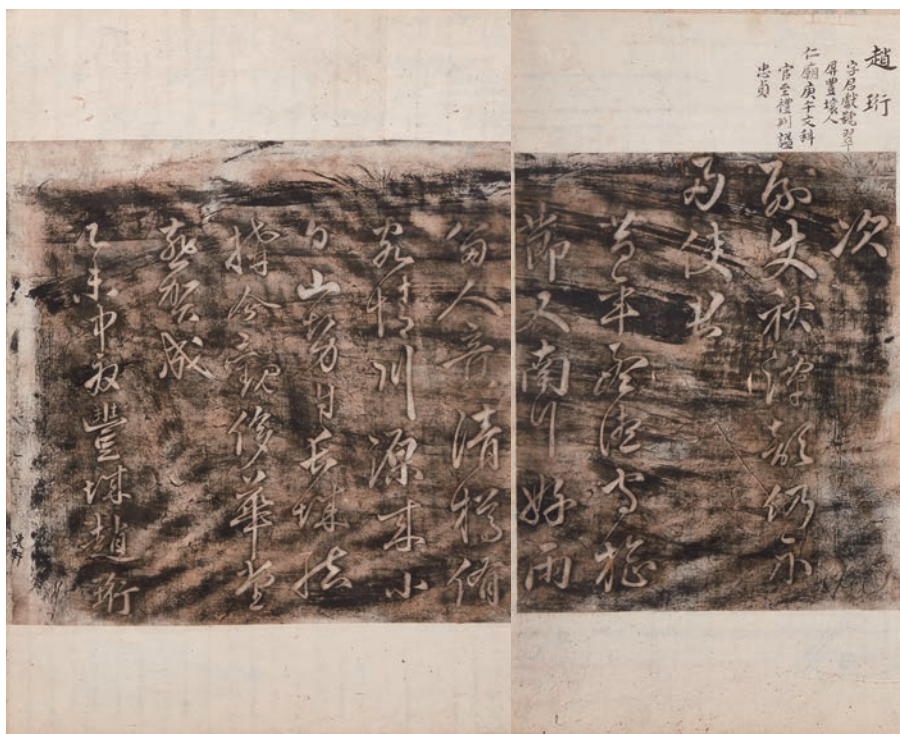
김성일

金誠一

14) 김성일: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590년(선조 23)에 통신 부사로서 일본에 가서 실정을 살핀 후, 침략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의병 규합, 군량미 확보 등에 힘썼다. 저서에 『학봉집鶴峯集』, 『상례고증喪禮考證』 등이 있다. 이 시는 1590년 3월 23에 통신사(通信使) 부사(副使)로 일본에 가다가 의성 문소관에 들러 동헌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원운시(原韻詩)의 작가는 미상이다. 『학봉일고鶴峯逸稿』에 제목이 「二十三日發鄉山 抵聞韶館 次東軒韻」로 되어있다.

15) 문소관(聞韶館): 의성의 객관으로, 동서의 건물이 각각 봉의현(鳳儀軒)과九成현(九成軒)이다. ‘문소(聞韶)’는 경상북도 의성의 옛날 이름으로 조문(召文)이라고도 한다.

16) 쇠뇌를……입었네: 고을 수령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한다는 뜻으로, 옛날에 귀빈(貴賓)이 고을을 지나갈 때는 고을의 수령이 쇠뇌를 등에 지고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였다. 한(漢)나라 때 촉(蜀) 지역의 사람인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중랑장(中郎將)에 제수되어 촉에 사신으로 가자, 촉의 태수(太守) 이하가 모두 나와 영접하였는데, 현령(縣令)이 쇠뇌를 지고 앞장서서 달려가 길을 열었다고 한다.



字君獻 號翠屏 豐壤人 仁廟庚午文科 官至禮判 諡忠貞

자가 군헌(君獻)이고 호가 취병(翠屏)이며 본관이 풍양(豐壤)이다. 인조(仁祖) 경오년(1630)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예조 판서에 이르렀다. 시호가 충정(忠貞)이다.

부사 추담의 시에 차운하여 두 사군에게 보이다

次副使秋潭韻 仍示兩使君

옛날에 맹산 현감¹⁸⁾을 지낸 이가
사신의 깃발 들고 또 남쪽으로 가네
좋은 비가 사람을 머물게 하고
맑은 술을 길손에게 권하네
냇물이 소백산에서 흘러오고
산세가 장성에서 나왔네
객관을 지금 멋지게 지어
화려한 집에서 낙성을 축하하네¹⁹⁾

昔年孟德守
旌節又南行
好雨留人意
清樽侑客情
川源來小白
山勢自長城
結構今觀侈
華堂燕賀成

을미년(1655) 한여름 풍성(豐城, 풍양) 조형

乙未中夏 豐城趙珩

17) 조형: 인조대 문신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모시고 가 독전어사(督戰御使)가 된 데 이어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지냈다. 1650년(효종 즉위)에는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 시는 1655년(효종 6) 조형이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가다가 의성의 문소관에 들러 부사인 유창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18) 조형: 인조대 문신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모시고 가 독전어사(督戰御使)가 된 데 이어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지냈다. 1650년(효종 즉위)에는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 시는 1655년(효종 6) 조형이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가다가 의성의 문소관에 들러 부사인 유창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19) 맹산 현감(孟山縣監): 원문의 '맹덕수(孟德守)'는 '덕맹수(德孟守)', 곧 평안도 맹산 현감을 말한다. 맹주(孟州)와 덕주(德州)를 합친 고을이어서 맹덕(孟德) 혹은 덕맹(德孟)이라고 하였다.



字伯圭 號秋潭 昌原人 孝廟庚寅文科 官至參判

자가 백규(伯圭)이고 호가 추담(秋潭)이며 본관이 창원(昌原)이다. 효종(孝宗) 경인년(1650)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문소의 잔치 자리에서 정사 취병에게 올리고 겸하여 의성 현령 윤이신과 인동부사 이제신에게 보이고 화답을 구하다
聞韶席上 奉呈正使翠屏 兼示尹使君而愼 李仁同而濟求和

18년 전의 길손이
삼천리 바다 밖으로 행차하네
명승지는 아름다운 땅이고
의성 현령은 친구의 마음이네
정치는 오늘날의 선보 수령이고²¹⁾
노래는 옛날의 무성 원님이네
천한 내가 고기 맛을 잊은 지 오래지만
소악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은 아니네²²⁾

十八年前客
三千海外行
名區佳麗地
太守故人情
政化今單父
絃歌舊武城
賤夫忘味久
非欲學韶成

을미년(1655) 천중절 창원 유창

乙未天中 昌原兪瑒

20) 유창: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지평, 충청도관찰사, 좌승지, 광주(廣州)목사, 수원부사 등을 지냈다. 이 작품은 유창이 통신사의 부사로 1655년(효종 6) 5월 5일에 일본에 가다가 의성 객관에 들러 취병(翠屏) 조형 및 의성 현령 윤유근(尹惟謹)과 인동부사(仁同府使) 이척연(李惕然)에게 보이고 화답을 요청한 시이다.

21) 정치는……수령이고: 의성 현령 윤유근의 선정을 공자(孔子)의 제자 복자천(宓子賤)에 견주석 칭송한 말이다.

22) 천한……아니네: 유창이 의성의 고호(古號)인 ‘문소(聞韶)’, 곧 순임금의 음악인 소(韶)를 듣고 공자처럼 고기의 맛을 잊었으나 애초에 소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趙竹陰 見上

조죽음[조희일] 앞에서 보인다.

길손이 멀리 와서 빈 객관에 투숙하니
 지는 해에 청산 그림자가 비스듬하네
 높은 언덕과 평원 사이로 마을 길이 뻗어있고
 성근 울타리와 고목이 있는 곳은 누구 집인가
 장대한 마음은 오직 보검²³⁾에 의지하고
 세상일에 유독 오사모를 젓혀 쓰네²⁴⁾
 관하에 군마가 내달려 먼지가 일어나니
 흰 귀밑머리에 백발이 더해져 서글프네²⁵⁾

遠人來投空館
 落日青山影斜
 斷壘平原村徑
 疎籬古木誰家
 壯心唯憑龍劍
 世事獨岸烏紗
 戎馬關河塵起
 自憐霜鬢添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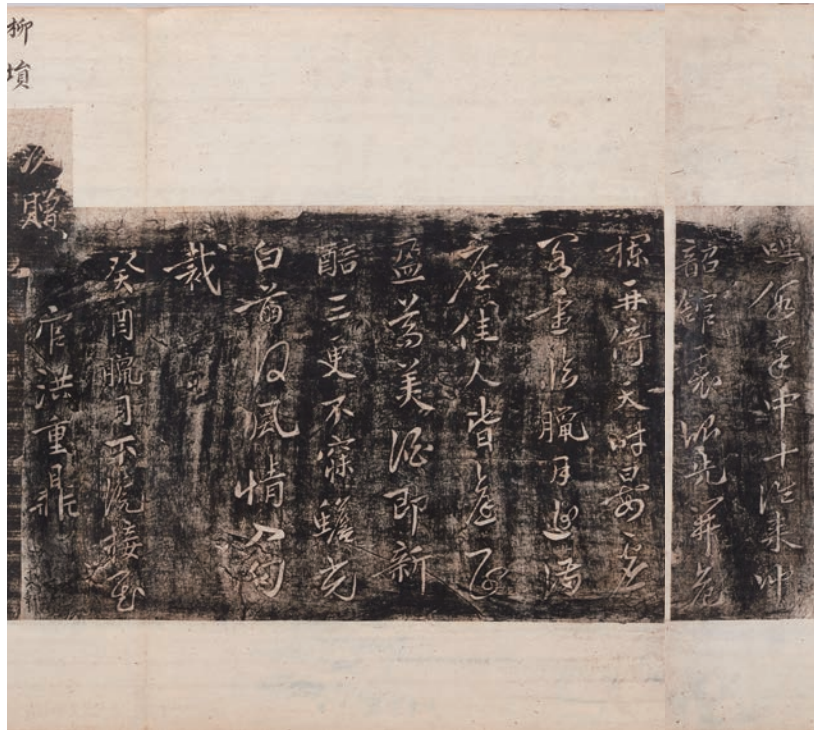
순찰사 조희일

巡察使趙希逸

23) 보검(寶劍): 원문의 '용검(龍劍)'은 전설 속의 보검인 용천검(龍泉劍)을 말한다.

24) 오사모(烏紗帽)를 젓혀 쓰네: 원문의 '오사(烏紗)'는 오사모(烏紗帽)의 준말로, 조선 시대에 관리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이다. 오사모를 뒤로 젓혀 써서 이마가 흰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소탈한 태도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옷차림을 형용하는 말이다.

25) 이 시는 조희일이 순찰사로 1631년(인조 7)에 의성 문소루(聞韶樓)에 와서 1377년(우왕 3)에 정몽주(鄭夢周)가 지은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조희일은 1630년(인조 8) 12월 13일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이듬해 1월 17일에 임금께 하직한 뒤 경상 감사로 부임하였다. 『죽음집竹陰集』에 제목이 聞韶次圃隱韻으로 되어있고, 제목 아래에 “당시 안동에서 변방의 급보를 듣고 교지를 받들어 옮겨 머물다[時自安東聞邊報, 奉旨移住]”라는 주석이 적혀 있다. 문소루는 고려 때 창건하였고, 공민왕 때 현령 이광제(李光濟)가 중건하였으며, 1657년(효종 8)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1694년(숙종 20)에 현령 황응일(黃應一)이 다시 중건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사라진 것을 1983년에 다시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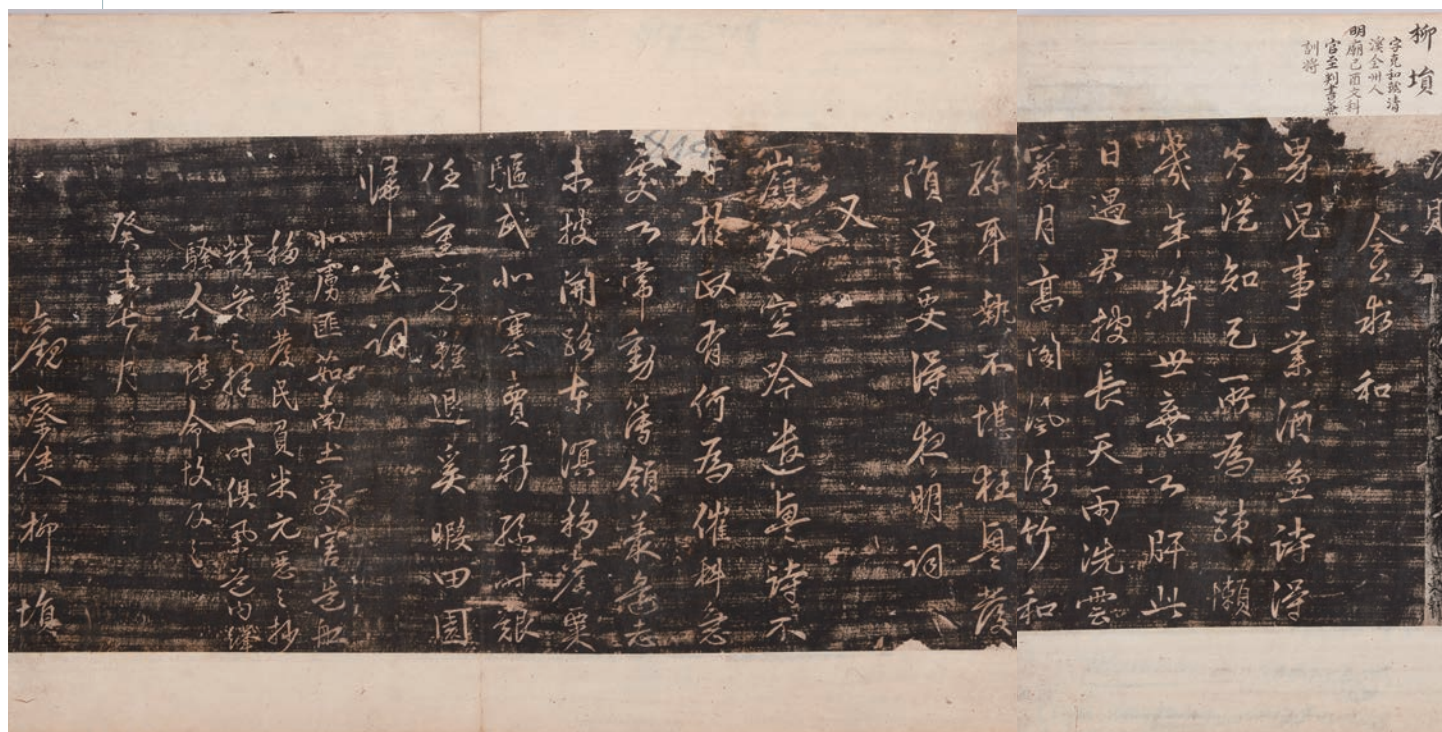
묵묵히 헤아리니 남쪽 고을을 열 번 왕래했는데
 문소관 안에서 눈이 먼저 열렸네
 높은 난간에 다시 기대니 해가 저물고
 빈 누각에 거듭 오니 설달이 돌아왔네
 자리 가득한 좋은 사람들이 모두 구면이고
 잔에 가득한 맛있는 술은 새로 빚은 것이네
 한밤중에 잠 못 들 때 달빛이 밝아서
 전후의 정취가 시구에 들어오네

嘿數南中十往來
 聞韶館裏眼先開
 危欄再倚天時晏
 虛閣重臨臘月廻
 滿座佳人皆舊面
 盈尊美酒卽新醅
 三更不寐蟾光白
 前後風情入句裁

계유년(1693) 납월(臘月, 12월) 하순 접위관 홍중정

癸酉臘月下浣 接慰官洪重鼎

26) 홍중정(洪重鼎): 탁본 상단에 작가가 적혀 있지 않으나 여타 시문의 편집 체제에 따라 한시 끝부분의 기록을 참조하여 홍중정을 추가하였다. 홍중정은 1690년(숙종 16)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지평 문학 사서 등을 역임하였다. 자가 상지(象之)이고 본관이 풍산이며 홍만취(洪萬叟)의 아들이다. 이 시는 홍중정이 접위관(接慰官)으로 1693년(숙종 19) 문소관에서 지은 시이다.



字克和 號清溪 全州人 明廟己酉文科 官至判書兼訓將

자가 극화(克和)이고 호가 청계(清溪)이며 본관이 전주(全州)이다. 명종(明宗) 기유년(154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서 겸 훈련도감 대장에 이르렀다.

전령현(全令玄)의 시에 차운하여 주고 화답을 구하다

次贈全令公敕和

남아의 사업은 술과 시를 겸하는데
득실은 자신이 하는 바에 달렸음을 아네
게을러 몇 년이나 세상에서 버려졌나
마음이 오늘은 그대 만나 열리네
넓은 하늘이 비에 씻겨 구름 새로 달이 보이고
높은 누각에 바람 맑아 관현악의 소리 나네
술에 취해²⁸⁾ 미칠듯한 흥을 이길 수 없는데
유성이 떨어지는 밝은 밤에 시를 요구하네

男兒事業酒兼詩
得失從知己所爲
疎懶幾年拚世棄
心肝此日遇君披
長天雨洗雲窺月
高閣風清竹和絲
耳熱不堪狂興發
隕星要得夜明詞

27) 유훈: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승정원 주서, 사간원 정언, 병조 경랑 등을 역임하였다. 1583년(선조 16)에 경상감사에 제수되었다. 이 시는 이 때 안동에 와서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김정국의 시는 『사재집思齋集』 권2에 제목이 「花山守歲」로 되어있다.

28) 술에 취해: 원문의 '이열(耳熱)'은 술에 한껏 취하여 두 귀가 달아올라 뜨거워진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양운(楊惲)이 손회중(孫會宗)에게 답한 글에 "술을 마신 뒤에 귀가 뜨거워지면 하늘을 우러러보며 질장군을 두드리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酒後耳熱, 仰天撫缶, 而呼鳴鳴]"라고 하였다.

또

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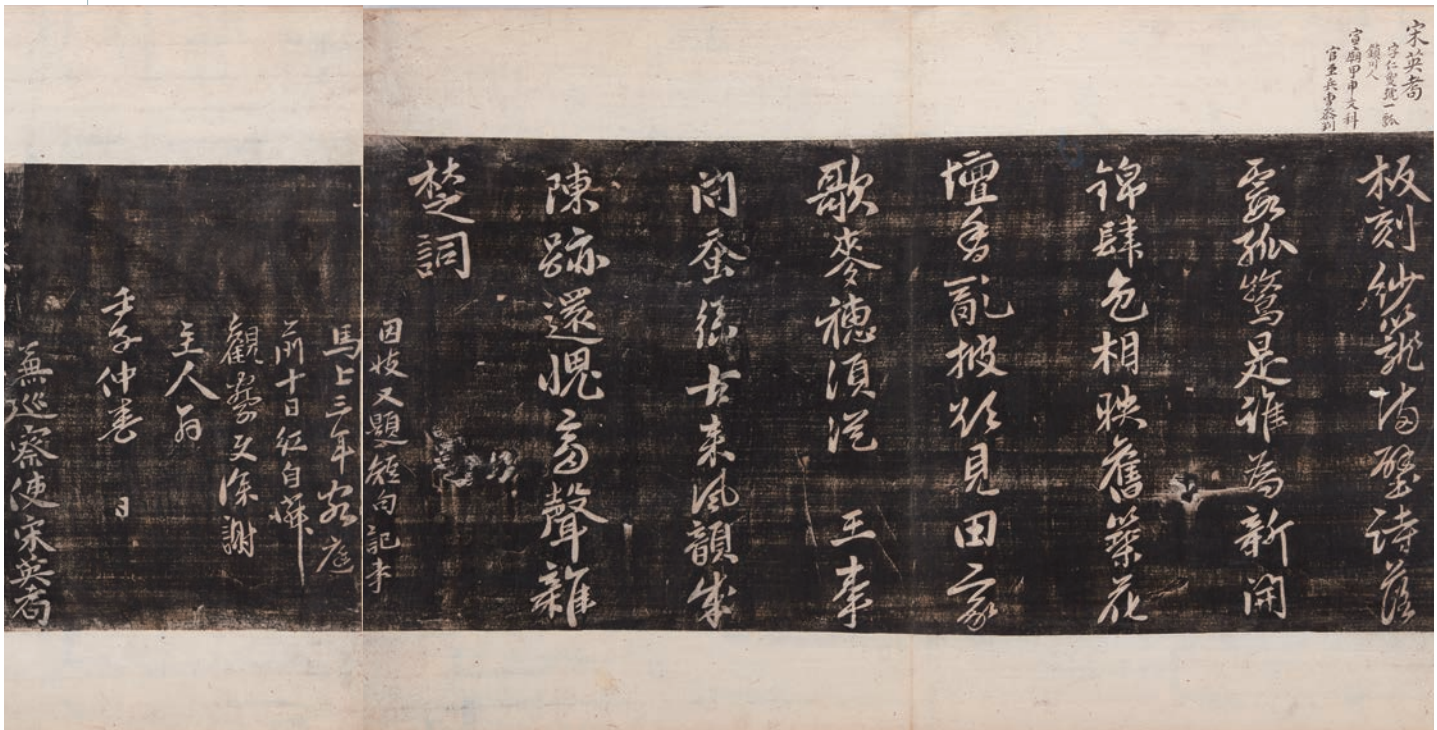
영남에서 흥을 쏟는 시를 헛되이 읊지만
 정치에 재주 없으니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세금 재촉이 급한 곳에 마음이 늘 흔들리고
 고문서가 쌓이는 쪽에 뜻을 아직 펴지 못했네
 동해에 바닷길을 열어 지난해 곡식을 옮기고
 북새에 백성을 몰아 새 명주실을 미리 파네
 시절이 어렵고 임무가 막중하여 물러나기 어려우니
 어느 겨를에 전원에 돌아가는 노래 할 수 있으랴

嶺外空吟遣興詩
 不才於政有何爲
 催科急處心常動
 簿領叢邊志未披
 開路東溟移舊粟
 驅民北塞賣新絲
 時艱任重身難退
 奚暇田園歸去詞

北虜匪茹 南土受害 遣船移粟 發民負米 元惡之抄 精兵之揮 一時俱舉 道內繹騷 人不堪命 故及之
 癸未七月 觀察使柳埴

북쪽 오랑캐가 침범하여 영남의 백성들이 피해를 받아 선박을 보내 곡식을 옮길 때 백성을 징발하여 쌀을 등에 지게 하였다. 그러자 악행을 저지르는 향리(鄕吏)의 수탈과 정예병 뽑기가 일시에 모두 거행되어 도내(道內)가 연달아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였다.

계미년(1583) 7월 관찰사 유훈



字仁叟 號一瓢 鎭川人 宣祖甲申文科 官至兵判
 자가 인수(仁叟)이고 호가 일표(一瓢)이며 본관이 진천(鎭川)이다. 선조(宣祖) 갑신년(158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비단으로 감싼³⁰⁾ 시판이 동헌 벽에 가득한데
 지는 노을과 외로운 따오기는 누가 지은 글인가
 비단 가게를 새로 연 듯 온갖 색이 비치고
 화단을 예전에 쌓아 향기가 어지럽게 퍼지네
 농가에서 풍년가 부르는³¹⁾ 모습을 보려 하고
 나랏일을 좇아서 누에 치는 일을 묻네
 예로부터 풍류가 묵은 자취가 되었으니
 슬픈 노래에 초사가 섞여 도리어 부끄럽네

板刻紗籠滿壁詩
 落霞孤鶩是誰爲
 新開錦肆色相映
 舊築花壇香亂披
 欲見田家歌麥穗
 須從王事問蠶絲
 古來風韻成陳跡
 還愧商聲雜楚詞

29) 송영구 조선 중기 문신이다. 임진왜란 때 도체찰사 정철의 종사관, 정유재란 때는 충청도 관찰사의 종사관이 되었다. 사간에 이어 필선으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다. 이 두 작품은 송영구가 1612년(광해군 4) 2월에 안동 동헌에 가서 지은 시이다.

30) 비단으로 감싼: 원문의 '사롱(紗籠)'은 '벽사롱(碧紗籠)'과 같은 말로, 귀인(貴人)과 명사(名士)가 지은 시문을 벽에 걸어 놓을 때 먼지가 시문에 묻지 않도록 푸른 비단으로 감싸서 보호하는 것을 말

31) 풍년가 부르는: 원문의 '맥수(麥穗)'는 보리 줄기 하나에 두 가닥의 이삭이 맺힌 것으로, 옛날에 풍년이 드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여겼으며 아울러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뜻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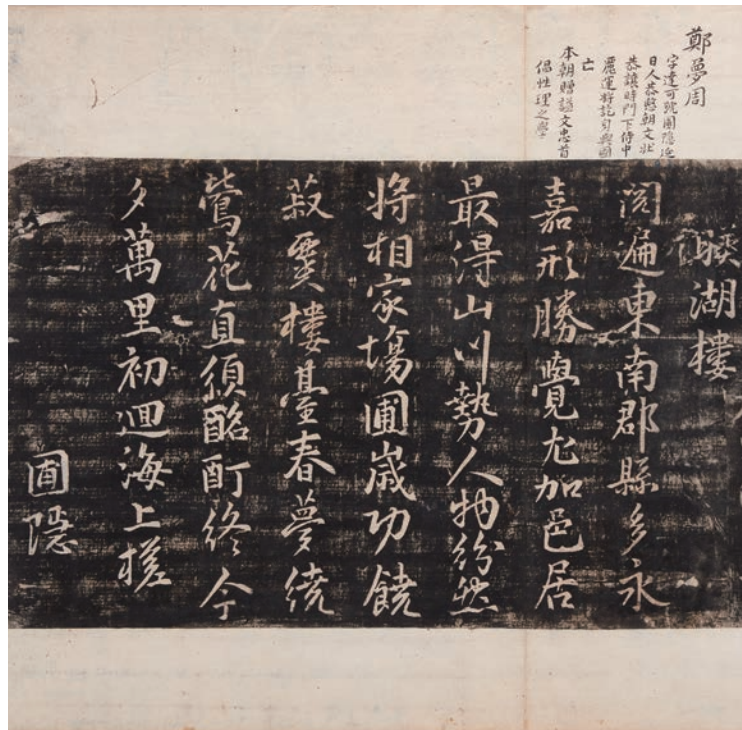
기생으로 인하여 또 절구를 지어 일을 적다
 말 위에서 삼 년 보낸 길손이요
 뜰 앞에 열흘 붉은 꽃³²⁾이 있네
 스스로 가련해 하는 관찰사가
 주인옹에게 깊이 감사하네

因妓又題短句記事
 馬上三年客
 庭前十日紅
 自憐觀察使
 深謝主人翁

임자년(1612) 중춘 모일 검직 순찰사 송영구

壬子仲春日 兼巡察使宋英耆

32) 열흘 붉은 꽃: 원문의 '십일홍(十日紅)'은 기생을 비유한 표현이다.



字達可 號圃隱 延日人 恭愍朝文科壯元 恭讓朝門下侍中 麗運將訖貝與國亡 本朝贈諡文忠 首倡性理之學
자가 달가(達可)이고 호가 포은(圃隱)이며 본관이 연일(延日)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였
고, 공양왕(恭讓王)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 고려의 국운이 장차 다하려 하자 몸이 나라의 멸망과 함께
하였다. 본조(本朝, 조선)에서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렸으며 성리학을 제일 먼저 주창하였다.

영호루³³⁾

映湖樓

동남쪽 영남의 많은 군현을 보았는데
영가³⁴⁾의 명승이 더욱 빼어남을 알았네
고을은 산천의 형세를 최고로 얻었고
인물은 장군과 재상 집안이 성대하네
논밭에서 수확하여 콩과 조가 넉넉하고
누대에서 봄날 꿈꾸니 피꼬리와 꽃이 둘러있네
오늘 밤이 다하도록 만드시 술에 취하리니
만 리 바다에서 뗏목 타고 막 돌아왔기 때문이네

闊遍東南郡縣多
永嘉形勝覺尤加
邑居最得山川勢
人物紛然將相家
場圃歲功饒菽粟
樓臺春夢繞鶯花
直須醕酌終今夕
萬里初迴海上槎

포은

圃隱

33) 영호루(映湖樓): 본래 안동시 옥야동 낙동강 강가에 있었던 누각인데, 1970년에 안동시 정하동으로 옮겼다. 김방경(金方慶)이 1274년(원종 15) 일본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시로 보아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이 1361년(공민왕 10)에 흥건적의 침입으로 안동으로 몽진하였다가 전쟁이 끝난 뒤 개성으로 돌아가서 ‘영호루(映湖樓)’ 현판을 직접 써서 내렸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1934년 7월에 대홍수 때 떠내려갔다가 중건하여 현재에 이른다.

34) 영가(永嘉): 경상북도 안동의 옛날 이름이다.



鄭圃隱 見上

정포은[정몽주] 앞에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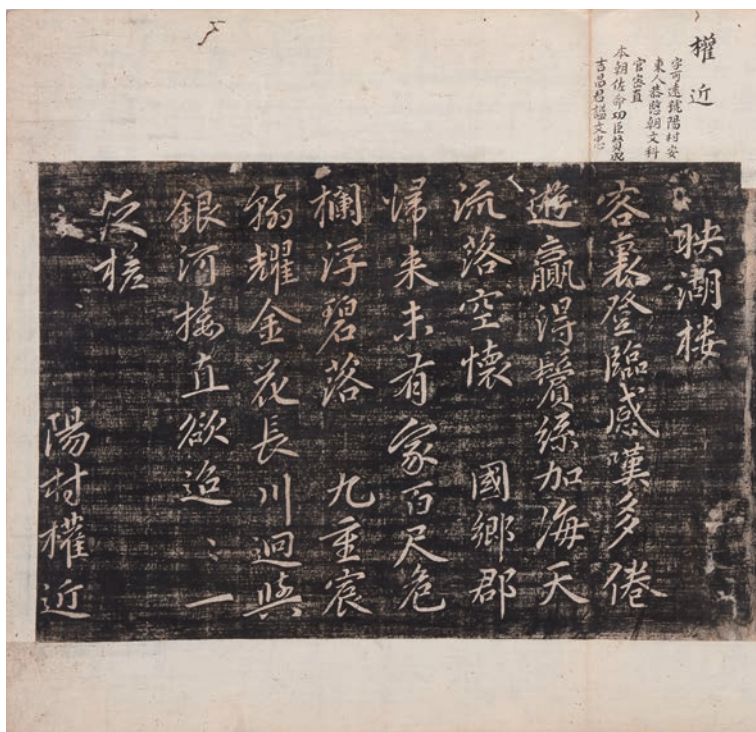
문소 고을의 누각이 아름다운 곳에
비를 피해 오르니 해가 기우네
풀빛이 푸르게 역로에 이어지고
복사꽃이 따뜻하게 민가를 덮고 있네
봄날 시름이 정말로 술처럼 진하고
세상맛이 점점 비단처럼 얇아지네
애끓으며 강남 길을 떠났던 나그네가
절뚝이는 나귀 타고 또 개성을 향하네³⁵⁾

포은

聞韶郡樓佳處
避雨來登日斜
草色靑連驛路
桃花暖覆人家
春愁正濃似酒
世味漸薄如紗
腸斷江南行客
蹇驢又向京華

圃隱

35) 이 시는 정몽주가 1377년(우왕 3) 3월 의성에 들러 개성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이다. 정몽주는 1375년(우왕 1) 안양(彦陽)에 유배되었다가 이때에 풀려나 개성으로 가던 도중에 의성 문소루에 올라 이 시를 지었다. 『포은집』에 「丁巳三月 雨中登義城北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있고, 제목 아래에 “이때 개성으로 가려고 하였다.[時將如京]”라는 주석이 적혀 있다.



字可遠 號陽村 安東人 恭愍朝文科 官至密直 本朝佐命功臣贊成 吉昌君 諡文忠

자가 가원(可遠)이고 호가 양촌(陽村)이며 본관이 안동(安東)이다. 공민왕 조정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밀직사(密直事)에 이르렀다. 본조에서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봉되고 찬성(贊成)을 지냈으며, 길창군(吉昌君)에 책봉되고 시호가 문충(文忠)이다.

영호루

映湖樓

객지에서 누대에 올라 감탄이 많고
오랜 여행에 지쳐 백발이 더해지네
바닷가에 떠돌며 공연히 도성을 그리고
고향 고을에 돌아와도 머물 집이 없네
백 척의 높은 누각이 하늘에 떠 있고
대궐의 임금 글씨³⁷⁾가 금화전(金花殿)처럼 빛나네
긴 냇물이 멀리 은하수에 접하여
곧장 배를 띄우고 아득히 가고 싶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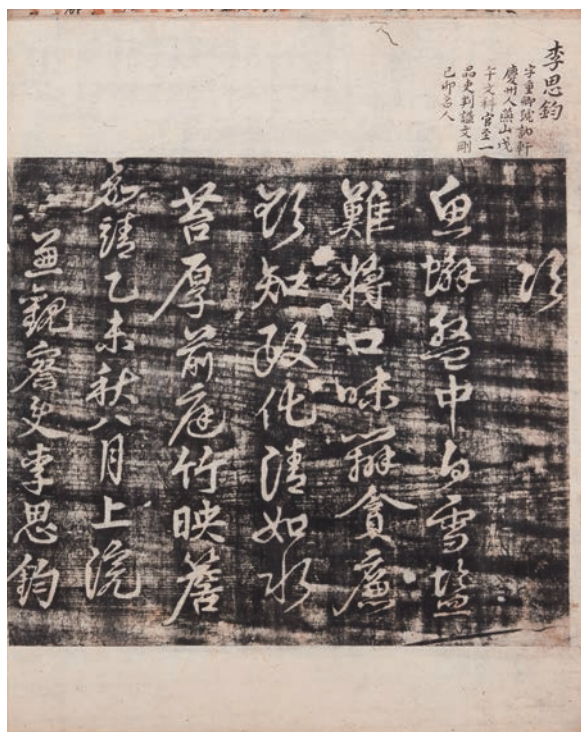
客裏登臨感嘆多
倦遊贏得鬢絲加
海天流落空懷國
鄉郡歸來未有家
百尺危欄浮碧落
九重宸翰耀金花
長川迴與銀河接
直欲迢迢一泛槎

양촌 권근

陽村權近

36) 권근: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학자로 호는 양촌이다. 친명정책을 주장하였다. 조선 개국 후, 사병 폐지를 주장하여 왕권확립에 큰 공을 세웠다. 길창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대사성·세자좌빈객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났고, 경학에 밝아 사서오경의 구결을 정하였다. 저서에는 『입학도설(入學圖說)』, 『양촌집(陽村集)』 등이 있다. 이 시는 권근이 1390년(공양왕 2) 안동 영호루에 들러 지은 시이다.

37) 대궐의 임금 글씨: 공민왕이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으로 몽진하였다가 개성으로 돌아가서 1366년(공민왕 15)에 직접 써서 내린 ‘영호루(映湖樓)’ 현판 글씨를 말한다.



字重卿 號訥軒 慶州人 燕山戊午文科 官至一品吏判 諡文剛 己卯名人

자가 중경(重卿)이고, 호가 눌헌(訥軒)이며, 본관이 경주이다. 연산군(燕山君) 무오년(1498)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1품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가 문강(文剛)이고, 기묘명현(己卯名賢)이다.

차운

次

소반의 생선과 게, 백설 같은 소금

魚蟹盤中白雪鹽

입맛으로 탐욕과 청렴을 구별하기 어렵네

難將口味辨貪廉

정치와 교화가 물처럼 청정함을 알려고 하는가

欲知政化清如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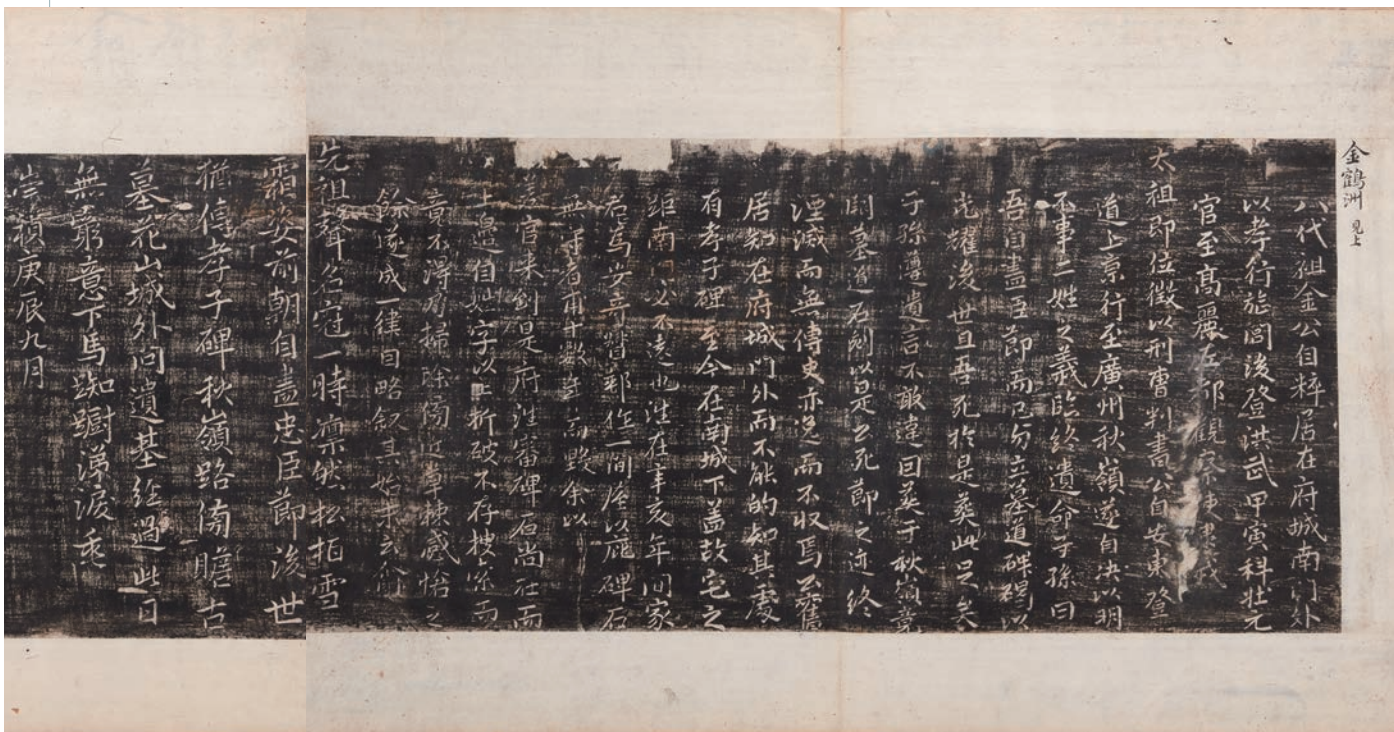
이끼가 앞뜰에 무성하고 대나무가 처마에 비치네

苔厚前庭竹映簷

가정 을미년(1535) 가을 8월 상순 겸 관찰사 이사균

嘉靖乙未秋八月上浣 兼觀察使李思鈞

38) 이사균: 조선전기 문신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기묘사화 이후에 부제학이 되었는데, 조광조 일파라는 모함을 받아 좌천되기도 하였다. 그 후 경상도 관찰사, 중추부지사 등을 기냈다. 문집으로 『눌헌집訥軒集』이 있다. 이 시는 1535년(중종 30) 경상도 관찰사로 왔다가 해(興海) 객사에 들러 이곡(李穀)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金鶴洲 見上

김학주[김홍욱] 앞에서 보인다.

八代祖金公自粹 居在府城南門外 以孝行旌閭 後登洪武甲寅科壯元 官至高麗左都觀察使 逮我太祖卽位 徵以刑曹判書 公自安東登道上京 行到廣州秋嶺 遂自決 以明不事二姓之義 臨終遺命子孫曰 “吾自盡臣節而已 勿立墓道碑碣 以光耀後世 且吾死於是 葬此足矣” 子孫遵遺言 不敢違 因葬于秋嶺 竟闕墓道石刻 以是公死節之迹 終湮滅而無傳 史亦逸而不收焉 公舊居知在府城門外 而不能的知 其處有孝子碑 至今在南城下 蓋故宅之距南門 必不遠矣 往在辛亥年間 家君爲安奇督郵 作一間屋 以庇碑石 無守者 甫十數年而毀 余以敬差官來到是府 往審碑石尚在 而上邊自姓字以上 折破不存 搜索而竟不得 乃掃除傍近草棘 感愴之餘 遂成一律 因略敘其始末云爾

8대조(代祖) 김자수(金自粹, 1351~1413) 공은 거처가 안동부 성곽 남문 밖에 있었는데, 효행(孝行)으로 정려(旌閭)를 받았다. 뒤에 홍무(洪武) 갑인년(1374)에 과거에 장원하여 관직이 고려(高麗) 좌도 관찰사(左都觀察使)에 이르렀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즉위하여 형조판서로 부르자 공이 안동에서 길에 올라 서울로 오다가 행차가 광주(廣州) 추령(秋嶺)³⁹⁾에 이르러 마침내 자결(自決)하여 두 성씨(姓氏)를 섞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할 때 자손에게 유언하여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신하의 충절을 다할 뿐이다. 무덤에 비갈(碑碣)을 세워서 후세에 빛내려고 하지 말라. 또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여기에 장사지내면 족하다.”라고 하였다. 자손들이 유언을 따라 감히 어기지 않고서 추령에 장사를 지내고 끝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이 순절(殉節)한 자취가 끝내 사라져서 전해지지 않았고, 역사서에도 빠뜨리고 수록하지 않았다.

공의 옛날 거처가 안동부 성문 밖에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효자비(孝子碑)가 지금까지 남쪽 성곽 아래에 남아있으니, 대개 옛날 집과 남문 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39) 추령(秋嶺): 경기도 광주시의 서남부 오포읍 신현리와 분당 경계에 있는 고개로, 오늘날에 태현(泰峴)으로 부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추령(秋嶺)’, 『해동지도』에 ‘추현(秋峴)’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해년(1611) 연간에 부친⁴⁰⁾이 안기독우(安奇督郵, 안기도 찰방)가 되어 한 칸의 비각(碑閣)을 지어 비석을 보호했으나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10여 년이 지나 허물어졌다. 내가 경차관(敬差官)으로 이곳 안동부에 이르러 가서 살펴보니, 비석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윗부분의 성(姓)과 자(字) 이상부터 파손이 되어 남아있지 않아서 수색해도 끝내 찾지 못하였다. 이에 근처의 풀과 가시를 제거한 뒤 슬픈 마음이 일어나서 마침내 읍시 1수를 짓고, 인하여 시말(始末)을 대략 적는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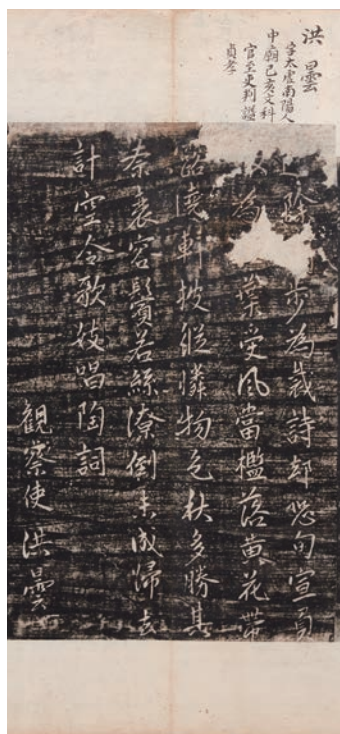
선조의 명성이 한 시대에서 으뜸이라	先祖聲名冠一時
솔과 잣처럼 늠름하고 서릿발 같은 자질이었네	凜然松柏雪霜姿
고려 위해 충신의 절개로 다하였고	前朝自盡忠臣節
후세에 여전히 효자비가 전해오네	後世猶傳孝子碑
추령의 길가에서 옛 무덤을 바라보고	秋嶺路傍瞻古墓
화산의 성밖에서 살던 터를 방문하네	花山城外問遺基
오늘 지나가며 무궁한 뜻이 있어서	經過此日無窮意
말에서 내려 배회하다 눈물을 흘리네	下馬踟躕涕淚垂

승정(崇禎) 경진년(1640) 9월에 경차관(敬差官) 홍문관 수찬 김홍욱이 삼가 쓰다.

崇禎庚辰九月 敬差官弘文館修撰 金弘郁敬書

40) 부친: 김적(金積, 1564~1646)으로 본관이 경주(慶州), 자가 선여(善餘), 호가 단구자(丹丘子)이다. 1609년(광해군 즉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1610년에 안기도찰방(安奇道察訪), 1613년(광해군 5)에 평릉도찰방(平陵道察訪)을 지냈다. 광해군의 난정(亂政)이 계속되자 사직한 뒤 가족을 이끌고 충청남도 서산(瑞山)으로 낙향하였다. 『포저집浦渚集』 권32 「증이조참판김공묘갈명贈吏曹參判金公墓碣銘」

41) 이 시는 김홍욱이 1640년(인조 18) 9월에 경차관(敬差官)으로 안동에 왔다가 8대조 김자수(金自粹)의 정효비(旌孝碑)에 들러 지은 시서(詩序)이다. 『학주전집鶴洲全集』에 제목이 「先祖桑村公遺墟感述詩序」로 되어있는데, 일부 자구(字句)가 다른 곳도 있다.



字太虛 南陽人 中廟己亥文科 官至吏判 諡貞孝

자가 태허(太虛)이고 본관이 남양(南陽)이다. 중종(中宗) 기해년(153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시호가 정효(貞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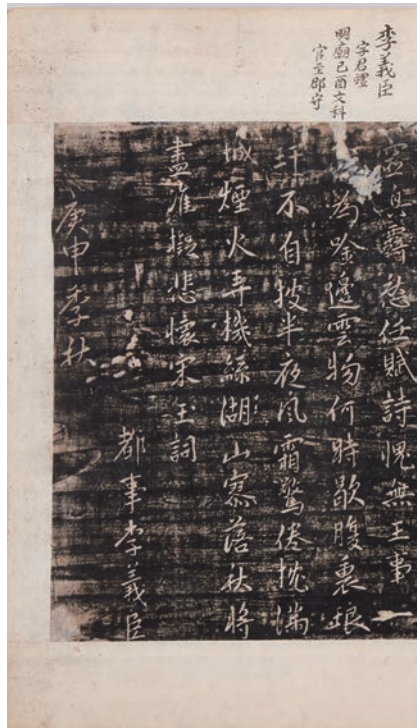
■ 뜰에서 한가로이 걸으며 시를 짓지만
도리어 관찰사 직무를 저버릴까 두렵네
붉은 잎이 바람에 날려 난간에 떨어지고
노란 국화가 이슬에 젖어 난간에 피어 있네
풍경이 아름다워 가을이 매우 좋아도
노쇠한 모습에 귀밑머리 센 것을 어찌하랴
늙어서도 돌아갈 계책을 이루지 못하여
기생에게 도잡의 「귀거래사」를 부르게 하네

관찰사 홍담

■ 除閒步爲裁詩
却恐旬宣負 ■ 爲
紅葉受風當檻落
黃花帶露澆軒披
縱憐物色秋多勝
其奈衰容鬢若絲
潦倒未成歸去計
空令歌妓唱陶詞

觀察使洪曇

42) 홍담: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훈구파(勳舊派)의 거두로 김개와 함께 정철 등 사림파(士林派)와 대립하였다. 대사헌, 병조참판, 한성부판윤,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이 시는 1560년(명종 14) 홍담이 경상도 관찰사로 안동 동헌에 들러 김정국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字君禮 明廟己酉文科 官至郡守

자가 군례(君禮)이다. 명종(明宗) 기유년(154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군수에 이르렀다.

관리 흥과 길손 시름을 마음껏 시로 짓지만
나랏일을 하나도 하지 못해 부끄럽네
시로 읊는 경물은 어느 때에 다할까
뱃속의 좋은 글⁴⁴⁾을 표현하지 못하네
한밤중 바람과 서리에 지친 잠에서 놀라 깨고
성 가득 밥 짓는 연기가 벼들의 실처럼 피어오르네
호수와 산이 쓸쓸하여 가을이 다하려는데
슬픈 회포를 송옥의 「비추부」⁴⁵⁾에 견주네

宦興羈愁任賦詩 愧無王事一■爲
吟邊雲物何時歇 腹裏琅玕不自披
半夜風霜驚倦枕 滿城煙火弄機絲
湖山寥落秋將盡 准擬悲懷宋玉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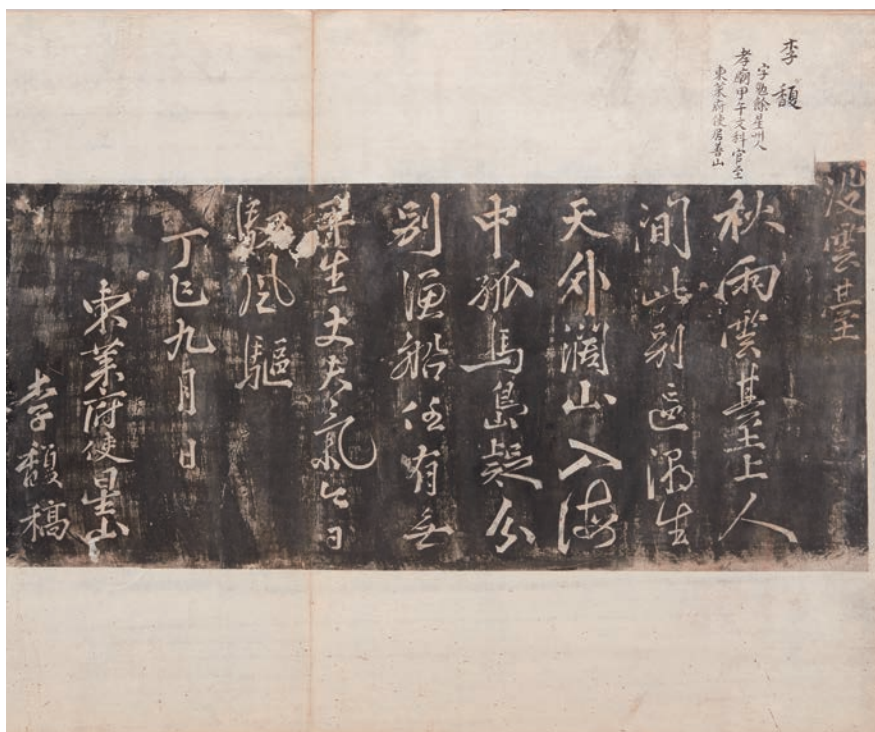
도사 이의신 경신년(1560) 계추

都事李義臣 庚申季秋

43) 이의신: 1549년(명종 4) 문과에 급제하여 도사, 호조정랑, 금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이 시는 이의신이 1560년(명종 15) 9월에 안동 동헌에 들러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44) 좋은 글: 원문의 '낭간(琅玕)'은 옥(玉) 비슷한 일종의 아름다운 돌을 말하는데, 훌륭한 시문이나 좋은 간언(諫言)을 비유한다. 한유(韓愈)의 「작작齷齪」에 "구름을 헤치고 하늘에 호소하고, 뱃속을 열어서 좋은 글을 바치네.[排雲叫閭闔, 披腹呈琅玕]"라고 하였다.

45) 송옥(宋玉)의 「비추부悲秋賦」: 원문의 '송옥사(宋玉詞)'는 초(楚)나라 송옥이 굴원(屈原)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비추부」를 말한다. 송옥의 「구변九辯」 첫머리에 "슬프다, 가을 기운이여.[悲哉, 秋之爲氣也。]"라고 시작하여 이 부(賦)를 「비추부」라고도 부른다.



字勉餘 星州仁 孝廟甲午文科 官至東萊府使 居善山

자가 면여(勉餘)이고 본관이 성주(星州)이다. 효종(孝宗) 갑오년(165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동래부사(東萊府使)에 이르렀으며 선산(善山)에 살았다.

몰운대

沒雲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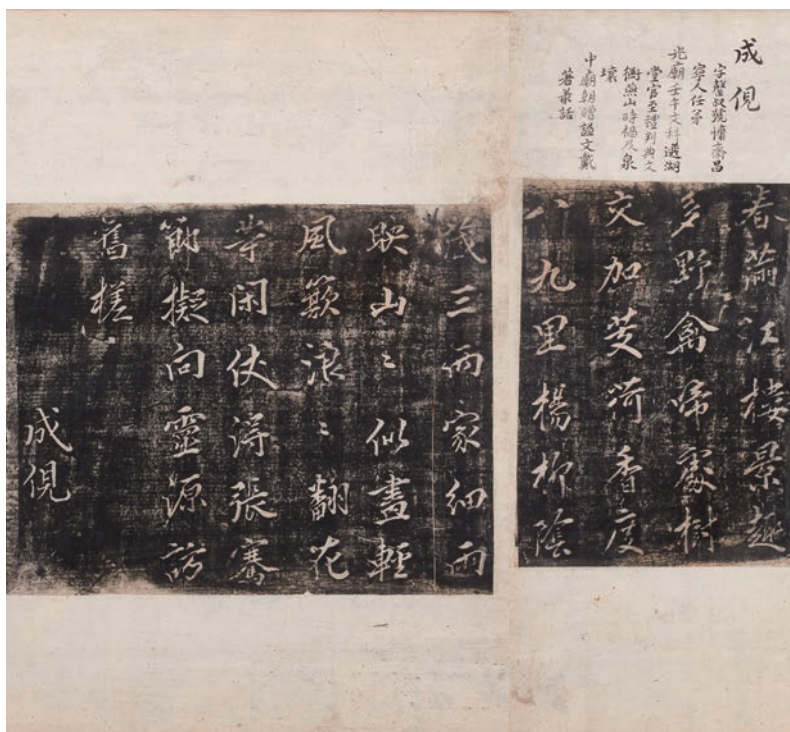
몰운대에 가을비가 내리니
세상에서 이곳이 별천지네
파도가 드넓은 하늘 너머에서 일고
산이 외로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네
대마도가 보이는 듯하고
어선이 멋대로 들락날락하네
평생에 장부의 기상 지녀
오늘 바람을 타고 내달리네

秋雨雲臺上
人間此別區
潮生天外濶
山入海中孤
馬島疑分別
漁船任有無
平生丈夫氣
今日馭風驅

정사년(1677) 9월 모일 동래부사 이복이 쓰다.

丁巳九月日 東萊府使星山李馥稿

46) 이복: 숙종대 문신이다. 강진현감, 장령,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이 시는 동래부사에 부임하였을 때 몰운대에 들러 지은 시로 보인다. 몰운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多大洞)에 있는 명승지이다. 임진왜란 때에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이 이곳에서 전사하였다.



字磬叔 號慵齋 昌寧人 任弟 世廟庚午文科 選湖堂 官至禮判 典文衡 燕山時 禍及泉壤 中廟朝贈諡文戴 著慵話
자가 경숙(磬叔)이고 호가 용재(慵齋)이며 본관이 창녕(昌寧)이다. 성임(成任)의 동생이다. 세조(世祖) 임오년(1462)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 독서당)에 선발되었고, 관직이 예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문형을 맡았다. 연산군(燕山君) 때 재앙이 무덤에 미쳤고, 종종 조정에서 문대(文戴)의 시호를 내렸다.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저술하였다.

봄이 가득한 강가 누각에 경치가 매우 좋고
들새가 우는 곳에 나무들이 뒤섞였네
연꽃 향기가 팔구 리 너머까지 퍼지고
버드나무 녹음이 두세 집을 감추었네
가랑비가 산에 내려 산 풍경이 그림 같고
미풍이 물결 날려 물보라가 일렁이네
한가로이 장건의 부절을 지니고서
황하의 근원 향해 옛 뗏목 타고 가려 하네^{48) 49)}

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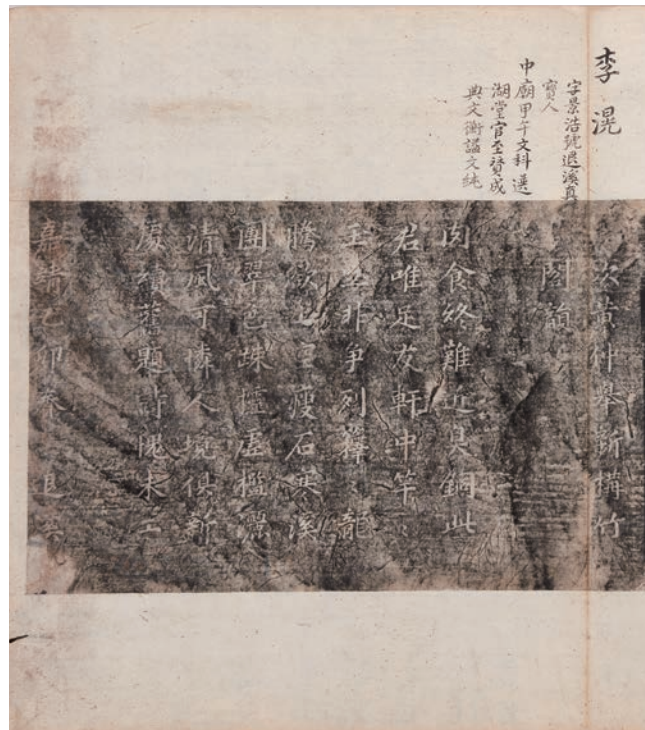
春滿江樓景趣多
野禽啼處樹交加
芰荷香度八九里
楊柳陰藏三兩家
細雨映山山似畫
輕風簸浪浪翻花
等閑仗得張騫節
擬向靈源訪舊槎

成俔

47) 성현: 조선 전기 문신. 대사간, 형조참판, 평안도관찰사, 예조판서, 공조판서 겸 대제학 등을 지냈다. 『악학궤범』을 편찬했고 관상감 등의 중요성을 역설, 격상시켰다. 문집 『용재총화』는 조선 전기의 정치·사회·제도·문화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48) 한가로이……하네: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장건(張騫)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역(西域)에 가다가 뗏목을 타고 황하(黃河)의 근원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 은하수에서 직녀(織女)와 견우(牽牛)를 만났다는 고사가 있다.

49) 봄이……하네: 경상도 관찰사 성현(1439~1504)이 1493년(성종 24) 8월에 안동 영호루에 들러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허백당집虛白堂集』 권6에 제목이 「차안동영호루운次安東映湖樓韻」으로 되어있다.



字景浩 號退溪 眞寶人 中廟文科 選湖堂 官至贊成 典文衡 謚文純

자가 경호(景浩)이고 호가 퇴계(退溪)이며 본관이 진보(眞寶)이다. 중종 갑오년(1534)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선발되었고,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문형(文衡)을 맡았으며 시호가 문순(文純)이다.

황중거가 새로 지은 죽각⁵¹⁾ 시에 차운하다⁵²⁾

次黃仲舉新構竹閣韻

고기 먹어도 끝내 돈⁵³⁾을 가까이하지 않으니
대나무⁵⁴⁾는 오직 집안에서 벗할 만하네

肉食終難近臭銅
此君唯足友軒中

50) 이황: 조선 시대의 유학자이다.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 벼슬은 예조 판서, 양관 대제학 등을 지냈다. 정주(程朱)의 성리학 체계를 집대성하여 이기 이원론(理氣二元論), 사칠론(四七論)을 주장하였다. 작품에 시조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저서에 『퇴계전서退溪全書』 등이 있다.

51) 죽각(竹閣): 영천(永川) 신녕(新寧)에 있던 정자로, 지금은 환벽정(環碧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죽각이 소실되자 신녕 현감 송이창(宋爾昌)이 1611년(광해군 3)에 정자를 중건한 뒤 환벽정으로 이름을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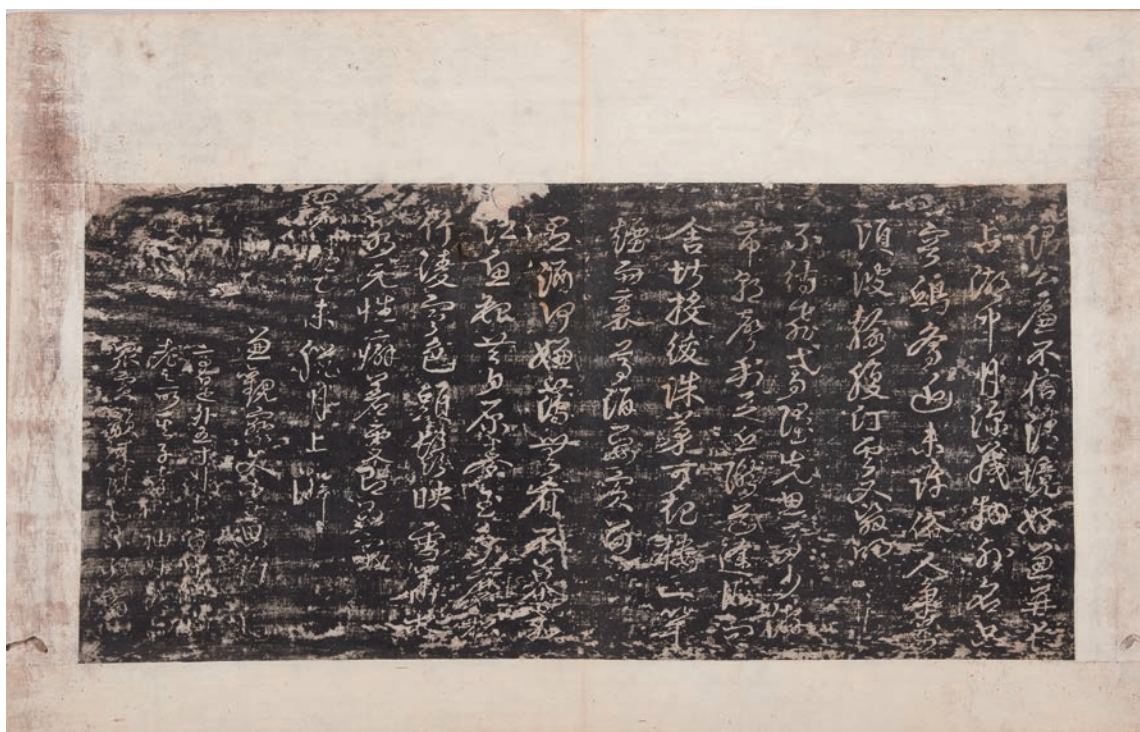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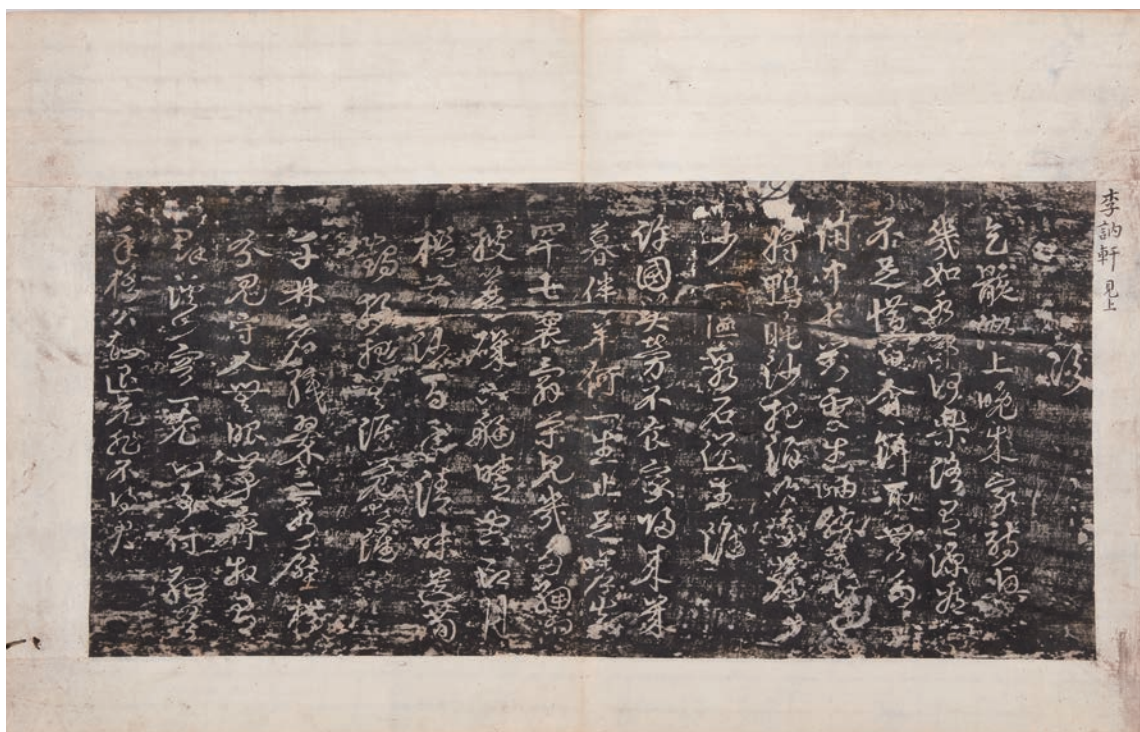
52) 황중거(黃仲舉)가……차운하다: 이황(1501~1570)이 1555년(영종 10) 봄에 황준량(黃準良)이 새로 건립한 죽각(竹閣)에서 읊은 시, 곧 「次新寧新竹閣韻」에 차운한 작품이다. ‘중거(仲舉)’는 황준량의 자(字)이다. 『퇴계집』 제목이 「次韻寄題黃仲舉新構竹閣」로 되어있고, 제목 아래에 “여름에 도시(都試)에 나아간 뒤이다.”라는 주석이 적혀 있다.

53) 돈: 원문의 ‘취둥(臭銅)’은 냄새나는 구리로, 돈을 가리킨다. 보통 동취(銅臭)라고 쓴다.

54) 대나무: 원문의 ‘차군(此君)’은 대나무를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남의 빈 집에 잠시 거처할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대나무를 빨리 심도록 다그쳤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왕휘지가 대답하기를 “어찌 하루라도 차군[대나무]이 없을 수 있겠는가[何可一日無此君]”라고 하였다. 『晉書 권80 王徽之傳』 그리고 소식(蘇軾)의 「어잠승녹균헌於潛僧綠筠軒」에 “밤 먹을 때 고기가 없어도 괜찮지만, 사는 집에 대나무가 없으면 안 되네. 고기가 없으면 사람이 마르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속물이 되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라고 하였다.

옥이 선 듯 대나무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용이 날듯 대나무가 하늘로 오르려 하네
 앙상한 바위와 찬 냇물에 푸른빛이 모이고
 성근 창살과 빈 난간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네
 예쁘게도 사람과 풍경이 모두 새로운 곳에서
 옛사람의 시를 이어 쓰나 정교하지 않아 부끄럽네
 가정(嘉靖) 을묘년(1555) 봄 퇴계

竿竿玉立非爭列
 籊籊龍騰欲上空
 瘦石寒溪團翠色
 疎櫺虛檻灑清風
 可憐人境俱新處
 續舊題詩愧未工
 嘉靖乙卯春 退溪



李訥軒 見上

이눌현[이사균] 앞에서 보인다.

차운⁵⁵⁾

次

만년에 사직하고 호숫가 집으로 오니
시흥이 어찌 하손(何遜)와 같았으랴
근원 있는 낙동강을 즐겨 보아도 싫지 않고
미끼 탐하는 물고기가 가여워 많이 잡지 않았네
한가롭게 오래도록 산에서 이는 구름을 마주하고
취중에 도리어 백사장에서 조는 오리와 함께하네
술을 들고 시를 읊어 세속 일이 드물었고
한 구역 자연에서 생애를 보냈네

乞骸湖上晚來家
詩興幾如水部何
樂洛有源看不足
惜魚貪餌取無多
閑中長對雲生岫
醉裏還將鴨睡沙
把酒吟哦塵事少
一區泉石送生涯

나라 위해 고생하며⁵⁶⁾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고
노년에 돌아와서 은자를 짝하니⁵⁷⁾ 어떠했는가
한평생 만족함을 아는 이 참으로 드물어 탄식하니
일흔⁵⁸⁾에 영화를 사양한 이를 몇 명이나 보았나

許國賢勞不食家
歸來歲暮伴羊何
一生知足嗟眞罕
七袞辭榮見幾多

가랑비에 낚시터 아래 배에서 도롱이를 입었고
맑은 하늘의 달이 난간 앞의 백사장에 비쳤네
백 년의 맑은 흥취를 어진 자손에게 남겨서
유독 무궁함으로 유한함을 깨달았네

細雨披簑磯下艇
晴空印月檻前沙
百年清味遺拘鶴
獨把無涯覺有涯

온 숲에 녹음이 드리우고
두 냇물이 가로질러 흐르네
귀신이 지키고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아
풀이 무성하여 목동들만 있었네
 시내와 산이 한 노인을 용납하여
마음과 일을 외로운 구름에 부쳤네
나이가 많아 공이 사퇴할 줄 알았던 것이지
원래 임금 신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네

千林看織翠
二水壓橫分
鬼守人無眼
茅齊牧有群
溪山容一老
心事付孤雲
年極公知退
元非不得君

55) 이사균이 1535년(중종 30) 12월에 안동 귀래정(歸來亭)에 들러 이광(李滋)·이우(李堧) 등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1수와 2수는 이광의 칠언율시, 3수부터 6수까지는 이우의 오언율시를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귀래정은 이광(1441~1516)이 사직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동(安東) 와부탄(瓦釜灘) 가에 지은 정자로, 현재 안동시 정상동에 있다.

56) 고생하며: 원문의 ‘현로(賢勞)’는 홀로 수고를 도맡아 하는 것을 말한다.

57) 은자(隱者)를 짝하니: 원문의 ‘반양(伴羊)’은 ‘반양구(伴羊裘)’의 준말로, 은자를 짝한다는 뜻이다. 양구(羊裘)는 양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은자가 입은 옷이다. 후한(後漢) 엄광(嚴光)은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와 동문수학한 친구였으나 광무제가 즉위한 뒤 성명을 감추고 은거하였다.

58) 일흔: 원문의 ‘칠질(七袞)’은 일흔 살을 가리킨다. 이광이 73세가 되던 1513년(중종 8)에 개성부 유수를 사직하고 안동으로 돌아온 일을 말한 것이다.

공이 청렴하다 함을 믿지 못하겠네
 맑은 경관을 아울러 가졌네
 호수의 달을 오래 차지하였으니
 속세 밖의 명성을 깊이 간직했네
 갈매기의 접근을 용납했을 뿐이고
 속인의 다툼은 허락하지 않았네
 만 구비 물결이 마음에 들었는데
 물가 구름이 또 밝은 해를 가렸네

謂公廉不信
 淸境好兼并
 長占湖中月
 深藏物外名
 只容鷗鷺近
 未許俗人爭
 萬頃波輸腹
 汀雲又翳明

날던 솔개가 떨어짐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마소유의 전원생활을 생각했네⁵⁹⁾
 시정과 조정에 명리가 넘쳤으나
 언덕으로 길을 길게 내었네
 시골집을 구하려⁶⁰⁾ 관직을 버렸고
 풀을 베어 귀래정을 세웠네
 안개비 속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술통으로 빈객을 머물게 했네

不待飛鳶墮
 先思馬少游
 市朝聲利足
 丘壘道途脩
 問舍堪投紱
 誅茅可起樓
 一竿煙雨裏
 尊酒要賓留

술이 있는데 맛 없음을 꺼리랴
 안주가 없어도 맹가를 부러워 않네
 강물의 물고기가 은빛처럼 모두 희고
 언덕의 보리가 옥을 간 듯 윤이 났네
 소나무와 대나무가 추위를 이기고
 머리털과 수염이 눈처럼 세었네
 자연을 원래 병적으로 좋아하여
 발길 닿는 곳마다 바로 집이었네
 가정(嘉靖) 을미년(1535) 납월 상순 겸직 관찰사 이사균이 쓰다.

有酒何嫌薄
 無肴不慕嘉
 江魚銀共白
 原麥玉爭磨
 松竹凌寒色
 頭鬚映雪華
 林泉元性癖
 着處卽爲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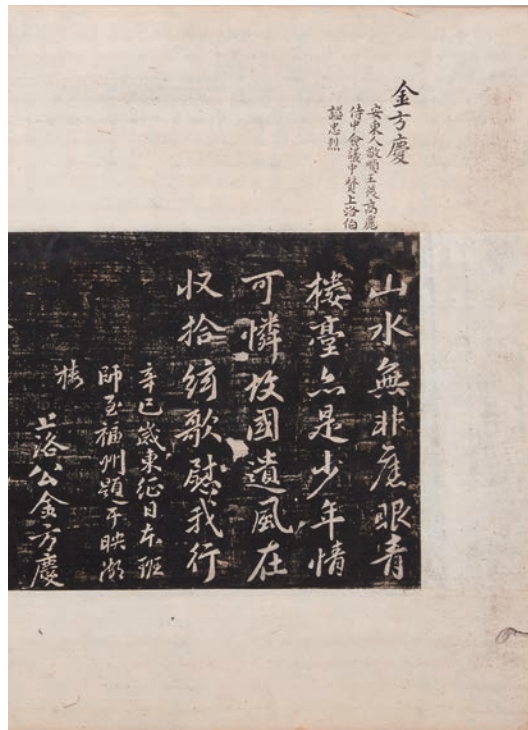
嘉靖乙未臘月上澣 兼觀察使李思鈞稿

亭是外五寸叔李留守滋退老之所 其子孝則袖叔韻與衆賓韻來請和 不敢辭云

귀래정은 외오촌숙(外五寸叔) 유수(留守, 개성 유수) 이굉(李滋)이 은퇴하여 노년을 보냈던 곳이다. 이굉의 아들 이효칙(李孝則)이 오촌 외숙의 시와 여러 손님의 시를 소매에 넣어 가지고 와서 화답을 청하기에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

59) 날던……생각했네: 이굉이 마소유(馬少游)처럼 명리를 구하지 않고 한가롭게 시골에서 지내겠다는 뜻을 품었음을 말한 것이다.

60) 시골집을 구하려: 원문의 ‘문사(問舍)’는 구전문사(求田問舍)의 준말로, 논밭과 집을 구하여 시골에 은거한다는 뜻이다.



安東人 敬順王後 高麗侍中僉議中贊 上洛伯 諡忠烈

본관이 안동이고 경순왕(敬順王)의 후손이다. 고려 때 시중(侍中), 첨의(僉議), 중찬(中贊)을 지내고 상락백(上洛伯)에 책봉되었으며, 시호가 충렬(忠烈)이다.

산수가 옛날 같아 눈이 즐겁고
누대도 젊을 때처럼 다정하네
예쁘게도 고향에 옛 풍속이 남아서
노래 불러 내 행차를 위로하네

山水無非舊眼青
樓臺亦是少年情
可憐故國遺風在
收拾絃歌慰我行

辛巳歲 東征日本 班師至福州 題于映湖樓 上洛公金方慶

신사년(1281)에 동으로 일본을 치러 갔다가 군사를 되돌려 복주(福州, 안동)에 이르러 영호루에서 시를 지었다. 상락공(上洛公) 김방경

61) 김방경: 고려시대의 명장이다.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고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할 때 참전했으나 두 번 다 태풍과 전염병으로 실패하고 돌아왔다. 이 시는 김방경이 1281년(충렬왕 7)에 일본을 정벌하러 갔다가 귀국하여 개성으로 가던 도중에 안동 영호루에 들러 지은 시이다. 『동문선東文選』에 제목이 「福州」로 되어있고, 제목 아래에 “신사년(1281)에 동쪽으로 일본을 치러 갔다가 군사를 되돌려 복주에 도착하였다.”라는 주석이 적혀 있다.



安東人 方慶子 高麗侍中上洛府院君

본관이 안동이고 김방경(金方慶)의 아들이다. 고려 때 시중(侍中)을 지내고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에 봉해졌다.

삼가 시에 차운하다

敬次

십 년 전 놀던 일이 꿈속에 들어오고
다시 오니 풍경이 마음을 위로하네
벽에 걸린 부친의 시를 이어 짓지만
어리석은 아들의 만호 행차가 부끄럽네

十載前遊入夢青
重來物色慰人情
壁間奉繼嚴君筆
堪咤愚兒萬戶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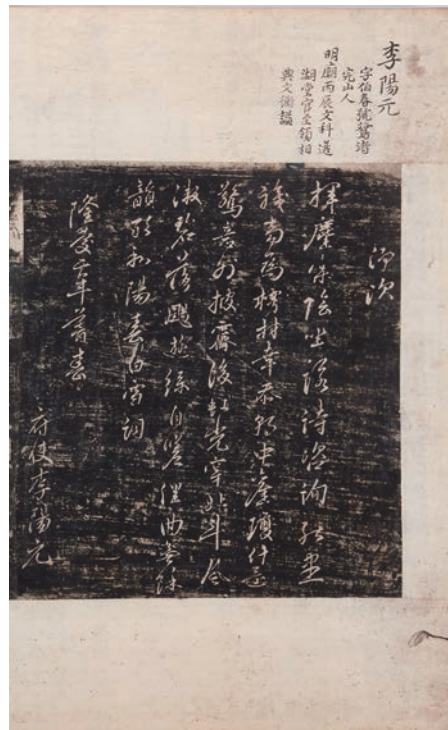
아들 상락군(上洛君) 김흔

子上洛君忻

樓爲水所漂 人莫知此篇 篇流傳裔孫光厚 幸得于永嘉志 移揭望門樓 時崇禎丁丑七月云

영호루가 홍수에 떠내려가서 사람들이 이 시편(詩篇)이 전해지는 줄 몰랐는데, 시편이 후손 김광후(金光厚)가 다행히 『영가지永嘉志』에서 찾아내어 망문루(望門樓)에 시판(詩板)을 옮겨 걸었다. 때는 순정(崇禎) 정축년(1637) 7월이다.

62) 김흔: 고려시대의 무신으로 김방경의 아들이다. 탐라에서 삼별초를 토벌했고 일본원정에 참여했다. 이시는 김흔이 1289년(충렬왕 15) 무렵에 안동 영호루에 들러 아버지 김방경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김흔은 1289년(충렬왕 15) 만호(萬戶)로서 조경군(助征軍)을 이끌고 요양행성(遼陽行省)에 갔었는데, 아마도 만호로 출정하기 직전에 지은 시로 보인다. 『동문선東文選』에 제목이 「영호루映湖樓」로 되어있다.



字伯春 號鷺渚 完山人 明廟丙辰文科 選湖堂 官至領相 典文衡 謚文憲

자가 백춘(伯春)이고 호가 노저(鷺渚)이며 본관이 완산(完山)이다. 명종 병진년(1556)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선발되었고, 관직이 영상(領相)에 이르렀다. 문형을 맡았고 시호가 문헌(文憲)이다.

우리리 차운하다

仰次

먼지 털고 감당 그늘⁶⁴⁾에 앉아 시를 읊고
백성에게 모두 물어 마땅히 할 일을 알았네
변변찮은 재주⁶⁵⁾로 다행히 조정에 있었는데
좋은 시⁶⁶⁾를 뜻밖에 보고 다시 놀랐네
비가 갠 뒤 무지개가 북두성에 뻗치고
미풍 불어 하늘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네
비속한 노래가 운치 없음을 탄식하며
고상한 「양춘백설」 노래에 화답하려 하네⁶⁷⁾

揮塵棠陰坐詠詩
咨詢能盡識當爲
樗材幸忝朝中舊
瓊什還驚意外披
霽後虹光穿北斗
風微碧落颺遊絲
自嗟俚曲無餘韻
欲和陽春白雪詞

용경(隆慶) 2년(1568) 모춘 부사 이양원

隆慶二年暮春 府使李陽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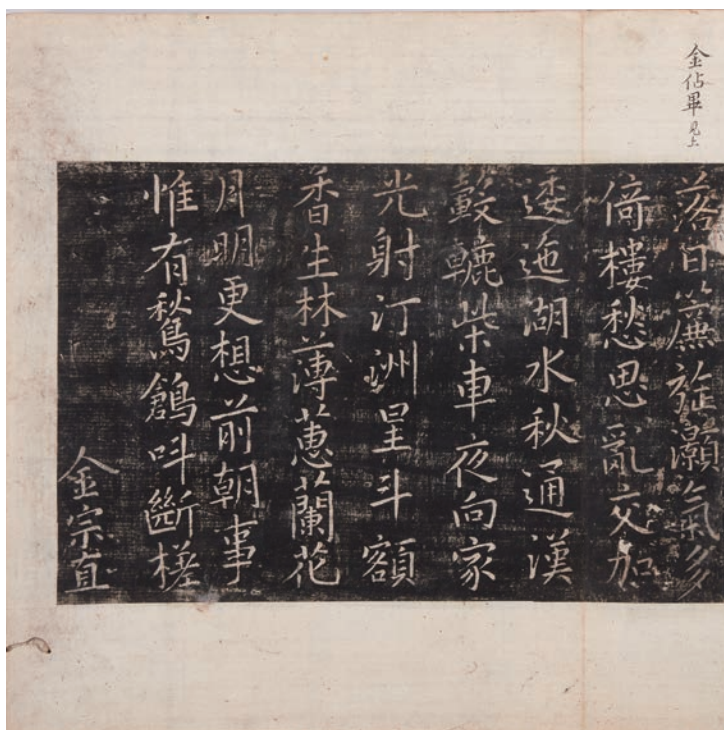
63) 이양원: 명종, 선조대 문신이다.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로로 한산 부원군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때 해유치에서 신각 등과 승리한 공로로 영의정이 되었다. 왕이 라오동으로 건너가 내부하였다는 풍설에 통탄, 분사(憤死)하였다. 이 시는 이양원이 안동부사가 된 뒤 안동 동헌에 들러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64) 감당(甘棠) 그늘: 원문의 '당음(棠陰)'은 감당나무 그늘로, 지방관이 정사를 펴는 곳을 비유한다.

65) 변변찮은 재주: 원문의 '처재(樗材)'는 가죽나무 재목으로, 재목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목재이다.

66) 좋은 시: 원문의 '경십(瓊什)'은 훌륭한 시인데, 여기에서는 안동 동헌에 걸린 문인들의 아름다운 시를 가리킨다.

67) 비속한……하네: 저속한 민요를 탄식하여 안동 동헌에 걸린 훌륭한 한시에 화답하여 시를 짓겠다는 뜻이다.



金宗直 見上

김점필[김종직] 앞에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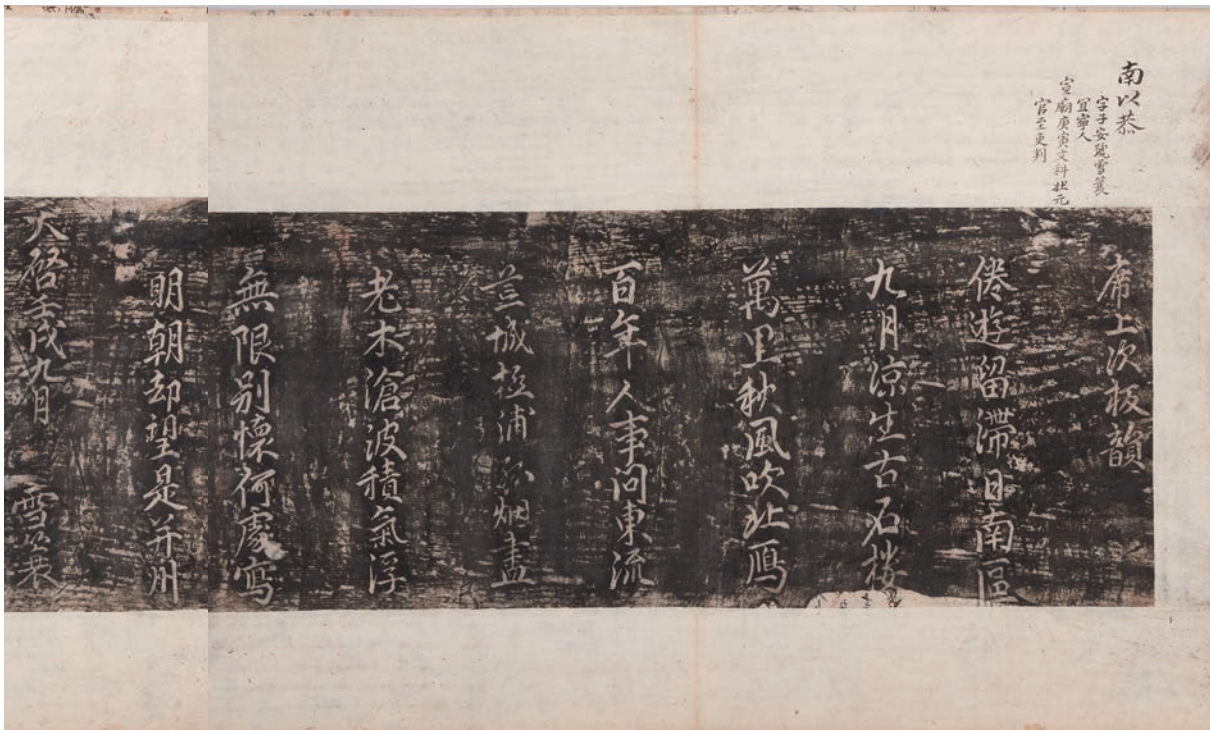
지는 해가 발에 비쳐 맑은 기운이 많은데
 영호루에 기대니 시름이 어지러이 교차하네
 구불구불 호수가 가을에 은하수로 통하고
 덜컹덜컹 초라한 수레가 밤에 집으로 향하네
 달빛이 물가의 반짝이는 편액을 비추고
 향기가 숲속의 혜초와 난초꽃에서 나오네
 달이 밝아 고려 때 일을 다시 생각하는데
 부서진 뗏목에서 물새들만 울어대네⁶⁸⁾

김종직

落日簾旌灝氣多
 倚樓愁思亂交加
 逶迤湖水秋通漢
 轂轆柴車夜向家
 光射汀洲星斗額
 香生林薄蕙蘭花
 月明更想前朝事
 惟有鷺鷥叫斷槎

金宗直

68) 이 작품은 김종직이 1465년(세조 11) 무렵에 안동 영호루에 들러 우탁(禹倬)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김종직은 1465년(세조 11)에 경상도 병마평사(慶尙道兵馬評事)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시하며 많은 시를 지었는데, 이 시도 이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점필재집(金宗直集)』에 제목이 「영호루차운映湖樓次韻」으로 되어있고, 제목 아래에 “영호루에는 고려 공민왕이 ‘영호루’라고 쓴 세 글자의 큰 글씨가 있다.”라는 주석이 적혀 있다.



字子安 號雪簑 宜寧人 宜廟庚寅文科壯元 官至吏判

자가 자안(子安)이고 호가 설사(雪簑)이며 본관이 의령(宜寧)이다. 선조 경인년(1590)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자리에서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

席上次板韻

여행에 지쳐 영남에서 여러 날 머무는데
구월에 시원한 바람이 축석루에서 일어나네
만 리의 가을바람에 북쪽 기러기가 날아오고
백 년의 인간사를 동으로 흐르는 강물에 묻네
황폐한 성과 먼 포구에 한 줄기 연기가 사라지고
늙은 나무와 푸른 물결에 하늘⁷⁰⁾이 떠 있네
끝없는 이별 회포를 어디에다 표현할까
내일 아침에 고향⁷¹⁾처럼 진주를 바라보리

倦遊留滯日南區
九月涼生古石樓
萬里秋風吹北鴈
百年人事問東流
荒城極浦孤烟盡
老木滄波積氣浮
無限別懷何處寫
明朝却望是并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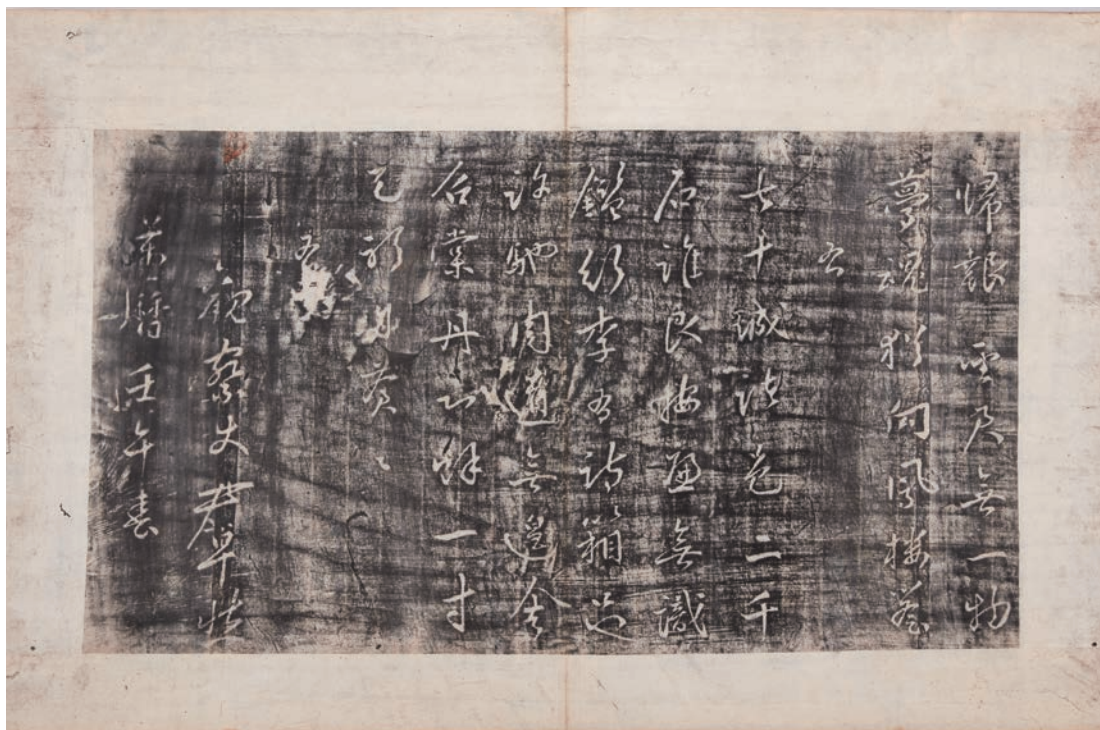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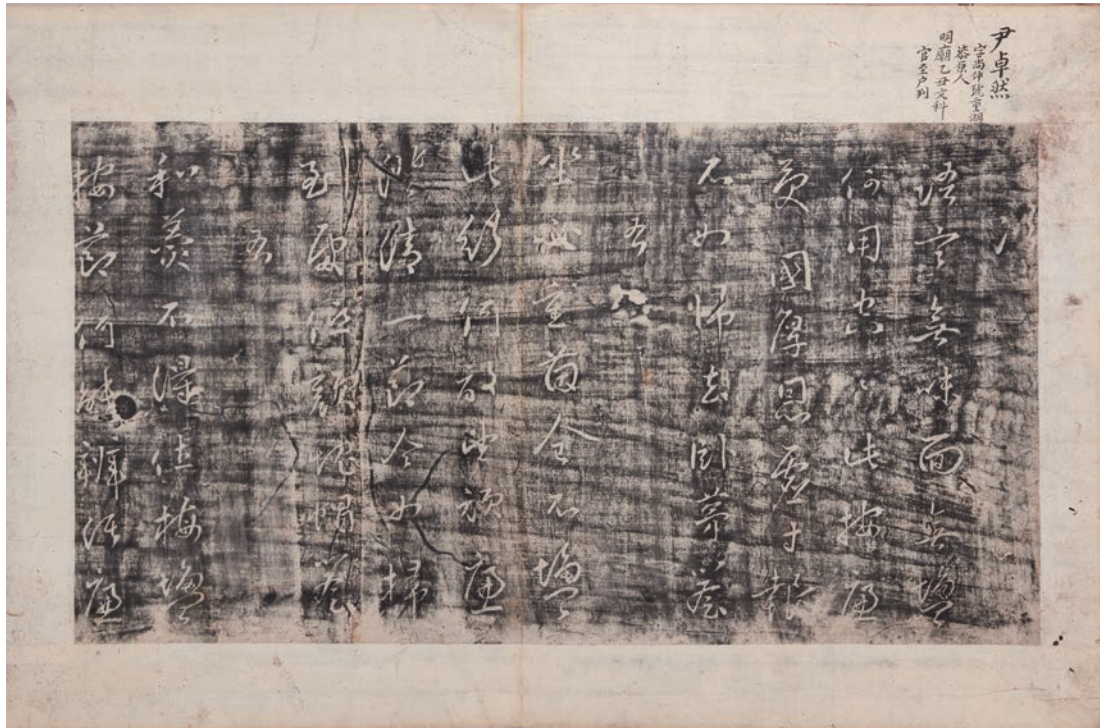
천계(天啓) 임술년(1622) 9월 설사

天啓壬戌九月 雪簑

69) 남이공: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정유재란 때 북인(北人)의 수뇌로 당쟁에 가담하였다. 이조판서, 경연동지사(經筵同知事)를 겸직하였다. 문집으로 『설사집』이 있다. 이 작품은 남이공이 1622년(광해군 14) 9월에 진주 축석루(矗石樓)에 들러 이석형(李石亨) 등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남이공은 1622년(광해군 14) 6월에 체찰부사(體察副使)에 임명되어 경상도에 간 일이 있었는데, 이 시는 이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70) 하늘: 원문의 '적기(積氣)'는 음양(陰陽)의 기운이 쌓인 하늘을 뜻한다.

71) 고향: 원문의 '병주(并州)'는 본래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에 있는 고을 이름인데, 후대에 타향에서 오래 살아 고향처럼 정이 든 곳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72) 윤탁연(尹卓然, 1538~1594):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590년(선조 23) 중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임진왜란 때 왕세자를 호종하였으며, 왕명으로 함경도순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고 왜군을 방어할 계획을 세우던 중 객사하였다. 이 시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윤탁연이 흥해 객사에 들러 이곡(李穀)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제(齊)나라 선왕(宣王)의 후비(后妃) 종리춘(鍾離春)으로, 무염(無鹽)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염 또는 무염녀(無鹽女)라고 불렸다. 인덕이 있었으나 못생겨서 후대에 추녀(醜女)를 대표하게 되었다. 『열녀전烈女傳』 권6 「제종리춘齊鍾離春」

字尙仲 號重湖 漆原人 明廟乙丑文科 官至戶判

자가 상중(尙仲)이고 호가 중호(重湖)이며 본관이 칠원(漆原, 함안)이다. 명종 을축년(156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차운

次

이야기가 재미없고 얼굴이 추해도
이번 순찰을 어찌 소홀히 하라
나라의 큰 은혜에 조금도 보답하지 못한다면
돌아가서 초가에 사는 것만 못하네
앞

語言無味面無鹽
何用空空此按廉
受國厚恩虛寸報
不如歸去臥茅簷
右⁷³⁾

두툼한 방석에 앉아 식사도 짜지 않았으니
이번 행차에 어찌 완악한 자를 청렴하게 만들까
맑은 절개가 지금 쓸려간 듯 없어서
관아에 이르러 모자 쓰고 고개 숙임이 부끄럽네
앞

坐必重茵食不鹽
此行何敢望頑廉
澄清一節今如掃
到殿低顏愧帽簷
右

국을 끓일 때 소금과 매실 역할을 못했으니
관찰사로 나가 어찌 백성을 살릴 수 있었으랴
임금께 돌아가 하나도 보고할 게 없는데
꿈속 낮은 오히려 대궐을 향하네
앞

和羹不得作梅鹽
按節何能辦活廉
歸報聖君無一物
夢魂猶向鳳樓簷
右

70여 곳 고을⁷⁴⁾에서
2천 석 수령⁷⁵⁾ 중에 누가 어진가
백성을 살피는 감식안이 없지만
행장 중에 시를 넣을 상자가 있네
다만 큰 길 내달렸을 뿐
감당나무 아래 실 겨를은 없었네
한 치의 붉은 충심이 남았지만
임금께서 들어쥌이 저절로 아득하네

七十城諸邑
二千石誰良
按廉無識鑑
行李有詩箱
只許馳周道
無遑舍召棠
丹心餘一寸
天聽自蒼蒼

앞

관찰사 윤탁연 만력(萬曆) 임오년(1582) 봄

觀察使尹卓然 萬曆壬午春

73) 앞[右]: 원문의 ‘우(右)’ 아래에 ‘○○를 읊은 것이다.’라는 자구(字句)가 있었을 것이지만 자구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아래의 3수도 같다.

74) 70여 곳 고을: 조선 시대에 경상도의 부목군현(府牧郡縣)은 모두 72곳이었다.

75) 2천 석(石) 수령: 원문의 ‘이천석(二千石)’은 본래 군(郡)의 우두머리인 태수(太守)를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 태수(太守)의 녹봉이 2천 석이었기 때문에 뒤에 2천 석으로 지방 수령을 일컫게 되었다.



字時可 號拙翁 南陽人 春卿子 明廟甲子文科 選湖堂 官至兼戶判 典文衡
 자가 시가(時可)이고 호가 졸옹(拙翁)이며 본관이 남양(南陽)이다. 홍춘경(洪春卿)의 아들이다. 명종 갑자년(1564)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발되었고, 관직이 호조판서를 겸직하였으며 문형을 맡았다.

차운

길손 시름 풀 때는 시가 있을 뿐이니
 유유히 이 외에 내가 할 일이 없네
 담장 엿보는 들새를 어찌 부를 필요 있으랴
 장막에 드는 산 구름이 개기를 기다리지 않네
 대숲에 바람 불어 취중 잠이 자주 깨고
 누에가 실을 뽑듯 품평하며 시를 짓네
 일흔 고을 누대를 두루 유람하지만
 영남의 선정이 시에 들어오지 않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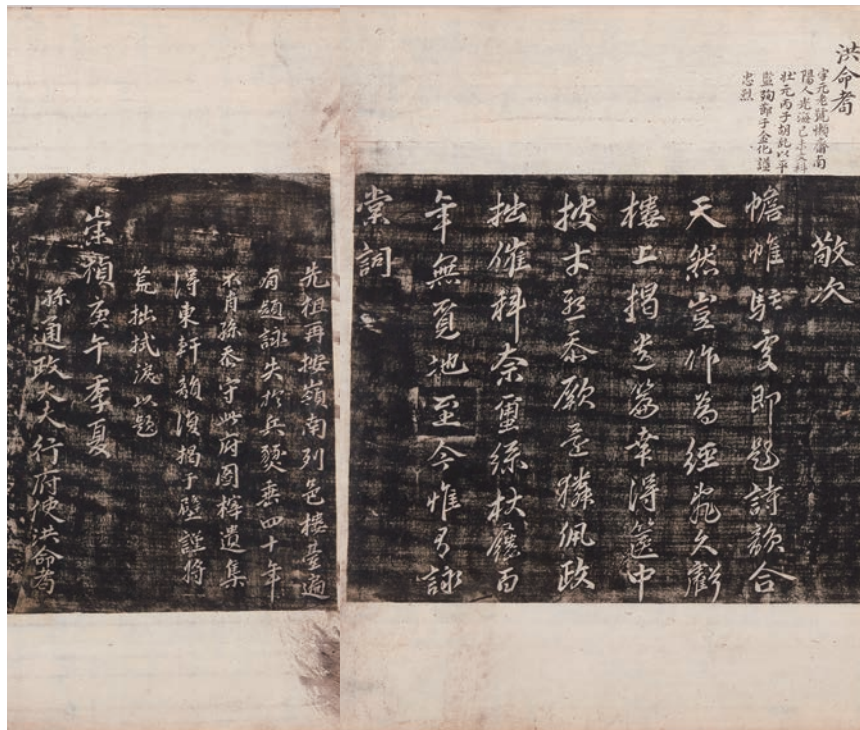
승정대부(崇政大夫) 겸 관찰사 홍성민

次韻

消遣羈愁只有詩
 悠悠此外我無爲
 窺牆野鳥寧須喚
 入幕山雲不待披
 醉夢頻驚風動竹
 品題時辦繭抽絲
 樓臺七十逍遙遍
 南國棠花未入詞

崇政大夫兼觀察使洪聖民

76) 홍성민: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대사간, 호조참판, 예조판서, 대사헌, 판중추부사, 대제학 등을 지냈다.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홍성민이 1590년(선조 23)에 안동 동헌에 가서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졸옹집拙翁集』에 제목이 「次安東東軒韻」으로 되어있다.



字元老 號懶齋 南陽人 光海己未文科壯元 丙子胡亂以平監殉節于金化 諡忠烈
 자가 원로(元老)이고 호가 나재(懶齋)이며 본관이 남양이다. 광해군 기미년(1619)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병자호란 때 평안도 관찰사로 김화(金化)에서 순절하였고, 시호가 충렬(忠烈)이다.

삼가 차운하다

수레가 멈춘 곳에서 바로 시를 지었는데
 운치가 자연스러웠지 어찌 작위적이었으랴
 난리 겪어 누각에 걸린 시가 오래 사라졌는데
 남은 시를 다행히 상자에서 얻었네
 재주가 선조에게 부끄러운데도 안동부사가 되었고
 정치가 졸렬하여 세금 재촉이 이어지네
 평생의 선조 자취를 찾을 곳이 없지만
 지금 선정을 칭송하여 읊은 시가 있을 뿐이네

敬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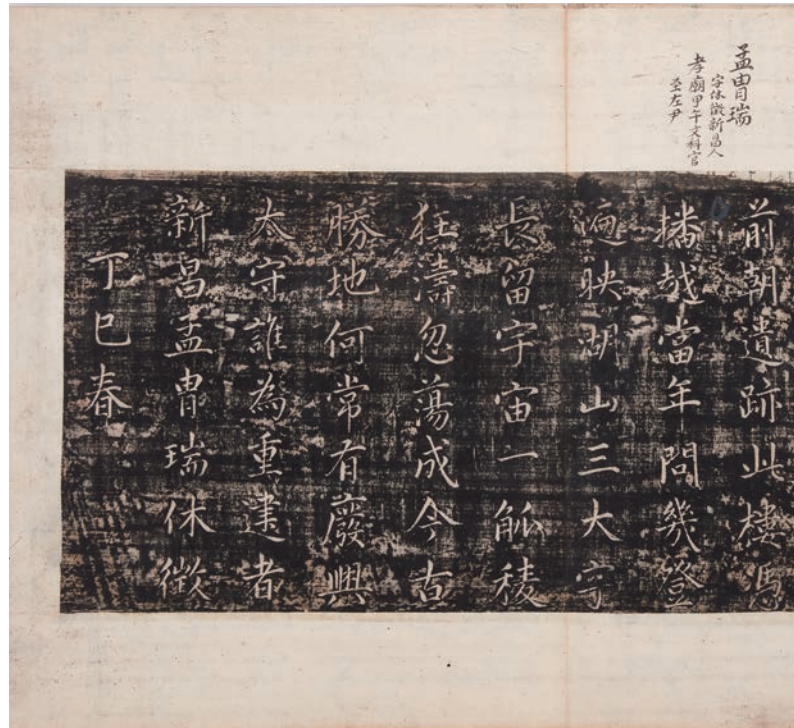
檐帷駐處即題詩
 韻合天然豈作爲
 經亂久虧樓上揭
 遺篇幸得篋中披
 才慙忝厥還憐佩
 政拙催科奈繭絲
 杖履百年無覓地
 至今惟有詠棠詞

先祖再按嶺南 列邑樓臺 遍有題詠 失於兵燹 垂四十年 不肖孫忝守此府 圖梓遺集 得東軒韻 復揭于壁 謹將荒拙 拭淚以題 崇禎庚午季夏 孫通政大夫行府使洪命耆

선조(先祖, 홍성민)가 두 번 영남 관찰사로 나가 여러 고을의 누대에서 두루 시를 지었으나 병란(兵亂)으로 잃어버린 지 40년이 되었다. 불초한 손자가 이곳 안동부를 다스리며 유집(遺集)을 간행하려고 하다가 동헌에서 읊은 시를 얻은 뒤에 다시 시판(詩板)을 벽에 걸고서 삼가 변변찮은 글솜씨로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지었다.

승정(崇禎) 경오년(1630) 늦여름 손자 통정대부 행 안동부사 홍명구

⁷⁷⁾ 홍명구: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이다. 인조반정 후에 등용되어 평안도관찰사가 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적군 수 백명을 살상하고 전사하였다. 이 작품은 안동 부사 홍명구가 1630년(인조 8) 6월에 안동 동헌에서 할아버지 홍성민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字休徵 新昌人 孝廟甲午文科 官至左尹

자가 휴징(休徵)이고 본관이 신창(新昌, 아산)이다. 효종 갑오년(165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좌윤(左尹)에 이르렀다.

고려의 유적인 영호루에 기대 생각하니
 몽진했던 당시에 공민왕이 몇 번이나 올랐던가
 ‘영호루’ 세 글자가 호수와 산에 두루 비치니
 영호루 누각⁷⁹⁾이 세상에 오래 남으리라
 미친 물결에 휩쓸림이 이제 옛일이 되었는데
 명승지엔 어찌 항상 흥망이 있는가
 태수 중에 누가 영호루를 중건했는가
 신창의 휴징 맹주서라네

정사년(1677) 봄

前朝遺跡此樓憑
 播越當年問幾登
 遍映湖山三大字
 長留宇宙一觚稜
 狂濤忽蕩成今古
 勝地何常有廢興
 太守誰爲重建者
 新昌孟冑瑞休徵

丁巳春

78) 맹주서: 효종대 김일, 정인, 우승지 등을 거쳐 충청도관찰사·안동부사(安東府使)를 지냈다. 이 작품은 맹주서가 1677년(숙종 3) 영호루에서 지은 시이다. 맹주서는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홍수로 떠내려간 영호루를 중수하였다.

79) 영호루 누각: 원문의 ‘고릉(觚稜)’은 전각(殿閣)의 가장 높고 뾰족한 모서리인데, 여기에서는 영호루를 가리킨다.



字季雅 韓山人 中廟辛未文科 官至參判 己卯名流

자가 계아(季雅)이고 본관이 한산(韓山)이다. 중종 신미년(1511)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고, 기묘명현(己卯名賢)이다.

차운

경치 묘사에 근체시를 조금 알았으나
한평생 졸렬하여 지은 일이 없었네
발을 걷어 달을 맞으니 금빛 물결이 놀랍고
술을 들고 근심 쫓으니 안개 걷혀 통쾌하네
보정에 향을 사르니 향 연기가 가늘게 퍼지고
봄바람이 버들에 불어 버들이 실처럼 푸르네
미친 회포를 가볍게 내뱉으면 안 되는데
봄바람이 불어오면 헛되이 시를 짓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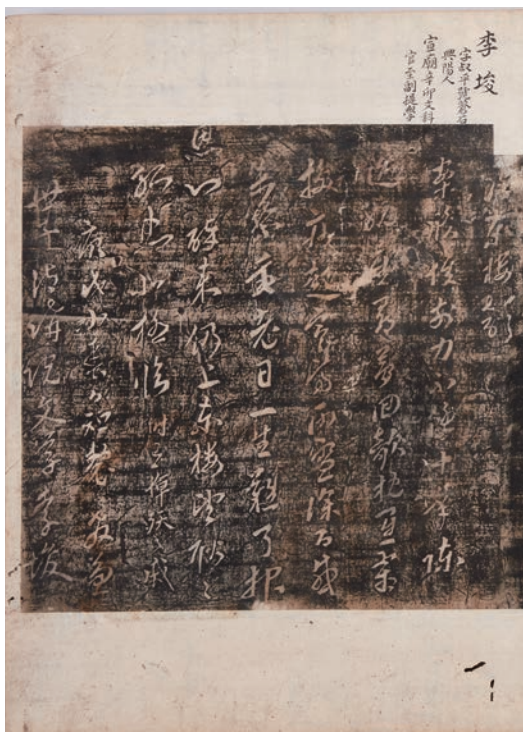
가정(嘉靖) 임인년(1542) 중춘 관찰사 한산 이청

次

寫景粗知近體詩
一生迂拙任無爲
鉤簾迎月驚金湧
把酒驅愁快霧披
寶鼎燒香香細細
和風吹柳柳絲絲
狂懷不許輕相洩
到得春風枉費詞

嘉靖壬寅仲春 觀察使韓山李清

⁸⁰⁾ 이청: 조선전기 경상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 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1542년(중종 37) 안동 동헌에 들러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字叔平 號蒼石 興陽人 宣廟辛卯文科 官至副提學

자가 숙평(叔平)이고 호가 창석(蒼石)이며 본관이 흥양(興陽, 고흥)이다. 선조 신묘년(1591)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동루 시에 차운하다

次東樓韻

문서가 앞에 쌓여 말을 힘이 부족하고
십 년의 묵은 자취를 다시 찾기 꺼려지네
꿈에서 깨어 베개에 기대니 세월이 흘렀고
찬 방의 병석에서 일어나니 눈이 많이 쌓였네
늘그막에 온갖 감회를 금할 수 없고
임금 은혜에 보답함은 한평생 어렵네
술에 취해 동루에 올라 바라보며
잊지 못하는 충심이 대궐로 나아가네
이때 어린 아들을 여의는 슬픔이 있었다.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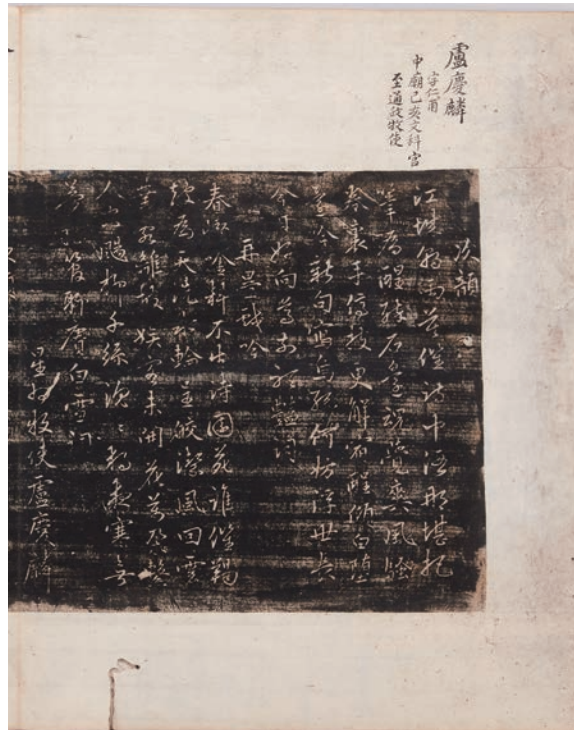
案牘堆前力不任
十年陳迹妨重尋
夢回欹枕星霜換
病起寒齋雨雪深
百感未禁垂老日
一生難了報恩心
醉來仍上東樓望
耿耿孤忠北極臨

경술년(1610) 소춘 모일 지제교 겸 세자시강원 문학 이준

庚戌小春日 知製教兼世子侍講院文學李俊

81) 이준: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류성룡의 문인이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여러 차례 의병을 모았다. 경상도 도사로 『중흥귀감』을 편술, 왕에게 바쳤다. 예조정랑·수찬등을 지냈고, 정묘호란의 공으로 중추부첨지사가 되었다. 이 시준 이준이 1610년(광해군 3) 10월에 안동 망호루(望湖樓)에 들러 경상도 관찰사 조사수(趙士秀)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82) 이때...있었다: 이준과 첫째 부인 문수민(文秀民)의 딸 선산이씨(善山李氏)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 요절한 일을 말한다.



字仁甫 中廟己亥 官至通政牧使

자가 인보(仁甫)이다. 중종 기해년(1539)에 급제하여 관직이 통정대부 목사(牧使, 성주 목사)에 이르렀다.

차운

次韻

강가 성 아침 비에 시 짓기를 재촉하지 마라
술에 취해 붓을 잡고 어찌 시를 지을 수 있으랴
술이 깬 바위 가에서 정신이 상쾌하고
시가 실린 시집을 손수 펼치다가 멈추네
숙취가 다시 풀려 좋은 술⁸⁴⁾을 기울이고
새로운 시를 읊어 종이⁸⁵⁾에 시를 쓰네
덧없는 세상에 늘 오늘 같음을 어찌 거리끼랴
기분 좋게 술통 앞에서 사랑 노래⁸⁶⁾를 듣네

江城朝雨莫催詩
中酒那堪把筆爲
醒醉石邊魂覺爽
風騷卷裏手停披
更解宿醒傾白墮
還吟新句寫烏絲
何妨浮世長今日
好向尊前聽豔詞

83) 노경린: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지평(持平), 성주목사(星州牧使) 등을 지냈다. 서원을 세워 유학을 장려하였다. 숙천부사(肅川府使)로 부임 시 선정을 베풀 공으로 품계가 올라갔다. 성주목사 노경린(1516~1568)이 1558년(명종 13)에 안동 동헌에 들러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노경린은 1558년(명종 13)에 성주 목사로 부임하여 영봉서원(迎鳳書院), 곧 천곡서원(川谷書院)을 건립하였다.

84) 좋은 술: 원문의 '백타(白墮)'는 진(晉)나라 때 술을 잘 만들던 유백타(劉白墮)로, 전하여 좋은 술을 가리킨다. 그가 빚은 술을 마시면 향기가 매우 좋고 취기가 달아올라 한 달이 지나도 깨지 않았다고 한다.

85) 종이: 원문의 '오사(烏絲)'는 오사란(烏絲欄)의 준말로, 검은 줄을 그어놓은 종이를 가리킨다. 오늘날의 원고지와 기능이 같다.

86) 사랑 노래: 원문의 '염사(豔詞)'는 악부체(樂府體)의 고시로, 대체로 남녀의 정을 읊은 사랑 노래이다.

다시 차운하여 장난삼아 읊다

봄이 시 소재를 아껴서 시를 짓지 못하는데
정원에서 누가 북을 치며 재촉하는가
하늘이 맑아 둥근 달이 흰빛을 뿌리고
바람이 불어 구름이 어지럽게 흩어지네
못다 핀 만 송이 꽃이 길손을 즐겁게 하고
천 가지 버들이 창 앞에서 날려 사람을 불드네
홀로 어두운 밤에 추워서 잠 못 든 채
부족한 대로 그저 고인의 시⁸⁷⁾에 화답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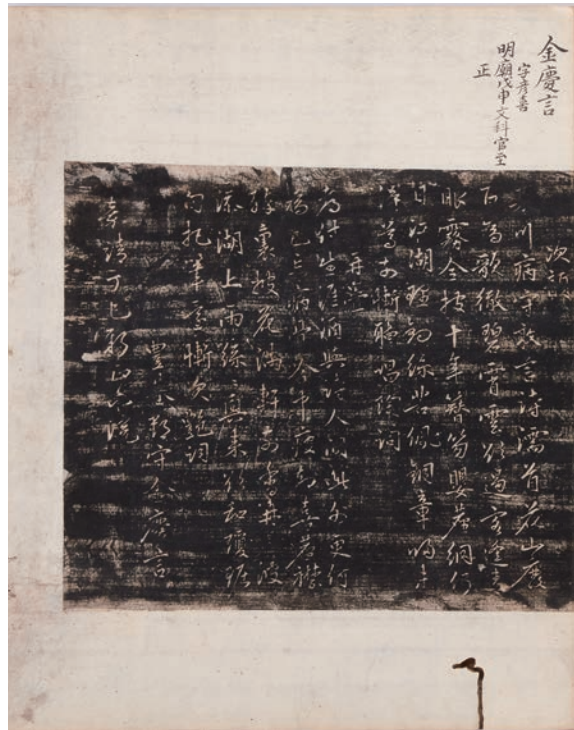
성주 목사 노경린

再疊戲吟

春慳吟料不生詩
園苑誰催羯鼓爲
天洗氷輪呈皎潔
風回雲乘亂離披
娛客未開花萬朵
繫人窓颺柳千絲
沈沈獨夜寒無夢
抱管聊賡白雪詞

星州牧使盧慶麟

87) 고인의 시: 원문의 ‘백설사(白雪詞)’는 양춘백설가(陽春白雪歌)의 준말로, 상대방의 시를 칭찬할 때 쓰는 용어이다.



字彦喜 明廟文科 官至正

자가 언희(彦喜)이다. 명종 무신년(1548)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 정랑에 이르렀다.

차운⁸⁸⁾

次韻

기천⁸⁹⁾의 병든 군수가 감히 시를 말하랴
 화산⁹⁰⁾에서 술에 취해⁹¹⁾ 온갖 일을 그만두었네
 노래가 하늘로 퍼져 구름이 멈추려 하고⁹²⁾
 길손이 지인 만나니 운무가 걷힌 듯하네⁹³⁾
 십 년 관직 생활에서 세상 속박에 걸렸으니
 어느 날에 강호에서 낚시줄을 드리울까
 괴롭게 동장⁹⁴⁾을 차고 돌아가지 못했으니
 술 앞에서 부끄럽게 도잠의 「귀거래사」를 듣네

基川病守敢言詩
 濡首花山廢百爲
 歌徹碧霄雲欲遏
 客逢青眼霧全披
 十年簪笏嬰塵網
 何日江湖理釣絲
 苦佩銅章歸未得
 尊前慚聽唱陶詞

88) 풍기군수 김경언이 1557년(명종 12) 1월 하순에 안동 동헌에 들러 김정국(金正國)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89) 기천(基川): 풍기(豐基)의 옛날 이름이다.

90) 화산(花山): 안동(安東)의 옛날 이름이다.

91) 술에 취해: 원문의 '유수(濡首)'는 술을 마셔 머리끝까지 흠뻑 취한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미제괘未濟卦 상구(上九)」에 “민음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허물이 없지만, 머리까지 적실 정도로 마시면 믿음에 옳음을 잃는다.[有孚于飲酒, 無咎, 濡其首, 有孚失是.]”라고 하였다.

92) 노래가……하고: 노래가 매우 좋아서 흘러가던 구름도 멈춘다는 뜻이다. 당(唐)나라 왕발(王勃)의 「추일등홍부등왕각전별서秋日登洪府滕王閣餞別序」에 “상쾌한 통소 소리 나니 맑은 바람이 생기고, 섬세한 노래 울리니 흰 구름을 멈추네.[爽籟發而清風生, 纖歌凝而白雲遏.]”라고 하였다.

93) 길손이……듯하네: 김경언이 안동에서 정다운 지인들을 만나서 정신이 상쾌하다는 뜻이다.

94) 동장(銅章): 구리로 만든 관인(官印)으로, 군현(郡縣)을 맡은 지방관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풍기군수 김경언을 말한다.

두 번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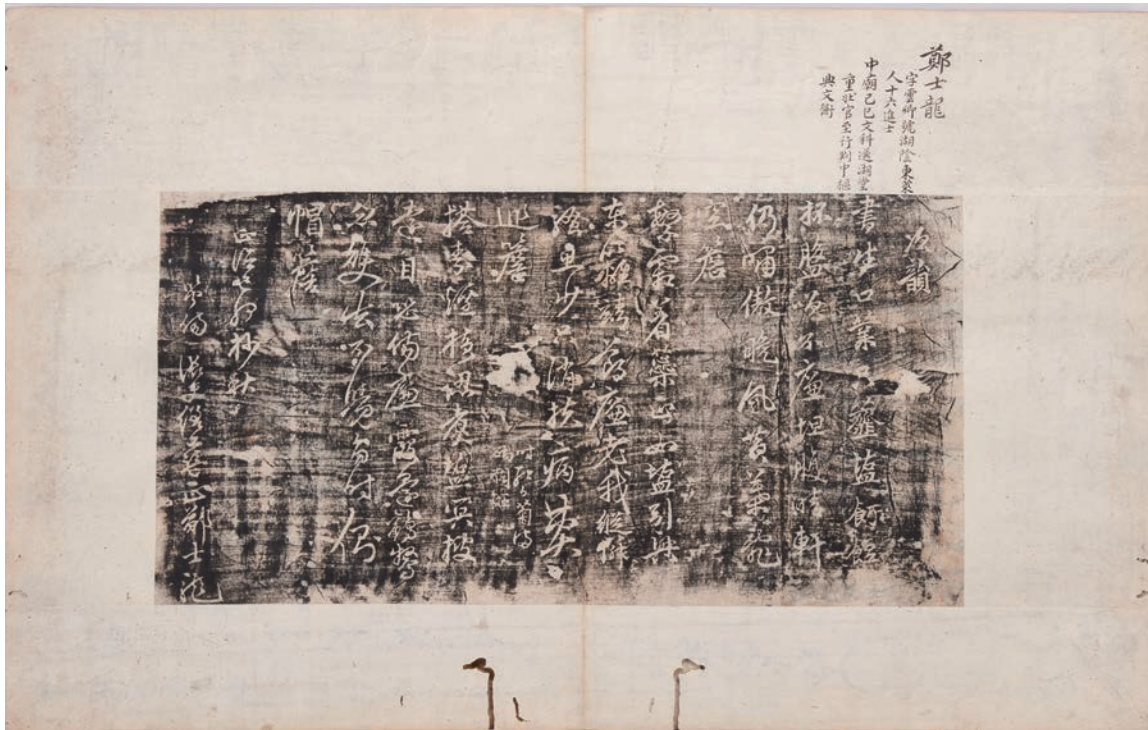
술과 시에 생애를 모두 맡겼으니
 세상에서 이 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랴
 병든 몸이 시 읊으며 야윈 것을 이미 잊고
 찌든 마음이 취중에 풀어져서 도리어 기쁘네
 꽃이 동헌 앞에 가득하여 향기가 성대하고
 물결이 호수에 더해져 비가 실처럼 내리네
 흥이 와서 좋은 시에 화답하려
 붓을 잡았으나 고운 시가 부족하여 부끄럽네

풍기군수 김경언 가정(嘉靖) 정사년(1557) 신정(新正, 1월) 하순

再疊

都付生涯酒與詩
 人間此外更何爲
 已忘病骨吟中瘦
 却喜塵襟醉裏披
 花滿軒前香冉冉
 波添湖上雨絲絲
 興來欲和瓊琚句
 把筆還慚欠豔詞

豐基郡守金慶言 嘉靖丁巳新正下浣



鄭士龍 字雲卿 號湖陰 東萊人 十六進士 中廟乙巳文科 選湖堂重壯 官至判中樞 典文衡
 자가 운경(雲卿)이고 호가 호음(湖陰)이며 본관이 동래(東萊)이다. 16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중종 기사년(1509)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발되었고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급제하였다. 관직이 행 판중추부사에 이르렀고 문형을 맡았다.

차운⁹⁶⁾

次韻

서생의 음식⁹⁷⁾이 변변찮은 음식⁹⁸⁾ 뿐인데
 소반에 차려진 것이 검소하지 않다고 비웃네
 동헌에서 배를 드리낸 채 크게 시를 읊으니⁹⁹⁾
 저녁 바람에 낙엽이 빈 처마에 어지럽네

書生口業只蠶鹽
 飮飯杯盤笑不廉
 坦腹晴軒仍嘯傲
 晚風黃葉亂空簷

된서리가 국화에 내리니 정말로 소금처럼 희고
 동쪽 울타리에서 흥이 이니 도잠의 청렴함이네¹⁰⁰⁾

繁霜着藥正如鹽
 引興東籬靖節廉

95) 정사룡: 조선전기 문신으로, 공조판서로 명나라에 다녀와 대제학이 되었으나 과거의 시험문제를 응시자 신사헌에게 누설한 죄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중추부판사로 복직하고, 공조판서가 되었다.

96) 정사룡이 1519년(중종 14) 9월에 흥해 객사에 들러 이곡(李穀)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정사룡은 이때 재상여사(災傷御史)로 경상도 여러 고을을 순시하다가 흥해에 들렀다. 『호음잡고湖陰雜稿』에 이 시가 실려 있지 않다.

97) 음식: 원문의 '구업(口業)'은 본래 말로 인한 죄업인데, 여기에서는 입으로 먹는 음식을 말한다.

98) 변변찮은 음식: 원문의 '제염(蠶鹽)'은 소금에 절인 채소로, 변변찮은 음식을 말한다.

99) 크게 시를 읊으니: 도잠(陶潛)의 「음주飲酒」에 “동헌 아래에서 크게 시를 읊으니, 오로지 내 삶을 얻었네.[嘯傲東軒下, 聊復得此生.]”라고 하였다.

100) 동쪽……청렴함이네: 원문의 '정절(靖節)'은 도잠(陶潛)의 시호이다. 도잠의 「음주飲酒」에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니, 유연히 남산이 보이네.[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다.

늙은 내가 시상 적어 가련해도
 병든 몸으로 처마 돌며 소일하네
 이때 붉고 흰 국화가 섬돌 가에 가득히 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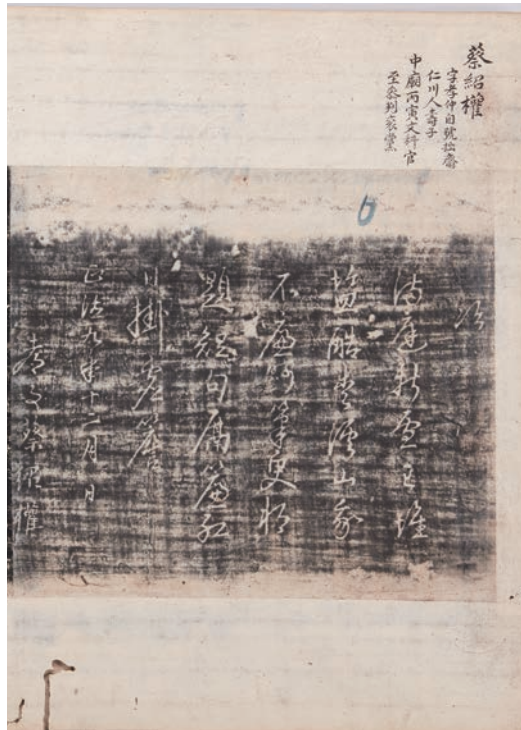
老我縱憐騷思少
 只消扶病費巡簷
 時紅白菊滿砌爛斑

흰 베를 펼친 듯 연기가 퍼져 소금을 만드는 것인데
 먼 곳까지 살살이 찾으면 청렴이 상할까 두렵네
 노을 가로 학과 오리가 문득 쌍쌍이 날아가는데
 나도 몰래 머물며 모자를 비스듬히 쓰네

搭素煙橫認煮鹽
 冥搜遠目恐傷廉
 霞邊觀鷺忽雙去
 不覺留時側帽簷

정덕(正德) 기묘년(1519) 초추 재상어사(災傷御史) 선공감 정(繕工監正) 정사룡

正德己卯抄秋 災傷御史繕工監正鄭士龍



字孝仲 自號拙齋 仁川人 壽子 中廟丙寅文科 官至參判 袞黨

자가 효중(孝仲)이고 자호(自號)가 졸재(拙齋)이며 본관이 인천(仁川)이다. 채수(蔡壽)의 아들이다. 중종 병인년(1506)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고, 남곤(南袞)의 당여(黨與)였다.

차운

뜰 가득한 새 눈이 이미 소금처럼 쌓였는데
산수를 매우 사랑하여 집이 청렴하지 않네
추운 날에 붓을 불어¹⁰²⁾ 절구를 지으려는데
주렴 너머 붉은 해가 빈 처마에 걸려 있네

정덕(正德) 9년(1514) 12월 일 도사 채소권

次

滿庭新雪已堆鹽
酷愛溪山家不廉
呵筆更將題短句
隔簾紅日掛虛簷

正德九年十二月日 都事蔡紹權

101) 채소권: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경기도관찰사, 대사헌,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현보·주세붕·황준량 등과 친교하였다. 이 시는 채소권이 1514년(중종 9) 12월에 흥해 객사에 들러 이곡(李穀)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102) 추운……불어: 원문의 ‘가필(呵筆)’은 날씨가 추워 붓이 얼어서 글을 쓸 수 없으므로 입김을 호호 불어 녹이는 것을 말한다. 당나라 이백(李白)이 궁중에서 글을 쓸 때 날씨가 매우 추워서 붓이 얼어 글을 쓸 수 없었다. 그러자 현종이 궁녀 열 사람에게 이백을 좌우에서 모시고 입으로 불어 언 붓을 녹이게 하였다



見上
앞에 보인다.

조상국의 시에 차운하다¹⁰³⁾

次趙相國韻

곳곳에 봄이 와서 시를 폐하지 않았으니
아름다운 경관 만나 어찌 시를 짓지 않으랴
숲속에 붉은 빛이 돌아와 복사꽃이 피어나고
들판에 녹음이 돌아오자 보리가 익어가네
느린 곡에 마음이 끌려 술이 찰랑이고
조각구름이 시를 재촉해 보슬비가 내리네
경치를 만나도 바쁨 속에 지나가서
근심스레 황계와 백일을 읊은 노래를 듣네

隨處春來不廢詩
況逢佳境莫之爲
紅歸林麓天桃綻
綠返郊原宿麥披
緩曲導淙觴灩灩
片雲催句雨絲絲
遇景只因忙裏過
愁聽黃鸝白日詞

임자년(1552) 봄 예조 좌랑 유승선

壬子春 禮曹佐郎柳承善

103) 예조 좌랑 유승선이 1552년(명종 7) 봄에 안동 동헌에서 조사수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유승선은 1546년(명종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좌랑, 지평, 문학, 장령, 필선, 부호군 등을 역임하였다. 원문의 '조상국(趙相國)'은 조사수이다.



清道人 高麗侍中 謚英憲

본관이 청도(淸道)이다. 고려 때 시중(侍中)을 지냈고 시호가 영헌(英憲)이다.

문소의 공관은 후원이 깊어서
그 안에 백여 척의 높은 누각이 있네
향긋한 바람이 십 리 불어와 주렴을 걷고
밝은 달에 한 가락 피리 소리 들려오네
안개가 열어 버들이 가늘게 이어지고
비가 개어 산빛이 짙게 방울져 떨어지려 하네
용황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재상¹⁰⁵⁾이
안렴사가 되어 난간에 기대니 더 두렵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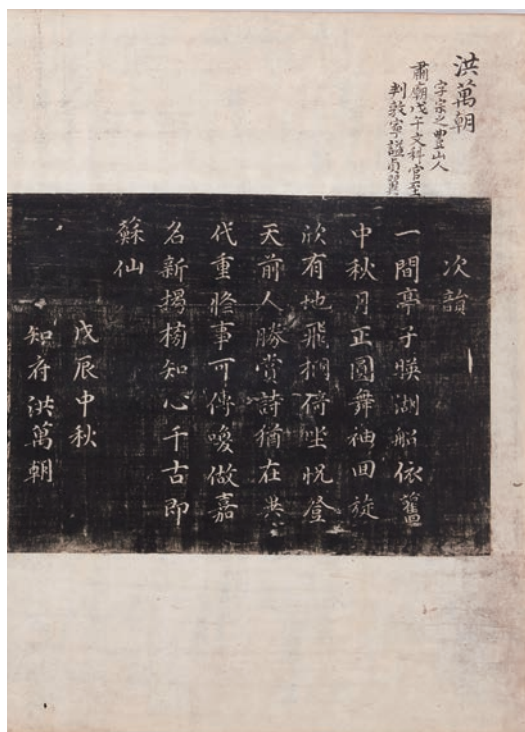
고려 안렴사 김지대

聞韶公館後園深
中有危樓百餘尺
香風十里捲珠簾
明月一聲飛玉笛
烟輕柳影細相連
雨霽山光濃欲滴
龍荒折臂甲枝郎
仍按憑欄尤可怕

高麗 按廉使 金之岱

¹⁰⁴⁾ 김지대: 고려시대의 문신이다. 선계(先系)는 김알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종 때 관직을 지냈다. 1258년(고종 45) 몽골군이 복변을 침벌하자 추밀원참서사로 서북지방에 출진하여 서북 40여 성이 안정되었다. 이 시는 안렴사로 나온 김지대가 의성 문소루에 들러 지은 시이다.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있다.

¹⁰⁵⁾ 용황(龍荒)……재상: 김지대가 먼 지방의 청도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재상이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김지대는 1218년에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여 전주 사록(全州司錄)에 임명되었고, 전라도 안찰사·이부상서·중서시랑평장사 등을 역임하였다. 김지대가 경상도 안렴사로 왔던 시기는 미상이다. 원문의 ‘용황’은 흉노(匈奴)의 근거지인 용성(龍城)으로 먼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김지대의 본관인 청도(淸道)를 말한다. 원문의 ‘절비(折臂)’는 절비삼공(折臂三公)의 준말로, 고관을 뜻한다. 진(晉)나라 때 양호(羊祜)가 말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뒤에 삼공(三公)의 지위에 올랐다.



字宗之 豐山人 肅廟戊午 官至判敦寧 諡貞翼

자가 종지(宗之)이고 본관이 풍산(豐山)이다. 숙종 무오년(1678)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고, 시호가 정익(貞翼)이다.

차운

한 칸의 정자 용호루 뱃놀이야
예전처럼 중추에 달이 정말 둥그네
춤추는 노래자락 돌아갈 여지가 있어 기쁘고
높은 난간에 기대앉으니 하늘에 오르는 듯하네
앞 사람이 명승 읊은 시가 여전히 있고
다른 때에 중수한 사적은 전할만하네
영호루 좋은 이름을 부르며 새로 현판을 거니
마음을 아는 이는 천고의 소식¹⁰⁷⁾이네

무진년(1688) 중추 지부(知府, 안동부사) 홍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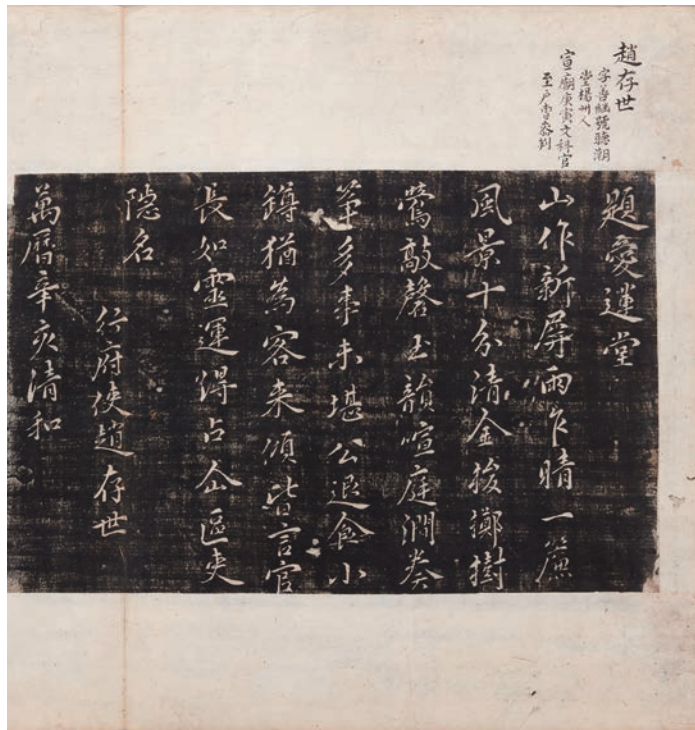
次韻

一間亭子暎湖船
依舊中秋月正圓
舞袖回旋欣有地
飛欄倚坐悅登天
前人勝賞詩猶在
異代重修事可傳
喚做嘉名新揭榜
知心千古卽蘇仙

戊辰中秋 知府洪萬朝

106) 홍만조: 조선 후기 형조참판, 한성부판윤,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안동부사로 부임한 홍만조가 1688년(숙종 14) 8월에 안동 영호루에서 지은 시이다.

107) 소식(蘇軾): 원문의 '소선(蘇仙)'은 송나라의 문인 소식을 말한다.



字善繼 號聽潮堂 楊州人 宣廟庚寅文科 官至戶判

자가 선계(善繼)이고 호가 청조당(聽潮堂)이며 본관이 양주(楊州)이다. 선조 경인년(1590)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호조 참판에 이르렀다.

애련당에서 짓다

題愛蓮堂

산이 새 병풍처럼 펼쳐져 비가 잠깐 그치자
주렴 너머 풍경이 온통 맑고 깨끗하네
피꼬리¹¹⁰⁾가 나무로 오가며 풍경처럼 맑게 울고
맑은 냇물¹¹¹⁾이 돌을 울려서 아쟁처럼 소리를 내네
일이 많아 퇴청하여 밥 먹을 겨를이 없고
술이 적어도 손님 와서 술잔을 기울이네
모두 말하기를 수령이 사영운¹¹²⁾ 같아서
선경을 차지하여 이은¹¹³⁾의 이름을 얻었다고 하네

山作新屏雨乍晴 一簾風景十分清
金梭擲樹鶯敲磬 玉韻喧庭澗奏箏
多事未堪公退食 小罇猶爲客來傾
皆言官長如靈運 得占仙區吏隱名

행 안동부사 조존세 만력(萬曆) 신해년(1611) 청화

行府使趙存世 萬曆辛亥清和

108) 조존세: 선조대 문신이다. 1592년(선조 25) 예문관봉교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어 『명종실록』 찬수에 참여하였다. 그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평양으로 몽진하자 왕을 호종하였으나, 왕이 평양을 떠나 의주로 간다는 말을 전해듣고 동료 네 사람과 밀의하여 사초(史草)를 불 태우고 그 곳에서 탈출하였다. 이 시는 안동 부사 조존세(1562~?)가 1611년(광해군 3) 4월에 애련당에서 지은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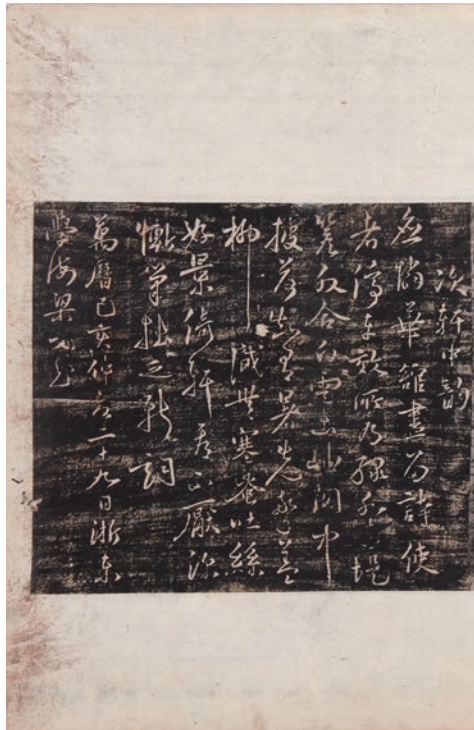
109) 애련당(愛蓮堂): 이우(李塉)가 1516년(중종 11) 가을에 안동부 망호루(望湖樓) 동쪽 연못 가운데에 건립한 건물이다. 본래 이름은 애련정(愛蓮亭)이었다. 1518년(중종 13)에 애련정이 무너지자 이현보(李賢輔)가 중수한 뒤 애련당(愛蓮堂)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10) 피꼬리: 원문의 '금사(金梭)'는 본래 '금으로 만든 베틀의 북'인데, 금빛 베틀의 북이 바빠 움직이는 것처럼 노란 피꼬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용하는 표현이다.

111) 맑은 냇물: 원문의 '옥운(玉韻)'은 구슬처럼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냇물을 말한다.

112) 사영운(謝靈運): 원문의 '영운(靈運)'은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시인 사영운을 말한다.

113) 이은(吏隱): 낮은 관직을 맡아 은자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



안동 동헌의 시에 차운하다¹¹⁵⁾

次軒中韻

화려한 동헌에 남은 시가 모두 좋아서
 사신이 수레 멈추고 본받아 시를 짓네
 푸른 물이 독을 쌓아 처마 너머에서 합쳐지고
 흰 구름이 산에서 나와 누각 안에 들어오네
 연꽃이 더위 알아 먼저 꽃을 피우고
 버들이 추위 없음을 알아 몰래 가지를 드리우네
 난간에 기대니 경치가 좋아 보아도 싫지 않지만
 줄필이라 새 시를 짓기 부족하여 매우 부끄럽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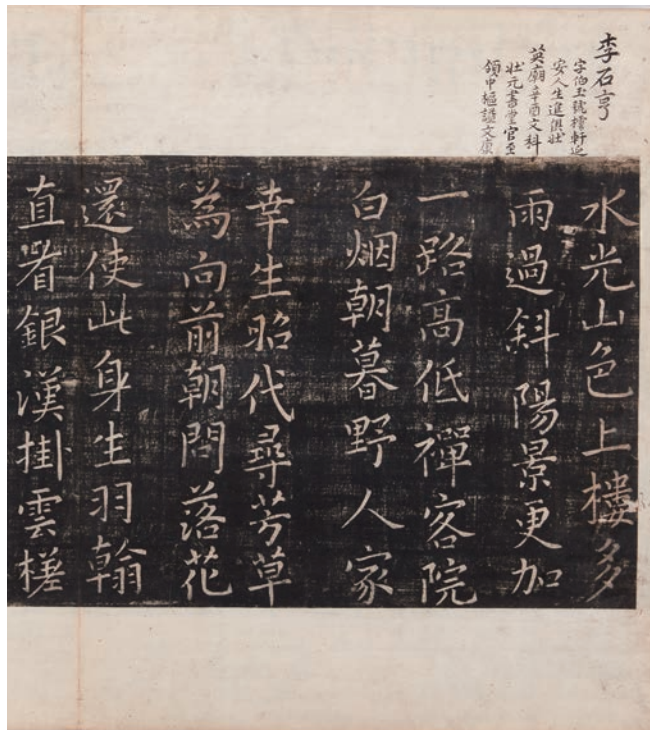
應憐華館盡留詩
 使者停車效所爲
 綠水防堤簷外合
 白雲出岫閣中披
 荷知有暑先擎蓋
 柳識無寒密吐絲
 好景倚軒看不厭
 深慚筆拙乏新詞

만력(萬曆) 기해년(1599) 중하 29일에 절동(浙東) 학해(學海) 양문이 쓰다.

萬曆己亥仲夏二十九日 浙東學海梁文書

114) 양문(梁文): 탁본 상단에 작가가 적혀 있지 않으나 여타 시문의 편집 체제에 따라 한시 끝부분의 기록을 참조하여 양문을 추가하였다. 양문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으로 왔던 명(明)나라 중군(中軍)으로, 고향이 절동(浙東)이고 호가 학해(學海)이다.

115) 안동……차운하다: 명나라 중군(中軍) 양문이 1599년(선조 32) 5월 29일에 안동 동헌에 와서 김정국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字伯玉 號樗軒 延安人 生進具壯 英廟辛酉文科壯元書堂 官至領中樞 諡文康

자가 백옥(伯玉)이고 호가 저헌(樗軒)이며 본관이 연안(延安)이다. 생원과 진사에 모두 장원하고 영묘(英廟, 세종) 신유년(1441)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독서당에 들어갔으며 관직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시호가 문강(文康)이다.

물빛과 산빛이 누각에서 많이 보이고
 석양에 비가 내려 경치가 더해지네
 울퉁불퉁 오솔길이 절간으로 뻗어있고
 아침저녁 흰 연기가 시골집에서 피어오르네
 다행히 성대에 태어나 녹음방초 구경하고
 고려의 일¹¹⁷⁾에 대한 지는 꽃에 물어보네
 다시금 이 몸에 날개 돋게 해준다면
 곧바로 뗏목 타고 은하수에 오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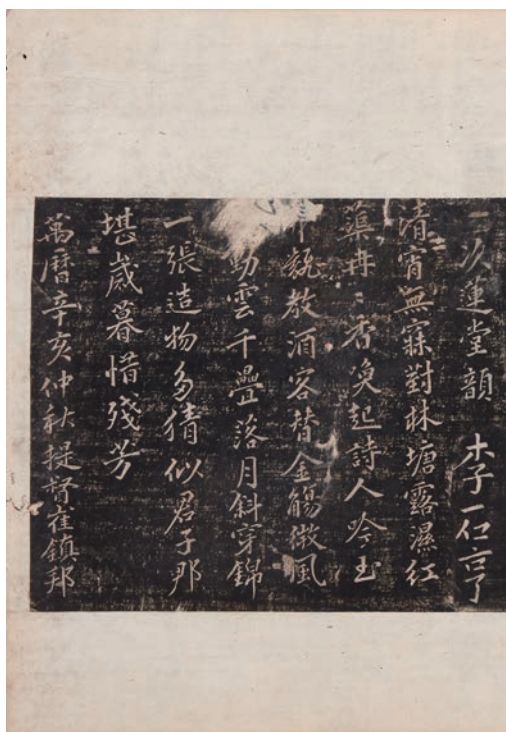
水光山色上樓多
 雨過斜陽景更加
 一路高低禪客院
 白烟朝暮野人家
 幸生昭代尋芳草
 爲向前朝問落花
 還使此身生羽翰
 直看銀漢掛雲槎

이석형

李石亨

116) 이석형: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문종 때 정인지 등과 『고려사』 개찬에 참여했다. 첨지한성부윤, 황해도관찰사, 대사헌, 경기도관찰사, 한성 부판사 등을 지내고, 예종 때 승록대부에 올랐다. 문장, 글씨에 능했다. 저서 『저헌집』 등이 있다. 1466년(세조 12) 10월 21일에 안동 영호루에 와서 우탁(禹倬)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117) 고려(高麗)의 일: 원문의 '전조(前朝)'는 고려를 말한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으로 몽진하였다가 전쟁이 끝난 뒤 개성으로 돌아가서 '영호루(映湖樓)' 현판을 직접 써서 내린 일을 말한다.



애련당 시에 차운하다

次蓮堂韻

맑은 밤에 잠 못 든 채 숲과 못을 마주하니
 이슬 맞은 붉은 연꽃이 향기를 풍기네
 시인을 일깨워 주옥편의 시를 읊게 하고
 도리어 술꾼에게 금 술잔을 대신하게 했네
 산들바람이 천 겹의 구름을 움직이고
 지는 달이 한 장의 비단에 비스듬히 비치네
 조물주가 군자 같은 연꽃¹¹⁹⁾을 많이 시기하니
 세모에 꽃이 시들면 애석함을 어찌 견디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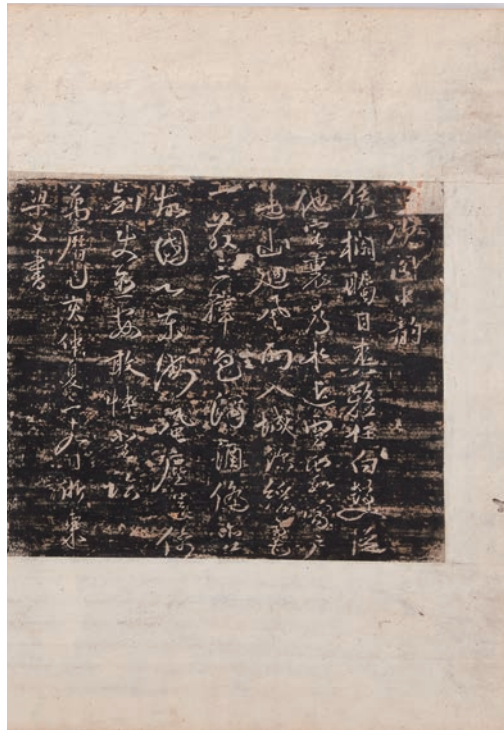
清宵無寐對林塘
 露濕紅蕖冉冉香
 喚起詩人吟玉■
 翻教酒客替金觴
 微風■動雲千疊
 落月斜穿錦一張
 造物多猜似君子
 那堪歲暮惜殘芳

만력(萬曆) 신해년(1611) 중추 제독(提督) 최진방

萬曆辛亥仲秋 提督崔鎭邦

118) 최진방(崔鎭邦): 탁본 상단에 작가가 적혀 있지 않으나 여타 시문의 편집 체제에 따라 한시 끝부분의 기록을 참조하여 최진방을 추가하였다. 최진방은 자가 지병(之屏)이고 본관이 충주(忠州)이다. 1560년(명종 15) 문과에 급제하고, 안동 교수 겸 제독관(提督官)을 지냈다. 1611년(광해군 3) 8월에 안동 애련당에 들러 지은 시이다. 최진방이 차운한 시의 작가와 작품은 미상이다.

119) 군자(君子) 같은 연꽃: 송(宋)나라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애蓮說」에 “내가 생각건대, 국화는 꽃 중의 은자이고, 모란은 꽃 중의 부귀한 자이고, 연꽃은 꽃 중의 군자이다.[予謂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라고 하였다.



누각 안의 시에 차운하다

次閣中韻

난간에 기대 바라보니 임무가 어려워서
백발이 그에 따라 타향의 객지에서 늘어가네
물이 가까워 구름이 집을 애워싸고
산이 휘감아 비바람이 성안에 많이 부네
오색 붓을 휘둘러 삼한 풍경 그려내고
막걸리가 매우 향긋하여 고향 생각이 나네
해동의 전쟁으로 칼을 잡고 섰는데
사신이 어찌 감히 누각에 올라 서글퍼하랴

凭欄矚目爽難任
白髮從他客裏尋
水近雲霞家戶遶
山廻風雨入城深
彩毫一散三韓色
濁酒偏含故國心
東海風塵還倚劍
使臣安敢悵登臨

만력(萬曆) 기해년(1599) 중하 29일에 절동(浙東) 양문이 쓰다.

萬曆己亥仲夏二十九日 浙東梁文書

120) 양문(梁文): 탁본 상단에 작가가 적혀 있지 않으나 여타 시문의 편집 체제에 따라 한시 끝부분의 기록을 참조하여 양문을 추가하였다. 명나라 중군(中軍) 양문이 1599년(선조 32) 8월 29일에 안동 망호루(望湖樓)에 와서 조사수(趙士秀)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字守翁 懷仁人 英廟丁卯文科 官至領相 仁山府院君 諡威平 爲人驚悼
 자가 수옹(守翁)이고 본관이 회인(懷仁, 보은)이다. 영묘(英廟, 세종) 정묘년(1447)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에 책봉되고 시호가 위평(威平)이다. 사람됨이 매우 사나웠다.

차운

시는 반드시 『시경』을 궁구해야 하고¹²²⁾
 백성을 다스리는 어진 정치는 무위에 달려 있네
 뽕나무와 마가 들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즐겁고
 바람과 달빛이 동헌에 가득하여 흰 기운이 퍼지네
 박혁거세는 몇 년이나 교화를 펼쳤는가
 현릉¹²³⁾이 옛날에 ‘영호루’ 현판¹²⁴⁾을 내렸네
 지금 당당한 태평성대의 날을 만나
 시판에 실린 제현의 시에 화답하네

임진년(1472) 맹동 삼도도순찰사 인산부원군 홍윤성

次

言志須窮三百詩
 治民德政在無爲
 桑麻遍野蒼生樂
 風月盈軒皓氣披
 朴赫幾年敷教化
 玄陵當歲御綸絲
 今逢盛代堂堂日
 聊和諸賢板上詞

壬辰孟冬 三道都巡察使仁山府院君洪允成

121) 홍윤성: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 2등에 녹선되었고, 세조 즉위 후 예조참의, 경상우도절제사를 역임하고, 모면위(毛憐衛)에 침입한 여진족을 토벌하여 승정대부에 올랐으며, 우의정,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

122) 시는……하고: 원문의 ‘언지(言志)’는 시(詩)를 뜻하고, ‘삼백시(三百詩)’는 시삼백(詩三百)으로 『시경』을 가리킨다.

123) 현릉(玄陵):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능호(陵號)로,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 정릉동(正陵洞)에 있다.

124) 영호루 현판: 원문의 ‘윤사(綸絲)’는 ‘사륜(絲綸)’으로, 본래 임금의 교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공민왕이 내린 영호루 현판을 가리킨다.



初名迪 中廟命加彦字 字復古 號晦齋 驪州人 中廟甲戌文科 官至贊成 丁未謫江界以卒 諡文元

초명(初名)이 적(迪)이었는데 중종(中宗)이 언(彦) 글자를 더하라고 명하였다. 자가 복고(復古)이고 호가 회재(晦齋)이며 본관이 여주(驪州)이다. 중종 갑술년(151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정미년(1547)에 강계(江界)에 귀양 가서 죽었고, 시호가 문원(文元)이다.

경산 객관 벽에 걸린 서강중의 시에 차운하다

次徐剛中慶山壁上韻

처마가 짧아서 달맞이에 좋지만
산이 가로질러 강물이 보이지 않네
가지에서 일곱 마리 비둘기가 울고
빗속에 한 쌍의 제비가 날고 있네
경관이 고요하여 사물을 살피고
마음이 한가하여 창가에 기대네
시를 지어 참된 흥을 그려낼 뿐
어찌 뛰어난 글¹²⁶⁾을 쓸 필요가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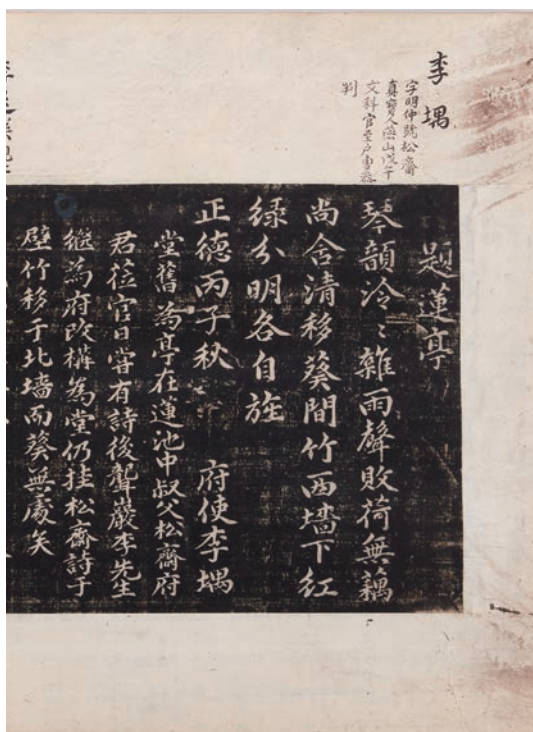
簷短宜迎月
山橫碍望江
鳴鳩枝上七
飛燕雨中雙
境靜聊觀物
心閑穩倚窓
題詩畫眞興
那用筆如杠

회재 쓰다

晦齋詩稿

125) 이언적: 중종대 문신이자 유학자이다. 주리적 성리설이 이황에게 계승되어 영남학파의 중요한 성리설이 되었으며, 조선 성리학의 한 특징을 이루었다. 이언적이 1530년(중종 25)에 경산 객관에 가서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원문의 '강중(剛中)'은 서거정(1420~1488)의 자(字)이다. 『회재집晦齋集』에 제목이 「慶山客館次徐剛中韻」으로 되어있다.

126) 뛰어난 글: 원문의 '필여강(筆如杠)'은 장대처럼 큰 붓으로, 뛰어난 시문을 비유한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의 「여산고증동년유중운 귀남강廬山高贈同年劉中允歸南康」에 "장부의 굳센 절개가 그대 같은 이가 적으니, 아아! 내가 말하려 할 때 어찌 장대처럼 큰 붓을 얻으랴[丈夫壯節似君少, 嗟我欲說, 安得巨筆如長杠?]"라고 하였다. 중운(中允)은 여산에 은거한 유환(劉渙)의 자(字)이다.



字明仲 號松齋 眞寶人 燕山戊午文科 官至戶判

자가 명중(明仲)이고 호가 송재(松齋)이며 본관이 진보(眞寶)이다. 연산군 무오년(1498)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호조 참판에 이르렀다.

애련정에서 짓다

題蓮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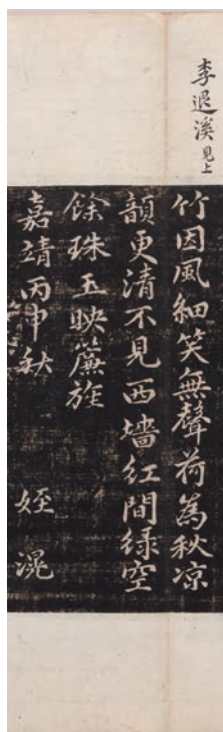
청아한 거문고 소리가 빗소리와 섞이는데
시든 연은 뿌리 없어도 맑은 기운 머금었네
서쪽 담장 아래 대나무 사이에 접시꽃을 옮겨 심으니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선명하게 제 모습 드러내네

琴韻泠泠雜雨聲
敗荷無藕尚含清
移葵間竹西牆下
紅綠分明各自旌

정덕(正德) 병자년(1516) 가을 부사 이우

正德丙子秋 府使李堦

¹²⁷⁾ 이우: 조선시대의 문신이며,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분의정국공신에 책록, 청해군에 봉해졌다. 후에 김은의 상소로 반정 당시 윤장·조계형 등과 함께 공을 세운 것처럼 가장한 것이 드러나 녹권이 박탈되었다. 시문에 이름이 높았다. 『송재집』이 있다. 안동부사 이우가 1516년(중종 11) 가을에 애련정을 건립한 뒤 지은 시이다. 이현보가 1518년(중종 13)에 중수한 뒤 애련정을 애련당(愛蓮堂)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李退溪 見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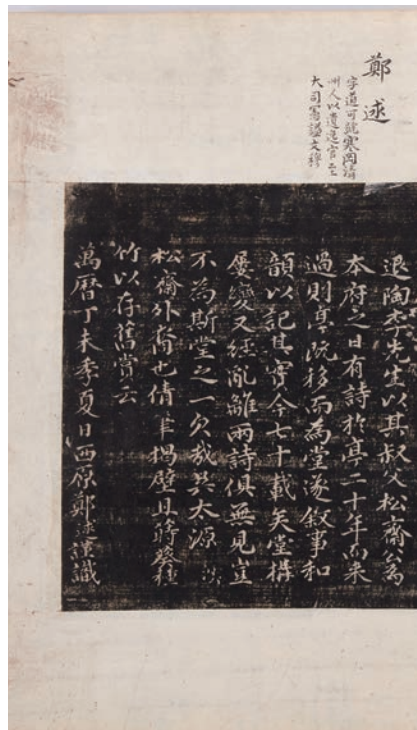
이퇴계[이황] 위에서 보인다

대나무가 산들바람에 소리 없이 웃고
연잎은 찬 가을 되어 운치가 더 맑네
서쪽 담장에 접시꽃과 대나무가 보이지 않고
공연히 시만 남아 주름을 비추네

가정(嘉靖) 병신년(1536) 가을 조카 이황

竹因風細笑無聲
荷爲秋涼韻更清
不見西牆紅間綠
空餘珠玉映簾旌

嘉靖丙申秋 姪滉



字道可 號寒岡 清州人 以遺逸 官至大司憲 諡文穆

자가 도가(道可)이고 호가 한강(寒岡)이며 본관이 청주(淸州)이다. 유일(遺逸)로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렀으며, 시호가 문목(文穆)이다.

退陶李先生以其叔父松齋公爲本府之日 有詩於亭 二十年而來過 則亭既移而爲堂 遂敘事和韻 以記其實 今七十載矣 堂構屢變 又經亂離 兩詩俱無見 豈不爲斯堂之一欠哉 吳太原溧 松齋外裔也 倩筆揭壁 且蒔葵種竹 以存舊賞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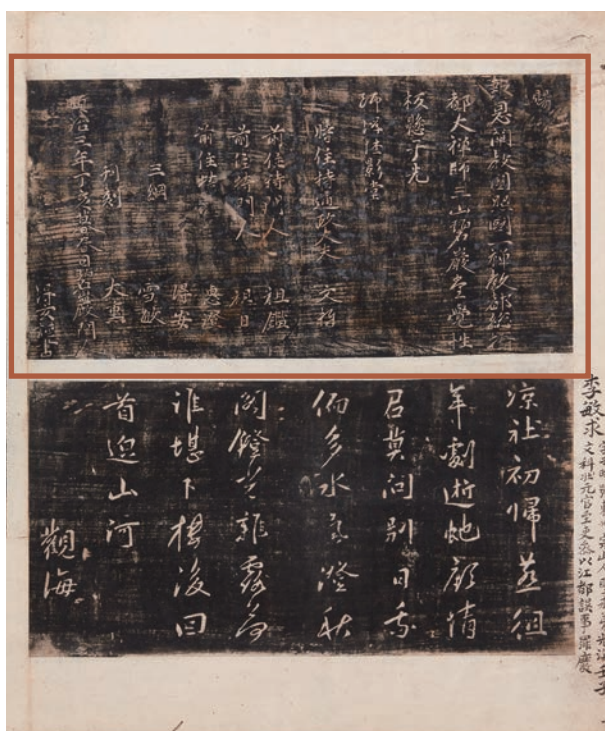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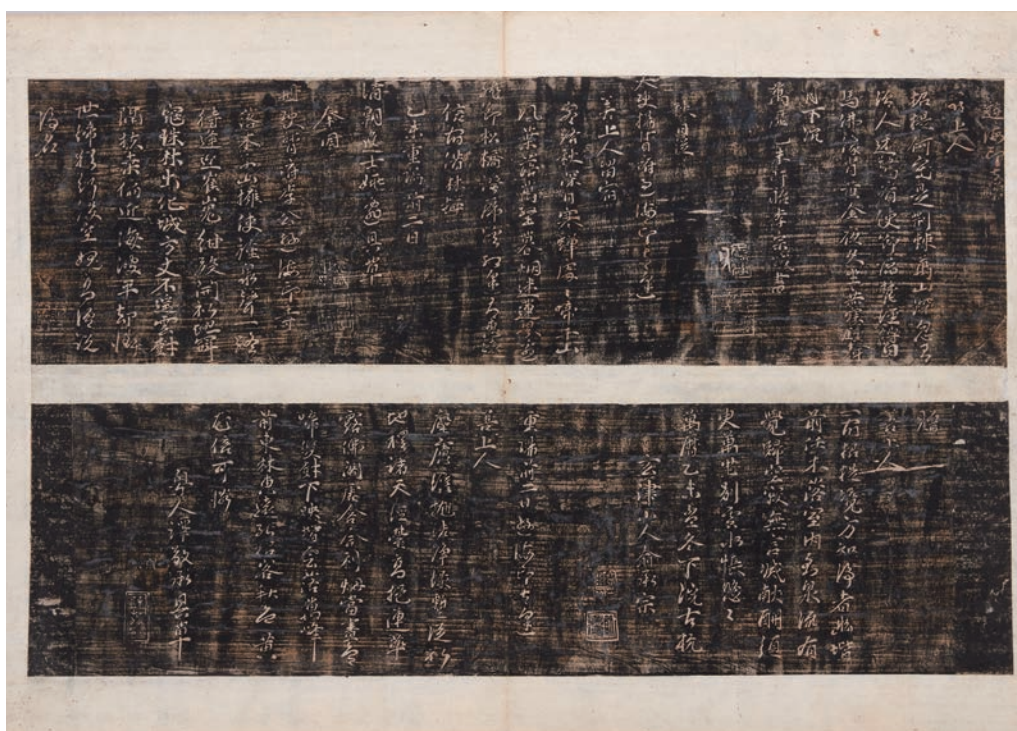
萬曆丁未季夏日 西原鄭述謹識

퇴도(退陶) 이황(李滉) 선생의 숙부 송재공(松齋公, 이우)이 본부(本府, 안동)의 부사로 있으면서 애련정에서 시를 지은 적이 있었다. 이황 선생이 20년이 지나 찾아오니, 애련정이 이미 자리를 옮겨 애련당이 되었으므로 마침내 일을 적고 시에 화답하여 그 사실을 적었는데, 지금 70년이 지났다. 애련당을 여러 차례 개축하고 또 난리를 겪어서 두 분의 시가 모두 보이지 않으니, 어찌 이 애련당의 한 가지 흠이 되지 않겠는가? 태원(太原) 오운(吳溧)은 송재의 외손인데, 그 시를 대필하게 하여 애련당 벽에 걸고 또 접시꽃과 대나무를 심어 옛날의 풍경을 보존하였다.

만력(萬曆) 정미년(1607) 계하 모일에 서원(西原, 청주) 정구(鄭述)가 적다.¹²⁹⁾

128) 정구: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이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여러 학문에 정통하였고, 예학(禮學)에 뛰어났으며, 글씨도 잘 썼다. 저서에 『심경발휘心經發揮』, 『오선생에설五先生禮說』, 『성현풍범聖賢風範』 등이 있다.

129) 퇴도(退陶)……적다: 이우의 시, 이황의 시서와 시, 정구의 후지(後識)는 모두 『한강집寒岡集』에 『書安東蓮亭追揭退陶先生和松齋詩後』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130) 이 탁본은 세로가 짧아 2줄로 편집되어 있다. 다음면에 탁본의 마지막 부분을 마감한 뒤에 그 밑에 알맞은 크기의 다른 탁본을 편집하였다.

해인사가 어느 곳에 있는가
가시나무가 온 산에 우거진 곳이네
문득 속인인 내가 놀러 오니
사절이 온 것을 보고 놀라네
불경이 백마사에서 전해졌고
불상에 황금 빛이 닮았네
밤이 깊어도 잠 못 이루는데
종소리가 달빛 아래 침잠하네

招提何處是
荊棘萬山深
忽有俗人遊
驚看使節臨
梵經傳白馬
佛像肖黃金
夜久坐無寐
鍾聲月下沈

만력(萬曆) 을미년(1595)에 우이(吁貽)¹³³⁾ 이종성이 쓰다.
[우이(吁貽)] [이종성인(李宗城印)]

萬曆乙未吁貽李宗城書 [吁貽] [李宗城印]

가을날에 천사 양독부¹³⁴⁾를 따라 해인사에 들러 선수 상인을 만나 머물러 자다¹³⁵⁾

秋日從天使楊督府過海印寺 逢善上人留宿

나그네 길에 가을이 깊어가서
늦가을에 매미가 곳곳에서 우네
온 산에 바람 불어 잎이 지고
온 골짜기에 저녁 안개 자욱하네
절의 승려가 사신을 맞이하고
소나무 다리로 호계¹³⁶⁾임을 증명하네
상봉함에 혜원¹³⁷⁾이 있어서
이틀 동안 산사에서 잠을 잤네

客路秋深日
寒蟬處處啼
千山風葉落
萬壑暮烟迷
蓮界邀龍節
松橋證虎溪
相逢有惠遠
信宿借林栖

을미년(1595) 중양(重陽, 9월 9일) 2일 전에 청조일사(清朝逸士) 요천(姚遷)이 짓다.

[요천지인(姚遷之印)] [□□]

乙未重陽前二日 清朝逸士姚遷具草 [姚遷之印] [□□]

131) 선수 상인(善修上人): 원문의 '선상인(善上人)'은 선수 상인을 말한다. 선수(善修, 1543~1615)는 성이 김씨(金氏)이고 호가 부휴(浮休)이며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다. 20세에 출가하여 신명(信明)의 제자가 되었고, 부용(芙蓉)의 밑에서 수도하여 마음의 요체를 얻었다. 가야산 해인사에 머물던 1595년(선조 28)에 명(明)나라 장수 이종성(李宗城)이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시를 주고받았다. 제자로 벽암(碧巖)·뇌정(雷靜)·대가(待價)·송계(松溪) 등이 있다. 저서로 『부휴당대사집浮休堂大師集』이 있다.

132) 해인사(海印寺)에서……주다: 명(明)나라 장수 이종성(李宗城)이 1595년(선조 28) 9월에 해인사에 들러 선수 상인(善修上人)에게 준 시이다. 이종성은 이언공(李言恭)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났다.

133) 우이(吁貽): 안휘성(安徽省)에 있는 지명으로, 초(楚)나라 의제(義帝)가 도읍했던 곳이다.

134) 천사(天使) 양독부(楊督府): 명나라 사신인 도독 첨사(都督僉事) 양방형(楊方亨)이다. 1595년(선조 28) 4월에 함차책봉일본부사(欽差冊封日本副使) 좌도독부서도독첨사(左都督府署都督僉事)로 나와 10월에 왜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화친을 논의했으나 실패하였다.

135) 가을날에……자다: 명나라 관리 요천(姚遷)이 1595년(선조 28) 9월 7일에 봉왜사(封倭使) 이종성과 양방형을 따라 해인사에 들러 선수 상인에게 준 시이다. 요천은 호가 청조일사(清朝逸士)이다.

136) 호계(虎溪):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 있는 시내이다. 동림사의 고승 혜원법사(惠遠法師)가 당시의 명유(名儒)인 도잠(陶潛), 도사 육수정(陸修靜)과 함께 노닐다가 그들을 전송할 때, 서로 의기가 투합한 나머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계(虎溪)의 다리를 건너다가 범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세 사람이 서로 크게 웃었다는 고사가 있다. 『산당자고山堂肆考』이 구절은 동림사의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教)의 만남처럼 해인사에서 유자와 불자가 만났음을 말한 것이다.

137) 혜원(惠遠): 동진(東晉) 때 동림사의 고승인데, 여기에서는 해인사의 선수 상인을 가리킨다.

같은 책사 독부 이공을 받들어 해인사를 유람하다¹³⁸⁾

奉同冊使督府李公遊海印寺

앞이 진 온 산이 사신 행차를 감싸고
외길의 샘물 소리가 기다려 맞이하네
우뚝한 감전¹³⁹⁾을 초지¹⁴⁰⁾에 열었고
그윽한 주림이 화성에 솟았네
방장산이 멀지 않으나 구름이 가로막고
부상이 매우 가까워 파도가 잔잔하네
슬프게도 세상에 묶여 사신 행차 하자니
공연히 고승이 정명¹⁴¹⁾을 말함에 부끄럽네
[유승종인(俞承宗印)]

落木千山擁使旌
泉聲一路待逢迎
崔嵬紺殿開初地
窈窕珠林出化城
方丈不遙雲樹隔
扶桑偏近海波平
却憐世締猶行役
空媿高僧說淨名
俞承宗印

선수 상인에게 주다¹⁴²⁾

贈善上人

절에서 하룻밤 잠을 자니
청정한 곳이 그윽함을 알았네
계단 앞에 잎이 저도 그대로 두고
집안으로 샘물 소리 들려오네
깨달아도 공적¹⁴³⁾으로 돌리고
말없이 술을 주고받지 않았네
순식간에 만 리 멀리 헤어지면
운수¹⁴⁴⁾가 아득하여 슬프리라

一宿招提境
方知淨者幽
塔前任木落
室內到泉流
有覺歸空寂
無言滅獻酬
須與萬里別
雲水悵悠悠

만력(萬曆) 을미년(1595) 맹동 하순 고향(古杭) 현진산인 유승종

[유승종인(俞承宗印)] [유승종(俞承宗)]

萬曆乙未孟冬下浣 古杭玄津山人俞承宗 [俞承宗印] [俞承宗]

138) 같은……유람하다: 원문의 ‘이공(李公)’은 봉왜정사(封倭正使) 이종성(李宗城)을 가리킨다. 명나라 관리 유승종(俞承宗)이 1595년 10월 하순에 이종성을 모시고 해인사에 들러 선수 상인에게 준 시이다. 유승종은 항주(杭州) 출신으로 호가 현진산인(玄津山人)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가는 명나라 책사(冊使) 이종성(李宗城)을 수행하여 조선에 왔으며, 접반사(接伴使)인 이항복(李恒福)과 가깝게 지냈다.

139) 감전(紺殿): 불교 사원의 별칭이다. 감우(紺宇) 또는 감원(紺園)이라고도 한다.

140) 초지(初地): 보살이 불과(佛果)에 이르는 52단계 중 십지(十地)의 첫 단계로 희환지(喜歡地)를 가리키며, 사찰을 뜻한다. 당(唐)나라 왕유(王維)의 「등변각사(登辨覺寺)」에 “대숲 길이 초지에서 뻗어있고 연봉이 화성에서 솟아있네.[竹逕從初地, 蓮峯出化城.]”라고 하였다.

141) 정명(淨名): 인도(印度) 비야리국(毘耶離國)의 장자로서 석존(釋尊)의 속제자(俗弟子)가 되었던 유마 거사(維摩居士)를 가리킨다. 그는 항상 청병(稱病)하고 누워서 문병하러 오는 불제자들에게 병을 가지고 설법하였다.

142) 선수 상인에게 주다: 명나라 관리 유승종(俞承宗)이 1595년(선조 28) 10월 하순에 해인사에 들러 선수 상인에게 준 시이다.

143) 공적(空寂): 불교 용어로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어 생각하고 분별할 것도 없음을 말한다.

144) 운수(雲水): 구름이나 물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사는 승려, 또는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도는 청정한 곳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해인사 승려 선수 상인을 가리킨다.

중양 이틀 전에 해인사에서 노닐다가 선수 상인을 만나다¹⁴⁵⁾

重陽前二日 遊海印寺 逢善上人

속세 생각 막 버리고 맑은 인연 맺어서
 잠시 절에서 제천¹⁴⁶⁾에 예불을 올리네
 장경각이 연화대의 이슬 위에 높이 떠 있고
 대웅전이 사리함의 연기를 헛되이 머금었네
 대낮에 새가 쌍수¹⁴⁷⁾ 아래에서 울고
 계단에서 구름이 온 산 앞에 떨어지네
 동림사의 혜원이 길손을 초대하니
 가을에 노란 국화가 곱절이나 예쁘네
 월인(粵人) 담경승(譚敬承)이 짓다.

塵慮纔拋結淨緣
 暫從初地禮諸天
 經臺高挹蓮華露
 佛閣虛含舍利烟
 當晝鳥啼雙樹下
 映塔雲落萬峰前
 東林惠遠能招客
 秋色黃花倍可憐

[담경승(譚敬承)]

粵人譚敬承具草 [譚敬承]

보은천교원조국일 선교도총섭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禪教都總攝都大禪師)를 하사받은 삼산(三山) 벽암당(碧巖堂) 각성(覺性)¹⁴⁸⁾이 현판을 선사(先師) 부휴(浮休, 선수)의 영당(影堂)에 판각하여 걸었다.

賜報恩闡教圓照國一禪教都總攝都大禪師 三山碧巖堂覺性 板懸于先師浮休影堂

시임(時任) 주지(住持) 통정대부(通政大夫) 문철(文哲)
 전임(前任) 주지 문인(門人) 조감(祖鑑)
 전임 주지 문인 조일(祖日)
 전임 주지 혜징(惠澄)
 삼강(三綱) 득안(得安) 설민(雪敏)
 간각(刊刻) 대훈(大熏)
 순치(順治) 3년 정해년(1646) 모춘일에 벽암(碧巖)의 문인 득안이 삼가 쓰다.

時住持通政大夫文哲
 前任持門人祖鑑
 前任持門人祖日
 前任持惠澄 得安
 三綱雪敏
 刊刻大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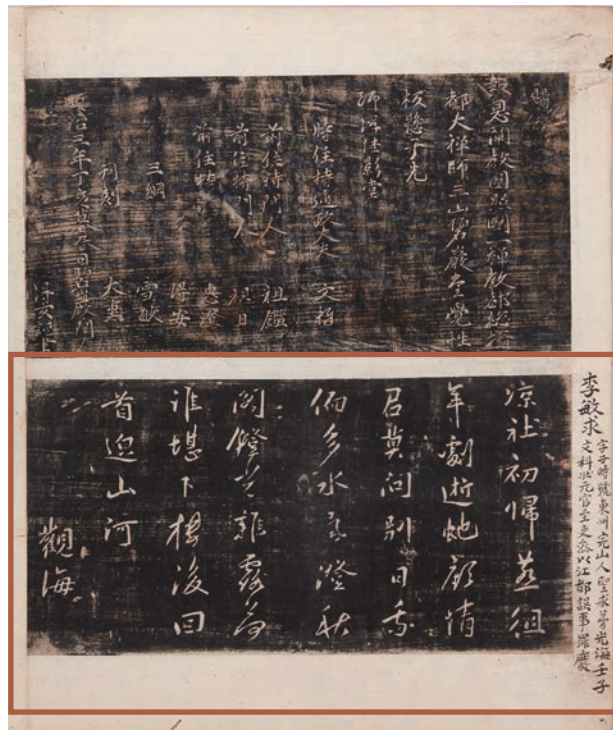
順治三年丁亥暮春日 碧巖門人得安謹書

145) 중양(重陽)……만나다: 명나라 담경승(譚敬承)이 1595년(선조 28) 9월 7일에 해인사에서 노닐다가 선수 상인에게 준 시이다.

146) 제천(諸天): 불교에서 여러 천상(天上)의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 높은 곳에 있는 절이나 암자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47) 쌍수(雙樹): 석가모니(釋迦牟尼)가 입적한 사라쌍수(沙羅雙樹)의 준말로, 흔히 사원(寺院)의 별칭으로 쓰인다. 석가모니가 45년간 설법하며 중생을 교화하다가 중천축(中天竺) 구시나(拘尸那) 성(城)의 발제하(跋提河) 강변 사라쌍수 사이에서 하루 동안 『열반경涅槃經』을 설한 뒤에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워서 입적하였다. 『아함경阿含經 권4』

148) 각성(覺性): 호가 벽암(碧巖)이고 속성(俗姓)이 김씨(金氏)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투에 참여하였고, 1624년(인조 2)에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으로 승군(僧軍)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을 쌓아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를 받았다.



字子時 號東州 完山人 聖求弟 光海壬子文科壯元 官至吏參 江都誤事 罪廢

자가 자시(子時)이고 호가 동주(東州)이며 본관이 완산(完山, 전주)이다. 이성구(李聖求)의 동생이다. 광해군 임자년(1612)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이조 참의에 이르렀다. 강도(江都, 강화도)에서 일을 그르친 죄로 파직되었다.

서늘한 사일¹⁵⁰⁾에 제비가 막 돌아가니
흐르는 세월이 달리는 뱀¹⁵¹⁾처럼 빠르네
돌아보는 마음을 그대는 묻지 말라
헤어지는 날에 나는 정이 매우 많네
물기운이 가을 누각에 맑고
등불 빛이 이슬 내린 연꽃에 뒤섞이네
누가 전디랴, 누각을 내려간 뒤에
고개 돌리면 산하가 아득함을

涼社初歸燕
徂年劇逝蛇
顧情君莫問
別日我偏多
水氣澄秋閣
鐙光雜露荷
誰堪下樓後
回首邈山河

관해¹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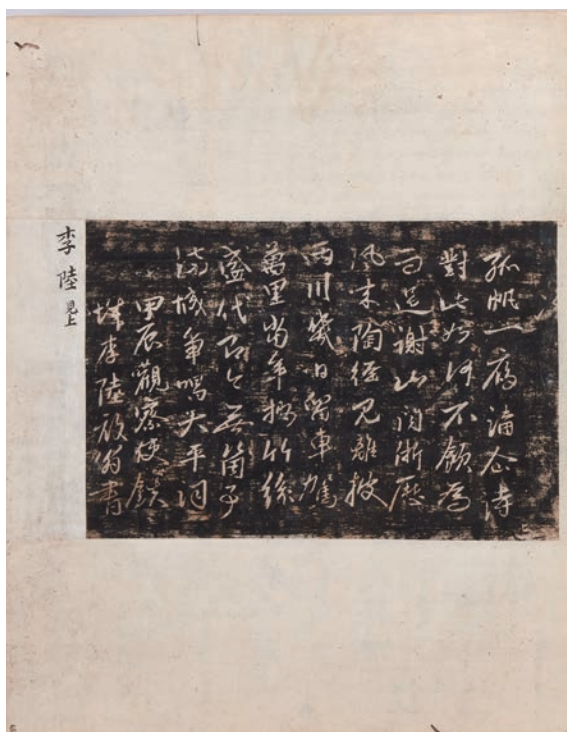
觀海

149) 이민구: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문장이 뛰어나고 사부(詞賦)에 능했다.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 경기우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에 『동주집東州集』 『독사수필讀史隨筆』 등이 있다. 이 시는 1624년(인조 2) 8월에 안동 망호루에서 지은 시이다. 이민구는 1624년(인조 2) 2월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3월에 부임하였고, 이듬해 4월에 사직하고 6월에 승지가 되었다.

150) 서늘한 사일(社日): 원문의 '양사(涼社)'는 추사일(秋社日)을 가리킨다. 입춘 후 다섯 번째 무일(戊日)을 춘사일(春社日), 입추 후 다섯 번째 무일을 추사일이라 한다. 제비는 춘사일에 왔다가 추사일에 떠나고, 기러기는 춘사일에 떠났다가 추사일에 돌아온다.

151) 달리는 뱀: 세월의 빠름을 의미한다. 소식의 「수세수歲」에 “한 해가 가는 것을 알려 하니. 골짜기로 달려가는 뱀과 같네.[欲知垂盡歲, 有似赴壑蛇.]”라고 하였다.

152) 관해(觀海): 이민구의 호(號)이다.



見上
앞에서 보인다.

외로운 배와 외기러기는 이백의 시구인데¹⁵³⁾
이 모습을 마주하면 어찌 술을 마시지 않으랴
비가 오자 사안의 동산에 빗소리가 들리고¹⁵⁴⁾
바람 불자 도잠의 오솔길에 소나무와 국화가 섞여 있네¹⁵⁵⁾
양천(兩川) 지역에서 며칠이나 수레를 멈추었던가
옛날에 만 리 땅에서 음악을 연주했었네
지금은 태평성대라 아무 일도 없어서
온 성안에서 다투어 태평가를 부르네

孤帆一鴈謫仙詩
對此如何不飲爲
雨過謝山聞淅歷
風來陶徑見離披
兩川幾日留車駕
萬里當年按竹絲
盛代卽今無箇事
滿城爭唱太平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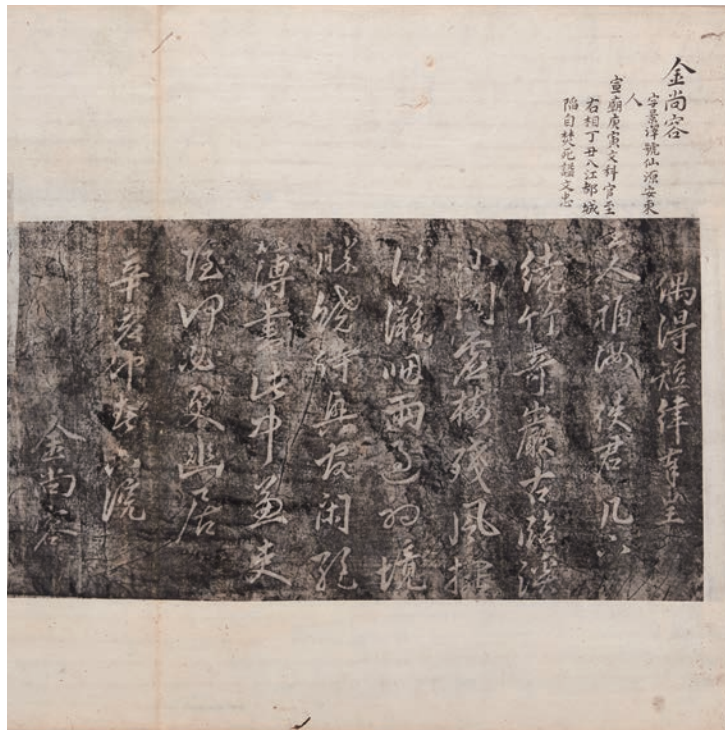
갑진년(1484)에 관찰사 철성(鐵城, 고성) 방옹(放翁) 이육이 쓰다.

甲辰觀察使鐵城李陸放翁書

153) 외로운……시구(詩句)인데: 원문의 ‘적선(謫仙)’은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을 말한다. 이백의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에 “하늘이 맑아 외기러기가 멀리 날아가고, 바다가 넓어 외로운 배가 더디 떠나네.[天清一雁遠, 海闊孤帆遲.]”라고 하였다.

154) 비가……들리고: 원문의 ‘사산(謝山)’의 동진(東晉) 때 사안(謝安)이 노닐던 동산(東山)이고, ‘석력(淅歷)’은 석력(淅瀝)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소리이다.

155) 바람……있네: 원문의 ‘도경(陶徑)’은 도잠(陶潛)이 팽택 영(彭澤令)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든 세 갈래 오솔길을 말한다. 도잠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삼경이 묵었으나 소나무와 국화가 여전히 남아 있네.[三徑就荒, 松菊猶存.]”라고 하였다.



字景澤 號仙源 安東人 宣廟庚寅文科 官至右相 丁丑入江都 城陷自焚死 諡文忠

자가 경택(景澤)이고 호가 선원(仙源)이며 본관이 안동이다. 선조 경인년(1590)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정축년(1637)에 강도(江都, 강화도)에 들어갔다가 성이 함락되자 스스로 몸에 불을 살라 죽었다. 시호가 문충(文忠)이다.

우연히 오언율시를 지어 신령 현감 복여 사군의 책상 아래에 올리다¹⁵⁷⁾

偶得短律 奉呈主人福汝使君几下

대숲에 쌓인 기이한 바위가 오래되고
 시내에 임한 작은 누각이 비어있네
 바람이 지나가자 매화가 떨어지고
 비가 막 내리자 여울이 울며 흐르네
 경치가 좋아서 시흥이 넉넉하고
 관청이 한가하여 문서가 거의 없네
 여기에서 이은을 겸할 수 있으니
 어찌 꼭 은거할 곳을 다시 잡으랴

繞竹奇巖古
 臨溪小閣虛
 梅殘風擺後
 灘咽雨過初
 境勝饒詩興
 官閑絕簿書
 此中兼吏隱
 何必更幽居

신해년(1611) 중춘 하순 김상용

辛亥仲春下浣 金尙容

156) 김상용: 조선 중기 문신이다. 글씨에 뛰어났는데, 그 서체는 이왕체를 본뜨고 전은 중체를 겸하였으며, 시조로 유고에 『오륜가』, 『후계자손가』 등이 있고, 그 밖에도 『가곡원류歌曲源流』 등에 여러 편이 실려 있다. 이 시는 김상용이 1610년(광해군 2)에 신령 현감(新寧縣監)으로 부임하는 송이창(宋爾昌)에게 준 시이다. 원문의 '주인(主人)'은 신령 현감이고, '복여(福汝)'는 송이창의 자(字)이다.

157) 우연히……올리다: 『선원유고(仙源遺稿)』에 제목이 「偶得短律 奉呈新寧宋使君」로 되어있고, 제목 아래에 경술년(1610)에 지은 작품이라는 주석이 적혀 있다. 원문 1구의 '요죽(繞竹)'이 '요옥(繞屋)', 8구의 '경(更)'이 '방(訪)'으로 되어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 신녕제영(題詠) 환벽정(環碧亭)에 김상용의 시가 실려 있다.



號石齋 忠肅朝 封延昌君

호가 석재(石齋)이고, 충숙왕(忠肅王) 조정에서 연창군(延昌君)에 책봉되었다.

청하 객관에서 짓다

태풍이 갑자기 일어 바다를 뒤집으니
하늘과 물이 모두 어둡고 캄캄하네
만 구비 은빛 산처럼 큰 파도가 낮아졌다 다시 일고
천백의 우레 같은 파도 소리가 동시에 울리네
부상이 떠내려갈 듯 지축이 흔들리니
용왕은 궁전이 무너질까 걱정하네
붕어가 물을 잃어 물고기들이 혼란한데¹⁵⁹⁾
누구의 소행인가, 곤어와 고래 짓이네
곧바로 동해를 비단처럼 맑게 하여
다시 태양을 보며 청명에 젖고 싶네
이무기·용·새우·게가 즐길 곳을 얻어서
성군의 맑은 은택에서 헤엄치며 살게 하리

행인(行人) 박효수가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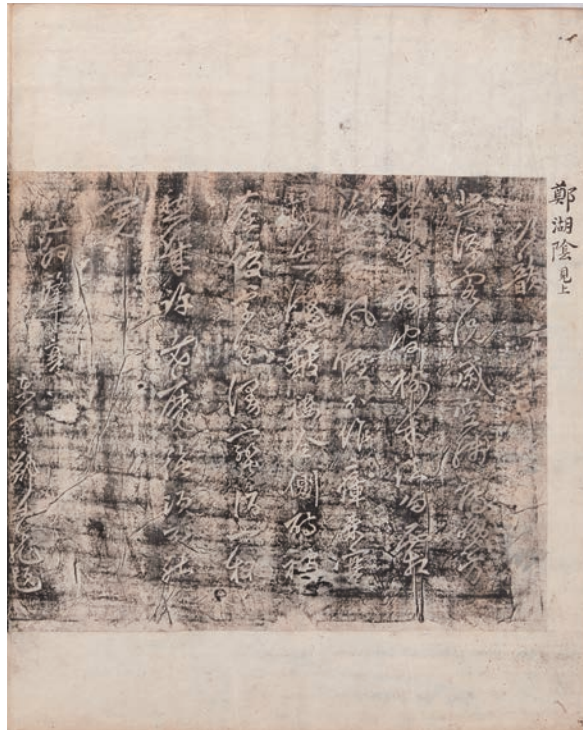
題清河客館

颶風歛起翻滄溟
天水相兼晦且冥
銀山萬朵低復屹
百千雷鼓同一聲
扶桑將漂地軸動
龍王坐愁宮殿傾
波臣搖蕩水族亂
誰之所爲鯤與鯨
直教東海淨如練
復瞻白日涵清明
蛟螭蝦蟇樂得所
游泳聖澤之泠泠

行人朴孝修題

¹⁵⁸⁾ 박효수: 고려 후기의 관인이다. 대안·밀직부사 등을 지냈고, 지조와 청렴으로 이름을 떨쳤다. 박효수가 청하 객관에서 지은 시이다. 시를 지은 시기는 미상이다. 원래 시는 12구의 칠언고시인데, 본첩(本帖)에는 6구와 7구, 9구부터 12구까지 모두 6구가 빠져 있어 『동문선』에 따라 원문을 보충하고 번역하였다.

¹⁵⁹⁾ 붕어가……혼란한데: 원문의 ‘파신(波臣)’은 붕어로 곤경에 처한 박효수를 비유하고, ‘수족(水族)’은 물고기로 백성을 비유한다.



鄭湖陰 見上

정호음[정사룡] 앞에 보인다.

차운

서글프게 객지에서 한 해가 저무는데
저물녘에 오래된 청하 객관에 투숙했네
나뭇잎은 된서리가 내린 뒤에도 오래 남고
안개는 장기를 띠어 추위 일으키지 않네
거센 바람 성에 붙어 누각이 온통 기울고
시 현판에 먼지 끼어 글자를 반은 알 수 없네
시름이 얼마이기에 남쪽 고을 한 잔 술¹⁶¹⁾로도
늙은 나의 강직함¹⁶²⁾을 억누를 수 없는가

次韻¹⁶⁰⁾

悲涼客況歲空殘
薄晚方投古縣官
樹木鎖留霜後密
風煙不作瘴來寒
城遭颶簸樓全側
詩被塵侵字半漫
蠻酒一杯愁幾許
老魔強項不能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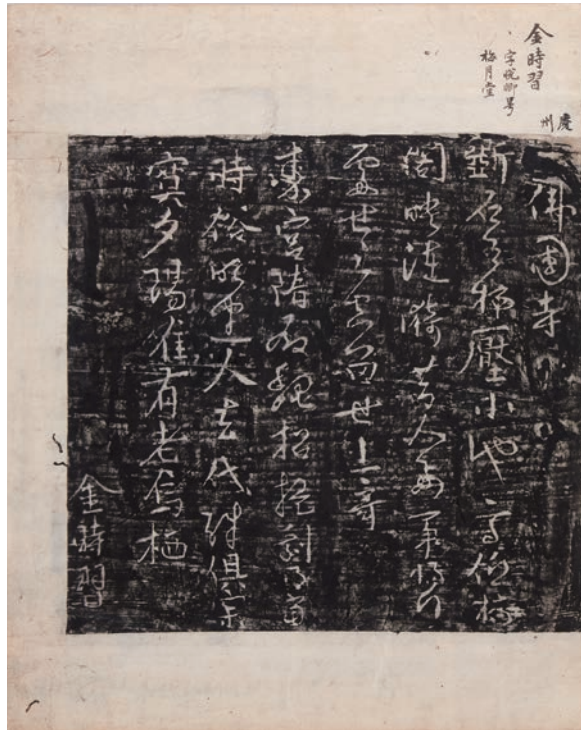
기묘년(1519) 조한에 동래(東萊) 정사룡(鄭士龍)이 짓다.

己卯肇寒 東萊鄭士龍題

160) 정사룡이 1519년(중종 14) 10월에 청하 동헌에 걸린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정사룡은 이때 재상어사(災傷御史)로 경상도 여러 고을을 순시하다가 청하에 들렀다. 『호음잡고湖陰雜稿』에 이 시가 실려 있지 않다.

161) 남쪽……술: 원문의 ‘만주(蠻酒)’는 남만주(南蠻酒)로, 남만(南蠻)에서 만든 술이다. 여기에서는 동래(東萊)에서 만든 술을 말한다.

162) 강직함: 원문의 ‘강항(強項)’은 굳센 목이란 뜻으로, 성품이 강직하여 남의 위력(威力)에 함부로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동한(東漢)의 동선(董宣)이 낙양 영(洛陽令)으로 있을 때 공주의 하인이 살인죄를 범하자, 공주의 수레에서 하인을 끌어내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 황제가 공주의 탄원을 듣고 동선에게 고두 사죄(叩頭謝罪)할 것을 종용했지만 동선은 끝내 머리를 굽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목이 뻗었던 낙양 영이라는 뜻으로 강항령(強項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字悅卿 號梅月堂

자가 열경(悅卿)이고 호가 매월당(梅月堂)이다.

경주 불국사

慶州 佛國寺

바위를 깎고 사다리를 만들어 작은 못을 누르니
높고 낮은 누각이 흐르는 물에 비치네
옛사람의 좋은 일은 어디로 돌아갔나
세상에 기이한 자취만 공연히 남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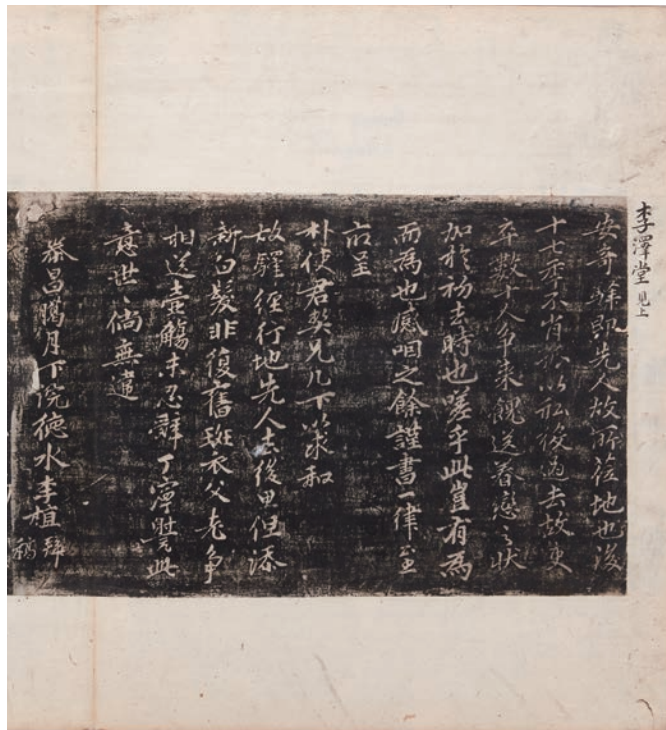
斷石爲梯壓小池
高低樓閣映漣漪
昔人好事歸何處
世上空留世上奇

진나라와 수나라의 궁전, 위나라의 사찰¹⁶⁴⁾이
당시에 넘쳐서 속인의 눈이 헛갈렸네
사람 죽고 시대가 바뀌어 모두 쓸쓸한데
석양에 늙은 까마귀만 깃들어 사네

秦宮隋殿魏招提
剩得當時俗眼迷
人去代殊俱寂寞
夕陽唯有老烏栖

163) 김시습: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조선전기의 학자이다. 유불(儒佛) 정신을 아울러 포섭한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 금오산실에서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지었고 『당유관서목』, 『당유관동록』등을 정리했으며 『산거백영』을 썼다. 이 시는 김시습이 1473년(성종 4) 경주 불국사에 들러 지은 시이다. 『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에 제목이 「불국사佛國寺」로 되어있다

164) 진(秦)나라와……사찰: 불국사에 있던 화려한 여러 건물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李澤堂 見上

이택당[이식] 앞에 보인다.

안기驛 卽先人故所莅地也 後十七年 不肖孤以私役過去 故吏卒數十人 爭來餽送 眷戀之狀 加於初去時也 嗟乎 此豈有爲而爲也 感咽之餘 謹書一律 至府呈朴使君契兄几下以求和

안기역(安奇驛)은 바로 선인(先人)¹⁶⁵이 옛날에 부임했던 곳이다. 17년이 지난 뒤에 불초한 내가 개인적인 일로 이곳을 지나갈 때 옛날의 아전과 군졸 수십 명이 다투어 와서 물품을 주며 전송하였는데,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모습이 처음에 떠날 때보다 더하였다. 아아! 이것이 어찌 인위적으로 한 일이겠는가? 감격하여 흐느끼던 나머지 삼가 읊시 한 수를 쓰고 안동부에 이르러 박사군(朴使君)¹⁶⁶ 계형(契兄)의 책상 아래에 올리고 화답을 구하다.¹⁶⁷

옛날에 왔었던 안기역을 지나가니
선군이 떠난 뒤에도 그리워하네
나는 흰머리가 새로 늘었을 뿐이지만
예전처럼 색동옷 입고 재물을 떨 수 없네
노인들이 다투어 전송하여
술을 차마 사양하지 못했네
정말로 이런 뜻에 감사하니
대대로 어김이 없었으면 하네

故驛經行地
先人去後思
但添新白髮
非復舊斑衣
父老爭相送
壺觴未忍辭
丁寧謝此意
世世倘無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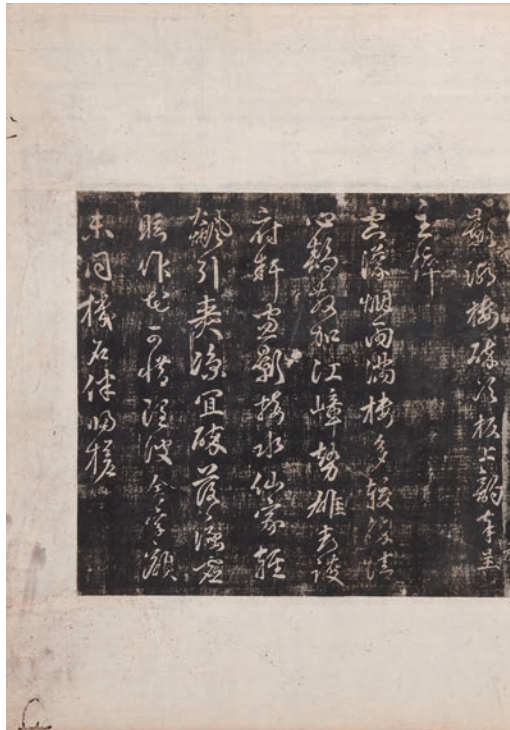
태창(泰昌) 납월(臘月, 12월) 하순에 덕수(德水) 이식이 삼가 짓다.

泰昌臘月下浣 德水李植拜稿

¹⁶⁵ 선인(先人): 이식의 부친 이안성(李安性, 1554~1613)을 말한다. 46세에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가 주부·상의원 별좌(尙衣院別坐)·안기도찰방(安奇道察訪)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¹⁶⁶ 박사군(朴使君): 원문의 '사군(使君)'은 안동 부사 박로(朴魯, 1584~1643)를 말한다.

¹⁶⁷ 안기역(安奇驛)은……구하다: 이식이 1620년 12월 하순에 안동 안기역에서 지은 시이다. 『택당집澤堂集』에 제목이 「安奇驛卽先君所莅道也 後十七年 不肖孤行役過此 故吏卒數十餘爭來饋奉 極有眷係之思 感歎之深 謹書一律 留呈朴使君案下」로 되어있다.



영호루에서 술에 취해 현판의 시에 차운하여 수령에게 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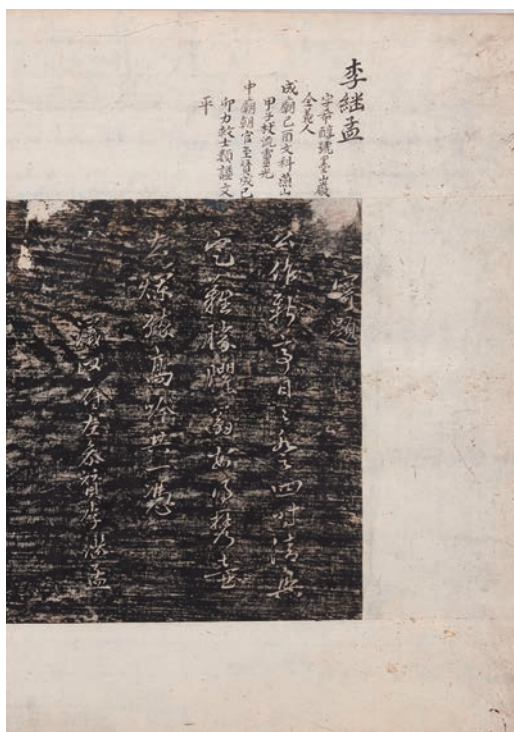
映湖樓醉 次板上韻 奉呈主倅

부슬부슬 안개비가 누각에 가득한데
 청심루¹⁶⁹⁾와 비교하면 한적함이 더하네
 강변 산의 형세가 안동도호부에서 웅장하고
 누각의 그림자가 물속의 신선 집에 접해 있네
 산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취하기에 알맞고
 지는 해가 허공에 잠겨 두 눈이 어지럽네
 슬프게도 금빛 ‘영호루’ 현판이 물결에 출렁이는데
 뗏목 타고 지기석에 함께 돌아가지 못하네

空濛烟雨滿樓多
 較勝清心靜散加
 江嶂勢雄都護府
 軒窓影接水仙家
 輕颿引爽涼宜醉
 落日涵虛眩作花
 可惜隨波金字額
 未同機石伴歸槎

168) 이현석(李玄錫): 탁본 상단에 작가가 적혀 있지 않으나 여타 시문의 편집 체제에 따라 『유재집游齋集』을 참조하여 이현석을 추가하였다. 숙종 때 한성부판윤, 우참찬,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이 시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현석이 안동 영호루에서 우탁(禹倬)의 시에 차운하여 안동부사 최석정(崔錫鼎)에게 준 작품이다.

169) 청심루(淸心樓): 경기도 여주(驪州)의 객관(客館) 북쪽에 있던 누각이다. 고려 때 세운 것으로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고려 때 주열(朱悅), 이곡(李穀), 이색(李穡), 한수(韓脩), 정몽주(鄭夢周), 이숭인(李崇仁)과 조선시대 때 서거정(徐居正), 최숙정(崔淑精), 김종직(金宗直), 신용개(申用溉) 등 수많은 문인 학사들이 시를 지어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字希醇 號墨巖 全義人 成廟己酉文科 燕山甲子杖流靈光 中廟朝官至贊成 己卯力求士類 謚文平

자가 희순(希醇)이고 호가 묵암(墨巖)이며 본관이 전의(全義)이다. 성종 기유년(148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연산군 갑자년(1504)에 장(杖)을 맞고 영광(靈光)에 유배되었다. 중종 조정에서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고, 기묘년(1519)에 사류(士類, 사림)를 힘써 구하였다. 시호가 문평(文平)이다.

시를 지어 보내다

寄題

공이 새 정자를 짓고 날마다 오르며
사계절의 맑은 흥을 이기기 어려우리
구옹¹⁷¹⁾이 어찌하면 술을 가지고 가서
흠뻑 취해 읊조리며 난간에 함께 기댈까

公作新亭日日登
四時清興定難勝
臞翁安得携壺去
爛醉高吟共一憑

의정부 좌참찬 이계맹

議政府左參贊李繼孟

¹⁷⁰⁾ 이계맹: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1517년(중종 12) 명나라에 갔을 때 『대명회전』에 이인임과 그 아들 단(旦:李太祖)이 4왕(王)이나 살해했다고 잘못 기록된 것을 발견, 귀국하여 보고했다.

¹⁷¹⁾ 구옹(臞翁): 묵곡(墨谷), 묵암(墨巖) 등과 함께 이계맹의 호로 보인다.



字不崩 號月軒 羅州人 成廟丁酉文科 官至兵判

자가 불붕(不崩)이고 호가 월헌(月軒)이며 본관이 나주(羅州)이다. 성종 정유년(1477)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세상 안의 몸이지만 세속 밖에 높은 뜻이 있으니
높은 관직이 오더라도 어찌 본모습을 잃었으랴
노년¹⁷³⁾의 세월이 머리에 늦게 이르고
고향의 소나무가 꿈속에 자주 들어왔네
천상의 궁궐에서 임금을 사직하고
천 리 먼 영남에서 한가한 사람이 되었네
부끄럽게 나는 강호의 약속을 저버린 채
늙어서도 말 먼지를 뒤집어쓰며 다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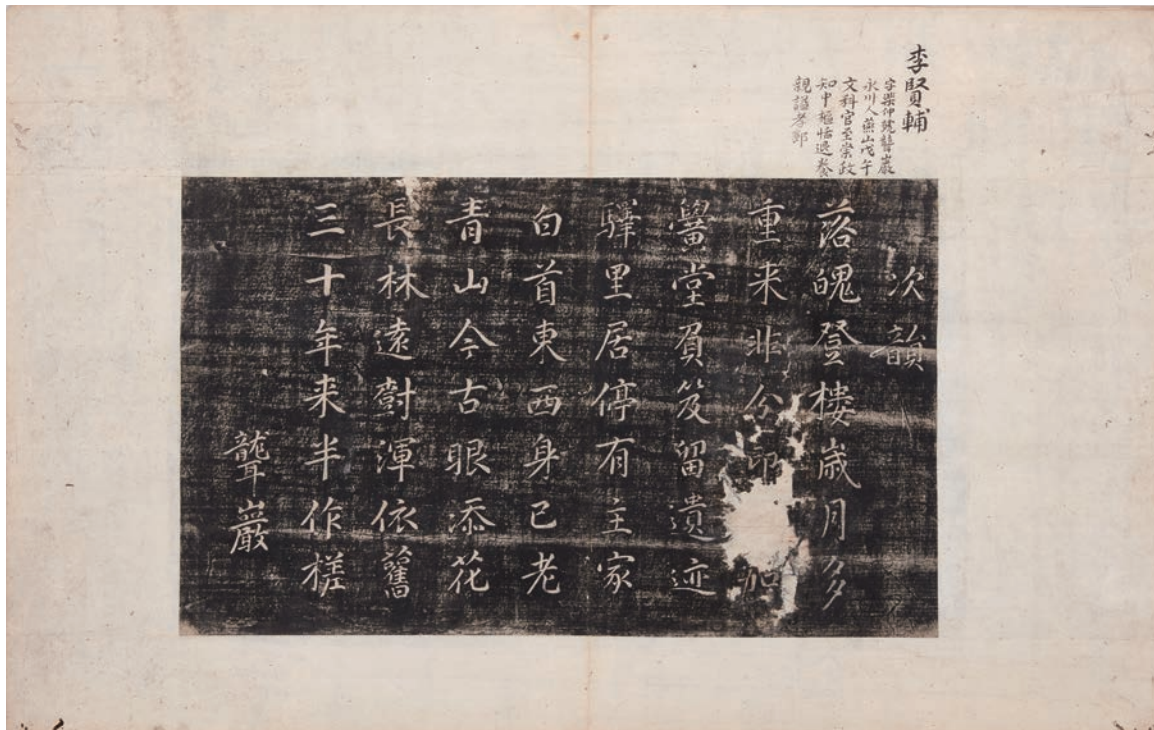
예조 참의 정수강

物外高情世裏身
倘來軒冕豈迷真
桑榆歲月臨頭晚
松桂家山入夢頻
天上九重辭聖主
嶺南千里作閑人
慙余辜負江湖約
到老猶衝沒馬塵

禮曹參議丁壽崗

172) 정수강: 조선중기 문신으로 중종반정 이후 재등용되었다.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판결사, 대사간을 역임했다. 한문소설 『포절군절』을 지었으며, 문집에 『월헌집月軒集』이 있다. 이 시는 예조참의였던 정수강이 개성부 유수에서 은퇴하여 귀래정에 머물던 이광(李滋)에게 준 시이다. 시를 지은 시기는 미상이다.

173) 노년: 원문의 '상유(桑榆)'는 해가 질 때 뽕나무와 느릅나무 가지 끝에 비친다는 뜻으로, 노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字斐仲 號聾巖 永川人 燕山戊午文科 官至崇政知中樞 恬退養親 謚孝節

자가 비중(斐仲)이고 호가 농암(聾巖)이며 본관이 영천(永川)이다. 연산군 무오년(1498)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정대부(崇政大夫)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담담히 물러나 부모를 봉양하였다. 시호가 효절(孝節)이다.

차운

영락하여 누각에 오른 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와도 부사의 관인을 지닐 분수가 아니네
향교에서 공부하던 자취가 남아있고
역 마을에서 머물던 주인집이 있네
동서를 떠돌다 백발 되어 몸이 이미 늙었고
고금의 청산이 두 눈에 흐릿하네
긴 숲과 먼 나무가 온통 예전 같지만
삼십 년이 지나 반이나 그루터기가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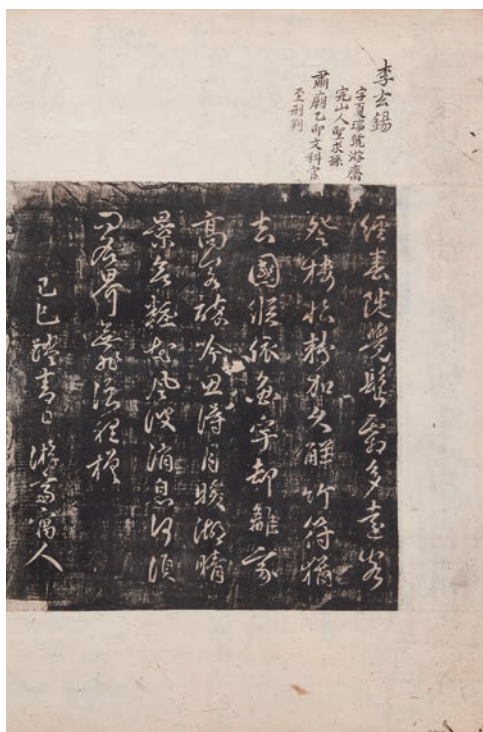
농암

次韻

落魄登樓歲月多
重來非分印章加
黌堂負笈留遺迹
驛里居停有主家
白首東西身已老
青山今古眼添花
長林遠樹渾依舊
三十年來半作槎

聾巖

174) 이현보: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중종 때 성주목사의 선정으로 왕에게 표리를 하사 받았다. 호조참판, 자헌대부에 올랐고, 어부가를 5장으로 고쳐 지은 것이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전한다. 저서 『농암집』이 있다. 안동부사 이현보가 1519년(중종 14)에 경상도 관찰사 김극성(金克成)과 함께 안동 영호루에 가서 우탁(禹倬)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字夏瑞 號游齋 完山人 聖求孫 肅廟乙卯文科 官至刑判

자가 하서(夏瑞)이고 호가 유재(游齋)이며 본관이 완산(完山, 전주)이다. 이성구(李聖求)의 손자이다. 숙종 을묘년(167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봄이 지나 흰머리가 늘어남을 문득 깨닫고
멀리 온 길손이 누각에 오르니 한이 더하네
도성을 떠나서 안동부사를 그만두고¹⁷⁶⁾
집을 떠나서 도리어 누추한 집에 살았네
높은 누각에서 취해 읊으니 달빛이 비치고
따뜻한 호수에 경치 맑아 꽃이 피려 하네
세상 풍파 소식을 어찌 꼭 물어보랴
명승에서 물결 속에 뗏목이 하늘로 올라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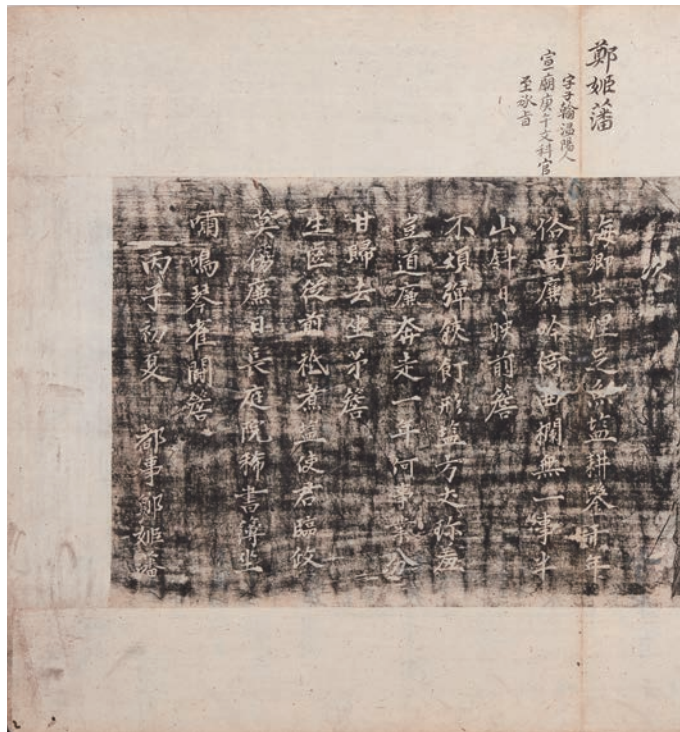
經春陡覺鬢霜多
遠客登樓恨轉加
久解竹符猶去國
縱依衡宇却離家
高閣醉吟思得月
暖湖晴景欲粧花
風波消息何須問
名界無非浪裡槎

기사년(1689) 답청일(踏青日, 3월 3일) 유재우인(游齋寓人)

己巳踏青日 游齋寓人

175) 이현석: 숙종 때 한성부판윤, 우참찬, 형조판서 등을 지낸 문신이다. 글씨에도 능하였다. 문집으로 『유재집』이 전한다. 글씨로는 <낙산사 해중관음공중사리탑비>가 양양에 있다. 이 시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현석이 안동 영호루에서 우탁(禹倬)의 시에 차운하여 안동부사 최석정(崔錫鼎)에게 준 작품이다.

176) 안동부사를 그만두고: 원문의 '죽부(竹符)'는 죽사부(竹使符)의 준말로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에게 내려 주는 신표이다. '해죽부(解竹符)'는 지방관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이현석이 1688년(숙종 14)에 안동부사에 임명되었다가 1689년(숙종 15)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된 것을 말한다.



字子翰 溫陽人 宣廟庚午文科 官至承旨

자가 자한(子翰)이고 본관이 온양(溫陽)이다. 선조 경오년(1570)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다.

차운

흥해의 생활은 물고기와 소금이 풍족하고
천년 세월 밭 갈고 우물 파서 풍속이 검소하네
아무 일도 없어서 난간에 기대 시 읊으니
산 중턱에 지는 해가 앞 처마를 비추네

요구하지 않아도 소금¹⁷⁸⁾을 늘어 놓으니
방장¹⁷⁹⁾의 진수성찬을 어찌 검소하다고 말하랴
일 년 동안 분주히 무슨 일을 하였는가
돌아가서 초가에 사는 삶을 달게 여기리

예로부터 백성들이 소금을 만들었는데
수령이 다스리며 검소함을 해치지 않았네
긴 날에 동헌 뜰에 공문서가 적어서
거문고 타고 시 읊으니 참새가 처마에서 다투네

병자년(1576) 초하 도사(都事) 정희번

次

海郷生理足魚鹽
耕鑿千年俗尙廉
吟倚曲欄無一事
半山斜日映前簷

不煩彈鋏釘形鹽
方丈珍羞豈道廉
奔走一年何事業
分甘歸去坐茅簷

生齒從前祇煮鹽
使君臨政莫傷廉
日長庭院稀書簿
坐嘯鳴琴雀鬪簷

丙子初夏 都事鄭姬藩

¹⁷⁷⁾ 정희번: 조선후기 병조참지, 우승지, 경연참찬관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이 작품은 정희번이 1576년(선조 9)에 흥해 객사에서 이곡(李穀)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¹⁷⁸⁾ 소금: 원문의 '형염(形鹽)'은 호형염(虎形鹽)의 준말로, 제사에 쓰는 호랑이 모양의 소금 덩어리를 말한다.

¹⁷⁹⁾ 방장(方丈): 음식을 사방 열 자 되는 상에 늘어놓는다는 식전방장(食前方丈)의 준말로, 보통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李季雅 見上

이계아[이청] 앞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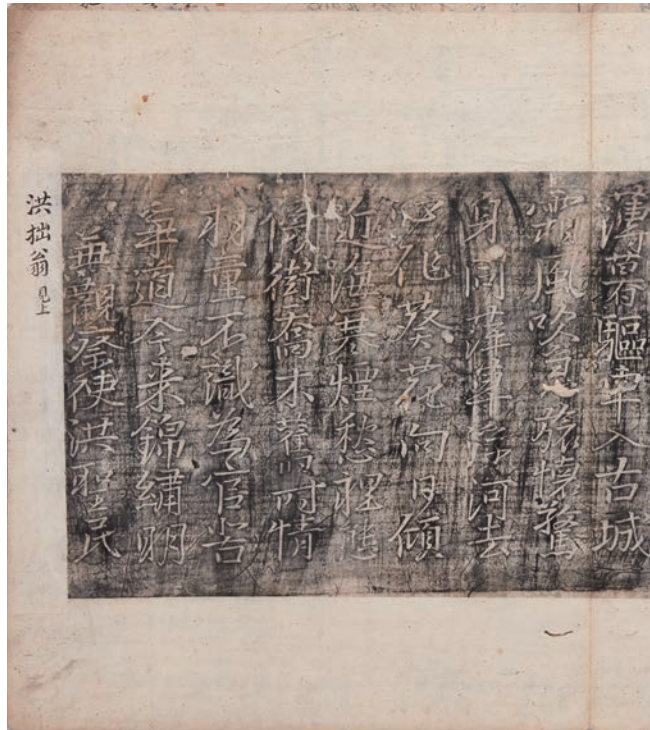
차운¹⁸⁰⁾

새벽에 별과 달이 서산으로 넘어가자
문루의 북소리에 아전들이 경계하네
승정원에서 교서 기다리며 더위를 범했고
영남 관찰사가 되어 추위에 길을 나섰네
만 리 멀리 가는 길에 산들이 중첩되고
한평생 회포는 바다처럼 드넓네
나그네 시름과 공문서가 마음을 괴롭혀서
술을 자주 마시며 애써 마음을 억제하네
관찰사 한산(韓山) 이청

次

五更星月向西殘
鼓角門樓警吏官
待詔銀臺曾觸熱
分憂嶺表又衝寒
萬里征途山疊疊
百年懷抱海漫漫
羈愁簿領煩相惱
頻抱深盃強自寬
觀察使韓山李清

180) 경상도 관찰사 이청이 1542년(중종 37)에 청하 동헌에 들러 김극성 등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洪拙翁 見上

홍졸옹[홍성민] 앞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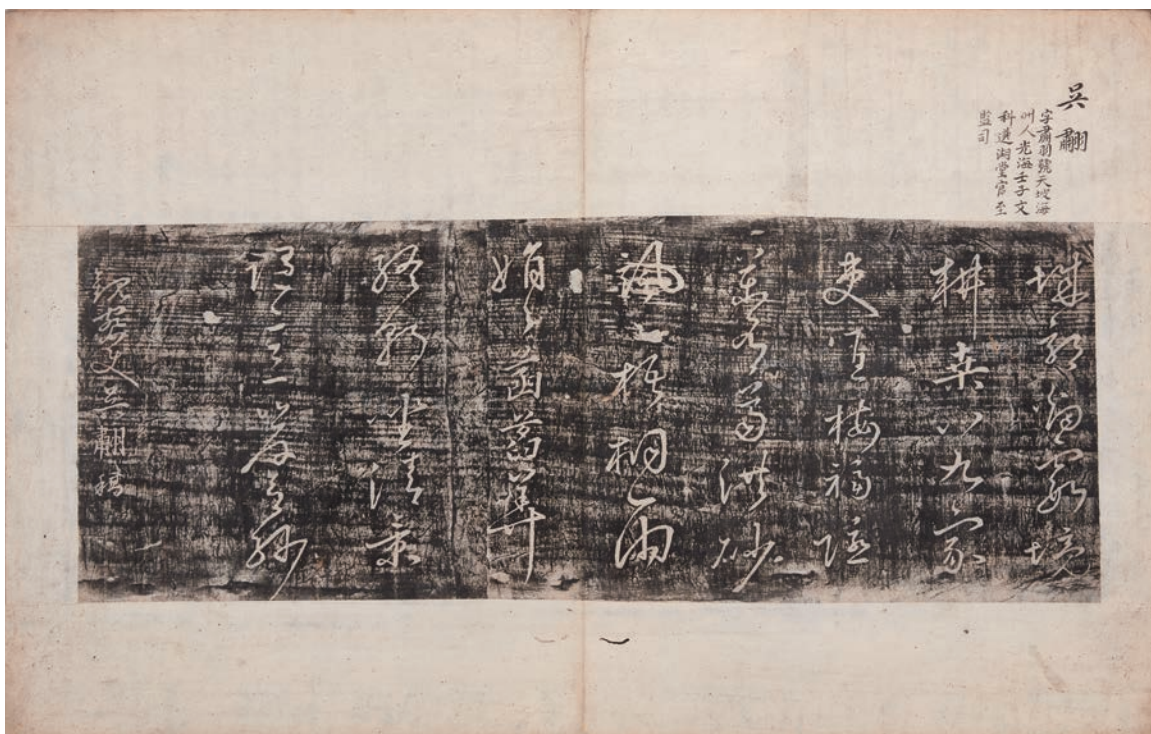
황혼에 수레 몰아 고성으로 들어가니
서릿바람 급히 불어 길손이 놀라네
몸이 부평초 같아 물에 떠서 흘러가고
마음이 접시꽃 되어 해를 향해 기우네
근해의 찬 안개는 시름 속의 모습이고
길가의 큰 나무는 옛날의 마음이네
시골 아이들이 관리의 괴로움을 모른 채
이번에 오신 분은 고병하다고 다투어 말하네¹⁸¹⁾

겸관찰사 홍성민

薄暮驅車入古城
霜風吹急旅懷驚
身同萍草浮河去
心作葵花向日傾
近海寒煙愁裡態
傍街喬木舊時情
村童不識爲官苦
爭道今來錦繡明

兼觀察使 洪聖民

181) 홍성민이 1590년(선조 23)에 경주에 가서 지은 시이다. 『졸옹집拙翁集』에 시가 실려 있지 않다.



字肅羽 號天坡 海州人 光海壬子文科 選湖堂 官至監司

자가 숙우(肅羽)이고 호가 천파(天坡)이며 본관이 해주(海州)이다. 광해군 임자년(1612)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 독서당)에 선발되고 관직이 감사(監司)에 이르렀다.

성곽은 안개와 노을 경관이 아름답고
농사짓고 누에 치는 여덟아홉 집이 있네
관리는 매복¹⁸³⁾의 은거에 알맞고
약물은 갈홍¹⁸⁴⁾의 단사가 있네
후드득 오동잎에 비 내리고
아름다운 연꽃이 화려하네
아침 내내 맑은 경치에 앉아서
마음대로 오사모를 짓혀 쓰네

城郭煙霞境
耕桑八九家
吏宜梅福隱
藥有葛洪砂
颯颯梧桐雨
娟娟菡萏華
終朝坐清景
隨意岸烏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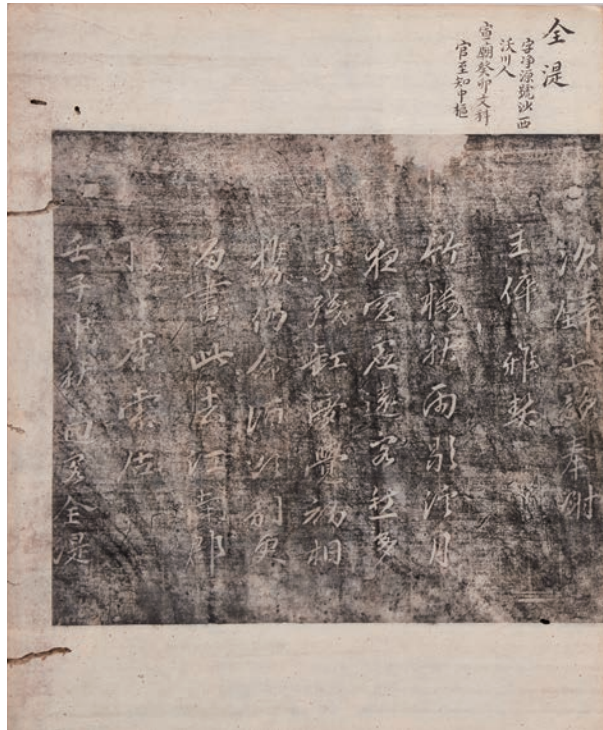
관찰사 오숙쓰다

觀察使吳翹稿

182) 오숙: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광해군 때 병조좌랑 등을 지냈으며 인조반정 뒤, 정언, 교리를 지냈다. 이괄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병조참지가 되고 황해도 관찰사로 가도(假島)의 분쟁을 수습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오숙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단성(丹城) 객사에서 지은 시이다. 『천파집天坡集』에 제목이「丹城客舍」로 되어있다. 오숙은 1631년(인조 9) 9월 6일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183) 매복(梅福):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외척 왕씨(王氏)가 득세하고 왕망(王莽)이 권력을 독차지하자, 매복이 글을 올려 천하의 언로(言路)를 열고 외척의 강성한 권력을 억제하라고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처자를 버리고 구강(九江)으로 떠나가 은둔하였다. 『한서漢書』 「매복전梅福傳」

184) 갈홍(葛洪): 동진(東晉) 구용(句容) 사람으로 자가 치천(稚川)이고 호가 포박자(抱朴子)이다.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관내후(關內侯)에 봉해졌으나 신선의 도양술(導養術)을 좋아하여 교지(交趾)에 단사(丹沙)가 난다는 말을 듣고, 구루영(句漏令)을 자청하여 나부산(羅浮山)에서 연단(煉丹)하였다. 『진서晉書』 「갈홍전葛洪傳」



字淨源 號沙西 沃川人 宣廟癸卯文科 官至知中樞

자는 정원(淨源)이며 호는 사서(沙西)이고 본관은 옥천(沃川)이다. 선조 계묘년(1603)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지중추부사를 지냈다.

벽위의 시에 차운하여 수령의 아름다운 교분에 감사드리다¹⁸⁷⁾

次壁上韻奉謝主倅雅契

죽루에 가을비 그치더니
시내에 비친 달빛 밤 창에 허전하네
멀리서 온 손님 수심이 많은데
쇠잔한 등불에 잠에서 깨네
서로 손잡아 술잔 권하고
작별하려다 다시 글을 남기네
이번 강남에 있는 군으로 가면
서글픔에 어찌 살 곳을 찾을 것인가

竹樓秋雨歇
溪月夜牕虛
遠客愁多處
殘缸夢覺初
相携仍命酒
欲別更留書
此去江南郡
惘惘奈索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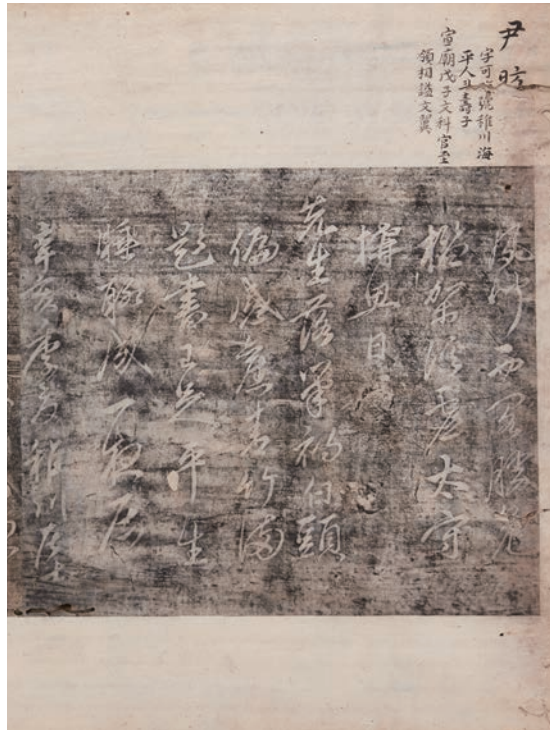
임자년(1612) 중추 과객 전식

壬子 中秋 過客 全湜

185) 전식: 조선전기 문신이다. 정경세, 이준 등과 산수를 유력하여, '상사의 삼로'로 불렸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적을 방어하였다. 1642년(인조 20) 중추부지사 겸 경연동지사, 춘추관동지사에 이어 대사헌에 보직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86) 죽각(竹閣): 영천 신녕(新寧)에 있던 정자이다. 지금은 환벽정(環碧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본래 그 자리에는 1516년(중종11) 이고(李考)가 세운 비벽정(斐碧亭)이 있었는데, 비벽정이 황폐해지자 1552년(명종7) 신녕 현감이 된 황준량(黃準良)이 그 자리에 죽각(竹閣)을 세웠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죽각이 소실되자 1611년(광해군3) 현감 송이창(宋爾昌)이 정자를 중건하고는 환벽정으로 고쳐 불렀다.

187) 『사서선생문집沙西先生文集』에 「次新寧竹閣韻 謝主倅宋福如 爾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시가 있어서 송이창이 경상도 영천의 수령을 할 때 지은 시에 차운한 시임을 알 수 있다.



字可晦 號稚川 海平人 斗壽子 宣廟戊子文科 官至領相 諡文翼

자는 가晦(可晦)이고, 호는 치천(稚川)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윤두수(尹斗壽)의 아들이다. 선조 무자년(1588)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영의정을 지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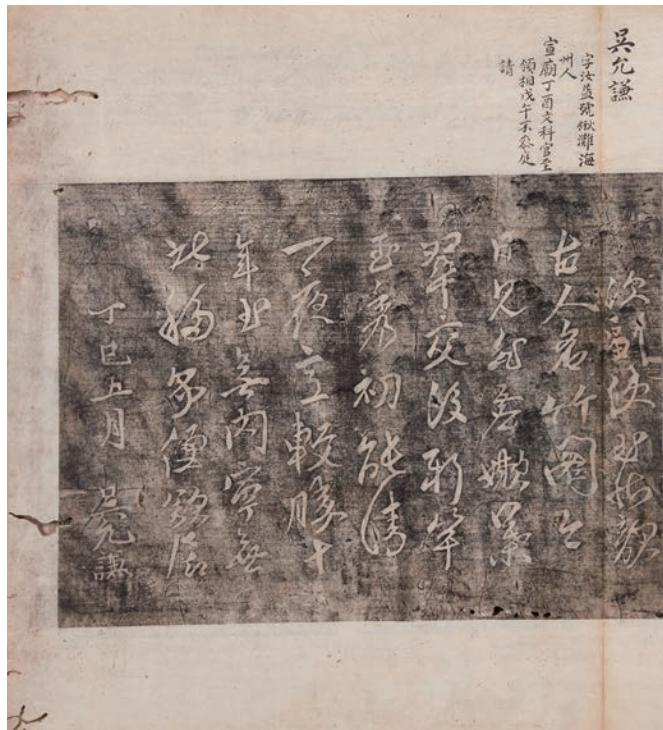
서객의 뛰어남을 일찍이 들었으니
우뚝한 난간을 냇가에 세웠네
태수는 구상하는 날이오
선생은 붓을 휘두르셨네
흰머리에 더욱 옛날이 그림고
푸른 대나무에 시가 가득하네
이미 평생의 잠이 넉넉하니
애오라지 하루 밤 거하겠네

夙聞西客勝
危檻架溪虛
太守構思日
先生落筆初
白頭偏感舊
青竹滿題書
已足平生睡
聊成一夜居

신해(1611) 계하 치천거사

辛亥季夏稚川居士

¹⁸⁸⁾ 윤방: 광해군, 인조대 문신으로, 1618년(광해군 10) 인목대비의 폐모정청이 일어나자 사직했다가 인조반정으로 예조판서에 등용되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강화에 호종했으며, 병자호란 때는 묘사제조로서 신주를 모셨다.



字汝益 號楸灘 海州人 宣廟丁酉文科 官至領相 不參庭請

자는 여익(汝益)이고 호는 추탄(楸灘)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선조 정유년(1597)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영의정을 지냈다. 무오년(1618)의 정청에 불참하였다.

부사의 서첩의 시에 차운하다

次副使書帖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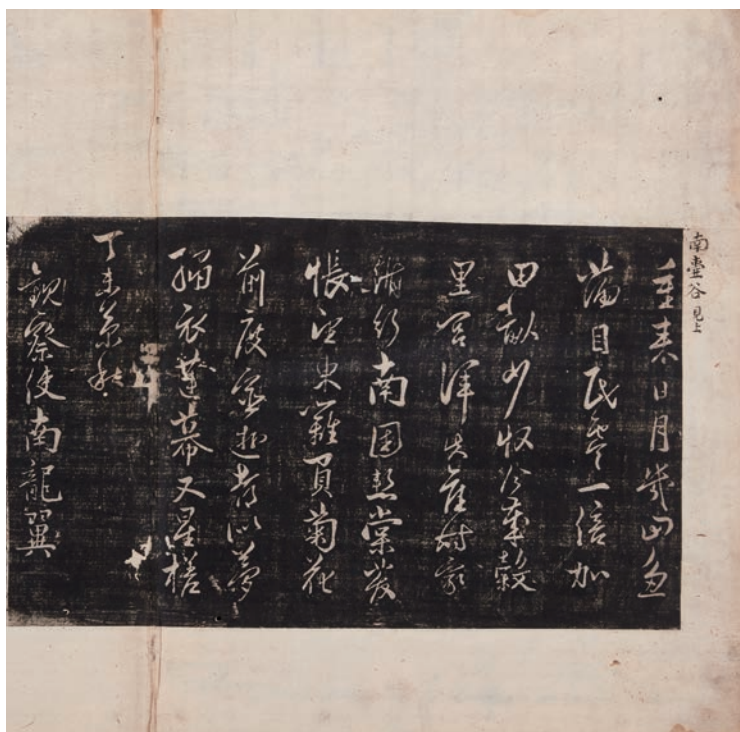
옛사람이 죽각이라 이름 지은 것
오늘 보니 헛말이 아니네
고운 잎은 파랗게 어우러지고
갓 돋은 새줄기는 옥처럼 뺄어나네
하룻밤 숙된 생각 맑게 해 주니
십 년 글 읽음보다 오히려 낫네
고기 없을지언정 어찌 차군(此君)이 없으랴
집을 옮겨 여기서 살고 싶어라

古人名竹閣
今日見非虛
嫩葉翠交後
新竿玉秀初
能清一夜意
較勝十年書
無肉寧無此
移家便欲居

정사년(1617) 5월 오윤겸

丁巳五月 吳允謙

189) 오윤겸: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광해군 때 호조참의, 우부승지 등을 역임하고 선현들의 문묘종사와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여 탄핵을 받았다. 중추부동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인조 때 형조와 예조판서, 우의정 등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이 시는 신녕의 죽각에 차운한 시이다. 죽각은 영천 신녕(新寧)에 있던 정자이다. 지금은 환벽정(環碧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본래 그 자리에는 1516년(중종11) 이고(李考)가 세운 비벽정(斐碧亭)이 있었는데, 비벽정이 황폐해지자 1552년(명종7) 신녕 현감이 된 황준량(黃準良)이 그 자리에 죽각(竹閣)을 세웠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죽각이 소실되자 1611년(광해군3) 현감 송이창(宋爾昌)이 정자를 중건하고는 환벽정으로 고쳐 불렀다.



南壺谷 見上

남호곡[남용익] 앞에서 보인다.

다시 옴에 세월은 얼마나 많이 지났나
 눈에 가득한 백성 고난 더욱 심해졌네
 밭에서 금년 곡식 조금 걷히니
 마을의 옛 집들 모두 떠났네
 남쪽 지역 다녀보니 선정 못해 부끄럽고¹⁹¹⁾
 창연히 본 동쪽 울타리 국화도 저버렸네
 지난 날 벼슬길 모두 꿈 같으니
 수의(繡衣), 군막에서의 모임, 또 사신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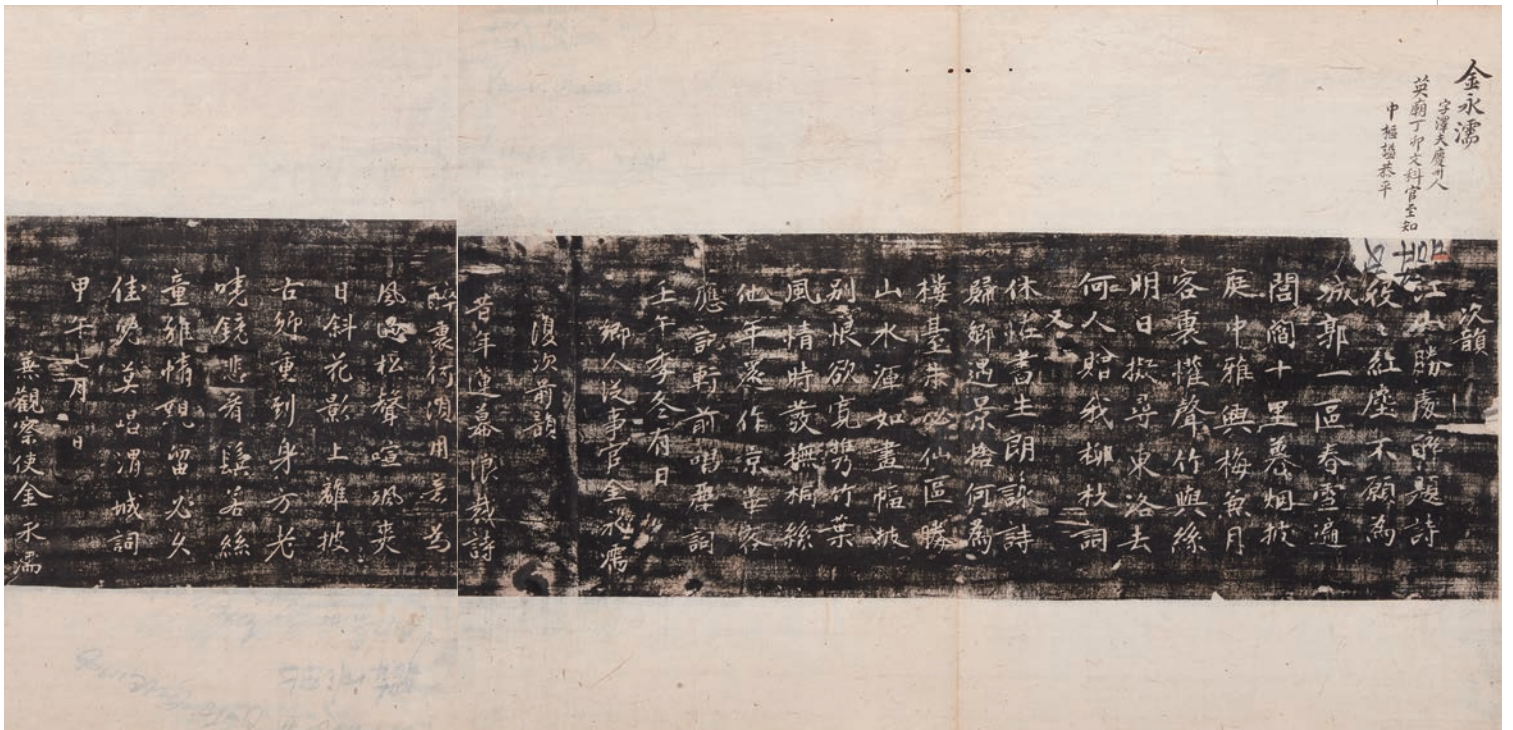
重來日月幾回多
 滿目民虞一陪加
 田畝少收今歲穀
 里閭渾失舊時家
 循行南國慙棠茂
 悵望東籬負菊花
 前度宦遊都似夢
 繡衣蓮幕又星槎

정미년(1667) 국추 관찰사 남용익

丁未 菊秋 觀察使 南龍翼

190) 남용익: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예조판서,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기사환국 이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191) 당발(棠茂): 선정을 베풀었던 주나라 소공(召公)이 머물러 쉬었다는 감당(甘棠)나무를 가리킨다. 『시경』 「소남(召南) 감당」에 “무성히 자란 감당나무, 자르거나 베지 말라. 우리 소백께서 쉬셨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剪勿伐 召伯所茇)”라는 말이 나온다.



字澤夫 慶州人 英廟丁卯 文科 官至知中樞 諡(恭平)

자는 택부(澤夫),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세종 정묘년(1447)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지중추(知中樞)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공평이다].

차운하다

次

강산 좋은 곳에 술 취해 시를 쓰니
분주한 세상살이 하고 싶지 않아라.
성곽 한쪽에는 봄눈이 날리고
마을 십 리에는 저녁 연기 흩어진다.
뜰 안 우아한 흥취는 매화와 달 덕이요
나그네 길 즐거운 소리는 피리와 거문고 덕이라.
내일 동쪽 낙동강 찾아 가리니
어느 누가 나에게 류지사를 줄까나.

江山勝處醉題詩
役役紅塵不願爲
城郭一區春雪遍
閭閻十里暮烟披
庭中雅興梅兼月
客裏懽聲竹與絲
明日擬尋東洛去
何人贈我柳枝詞

192) 김영유: 조선 전기 행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 수지중추부사(守知中樞府使),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할아버지는 판서 김자수(金自粹)이고, 아버지는 소윤(少尹) 김근(金根)이며, 어머니는 이순(李淳)의 딸이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집(金漸)의 손서(孫婿)이다.

193) 이 작품은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영남읍지嶺南邑誌』 등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경상감영에서 쓴 것으로 보인다.

또 차운하다

又

서생이 낭랑하게 시 읊조린다 괴이히 여기지 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다 만난 경치를 버려두고 어찌할꼬.
 누대는 반드시 신선의 아름다운 땅일 필요 없나니
 산과 물은 온통 그림을 펼쳐 놓은 듯.
 이별의 한 누그러뜨리려 대나무 잎 손에 잡고
 풍류로운 정 때때로 펼치느라 거문고 어루만진다.
 훗날 다시 서울 나그네 된다면
 응당 동헌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 부르던 일 기억하리라.

休恠書生朗詠詩
 歸鄉遇景捨何爲
 樓臺未必仙區勝
 山水渾如畫幅披
 別恨欲寬携竹葉
 風情時發撫桐絲
 他年還作京華客
 應記軒前唱麗詞

임오년(1462) 계동 고향 사람 종사관 김영유

壬午季冬有日 鄉人從事官金永濡

다시 앞의 시에 차운하다

復次前韻

옛날 동헌에서 부질없이 시를 지었나니
 취한 가운데 어찌 뜻을 운용했으리오.
 바람 스치자 소나무 소리 시원하게 나고
 해 비끼자 꽃 그림자 어지러이 드리운다.
 옛 고향 거듭 이르니 몸은 바야흐로 늙어서
 새벽 거울에서 실처럼 희어진 머리카락 슬프게 바라본다.
 아이들 아버지 정 필시 오래 머물리니
 어여쁜 아이들아 이별 노래 부르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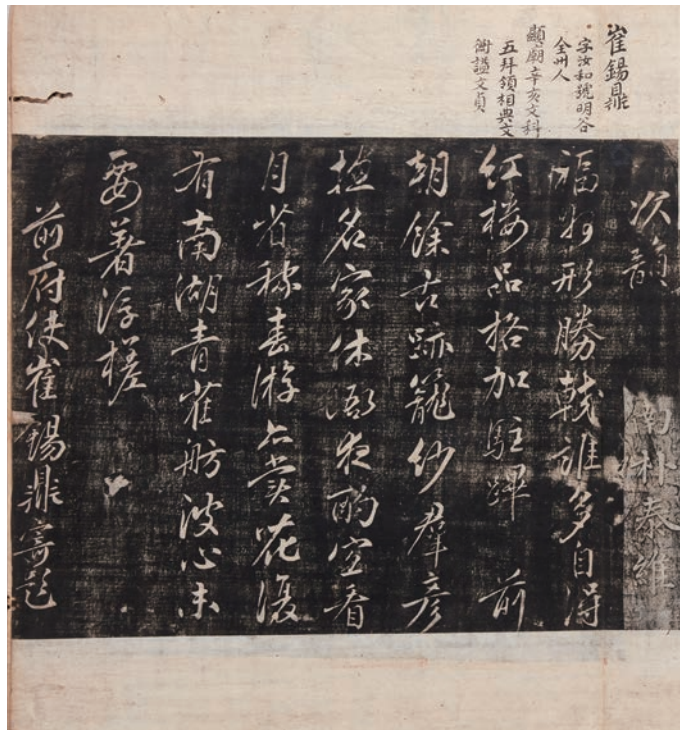
昔年蓮幕¹⁹⁴⁾浪裁詩
 醉裏何須用意爲
 風過松聲喧颯爽
 日斜花影上離披
 古鄉重到身方老
 曉鏡悲看髮若絲
 童稚情親留必久
 佳兒莫唱渭城詞¹⁹⁵⁾

갑오년(1474) 7월 일 겸관찰사 김영유

甲午七月 日 兼觀察使 金永濡

194) 연막(蓮幕): 관리가 거처하는 막부(幕府). 여기서는 동헌을 말한다.

195) 위성사(渭城詞): 당나라 왕유(王維)가 지은 송별의 시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를 말한다.



字汝和 號明谷 全州人 顯廟辛亥文科 五拜領相 典文衡 謚文貞

자는 여화(汝和)이며 호는 명곡(明谷)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현종 신해년(1671)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5차례나 영의정을 지냈다. 문형을 맡았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안동의 뛰어난 경치 얼마나 많은지
절로 흥루가 되어 품격을 더했네
전조의 대가(大駕)가 머문 옛자취 남았으니¹⁹⁸⁾
못선비의 농사¹⁹⁹⁾ 모두 이름난 분이네
정사 쉬고 보기 좋은 달밤에 술 마시며
봄에 농사일 살피러 가니 역시 꽃구경이네
다시 남쪽 호수에 청작방²⁰⁰⁾ 띄우니
물결은 뗏목을 띄울 필요 없으리

福州形勝較誰多
自得紅樓品格加
駐蹕前朝餘古迹
籠紗群彥摠名家
休衙夜酌宜看月
省稼春游亦賞花
復有南湖青雀舫
波心未要着浮槎

전 부사 최석정이 지어 부치다.

前府使崔錫鼎題

196) 최석정: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인조대 재상 최명길의 손자이다. 숙종대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국조보감』의 속편과 『여지승람』 증보 편찬을 지도했다. 1701년(숙종 27) 영의정으로 장희빈의 처형을 반대하다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소론(少論)의 영수로 많은 파란을 겪으면서도 8번이나 영의정을 지냈고, 당시 배척받던 양명학을 발전시켰다.

197) 본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안동의 영호루에 최석정이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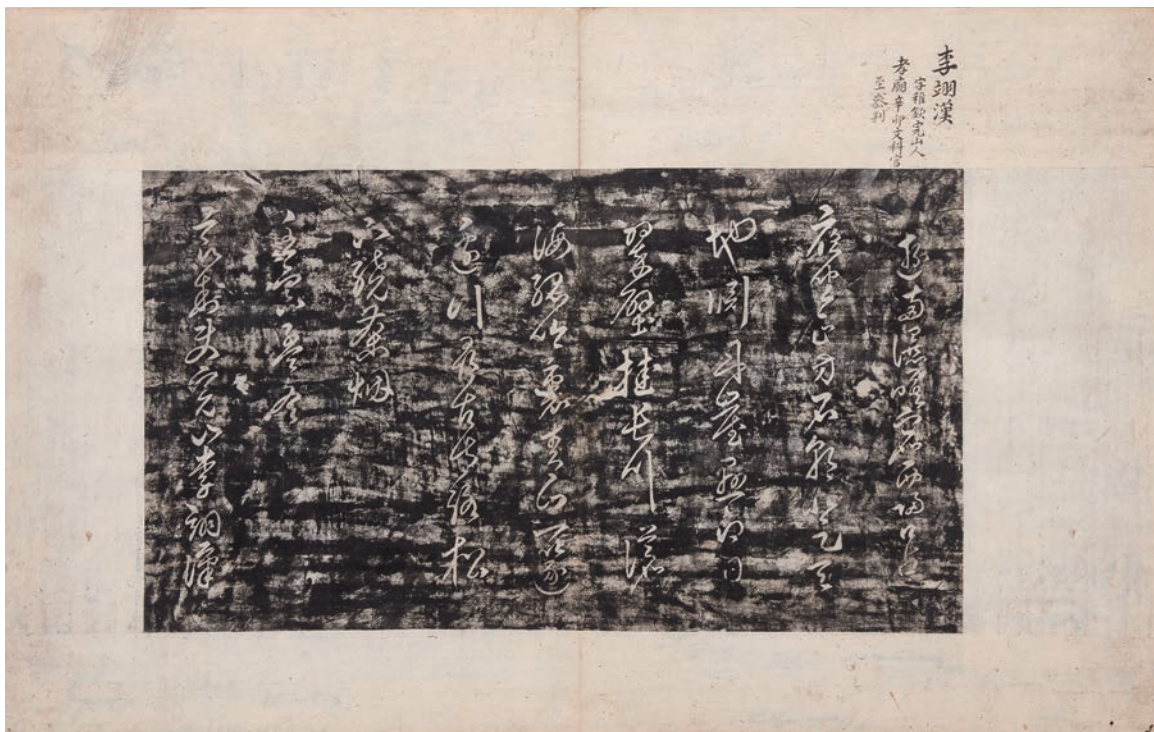
198)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 안동에 왔을 때 영호루에 들러 현판을 쓴 것을 말한다.

199) 농사(籠紗): 귀인(貴人)과 명사(名士)가 지어서 벽에 걸어 놓은 시문을 먼지가 묻지 않도록 푸른 김으로 감싸서 보호하는 ‘벽사롱(碧紗籠)’을 말한다.

200) 청작방(靑雀舫)은 뱃머리에 푸른색의 새를 그려 넣은 배로, 화려하게 꾸민 놀잇배를 말한다.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전라도



字稚欽 完山人 孝廟辛卯文科 官至參判

자가 치흠(稚欽)이고 본관이 완산(完山)이다. 효종 신묘년(1651)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남쪽 폭포를 유람하고 저녁에 서귀포에서 묵으며 바로 짓다

遊南瀑暮宿西歸口占

밤에 네모난 바위에 앉았다가
아침에 천지연폭포에 올랐네
붉은 벼랑에 태양이 걸려 있고
푸른 절벽에 폭포가 걸려 있네
푸른 바다에서 외롭게 시를 읊고
푸른 산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오네
오래된 사찰을 찾아가니
소나무 아래에 차 연기가 감도네

夜坐正方石
朝登天地淵
丹崖懸白日
翠壁挂長川
滄海孤吟裏
青山一簫邊
行尋古寺路
松下繞茶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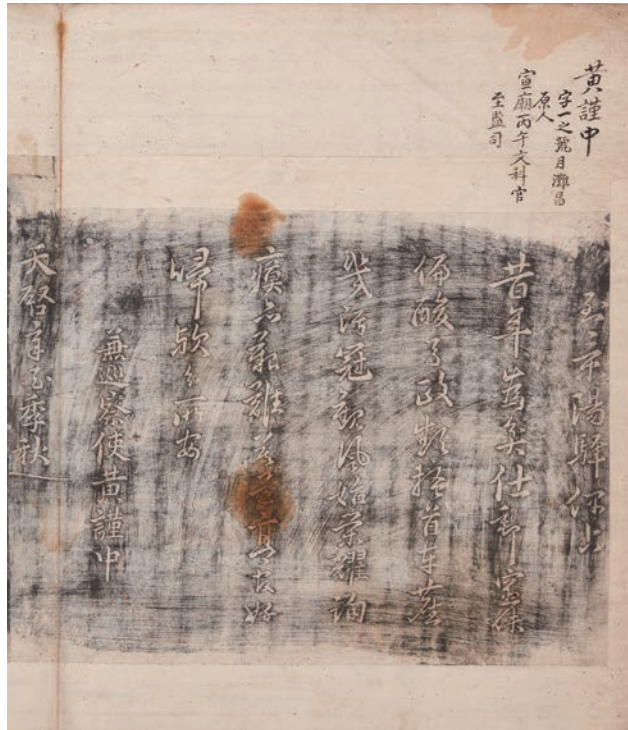
임인년(1662) 맹하 절제사(節制使) 완산(完山) 이익한

壬寅孟夏 節制使 完山 李翊漢

1) 이익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언관으로서 조정의 관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고, 장령으로 있을 때는 재능이 있는 인물은 신분을 따지지 말고 발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익한이 절제사(節制使)로 나갔을 때, 1662년(현종 3) 4월에 제주 서귀포(西歸浦) 서귀소(西歸所)에서 지은 시이다. 문집 『팔오헌집 八吾軒集』에 제목이 「西歸所次壁上韻」으로 되어있다.

2 황근중(黃謹中, 1560~1633)²⁾

광산(光山) 경양역(景陽驛)(청구제영 제5첩)



字一之 號月灘 昌原人 宣廟丙午文科 官至監司

자가 일지(一之)이고 호는 월탄(月灘)이며 본관이 창원(昌原)이다. 선조 병오년(1606)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감사를 지냈다.

경양역(景陽驛)에 도착하여 우연히 짓다³⁾

到景陽驛偶占

왕년에는 가난 때문에 벼슬을 하였는데
찰방직 맡아 사리에 어두워 특히 쓰라렸네
업무에 서툴러 자주 머리를 긁적이고
수레 먼지 얼마나 관을 더럽혔던가
순찰사가 된 처음엔 영광이었는데
백성들 고통 살핌은 역시나 어렵네
높은 관직 좋다고 말하지 말고
분수에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야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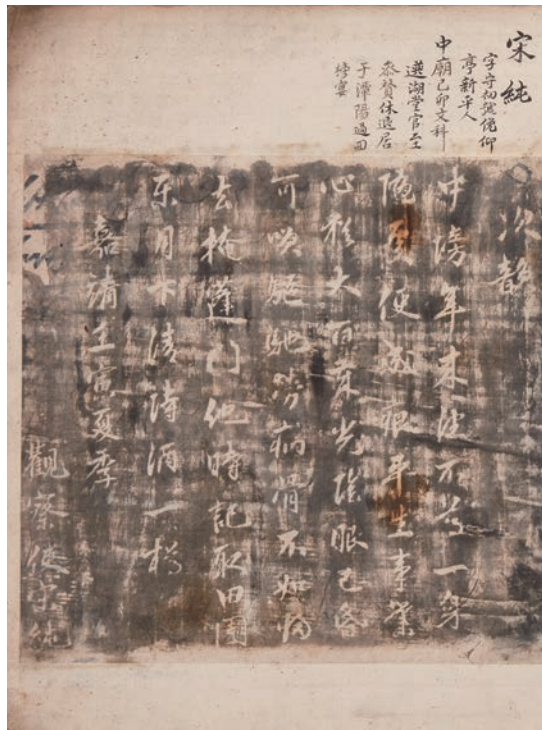
昔年爲貧仕
郵宦休偏酸
有政頻搔首
車塵幾迂冠
觀風始榮耀
詢瘼亦艱難
莫道高官好
歸歟分所安

겸순찰사 황근중 천계 신유년(1621) 계추

兼巡察使 黃謹中 天啓 辛酉 季秋

2) 황근중: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1606년(선조 39)에 증광시(增廣試)에서 합격하고, 동부승지와 좌부승지를 거쳐 전라도관찰사를 지냈다.

3) 황근중은 경양도찰방(景陽道察訪)을 지냈는데 나중에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字守初 號俛仰亭 新平人 中廟乙卯文科 選湖堂 官至參贊 休退居于潭陽 過回榜宴

자는 수초(守初)이고 호는 면앙정(俛仰亭)이며 본관이 신평(新平)이다. 중종 기묘년(151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참찬을 지냈으며, 관직을 그만두고 담양에서 살았다. 회방연(回榜宴)을 지냈다.

차운하다

次韻

급제하고 근래엔 바램이 높지 않아
한 몸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네
평생 사업에 마음은 여전히 크지만
인생 백 년의 세월에 눈은 이미 어두워졌네
병든 몸으로 애써 치달림이 우스우니
고향으로 돌아가 문닫고 있는 것만 못하네
훗날 전원의 즐거움을 기억하리니
달빛 아래 술 한잔 하며 맑은 시 짓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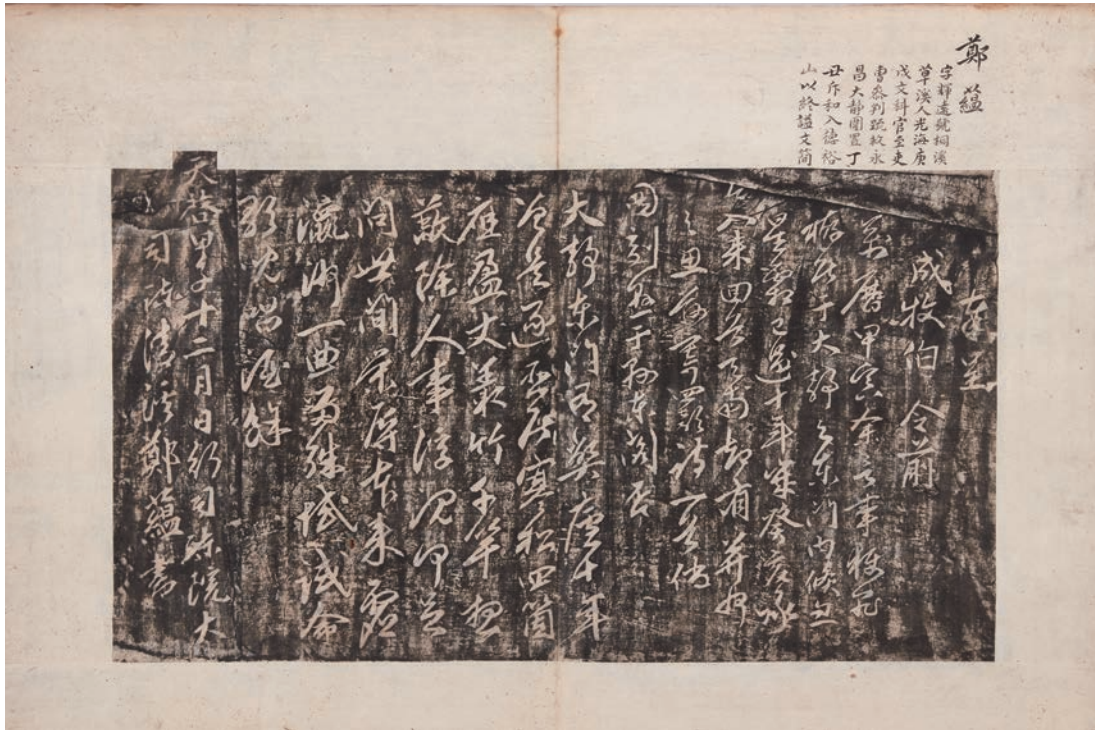
中傍年來望不尊
一身隨處便成痕
平生事業心猶大
百歲光陰眼欲昏
可笑驅馳勞病骨
不如歸去掩蓬門
他時記取田園樂
月下清詩酒一樽

가정 임인년(1542) 하계
관찰사 송순

嘉靖 壬人 夏季
觀察使 宋純

4) 송순: 조선 중기문신이다. 구파의 사림으로 이황 등 신진 사류와 대립했다. 대사헌 등을 거쳐 우참찬에 이르러 기로소에 들어갔다가 치사했다. 강호가도의 선구자로 시조에 뛰어났다.

5) 송순이 곡성 동헌에 들러서 차운한 2수의 시 가운데 하나이다. 『면앙집俛仰集』에 「次谷城東軒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輝遠 號桐溪 草溪人 光海庚戌文科 官至吏曹參判 疎求永昌 大靜園置 丁丑斥和 入德裕山 以終 謚文簡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동계(桐溪)이며,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광해군 경술년(161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이조 참관을 지냈다. 상소를 하여 영창대군을 구하려다가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다. 정축년(1637) 척화를 주장하였고, 덕유산에 들어가서 생을 마쳤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성 목백의 영전에 봉정하다⁷⁾

奉呈成牧伯令前

萬曆 甲寅 余言事獲罪 禍居于大靜之東門內 倏忽星霜已過十年 歲癸亥承召入來 回首天南 却有并洲之思 茲寄四韻詩一首 倘圖刻懸于縣東閣否

만력 갑인년(1614)에 내가 언사(言事)로 죄를 얻어서 대정현의 동문 안쪽에 귀양가서 살았다. 덧없는 세월이 흘러 이미 10년이 지나 계해년(1623)에 임금의 부름을 받아 올라오게 되었다. 고개를 돌려 남쪽을 보니 문득 고향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4운시 한 수를 보내니 혹 현의 동각에 새겨서 걸어 두도록 할런가.

6) 정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며,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저서에 『덕변록德辨錄』, 『동계집東溪集』 등이 있다.

7) 제주목사인 성안의(成安義)에게 보낸 시이다. 제주도 대정현 동각에 걸려 있던 시이다.

대정성 동문에 낡은 집 한 채
 십 년 동안 귀양 온 신하가 살았네
 네 그루 푸른 소나무 한 발은 자랐겠고
 뽕뽕이 자란 대나무들 집을 덮었겠네
 세상 일 부침은 물어 무엇하리오
 인간의 영욕도 본래 허무하네
 특별히 영주 지역에 시 한 수를 남기니
 창기에게 명하여 권주가도 부르게 해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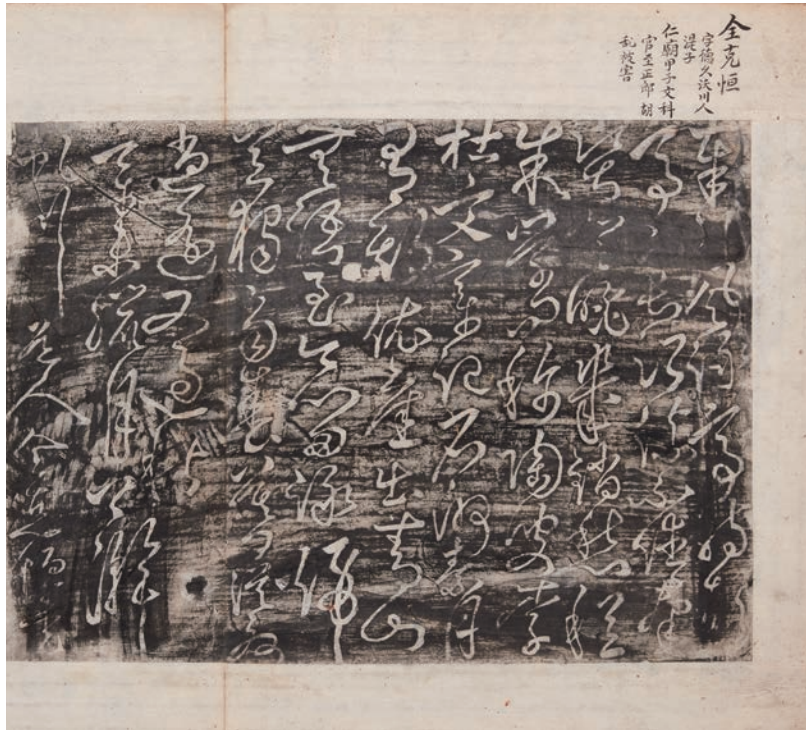
大靜東門有弊廬
 十年曾是逐臣居
 靑松四箇應盈丈
 叢竹千竿想蔽除
 世事浮沈何足問
 人間榮辱本來虛
 瀛洲一曲留殊域
 試命歌兒唱酒餘

천계 갑자년(1624) 12월 일 행사간원 대사간 청계 정은 쓰다

天啓 甲子 十二月日 行司諫院大司諫 淸溪 鄭蘊

5 전극항(全克恒, 1590~1636)⁸⁾

광주(光州) 풍영정(風詠亭)⁹⁾(청구제영 제5첩)



字德久 沃川人 混子 仁廟甲子文科 官至正郎 胡亂被害

자는 덕구(德久)이며 본관은 옥천(沃川)이다. 전식(全湜)의 아들이며, 인조 갑자년(162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정랑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때 피살당하였다.

풍영정 시에 차운하여 짓다

奉和風詠亭詩韻

풍영정 아래 긴강 도도히 흐르는데
 못 현자 올라 사방 보니 어찌 시름을 삭일까
 정주와 같은 학문은 퇴계선생을 꼽고
 이백·두보와 같은 문장은 석주(石洲)를 기억하네
 둥근달은 때 맞추어 변함없이 뜨는데
 청산은 말없이 그대로 있네
 시 읊고 돌아감이 어찌 늦봄뿐이겠는가
 여름부터 소요하고 또 가을을 지나왔네

亭下長江流不休
 群賢登眺幾銷愁
 程朱學問稱陶叟
 李杜文章記石洲
 素月有期依舊出
 青山無語至今留
 詠歸豈獨當春暮
 從夏逍遙又過秋

신미년(1631) 12월 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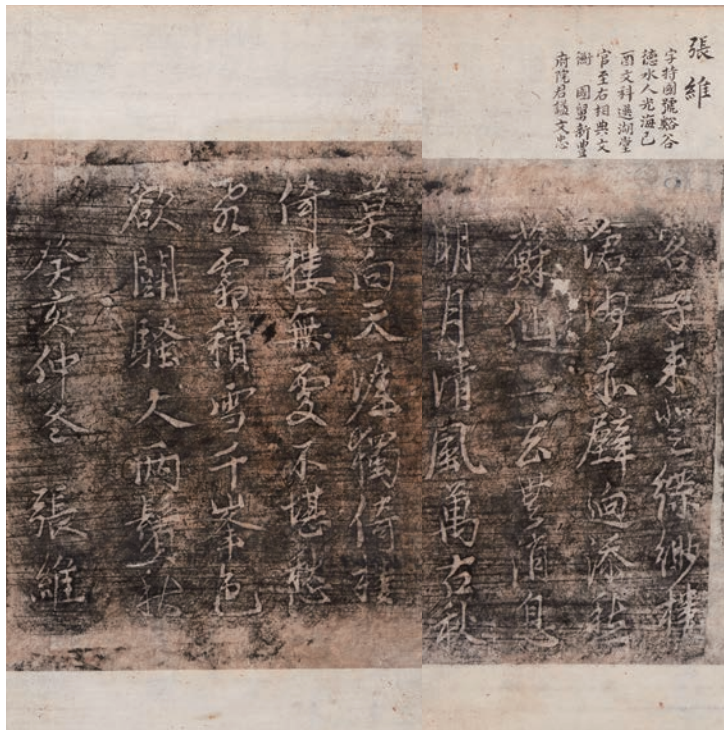
辛未臘月下澣

규천도인(虬川道人) 전극항 쓰다

虬川道人 全克恒書

⁸⁾ 전극항: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병자호란 때 예조정랑으로 왕명을 받고 서울을 지키다가 순절하였다.

⁹⁾ 풍영정(風詠亭):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선창산(仙滄山)과 극락강(極樂江)이 마주치는 강변의 대지 위에 있는 정자이다. 1560년(명종 15) 승문원 판고를 끝으로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김언거(金彦据)가 지었다. 김인후(金麟厚), 이황(李滉), 기대승(奇大升) 등 많은 이름난 문인들과 교우하며 지냈다. 풍영정에 남아 있는 이들의 제영현판(題詠懸板)은 이때의 흔적이다. 한석봉(韓石奉)이 쓴 <제일호산第一湖山>이라는 편액(扁額)도 걸려 있다.



字持國 號谿谷 德水人 光海己酉文科 選湖堂 官至右相 典文衡 國舅新豐府院君 諡文忠

자는 지국(持國)이고 호는 계곡(谿谷)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광해군 기유년(160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다. 관직은 우의정에 이르렀고, 문형(文衡)을 맡았다. 국구(國舅)로서 신평부원군이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나그네 발길 아스라한 누대에 오르니
창주 적벽은 아득한 생각 더해주네
소동파는 한번 가고 소식조차 없는데
밝은 달 맑은 바람은 만고의 가을일세

客子來登縹緲樓
滄洲赤壁迥添愁
蘇仙一去無消息
明月清風萬古秋

하늘 가 누대에 홀로 기대지 마소
기대는 누각마다 수심 견딜 수 없네
서리 날고 눈 쌓인 많은 봉우리 색이
시인의 허연 귀밑머리와 다투고자 하네

莫向天涯獨倚樓
倚樓無處不堪愁
飛霜積雪千峰色
欲鬪騷人兩鬢秋

계해년(1623) 중동 장유

癸亥仲冬張維

10) 장유: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양명학을 익혀 기일원론을 취하였으며, 수양의 방법으로 성리학의 거경이 아니라 정일을 내세웠다. 문장이 뛰어나 조선 중기의 사대가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규범에 대한 문학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1) 협선루(挾仙樓):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에 있던 누각으로, 현감 김부륜(金富倫)이 지었다. 김부륜이 지은 원운 시에 박태보, 장유, 정홍명 등이 차운한 시가 있다.



光海壬子文科 官至兵正 甲子适亂送凶

광해군 임자년(161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병조정랑을 지냈다. 갑자년(1624) 이괄의 난에 참여하였다.

옛일을 생각하며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¹²⁾

感舊次板上韻

남쪽으로 와 중선루¹³⁾에 몇 번이나 기대었던가
보이는 경물마다 묵은 시름 느끼었네
그 중 가장 좋기는 옛 못 위 협선루에
푸른 연꽃 떨어지고 국화피는 가을이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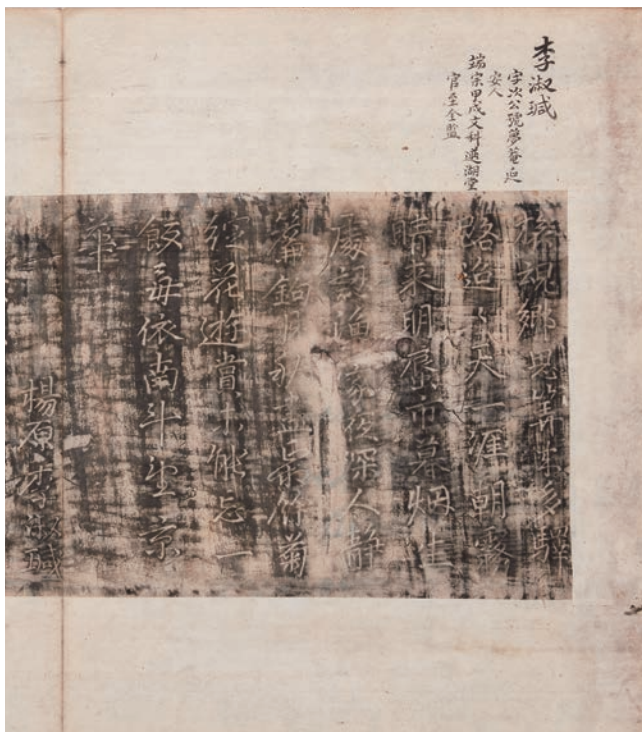
南來幾倚仲宣樓
觸物無非感舊愁
最是挾仙池上閣
碧荷零落菊花秋

경차관 병조정랑 겸사헌부지평 이용진

敬差官 兵曹正郎 兼司憲府持平 李用晉

12) 이용진이 경차관으로 와서 풍영정에서 차운한 시이다.

13) 중선루(仲宣樓) : 중선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왕찬(王粲)의 자인데, 그가 일찍이 동탁(董卓)의 난리를 피하여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의지해 있을 때, 강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가 고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진퇴 위구(進退危懼)의 심정을 서술하여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던 데서 온 말이다.



字次公 號夢菴 延安人 端宗甲戌文科 選湖堂 官至全監

자는 차공(次公)이며 호는 몽암(夢菴)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단종 갑술년(1454)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다. 관직은 전라감사에 이르렀다.

나그네의 고향 생각 세어 보면 적지 않은데,
 역로(驛路)는 멀고 멀리 하늘 가에 있네
 아침 안개 개니 신기루 나타나고,
 저녁 연기 나는 곳에 어부의 집이 있네
 밤 깊고 사람 소리 고요한데 발 견으니 달은 환하고
 가을 다 가고 서리 내렸는데 국화꽃 피었네
 놀며 구경하면서도 밥 한 그릇 먹을 동안도 잊지 못하며
 매양 남두성(南斗星)¹⁵⁾에 의지하여 서울을 바라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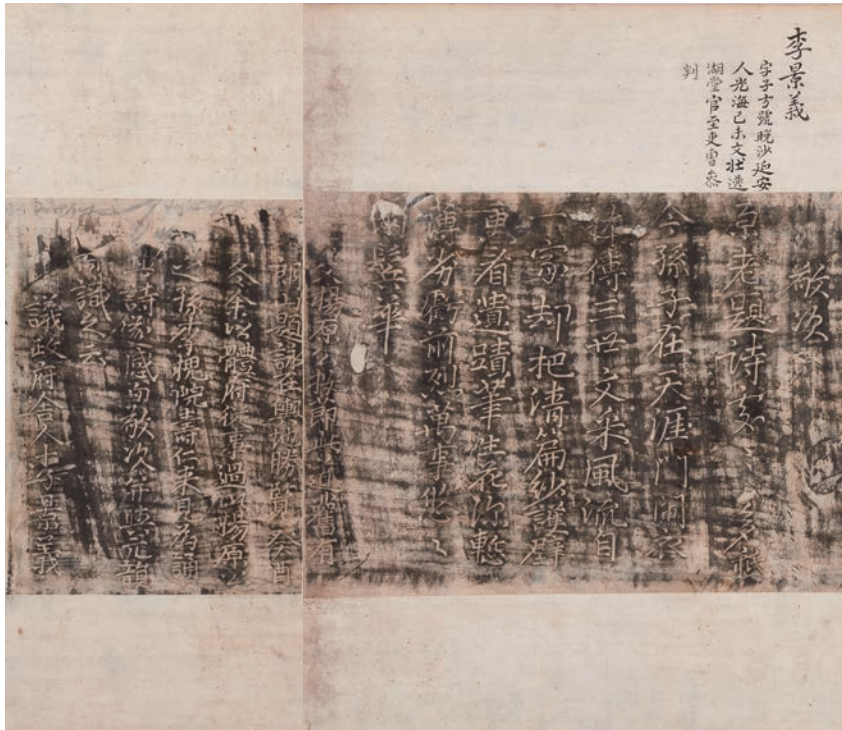
양원(楊原) 이숙감

旅魂鄉思算來多
 驛路迢迢天一涯
 朝霧晴來明蜃市
 暮煙生處認漁家
 夜深人靜簾鉤月
 秋盡霜餘菊綻花
 遊賞未能忘一飯
 每依南斗望京華

楊原 李淑城

14) 이숙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서거정 등과 함께 『신편동국통감新編東國通鑑』을 편찬하였고, 김종직을 대역부도라고 하여 극전(極典)으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15) 남두성(南斗星): 전통 별자리인 28수(宿) 가운데 8번째 별자리[宿].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28수가 방위에 따라 4가지 신령한 동물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고 여겼다. 두성(斗星)은 그중에서 북방 현무(玄武)에 속하는 일곱 별자리 중에서 첫째 별자리이다. 두성은 남두성(南斗星)이라고도 하며, 서양별자리로는 궁수자리의 일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字子方 號晚沙 延安人 光海己未文科壯 選湖堂 官至吏判

자는 자방(子方)이며 호는 만사(晚沙)이고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광해군 기미년(1619)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으며, 관직은 이조참판을 지냈다.

삼가 차운하다¹⁷⁾

敬次

원로가 지은 시 곳곳마다 많은데
지금 자손은 타향을 떠도네
집안의 의발은 삼세를 전하여
문장과 풍류 일가를 이루었네
벽 위에 맑은 시편 비단으로 감싸고
다시 유적의 필생화¹⁸⁾를 보네
못난 내 자신 이전의 근심 빠뜨림을 깊이 후회하니
만사에 유유하게 귀밑머리 희어지네

原老題詩處處多
祇今孫子在天涯
門闌衣鉢傳三世
文采風流自一家
却把清篇紗護壁
更看遺蹟筆生花
深慙薄劣虧前烈
萬事悠悠兩鬢華

16) 이경의: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624년(인조 1) 정부에서 호패법을 추진할 때 강원도 어사로 그 일을 살폈으며, 정묘호란 후에는 평안도에 암행어사로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다시 경상도에 암행어사로 나갔다.

17) 낭산에서 지은 것으로 보아서 대상지역이 영암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경의의 아버지인 이숙함이 영암 객관에 지은 시에 차운한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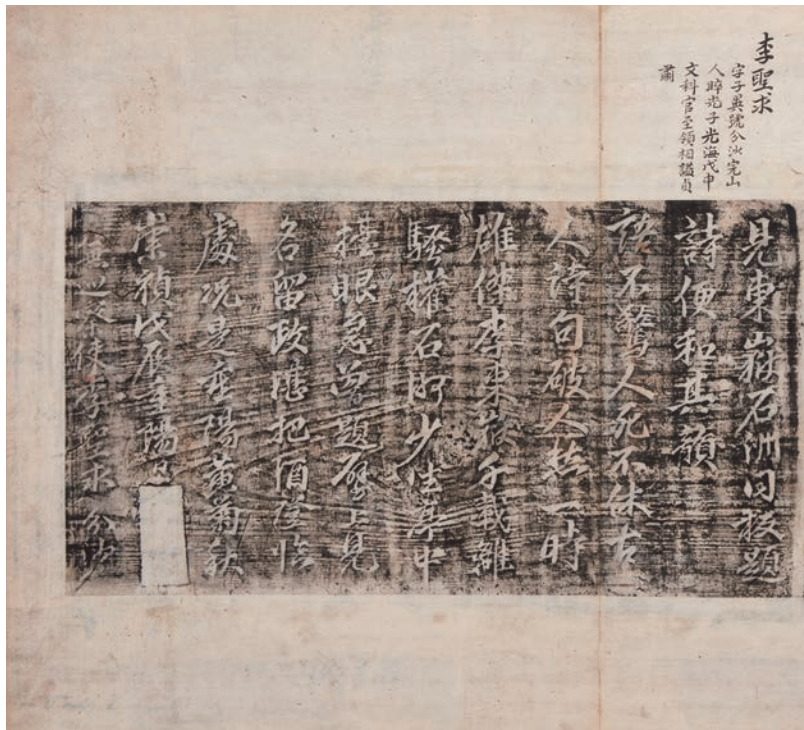
18) 필생화(筆生花): 이백(李白)이 소싯적에 꿈을 꾸니 붓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는 ‘몽필생화(夢筆生花)’의 고사가 있다. 『開元天寶遺事 夢筆頭生花』. 문재(文才)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뜻의 겹사이다.

父楊原公 按節此道 舊有朗山題詠在輿地勝覺 癸酉冬余以體府從事過此 楊原公之孫李槐院壽仁來見 爲誦其詩 遂感而敬次并餘元韻同識之云

아버지 양원공(楊原公)이 이 도에서 관찰사를 지냈던 일이 예전에 낭산(朗山)에서 지은 시가 있었는데 『여지승람』에 실려있다. 계유년(1633) 겨울 나는 체찰부의 종사관으로 이곳을 지났다. 양원공의 후손인 괴원(槐院:승문원) 이수인(李壽仁)이 찾아와서 그 시를 읊었기에 드디어 감동하여 삼가 차운하여 시를 짓고 함께 기록해 둔다.

의정부사인 이경의

議政府舍人 李景義



字子異 號分沙 完山人 暉光子 光海戊申文科 官至領相 諡貞肅

자는 자이(子異)이며 호는 분사(分沙)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이수광의 아들이며, 광해군 무신년(1608)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동악[이안눌]과 석주[권필]가 같은 현편에 쓴 시를 보고 화답하여 차운하다

見東嶽石洲同板題詩便和其韻

놀라운 시가 아니면 죽어도 못 그만둔다면²⁰⁾

고인의 시구가 시름을 깨뜨리네

한때의 웅걸 동악 이안눌

천 년 전 굴원과 같은 석주 권필

잠시 정자에 앉아서 눈을 들었다가

일찍이 벽에 시를 지어 이름을 남겼네

술병 들고 올라서 머물기 참으로 좋으니

하물며 중양절 국화 핀 때에랴

語不驚人死不休

古人詩句破人愁

一時雄傑李東嶽

千載離騷權石洲

少坐亭中擡眼急

曾題壁上見名留

政堪把酒登臨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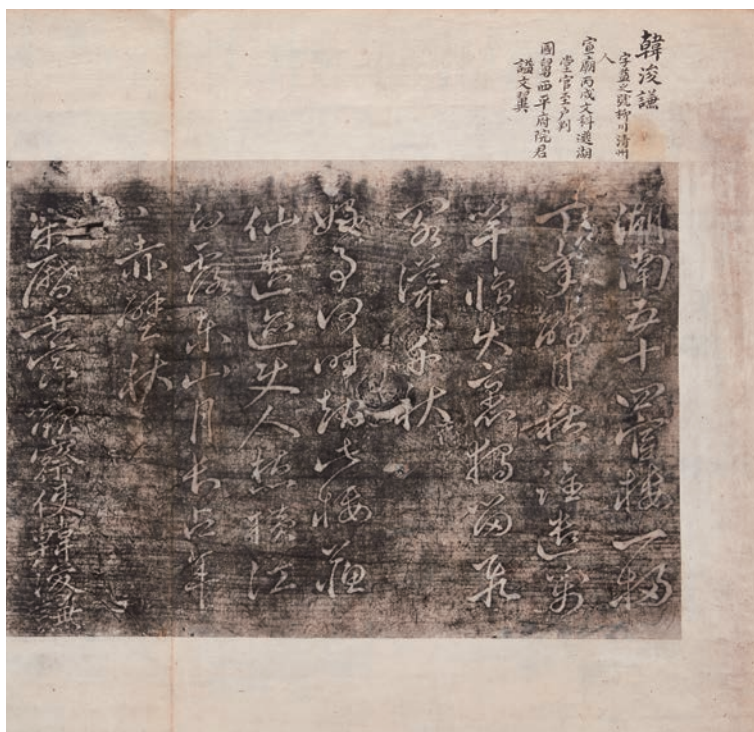
況是重陽黃菊秋

송정 무진년(1628) 겸순찰사 이성구 분사

崇禎 戊辰 重陽日 兼 巡察使 李聖求 分沙

19) 이성구: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인조반정 후 대사헌, 이조 형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했다. 병자호란 때 세자가 볼모로 선양에 갈 때 좌의정으로 수행했다. 동령부영사, 영의정에 올랐다.

20) 두보(杜甫)의 시에 “멋진 시구 탐닉하는 성벽이 있는지라, 깜짝 놀랄 말 못 되면 죽어도 쉬지 않네.[爲人性僻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라는 표현에서 온 시구이다.



字益之 號柳川 淸州人 宣廟丙戌文科 選湖堂 官至戶判 國舅西平府院君 諡文翼

자는 익지(益之)이며, 호는 유천(柳川)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선조 병술년(1586)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으며, 관직은 호조판서를 지냈다. 국구(國舅)로서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이었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동북 협선루에 차운하다²²⁾

次同福挾仙樓韻

호남에는 54개 관루가 있으니
젊을 시절 눈에 띄던 향수 일소하네
누가 만그루 대나무 화재에서 자라나게 했나
유독 높은 누각에 머물러 오래도록 솟아 있네

湖南五十四官樓
一掃丁年觸目愁
誰遣萬竿脩火裏
獨留飛閣聳千秋

호사가 어느 때 이 누각을 세웠던가
소동파의 유적은 수심을 자아내네
강물에 비껴내리는 흰이슬에 동산에 뜬 달
길이길이 적벽의 가을을 길게 접하네

好事何時起此樓
蘇仙遺迹使人愁
橫江白露²³⁾東山月
長占年年赤壁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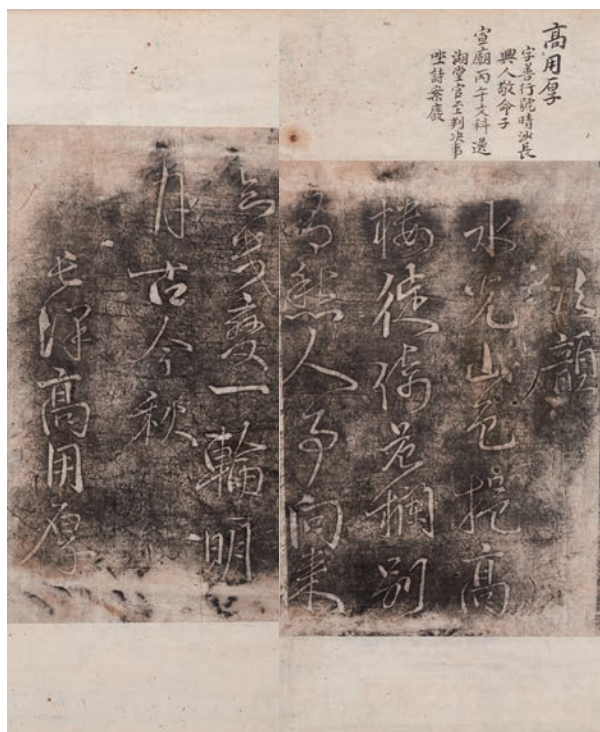
만력 임인년(1602) 관찰사 한준겸

萬曆 壬寅 觀察使 韓浚謙

21) 한준겸: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동부승지 때 중국 명(明)나라 도독을 도와 마초(馬草)와 병량보급에 힘썼다.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요청받은 유교철신 중의 한 사람으로,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연좌되어 충주에 귀양가서 여주에 이배(移配)되었다.

22) 이 제목은 『청구제영』에 없는 것을, 한준겸의 『유천유고柳川遺稿』에 실린 것을 참조하여 보완한 것이다.

23) 소식의 「전적벽부」에 “흰 이슬은 강물에 비껴 내리고 물빛은 하늘에 맞닿아 있다(白露橫江 水光接天)”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字善行 號晴沙 長興人 敬命子 宣廟丙午文科 選湖堂 官至判決事 坐時案廢

자는 선행(善行)이며 호는 청사(晴沙)이고,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고경명(高敬命)의 아들이며, 선조 병오년(1606)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으며, 관직은 장례원 판결사를 지냈다. 시안(詩案)에 연좌되어 폐출되었다.

차운하다²⁵⁾

次韻

물빛 산빛 높은 누각에 모이고
높은 누각 기대니 각별히 수심이 더하네
사람의 일 지난 날 얼마나 변했던가
둥근 밝은 달 예나 지금이나 비추네

水光山色挹高樓
徙倚危欄別有愁
人事向來知幾變
一輪明月古今秋

장진(長津) 고용후

長津 高用厚

24) 고용후: 광해군, 인조 때의 문신이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경명의 아들이다. 광해군 때 병조정랑이 되었으며, 사가독서하였다. 남원부사, 고성군수를 거쳐 판결사에 이르렀다. 저서로 『정기록正氣錄』, 『청사집晴沙集』 등이 있다.

25) 고용후가 동북의 협선루에서 자면서 지은 것이다. 『청사집』에 「宿同福挾仙樓 對月有感」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安仲 號黔澗 宣廟乙巳文科 官至司諫

자는 안중(安仲)이고 호는 검간(黔澗)이다. 선조 을사년(160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사간을 지냈다.

협선루의 벽위에 삼가 차운함

挾仙樓謹次壁上韻

적벽 동편에 푸른 누각 있으니
지나가는 이, 말 멈추고 수심을 거뒀네
가련하게 노쇠하고 병약함 때문에 오르지 못하니
임고정²⁷⁾의 임술년 가을을 저버리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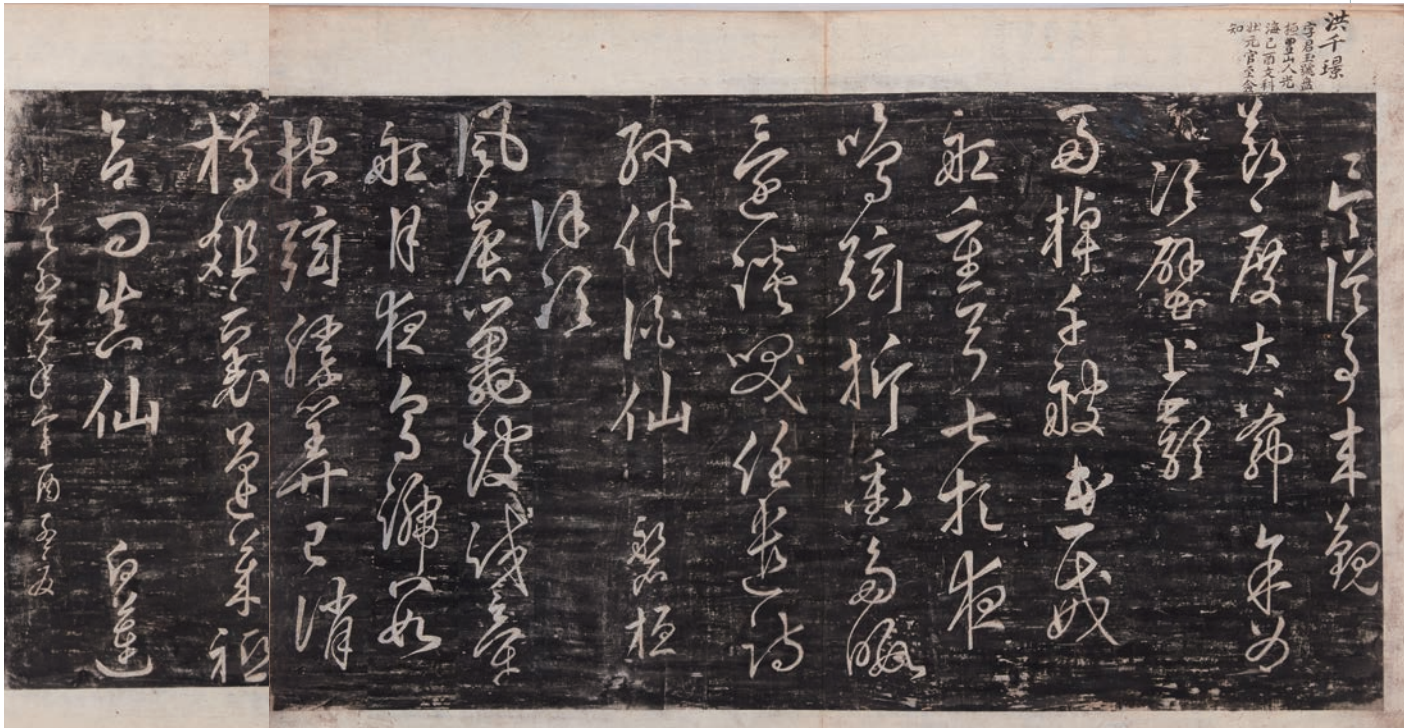
赤壁東邊有翠樓
行人駐馬豁窮愁
却憐衰病妨登陟
辜負臨臯壬戌秋

계해(1623) 양월 김제군수 조정

癸亥 陽月 金堤守 趙靖

26) 조정: 조선중기의 선비로 임진왜란에 아들과 의병으로 참전하였으며 전장을 기록한 『진사일록辰巳日錄』을 남겼다.

27) 임고정(臨臯亭): 소식이 일찍이 황주(黃州)에 있을 때 임고정에 우거하면서 동파(東坡)에 설당(雪堂)을 세웠다. 여기서는 협선정을 소식의 임고정에 비유한 것이다.



字君玉 號盤桓 豐山人 光海己酉文科壯 官至僉知

자는 군옥(君玉)이며 호는 반환(盤桓)이고,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광해군 기유년(1609)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관직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오종사관이 절도사 대야(大爺)를 뵈러 와서 내가 그를 위해 벽위에 차운함

吳從事來觀節度大爺 余爲次壁上韻

두 노의 천척 배에 계선이 이르고

兩棹千艘舳舻船

겹겹의 활과 칠찰³⁰⁾ 한 밤중에 시위를 울리네

重弓七札夜鳴弦

절충장군은 여가가 있어 도리어 담소하며

折衝多暇還談笑

시손이 주선과 짝하는 것은 그대로 두네

任遣詩孫伴酒仙

반환

盤桓

28) 홍천경: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임진왜란 때 군량의 수집·수송을 담당하고 정유재란 때에는 의병모집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나주교수 겸 제독관(羅州教授兼提督官), 중추부첨지사(中樞府僉知事)를 지냈다.

29) 태평정(太平亭): 전라도 해남의 우수영 성안에 있었던 누정이다. 전라수영이 1440년(세종 22) 전라남도 무안 당포에서 옮겨오고 성(城)의 망루처로 건축되었으므로 15세기 중반에 성과 동시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평정은 우수영 성 남쪽 돌출부에 만들어진 웅장하고 화려한 망루이자 연회 장소였다. 여러 기록에 등장하며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이전에 우후 이정충과 태평정에서 깊은 대화를 나눈 유서 깊은 곳이다.

30) 칠찰(七札): 활을 아주 잘 쏘는 것을 말한다. 칠찰은 일곱 겹으로 된 갑옷미늘을 말한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인 양유기(養由基)가 활을 잘 쏘기로 이름났는데, 100보 바깥에서 버들잎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일곱 겹의 갑옷미늘도 뚫었다고 한다.『戰國策 西周策』

삼가 차운하다
바람부는 새벽 북 울리며 배 물기를 시험하고
달밝은 밤 궁수의 활쏘기를 평가하네
승산은 이미 술자리에서 결정되었으니
봉래도가 다만 신선을 묻기에 적합하리

백련
일시는 천계 원년(1621) 신유 맹하

謹次
風晨鼙鼓試章船
月夜烏號數控弦
勝算已消樽俎裏
蓬萊祇合問眞仙

白蓮
時天啓元年 辛酉 孟夏



字公燮 號松川 濟州人 明廟壬子文科 選湖堂 官至監司

자는 공섭(公燮)이며 호는 송천(松川)이고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명종 임자년(1552)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으며, 관직은 감사를 지냈다.

제승헌

制勝軒³²⁾

장군이 누선을 타고 왜구를 잡으니
계책이 좋았으니 어찌 활을 쏘았으랴
해질녘 돌아올 때 툇소와 북소리 진동하니
천 겹의 해산에 못신선이 춤추네
송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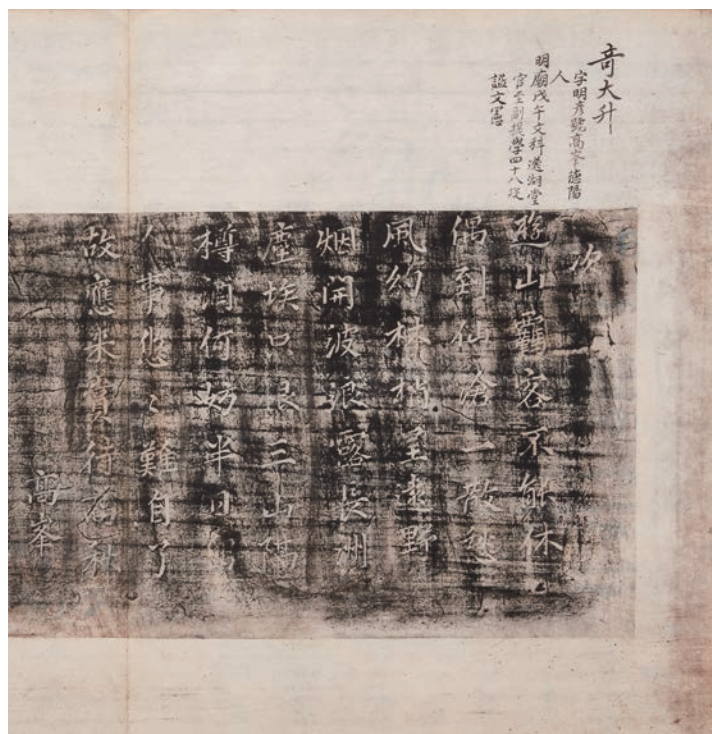
將軍括寇擁樓船
策勝何彈壯士弦
日暮歸來簫鼓震
海山千疊舞群仙
松川

이 때는 절도사 영공이 승리를 아뢰러 돌아옴에 있었다.

時節度郭令公 有眞尋之歸

31) 양응정: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검열, 공조좌랑, 수찬, 진주목사, 공조참판,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32) 전라우수영의 태평정(太平亭)을 말한다.



字明彦 號高峯 德陽人 明廟戊午文科 選湖堂 官至副提學 四十八歿 諡文憲

자는 명언(明彦)이며 호는 고봉(高峯)이고 본관은 덕양(德陽)이다. 명종 무오년(1558)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으며, 관직은 부제학을 지냈다. 48세에 죽었고,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차운하다³⁴⁾

次

산을 유람하는 온 나그네 쉬지 못하다가
우연히 선창산에 이르러 시름을 푸네
바람은 숲 끝에 불어 먼 들로 보내고
안개는 물결에 걷혀 긴 모래톱 드러나네
풍진 속에 삼신산 막혀 한스러울 뿐이니
동이 술에 한나절 머문들 어떠하리
사람의 일 유유해서 마치기 어려우니
응당 와서 늦가을 완상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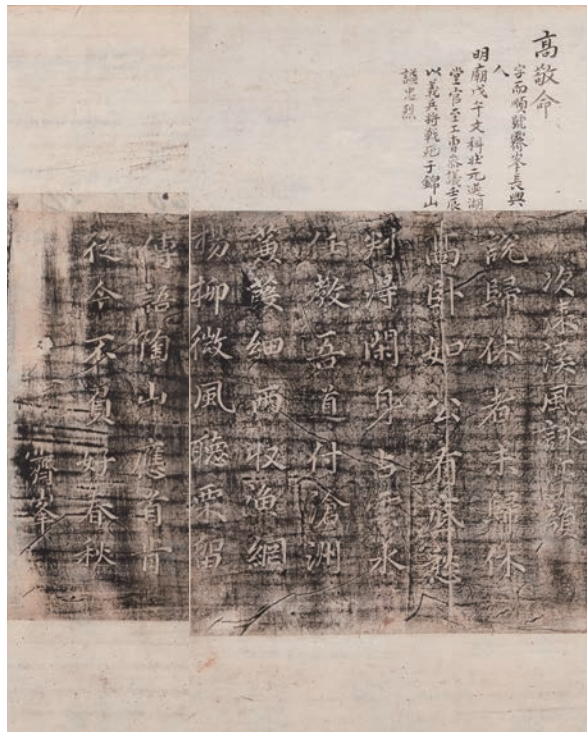
遊山羈客不能休
偶到仙滄一散愁
風約林梢呈遠野
煙開波浪露長洲
塵埃只恨三山隔
樽酒何妨半日留
人事悠悠難自了
故應來賞待高秋

고봉

高峯

33) 기대승: 요약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발췌하여 『주자문록朱子文錄』을 편찬하는 등 주자학에 정진하였다. 32세에 이황(李滉)의 제자가 되었다. 이황과 12년 동안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8년 동안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논쟁을 편 편지로 유명하다.

34) 『고봉속집高峯續集』에 「次風詠亭韻」으로 수록되어 있다. 풍영정은 김언거(金彦珣, ?~?)의 정자이다. 김언거는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계진(季珍), 호는 풍영(豐咏)이다. 1531년(중종 26) 식년시(式年試) 병과에 합격하여 사헌부 장령, 헌납, 금산 군수(錦山郡守), 연안 부사(延安府使) 등의 벼슬을 지냈다.



字而順 號霽峰 長興人 明廟戊午文科壯 選湖堂 官至工參義 壬辰以義兵長 戰死于錦山 諡忠烈

자는 이순(而順)이고 호는 제봉(霽峰)이며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명종 무오년(1558)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다. 관직은 공조참의를 지냈으며,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금산에서 전사하였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칠계³⁶⁾의 풍영정 시에 차운하다

次漆溪風詠亭韻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지 못하는데
세속의 뛰어난 그대 무슨 걱정 있겠으랴
한가롭게 수석 따라 왕래하면서
좋은 경치 마음대로 모두 구경하리
가랑비 내릴 때는 어망을 거두고
버드나무 그늘에서 꼬꼬리 노래 들을거야
도산에서 말 전하면 응당 수궁하리니
봄 가을의 좋은 시절 저버리지 않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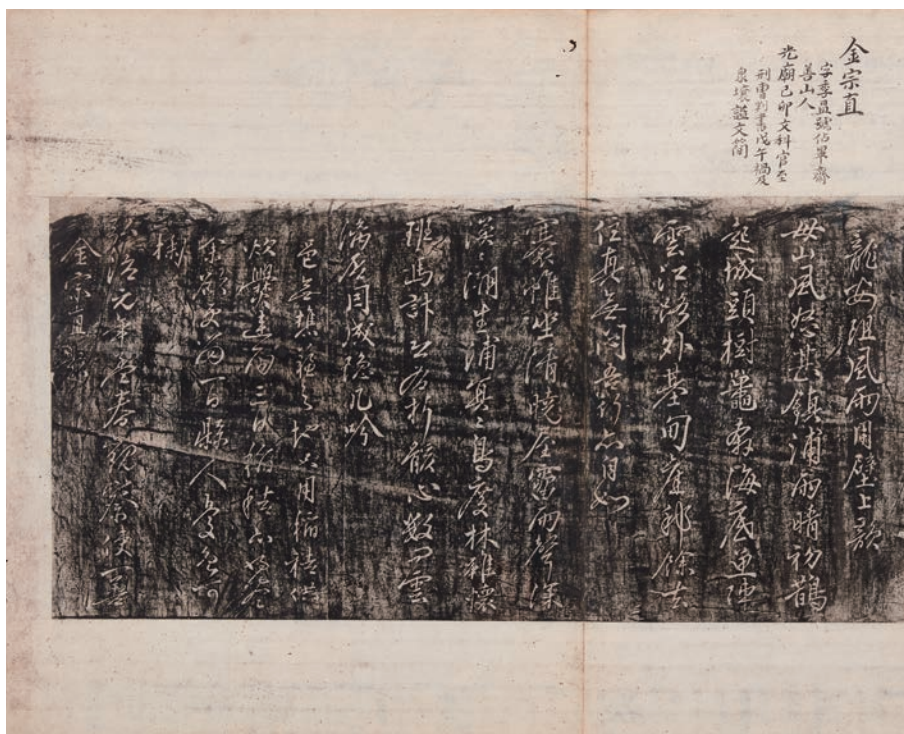
說歸休者未歸休
高臥如公有底愁
判得閑身占雲水
任教吾道付滄洲
蒹葭細雨收魚網
楊柳微風聽栗留
傳語陶山應首肯
從今不負好春秋

제봉

霽峰

35) 고경명: 선조대 문인이자 의병장이다. 임진왜란 때 금산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문집 『제봉집霽峰集』이 전한다.

36) 칠계(漆溪)는 풍영정의 주인인 김언거의 호이다.



字季昱 號佔畢齋 善山人 世廟己卯文科 官至刑判 戊午禍及泉壤 謚文簡

자는 계온(季昱)이고 호는 점필재(佔畢齋)이며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세조 기묘년(145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형조판서를 지냈다. 무오사화의 화가 죽은 이후까지 미쳤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용안에서 비바람에 막히어 벽상의 시에 차운하다³⁸⁾

龍安阻風雨 用壁上韻

모악산 바람이 대단히 노했으니
진포에 비가 막 개인 때이네
까치는 성 머리 나무에서 일어나고
악어는 바다 속의 고기를 쫓네
몽계구름은 강길 밖에 떠 있고
도성 터는 옛 나라 남은 것이네
가거나 머무름에 참으로 걱정 없으니
나의 행차 또한 절로 그러하네

母山風怒甚
鎭浦雨晴初
鵲起城頭樹
鼉奔海底魚
陣雲江路外
基甸舊邦餘
去住真無悶
吾行亦自如

37) 김종직: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자는 계온(季昱), 호는 점필재(佔畢齋)이다. 1459년(세조 5)에 문과에 급제하고, 형조 판서, 지중추부사 따위를 지냈다. 문장과 경술이 뛰어나 영남학파의 종조(宗祖)가 되었다. 그의 「조의제문」은 뒷날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었다. 저서에 『점필재집』, 『청구풍아』 따위가 있다.

38) 용안은 익산의 옛 이름이므로 김종직이 익산에서 지은 시이다. 김종직이 전라도관찰사로 순행하다가 익산에 들러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곳에 걸려 있던 현판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맑은 새벽에 휘장 걷고 앉았노니
 지붕 물받이에 빗소리 깊기도 하네
 조수는 아득한 포구에서 나오고
 새는 어두운 숲을 지나가네
 비록 돌아갈 계획은 품었으나
 해골로 불 땔 마음 가질까 염려로다
 구름이 엮어졌는가를 자주 물으며
 인하여 안석에 기대 시를 읊네

褰帷坐清曉
 屋霤雨聲深
 漠漠潮生浦
 冥冥鳥度林
 雖懷班馬計
 恐有析骸心
 數問雲漓否
 因成隱几吟

邑無樵蘇之地 只用稻秸供炊爨 連雨三日 稻秸亦將盡 余欲更留一日 縣人憂色可掬。

이 고을에는 땔나무 할 곳이 없어 다만 벼짚을 때서 밥을 지어 먹는데, 비가 3일을 연해서 내리자 벼짚 또한 다 되어 갔다. 그런데 내가 하루를 더 머무르려고 하니, 현인(縣人)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였다.

홍치 원년(1488) 모춘 관찰사 일선 김종직

弘治元年暮春 觀察使 一善金宗直



金壽恒 字久之 號文谷 安東人 尙憲孫 孝廟辛卯文科壯 選湖堂 官至領相 典文衡 諡文忠

자는 구지(久之)이고 호는 문곡(文谷)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김상헌의 손자이다. 효종 신묘년(1651)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다. 관직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문형(文衡)을 맡았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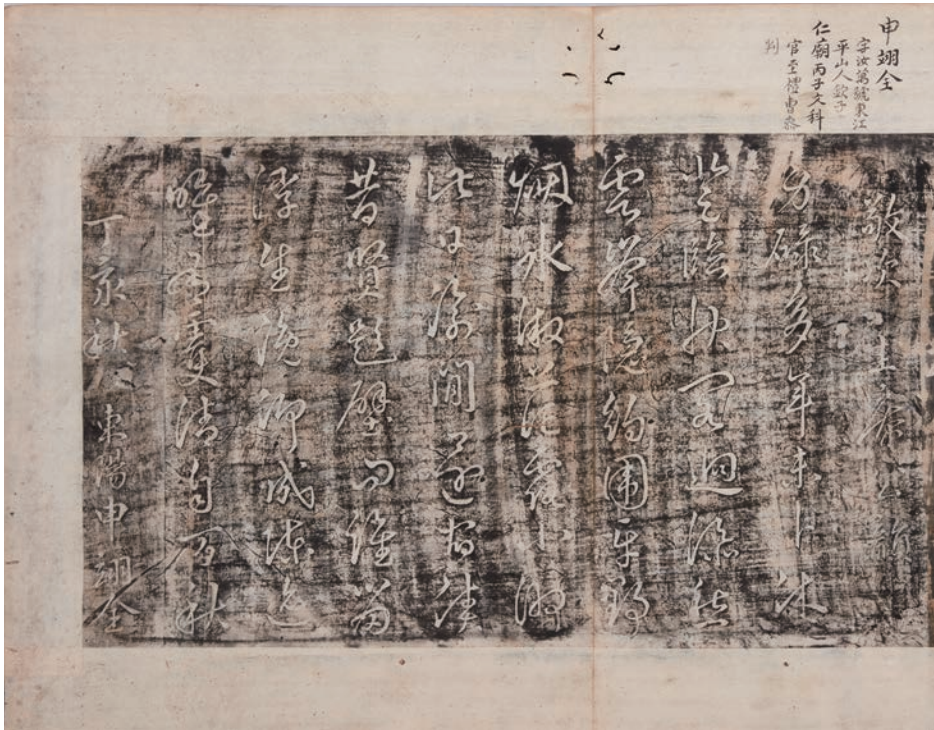
맑은 흥 피어나 병들고 게으른 몸 일으키니
 석문의 잔설에 시험 삼아 지팡이 짚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로 고산사에 곧장 올라
 절벽의 돌길로 구정봉에 나란히 임했네
 그늘진 구렁의 언 샘물에 가는 구멍 뚫렸고
 상방의 밝은 달에 드문 종소리 스치네
 천추에 호기로웠던 남악 오르길 뒤따랐는데
 술 취하자 긴 바람이 흥금 씻어 주네

清興悠然起病慵
 石門殘雪試飛筇
 危梯直躡孤山寺
 絕磴平臨九井峯
 陰壑凍泉穿細竇
 上方明月度疏鐘
 千秋豪氣追南嶽
 醉後長風更盪胸

위는 9월에 월출산을 유람한 것이다. 문곡이 쓰다.

右遊月出山于抄秋 文谷書

39) 김수항: 조선 중기의 문신. 효종·현종 때 여러 관직을 지내고, 제2차 예송이 일어나 남인이 주장한 기년설이 채택되자 벼슬을 내놓았다. 그 후 숙종 때 영의정이 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게 되자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문곡집文谷集』에 「宿道岬寺醉後書示鳩林諸人」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汝萬 號東江 平山人 欽子 仁廟丙子文科 官至禮判

자는 여만(汝萬)이고 호는 동강(東江)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신희의 아들이다. 인조 병자년(1636)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예조참판을 지냈다.

삼가 규암공의 시에 차운하다

敬次圭菴公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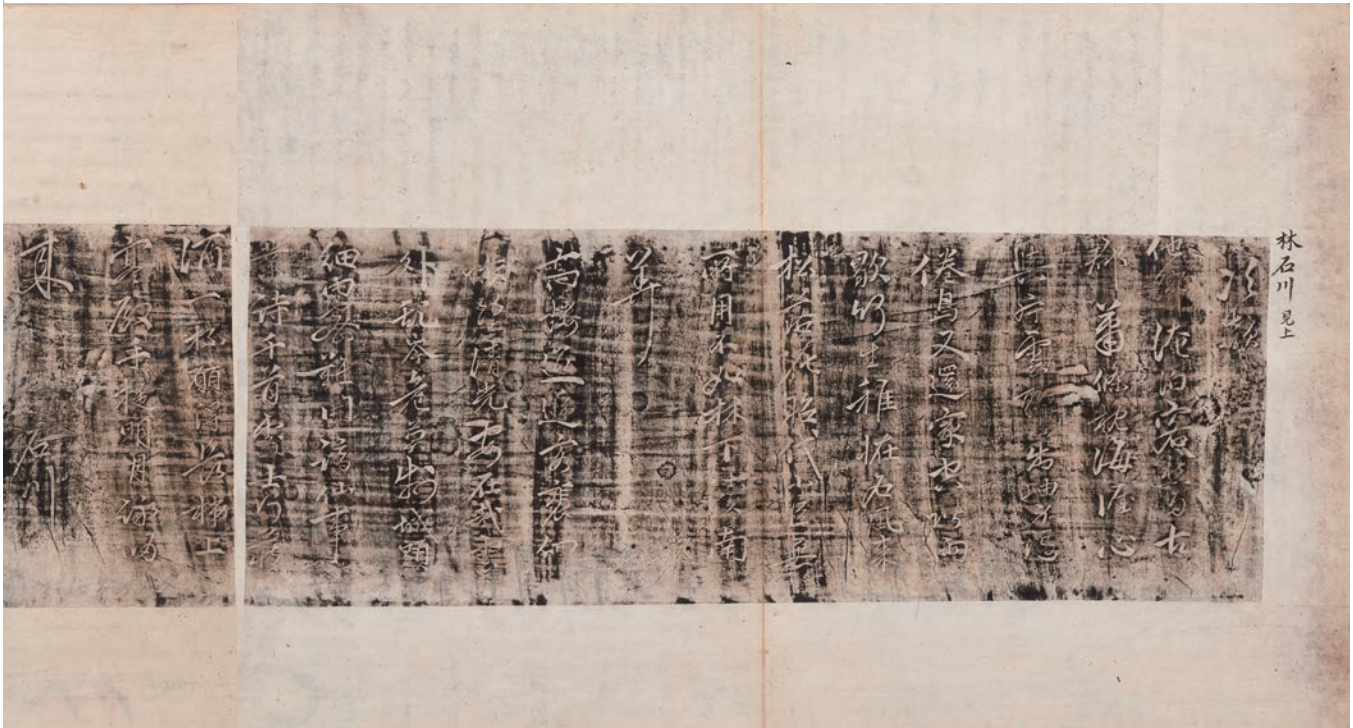
여러 해 바빠 애쓰느라 쉬지도 못했는데
높은 누각 올라오니 시름 더욱 보태지네
구름 덮인 봉우리 은은하게 평야를 둘러싸고
안개 낀 물 아련히 모래톱을 드러냈네
이날 한가로움은 목은 빛 깊은 것인데
벽에 시 쓴 옛 현인 누가 남았는가
덧없는 인생 어느덧 과거지사 되었는데
깨끗한 마음과 행적만은 천추에 남으리

勞碌多年未卜休
登臨快閣迴添愁
雲岑隱約圍平野
煙水微茫露小洲
此日偷閑還宿債
昔賢題壁問誰留
浮生倏仰成陳迹
唯有雙清自萬秋

정해(1647) 가을 동양 신익전

丁亥秋東陽 申翊全

40) 신익전: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한성부우윤과 좌윤을 역임하고, 도승지를 지냈다. 역학에 능통하였고, 필법과 문장에 뛰어났다. 문집으로 『동강유집東江遺集』이 전한다. 이 시는 신익전이 풍영정에서 지은 것이다.



林石川 見上

임석천[임억령] 앞에서 보인다.

차운하다⁴³⁾

次韻

타향에 오래 머물러 나그네 시름 많고
 옛고을 쓸쓸한데 바닷가에 누웠네
 마음은 조각 구름 함께 애오라지 산골로부터 나오고
 몸은 지친 새들 따라 또 집으로 돌아오네
 빈뜰에 비 그친 뒤 어린 죽순 솟고
 괴석에 바람 불어서 솔꽃이 지네
 태평성대에 어리석은 이 몸 할 일이 무엇인가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 남화경을 읽음만 못하리

他鄉淹泊客愁多
 古郡蕭條枕海涯
 心與片雲聊出岫
 身隨倦鳥又還家
 空階雨歇竹生稚
 怪石風來松落花
 昭代小臣無所用
 不如林下讀南華

41) 임억령: 중종, 명종대 문신이다. 동부승지, 강원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천성적으로 도량이 넓고 청렴결백하며 시문을 좋아하여 사장(詞章)에 능하였다고 한다.

42) 양휘루(揚輝樓): 영암의 객관 동쪽에 있는데, 군수 강삼(姜參)이 세웠다. 나중에 배회루(徘徊樓)라 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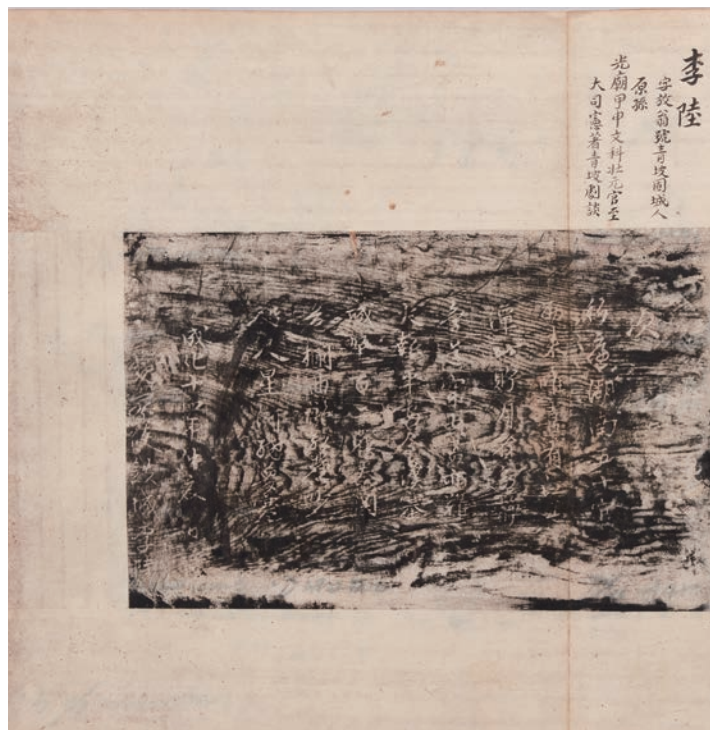
43) 임억령이 전라도 영암의 양휘루(揚輝樓)에 있던 강삼(姜參)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강삼은 영암군수를 지낼 때 객관의 누정으로 양휘루를 지었다.

높디높은 누각에 나그네로 서성이며
 맑은 달빛 어느 곳에 있는지 한 품고 바라보네
 구름밖에 웅기종기 솟은 멧부리 위태로와 거닐 수 없고
 성 위에 내리는 가랑비 조밀하여 연기 어리네
 귀양 온 신선의 일은 시 천수요
 처사의 행장은 술잔 하나네
 긴 사닥다리를 얻어 광한전에 올라
 손에 밝은 달 들고 시 읊으며 돌아오리라

석천

高樓迢遞客裴徊
 悵望清光安在哉
 雲外亂岑危莫步
 城頭細雨密難開
 謫仙事業詩千首
 處士行裝酒一杯
 願得長梯上寒殿
 手提明月詠歸來

石川



字放翁 號靑坡 固城人 原孫 世廟甲申文科壯 官至大司憲 著靑坡劇談
 자는 방옹(放翁)이고 호는 청파(靑坡)이며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이원(李原)의 손자이다. 세조 갑신년(1464)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관직은 대사헌을 지냈다. 『청파극담靑坡劇談』을 지었다.

차운하다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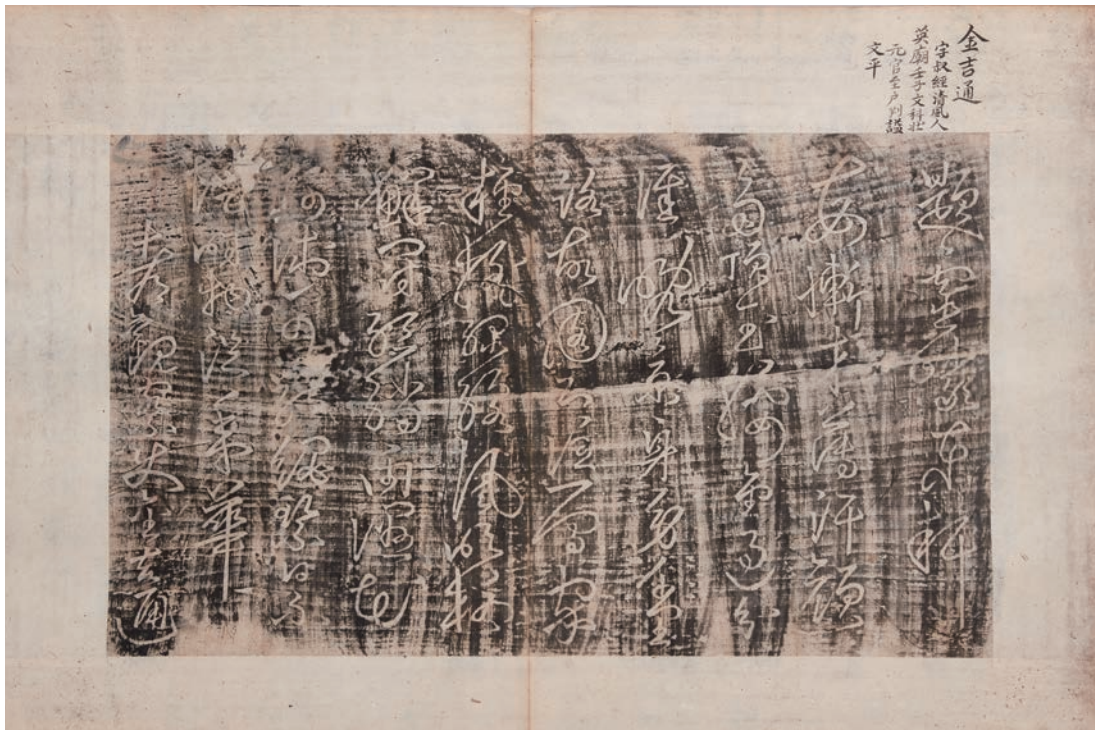
호남 오십 고을을 두루 다니니
 서쪽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강산 있어 기쁘네
 못에 비친 산은 달을 품어 보기에 고요하고
 험한 산길 허공에 높아 낮에도 어렵네
 급보는 한나라 변방처럼 평안해졌고
 성은 진나라 협곡처럼 튼튼하였네
 높고 굽은 난간 붉은 먼지 적으니
 지척에 있는 은하수에 새벽 꿈이 서늘하네

行遍湖南五十官
 西來唯喜有江山
 潭山貯月看愈靜
 鳥道穿空畫亦難
 火報平安今漢塞
 城堅百二舊秦關
 危欄曲檻紅塵少
 咫尺星河殘夢寒

성화 14년(1478)
 관찰사 철성 이륙

成化 十四 仲夏
 觀察使 鐵城 李陸

44) 이륙: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아버지 이지가 괴산군수로 있자 성종은 전지(傳旨)를 내려 그를 곧 서울로 불러들였다.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저서에 『청파문집靑坡文集』, 『청파극담靑坡劇談』 등이 있다.



字叔經 清風人 英廟壬子文科壯元 官至戶判 諡文平

자는 숙경(叔經)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세종 임자년(1432)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관직은 호조 판서를 지냈다. 시호는 문평(文平)이다.

영암 동헌에 시를 짓다⁴⁶⁾

題靈巖東軒

매번 재주없음을 부끄러워 할 때 식은 땀 많이 흘리니
정옥과 요금 내 분수에 넘치네
몸은 해지는 저녁 천 리 길에 수고롭고
마음은 고향 한 칸 집에 쏠리네
바람이 버들에 불어 푸른 가지 흔들리고
비가 꽃을 적혀 고운 빛을 다투네
무슨 재주로 노끈으로 해를 잡아맬까
절기에 따라 사물이 세월 재촉함을 견디지 못하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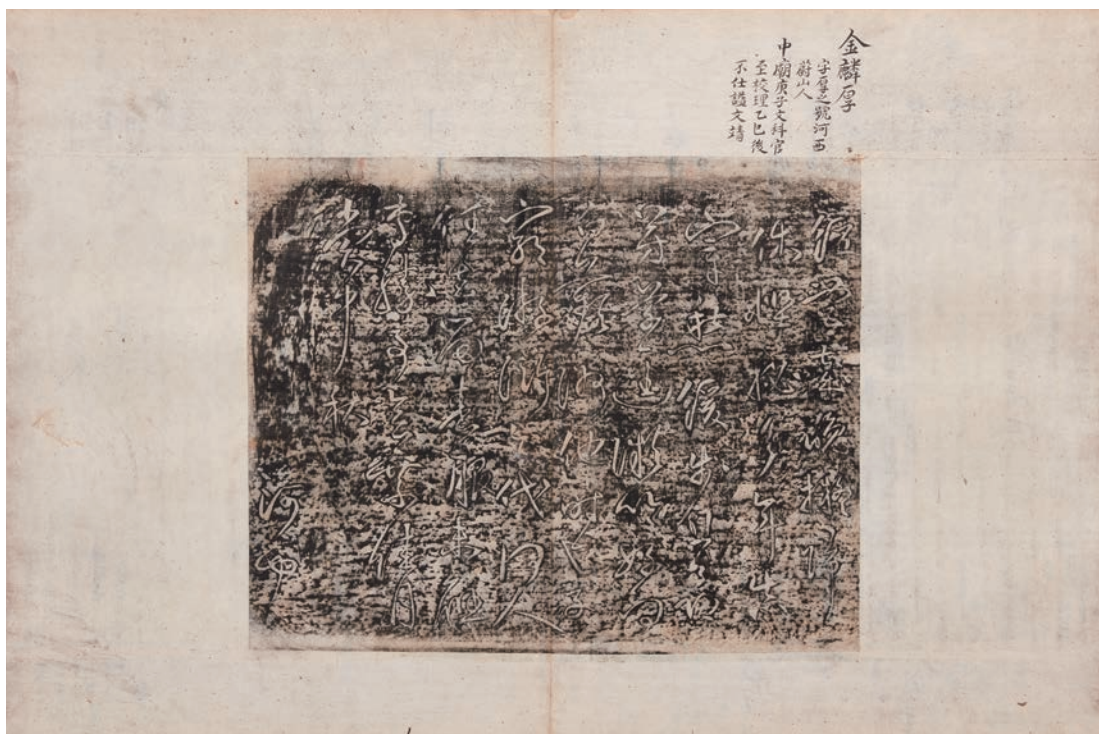
每慙才薄汗顏多
頂玉腰金過分涯
晚景身勞千里路
故園心住一間家
輕搖綠線風吹柳
鮮鬪紅綃雨濕花
何術可能繩繫日
不堪時物促年華

도관찰사 김길통

都觀察使 金吉通

45) 김길통: 조선 전기 문신. 황해도와 전라도 관찰사, 중추부 지사, 한성부판윤 등을 거쳤다. 좌리공신 4등에 책록되고 월천군에 봉해지고 승정 대부가 되었다. 문집으로 『월천집月川集』이 있다.

46) 시의 제목에는 동헌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암 객관의 누정인 양휘루에 올라서 감흥을 읊은 시이다.



字厚之 號河西 蔚山人 中廟庚子文科 官至教理 乙巳後不仕 諡文靖

자는 후지(厚之)이며 호는 하서(河西)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중종 경자년(154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교리를 지냈다. 을사사화 이후에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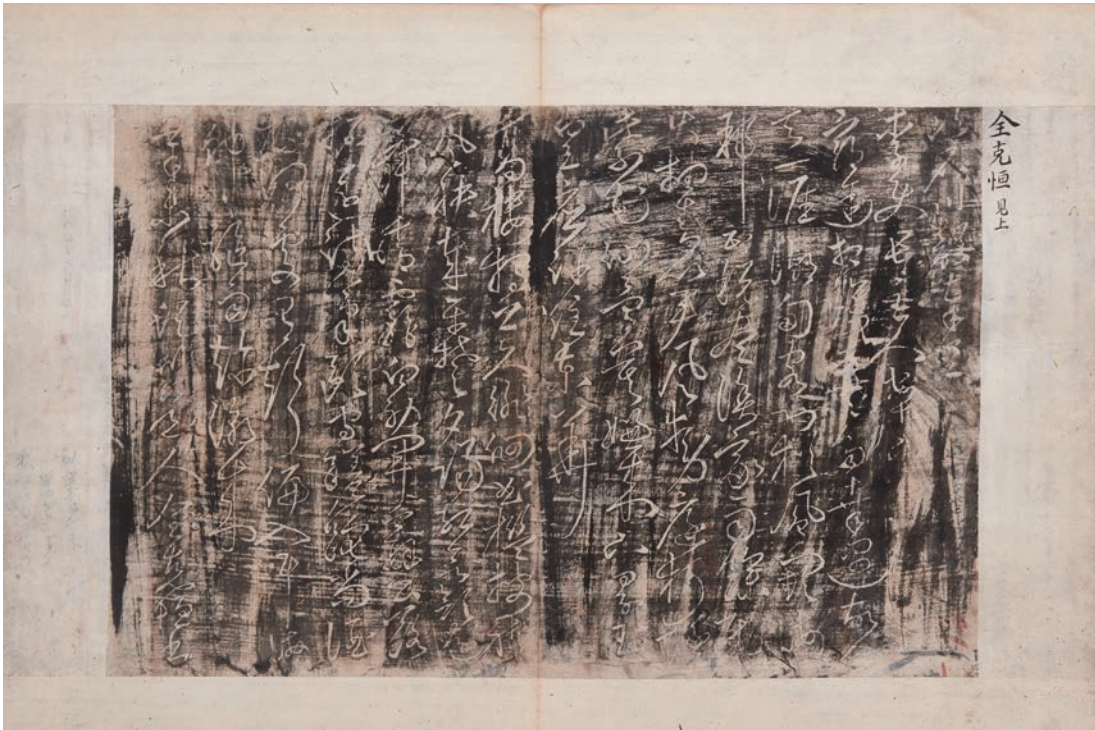
돌아와 쉴 곳이라 경영한 지 몇 해인가
숨겨둔 것 드러나니 조물이 시름하네
천천히 거닐어 방초(芳草)의 길 찾아들고
가만히 시 읊으며 백빈주로 향하네
다른 때 그대 함께 마음껏 노니겠지만
지금 세대 어느 사람 마음대로 내왕하랴
춘복만 좋은 일을 차지한 것 아닐 것이니
아름다운 달 맞아 한가위를 즐기네

하서

經營歲晚擬歸休
慳祕多年眞宰愁
緩步且尋芳草逕
微吟好向白蘋洲
他時也子窮遊衍
今代何人任去留
春服未應專勝事
會乘佳月賞中秋

河西

47) 김인후: 중종대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를 역임하여 당시 세자였던 인종을 가르쳤다. 인종이 즉위하여 9개월 만에 사망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정진하였다.



見上
앞에 보인다.

석천의 시에 차운하여 사군 이주인에게 올리다⁴⁸⁾

次石川韻 奉呈李使君 主人 案下

막다른 길에 아는 사람 이미 많지 않은데
다행히 먼 하늘가에서 오랜 벗을 만났네
호남의 나그네 마음 여전히 봉궐⁴⁹⁾에 있는데
바닷가 고을의 민세는 다 어부의 몫이네
비온 후 섬돌의 대나무 푸른 죽순 솟고
바람 불어 정원의 나무에서 붉은 꽃 떨어지네
신선의 풍골 인간 세계로 왔다고 혐의하지 마소
옥황상제 동화⁵⁰⁾에 사는 것을 허락하겠지

窮途相識已無多
幸遇故人天一涯
湖甸客心猶鳳闕
海邦民稅盡漁家
雨餘砌竹抽青笋
風動庭柯墜紫花
仙骨莫嫌來下界
玉皇應許住東華

48) 임억령이 지은 영암의 양휘루(揚輝樓)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49) 봉궐(鳳闕) : 원래 한나라의 궁궐 이름이었는데, 후대에는 궁궐의 대명사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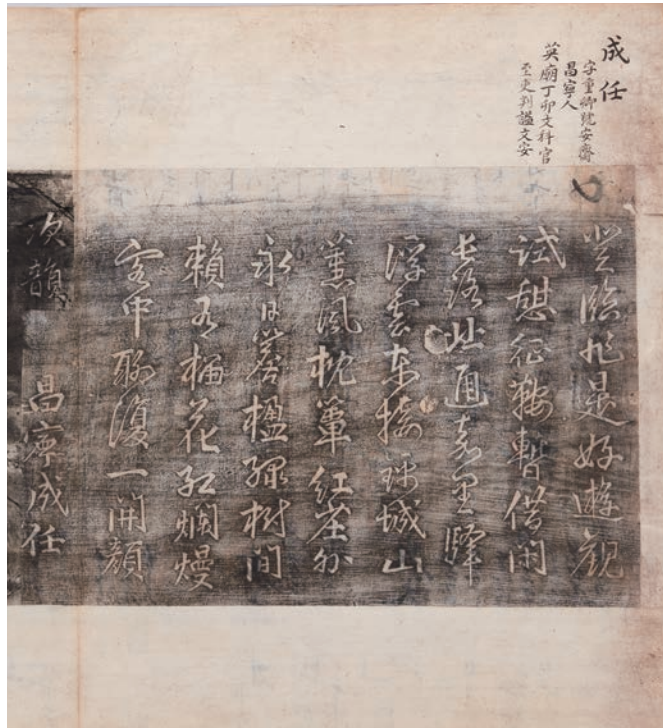
50) 동화(東華)는 송(宋)나라 궁성의 동쪽 문 이름인데, 입조(入朝)할 때 이 문을 이용했다. 여기에서 관리들이 출입하는 문, 또는 서울, 서울의 변화함을 말한다.

높은 누각 홀로 올라 오랫동안 배회하니
굽은 난간 옷깃 헤치는 바람 상쾌하구나
평평한 숲에 걸린 석양 붉은 빛 거두려 하고
먼 산봉우리의 맑은 안개 막 걷히네
왕안석 불우해져도 도리어 시를 짓고
구양수는 뜻을 잃음에 술잔만 더하네
어느 곳으로부터 소리가 귀에 들리고
해신은 비 몰아 조수를 좇아 들어오네

高樓獨上久徘徊
曲檻披襟風快哉
平楚夕陽紅欲斂
遠峯晴霧白初開
荊公落拓還詩筆
歐守蹉跎尙酒杯
何處有聲偏入耳
海神驅雨趁潮來

신미 가을 규천도인(虯川道人) 전극항이 쓰다

辛未秋 虯川道人 全克恒 書



字重卿 號安齋 昌寧人 英廟丁卯文科 官至吏判 諡文安

자는 중경(重卿)이며 호는 안재(安齋)이고,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세종 정묘년(1447)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이조판서를 지냈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등림(登臨)이 놀고 구경함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가는 말을 잠깐 쉬어 한가함을 빌리는 것이네
긴 길은 북으로 가리역(嘉里驛)⁵³⁾에 통하고,
튼구름은 동으로 금성산(錦城山)에 잇닿았네.
남풍에 베개와 대자리는 속세를 벗어난 듯,
긴 여름날에 누각이 푸른 나무 사이에 있네.
석류꽃의 붉음이 한창이어서,
나그네길에 그런대로 다시 한바탕 웃음일세

창녕 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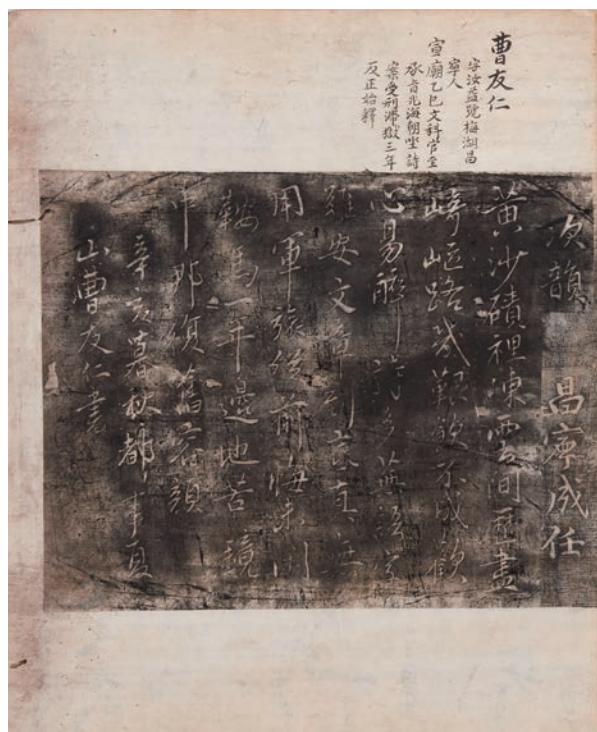
登臨非是好遊觀
試憩征鞍暫借閑
長路北通嘉里驛
浮雲東接錦城山
薰風枕簟紅塵外
永日簷楹綠樹間
賴有榴花紅爛熳
客中聊復一開顏

昌寧 成任

51) 성임: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이조정랑, 중추원첨지사, 도승지, 공조판서, 좌참찬, 중추부지사 등을 지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에도 참여했다.

52) 전라도 함평현에 있던 누각이다. 정인지가 이름을 붙이고 기문을 지었다. 함평현의 관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53)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가리역(嘉里驛)은 함평현의 북쪽 22리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字汝益 號梅湖 昌寧人 宣廟乙巳文科 官至承旨 光海坐詩案受刑 滯獄三年 反正始釋

자는 여익(汝益)이고 호는 매호(梅湖)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선조 을사년(160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승지를 지냈다. 광해군 때에 시안(詩案)에 연루되어 형을 받아 3년의 옥살이를 하다가 인조반정 후에 풀려났다.

차운하다

次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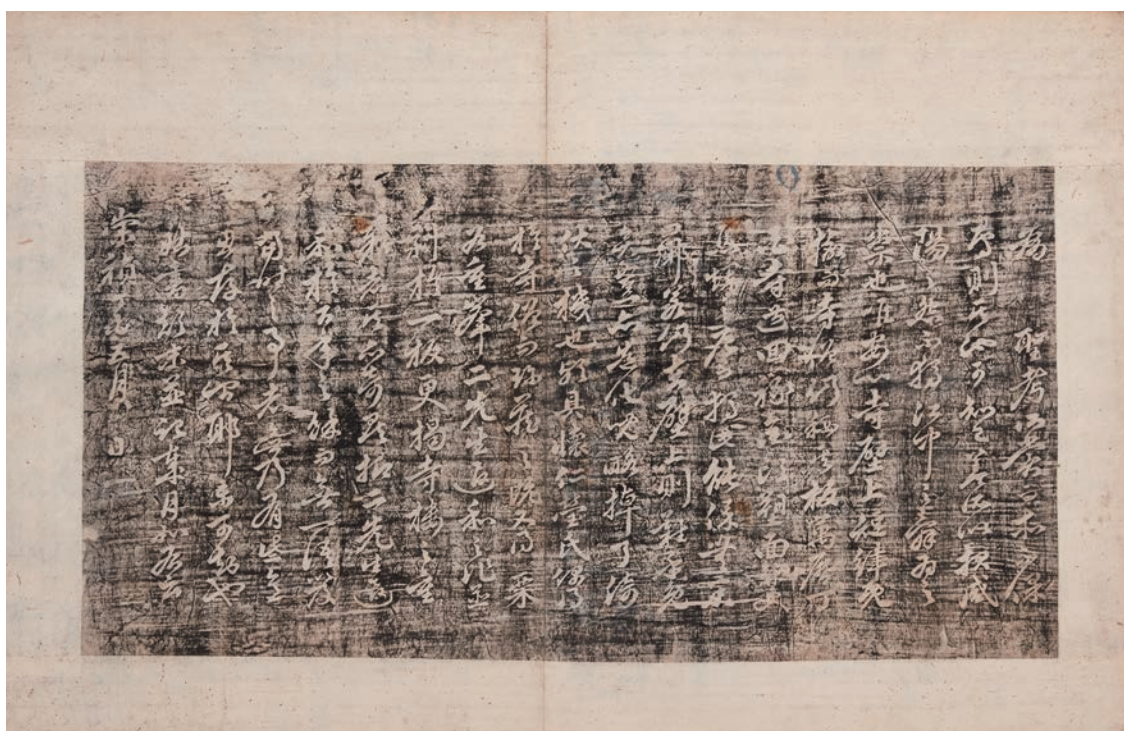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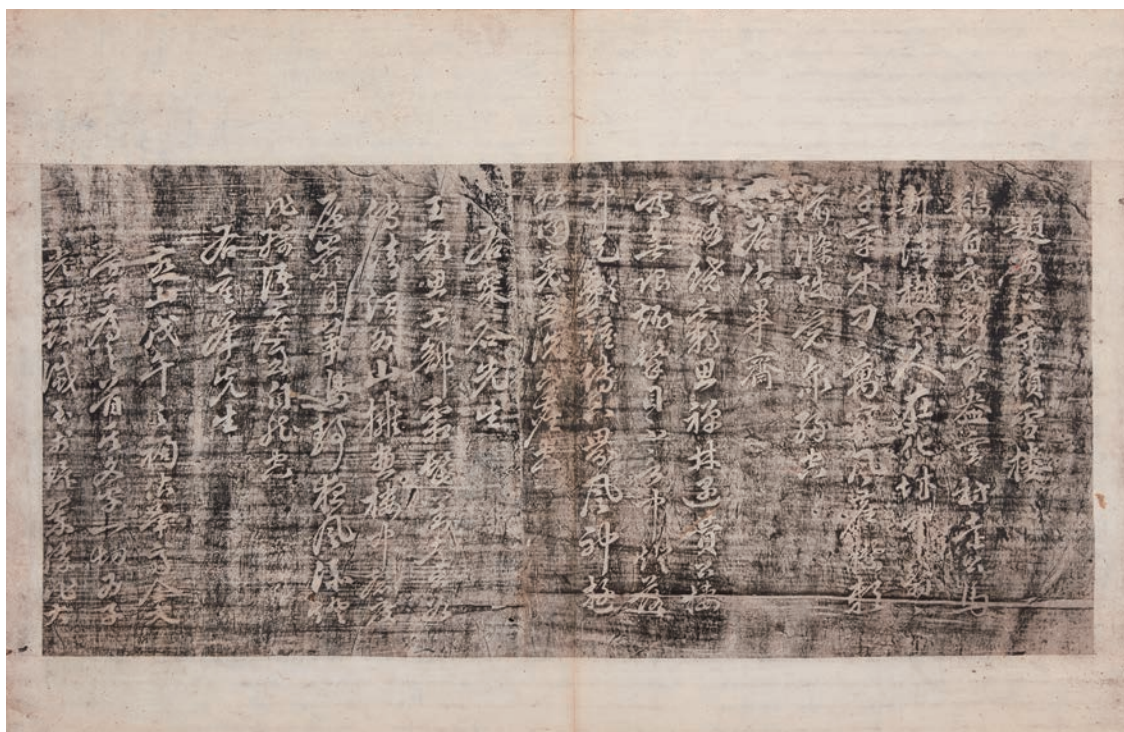
황사 부는 모래사막 연구름 사이에
얼마나 힘든 험난한 길 다 지나네
술 마셔도 즐겁지 않은데 마음이 쉽게 취하고
시에는 거친 말 많아 글자 놓기 어렵네
문장은 도저히 진짜 쓸모없으니
군대의 일에 예부터 익숙치 못해
일년 동안 말타고 변방에서 괴로워하니
거울 속 옛얼굴은 어떻게 회복할거나

黃沙磧裏凍雲間
歷盡崎嶇路幾艱
飲不成歡心易醉
詩多蕪語字難眼
文章到底真無用
軍旅從前悔未閑
鞍馬一年邊地苦
鏡中那復舊容顏

신해(1611) 모추 도사 하산(夏山) 조우인 쓰다

辛亥暮秋 都事 夏山 曹友仁 書

54) 조우인: 조선중기 문신으로 인조반정 이후 중용되어 중추부첨지사 등을 거쳐 우부승지에 올랐다. 글씨 그림 시에 능해 삼절(三絶)이라 불렸다. 문집으로 『매호집梅湖集』이 전한다.



작지⁵⁷⁾에서 신임 감사와 교대를 하고
구름 문으로 원공을 찾아가노니
말은 서늘한 그늘 아래서 울고
사람은 꽃 가운데 서 있네
질은 그들은 천 그루의 나무요
솔솔 부는 건 만 구멍의 바람일세
이에 힘입어 속된 생각 씻어 버리니
문득 온갖 인연 텅 빔을 깨닫겠네

鵲旨交新節
盍宮⁵⁸⁾訪遠公
馬嘶清樾下
人在花坊中
翳翳千章木
刁刁萬竅風
塵襟賴湔滌
陡覺衆緣空

위는 점필재

右佔畢齋

세상살이 언제나 나그네로 느껴지더니
이 절에서 우연히 찬공의 시를 만났네⁵⁹⁾
구름에 묻혀 사는 끝없는 정취는
눈길만 부딪치지 말은 없네
탑등은 하늘 높이 켜져 있고
종소리는 이 세상 바람에 울려 퍼지네
죽원(竹園)에서 신선처럼 노니니
육진⁶⁰⁾이 씻어져 아무것도 없네

世路饒羈思
禪林遇贊公
棲雲無限趣
擊目不言中
燈落中天影
鐘傳下界風
神游竹園裏
足洗六塵空

위는 율곡선생

右 栗谷先生

뛰어난 시 두보를 생각나게 하고
흰머리로 원공⁶¹⁾을 대하였네
계곡에서 맑은 물소리 전해지고
산은 누대를 에워쌓네
경쇠 소리 층암의 달 아래 흐르고
풍경소리 고요한 밤에 울리네
등불 밝히고 시를 지으니
속된 생각 자연히 사라 지네

玉韻思工部
霜髭對遠公
谷傳清澗外
山擁畫樓中
磬度層巖月
箏鳴靜夜風
添燈作綺語
塵慮自然空

위는 중봉선생

右 重峯先生

55) 안심사는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대둔산 자락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적설루는 안심사에 있던 누각이다.

56) 『점필재집』 ‘유월 초파일’에 새 관찰사 이집과 계상에서 직무 교대를 하고 마침내 고산의 안심사에서 묵다「六月初八日 與新使李公 謁交龜於界上 遂宿高山之安心寺」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57) 작지(鵲旨): 전라도 여산군의 북쪽 12리에 있는 곳으로서 충청도 은진현(恩津縣)과의 경계이다.

58) 『점필재집』에는 ‘雲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라 해석하였다.

59) 찬공의 시에서 찬공은 현승(縣丞)의 칭호이다. 여기에서는 김종직(金宗直)을 가리킨다.

60) 육진은 불교에서 말하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유흠을 말한다.

61) 원공(遠公): 진(晉)나라의 고승 혜원(慧遠)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감상인을 가리킨다.

燕山 戊午之禍 佔畢齋 金文簡公爲之首其文字 一切爲子光所毀滅至於環翠勝作 大爲聖考所賞 而亦不保焉 則其他可知已 蓋所以報咸陽之然 不獨江中之辭爲之崇也 唯安心寺 壁上短律既撤而寺僧仍秘其板

萬曆 丁酉 寺遭回祿 衝頭塑面 并更馬爛之厄而獨此能保無事耶 若仍在壁上則難乎免矣 豈亦造化兒略掉了 倚伏之機也歟 具懷仁瑩氏偶得於寺僧而珍藏之既 又得栗谷重峰二先生追和之作 并刻於一板更揭寺樓之重新 者其亦奇異 抑二先生追和於百年之餘而無一語笈當時之事者無乃有些意思存於其間耶 未可知也姑書顛末並記 歲月如右云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에서 점필재 김종직공이 그 사화의 시초가 되어, 그가 지은 글들은 모두 유자광에 의해 훼손되어 없어졌다. 「환취승環翠勝」 같은 훌륭한 작품은 임금께서 크게 칭찬한 작품이었음에도 역시 보존되지 못하였으니 나머지는 알 만하다. 대개 함양의 원한을 보복⁶²⁾하는 것이었으니, ‘강중지사(江中之辭)만이 빌미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직 안심사의 벽 위에 단을 만든 이미 거두어서 승려가 곧 그 판을 숨겨두었다.

만력 정유년(1597)에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여 흙으로 된 면까지 불길이 다가 왔고, 말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유독 이것만 무사했으니 만약 그때 벽 위에 있었다면 불길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찌 조화옹이 화와 복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회인(懷仁)과 구영(具瑩)씨가 우연히 절의 승려에게서 얻어서 보배처럼 잘 수장하였고 또 율곡과 중봉 두 선생이 화답한 작품까지 얻어서 모두 하나의 판에 새겨서 새로 중창한 절의 누각에 걸어두었으니, 이 역시 신기하다. 두 선생이 백 년 뒤에 이어서 화답하면서도 당시의 일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함이 없었던 것은 그 사이에 얼마간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알 수 없네. 그 전말을 쓰고 위와 같이 세월을 기록한다. 승정 정유년(1657) 오월 일

62) 함양의 보복: 김종직(金宗直)이 함양 군수(咸陽郡守)였을 때 유자광의 시(詩)가 현판(懸板)으로 걸린 것을 보고, 그것을 뜯어내어 불살라 버리게 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 유자광이 김종직을 모함하여 김종직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모두 복수한 일을 말한다.



字景悟 初名應龍 文化人 宣廟乙卯文科 官至左尹

자(字)는 경오(景悟)이고 초명은 응룡(應龍)이다.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선조 을유년(158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한성부 좌윤을 지냈다.

한라산에 유람하러 대정에 도착하여 벽상의 시에 차운하여 보이는데로 적다.

遊漢拏到大靜用壁上韻識見

산 사랑하고 달빛 탐하여 높은 언덕에 높은 언덕에서 누우니

愛山耽月宿高丘

가랑비 짙은 안개가 모두 사라지네

細雨濃烟一樣收

밝게 돌아가는 은하수 빛 소매에 비추고

銀漢昭回光拂袖

단풍에 물든 산이 가을 단장 하였네

楓巒爛熳壁藏秋

퍼뜩거리는 새 뛰노는 토끼가 앞바다 속에 있고

鳥翻兔躍前溟裏

곤어 변한 봉새 해안 위에 있네

鵲化鵬鶩傍岸頭

구름 밖 표연함을 어디에 더 이룰까

雲外飄然何處遂

혹 서왕모 만나면 술 한잔 할텐데

倘逢王母酒相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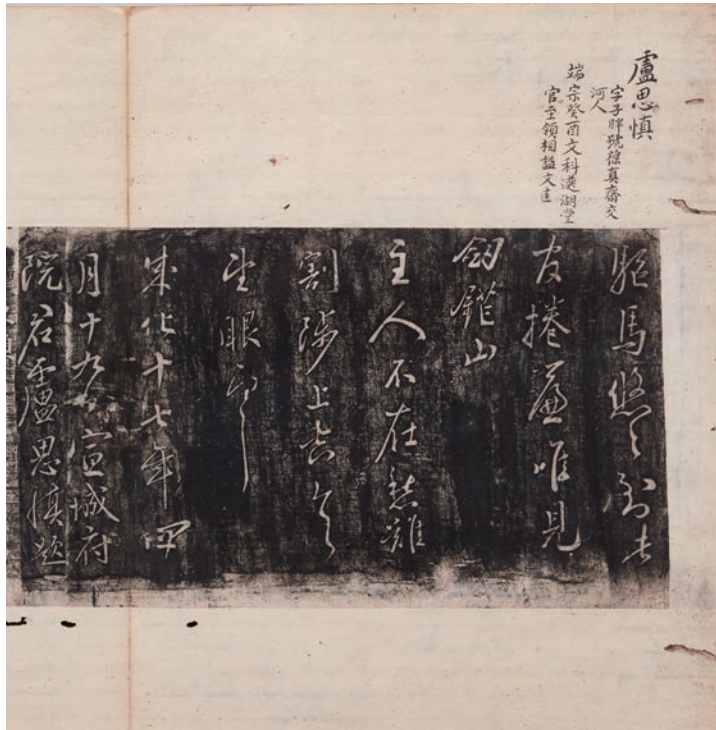
경차관 교서관교리 겸지평 유사원

敬差官 校書校理 兼持平 柳思瑗

만력 병신(1596) 윤8월 20일

萬曆丙申潤八月二十日

63) 유사원: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병조 좌랑, 평안도 도사, 고성 군수 등을 지냈다.



字子胖 號葆真齋 交河人 端宗癸酉文科 選湖堂 官至領相 諡文

자는 자반(子胖)이며 호는 보진재(葆真齋)이고 본관은 교하(交河)이다. 단종 계유년(1453)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다. 관직은 영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말 몰아 유유히게 이 고을 오니
발 걸으면 칼날 같은 산만 보이네
주인 없어 시름 베기 어려운데
위에 올라가면 헛되이 바라보는 눈만 시게 하네

驅馬悠悠到此官
捲簾唯見劍鉞山
主人不在愁難割
陟上空令望眼寒

성화 17년(1481) 4월 19일 선성부원군 노사신 쓰다

成化十七年 四月十九日 宣城府院君 盧思愼 題

64) 노사신: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등을 편찬하였다. 15세기 후반 수많은 관찬서(官撰書)의 편찬에 참여하여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字怡叔 號竹陰 林川人 宣廟壬寅文科 選湖堂 官至禮參題學

자는 이숙(怡叔)이며, 호는 죽음(竹陰)이고 본관은 임천(林川)이다. 선조 임인년(1602)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호당(湖堂, 독서당)에 뽑혔으며 관직은 예조참판과 제학을 지냈다.

차운하다

次韻

출성하여 어느 곳으로 가는지 수레타고 말하지 않고
 곁에 낀 안개에 수심이 다 씻기네
 바위 위의 날렵한 누각 아슬아슬한 길 있고
 긴강물 언덕 넘으니 모래톱마저 잠기네
 강산은 시인의 오감을 몇 번이나 거쳤을까
 읊은 시만 공연히 병승고적 따라 낡았네
 높은 언덕 이라 자연히 더운 기운 몰아내며
 서늘한 송죽 솔바람 소리에 어느새 가을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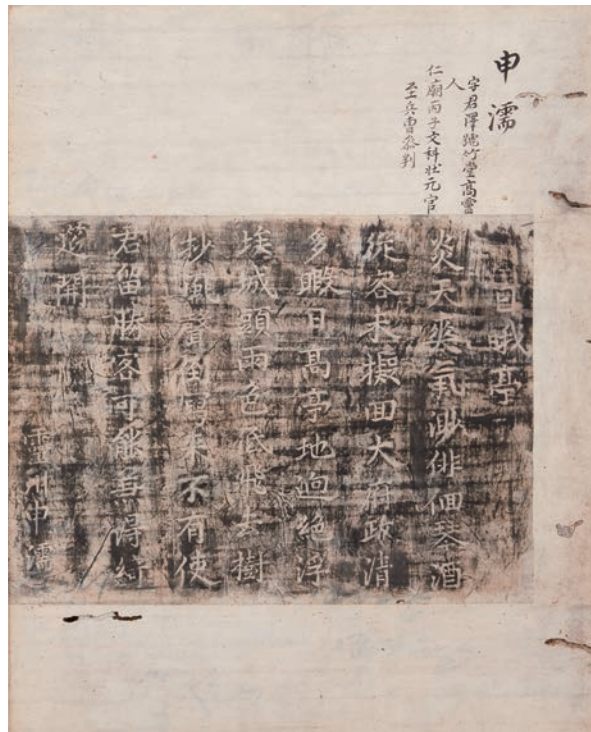
出城何處駕言休
 爲傍煙波滌盡愁
 快閣架巖纔有路
 長江漲岸更無洲
 江山幾閱詩人去
 風月空隨勝迹⁶⁶⁾留
 爽塏自然鑿暑氣
 竹涼松韻易生秋

갑자년(1624) 계하 하 竹陰

甲子 季夏 下 竹陰

65) 조희일: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계축옥사(癸丑獄事)에 관련되어 한때 파직되었으나 인조반정으로 재기용되어 왕이 봉당을 타파하려는 데 반대하고, 대북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시문이 뛰어나고, 서화에도 능하였다. 문집으로 『죽음직竹陰集』이 전한다.

66) 『죽음집』 「次風詠亭韻」에는 ‘跡’으로 되어 있다.



字君澤 號竹堂 高靈人 仁廟丙子文科壯元 官至兵曹參判

자는 군택(君澤)이고 호는 죽당(竹堂)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인조 병자년(1636)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관직은 병조참판을 지냈다.

일아정

日哦亭

무더위에 상쾌한 기운 가물거리며 떠돌며
조용히 거문고와 술 한잔 하기 어렵네
대부의 맑은 정사 휴일도 많은데
땅 트인 곳 높은 정자 먼지도 끊어졌네
성 위 흠뻑리는 빗줄기 낮게 오가고
나뭇가지 끝 바람소리 거꾸로 오네
사군께서 좋은 손님 잡아두지 않았다면
함께 멋진 잔치를 열 수 있었으랴

炎天爽氣渺⁶⁹⁾徘徊
琴酒從容未擬回
大府政清多暇日
高⁷⁰⁾亭地迥絕浮埃
城頭雨色低飛去
樹杪風聲倒瀉來
不有⁷¹⁾使君留勝客
可能兼得綺筵開

영천 신유

靈川申濡

67) 신유: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동부승지, 우승지, 도승지를 지내고 부제학을 거쳐 1665년 예조참판이 되었다 소헌세자를 따라 선양에 다녀왔다. 『죽당집竹堂集』이 전한다.

68) 일아정은 담양 관누정 중의 하나로서 1604년(선조37)에 부사 신경식이 죽헌을 개조할 때 현의 북쪽에 토고를 만들고 이를 후원이라 하고, 1626년(인조4)에 부사 윤천구가 그 위에 소정을 짓고 일아정(日哦亭)이라 했다.

69) 『죽당집』에는 ‘査’로 되어 있다.

70) 『죽당집』에는 ‘孤’로 되어 있다.

71) 『죽당집』에는 ‘爲’로 되어 있다.



字元澤 號初菴 高靈人 濡弟 仁廟甲申文科 官至教理 早歿

자는 원택(元澤)이고 호는 초암(初菴)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신유(申濡)의 아우이다. 인조 갑신년(1644)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교리를 지냈다. 일찍 죽었다.

대부는 쉽게 다스리기 어려운 곳인데
사군은 오히려 날마다 시를 읊기를 사랑하셨네
한 칸의 정자 뜬 구름 너머에 있으니
사월에도 차가와 눈내리는 듯 하네
겹겹이 봉우리의 가을산 서로 에워싸고
천첩의 금성 형세가 도리어 낮아지네
정사가 이루어지고 여가 많아 손님을 초청하니
거문고가 술 풍류가 둘이 서로 어울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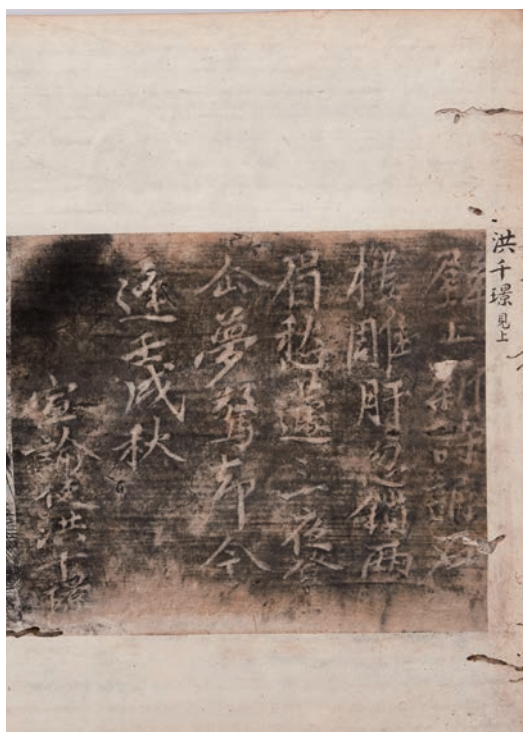
大府由來不易治
使君猶愛日哦詩
一間亭在浮雲外
四月寒如欲雪時
秋嶽羣巒形盡拱
金城千堞勢還⁷³⁾卑
政成多暇延賓客
琴酒風流兩自宜

정해년(1647) 수하 영천 신흔

丁亥首夏靈川申混

72) 신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화가이다. 1644년(인조 2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50년(효종 1) 봉교(奉敎), 이어 정언(正言)·수찬(修撰)을 역임한 뒤 1654년(효종 5) 안주 교수(安州敎授)가 되었다. 문명(文名)이 높았고 그림에도 뛰어났다. 문집에 『초암집初菴集』이 있다.

73) 『초암집』에는 ‘쫓’으로 되어 있다.



見上

앞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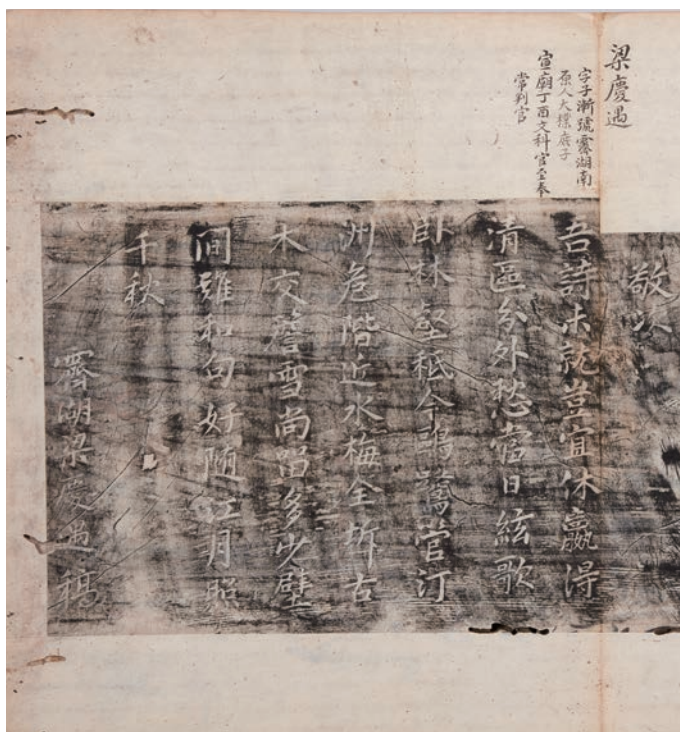
벽위에 쓴 새로운 시 석루에서 읊으니
간에 새겨져 문득 잠기니 양 미간에 시름이네
훤훤 날아 하루밤에 신선의 꿈꾸었는데
놀라 깨니 임술년⁷⁴⁾ 가을 만났네

선유사 홍천경

壁上新詩誦石樓
雕肝忽鎖兩眉愁
蘊蘊一夜登仙夢
驚却今逢壬戌秋

宣諭使 洪千璟

⁷⁴⁾ 임술년 : 송나라 소식(蘇軾)이 황주(黃州)로 귀양 가 있을 때, 일찍이 임술년 가을 7월 기망(既望)에 객과 함께 배를 띄우고 적벽 아래에서 노닐며 한껏 흥을 붙인 일이 있는데, 이를 말한다.



字子漸 號霽湖 南原人 大樸庶子 宣廟丁酉文科 官至奉常判官

자는 자점(子漸)이고 호는 제호(霽湖)이며,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양대박(梁大樸)의 서자이다. 선조 정유년(1597)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봉상시 판관을 지냈다.

삼가 차운하다⁷⁶⁾

敬次

내 시를 못 짓고서 어찌 그만두랴
맑은 곳에 시름만 넉넉히 얻었네
당일에 현가하며 임학에 누웠는데
이젠 갈매기 백로와 물가 차지했네
높은 계단 물 가까이 매화가 피고
처마의 고목엔 아직 잔설이 있네
벽의 시구들은 창화하기 어려우니
강가의 달빛 따라 천년을 비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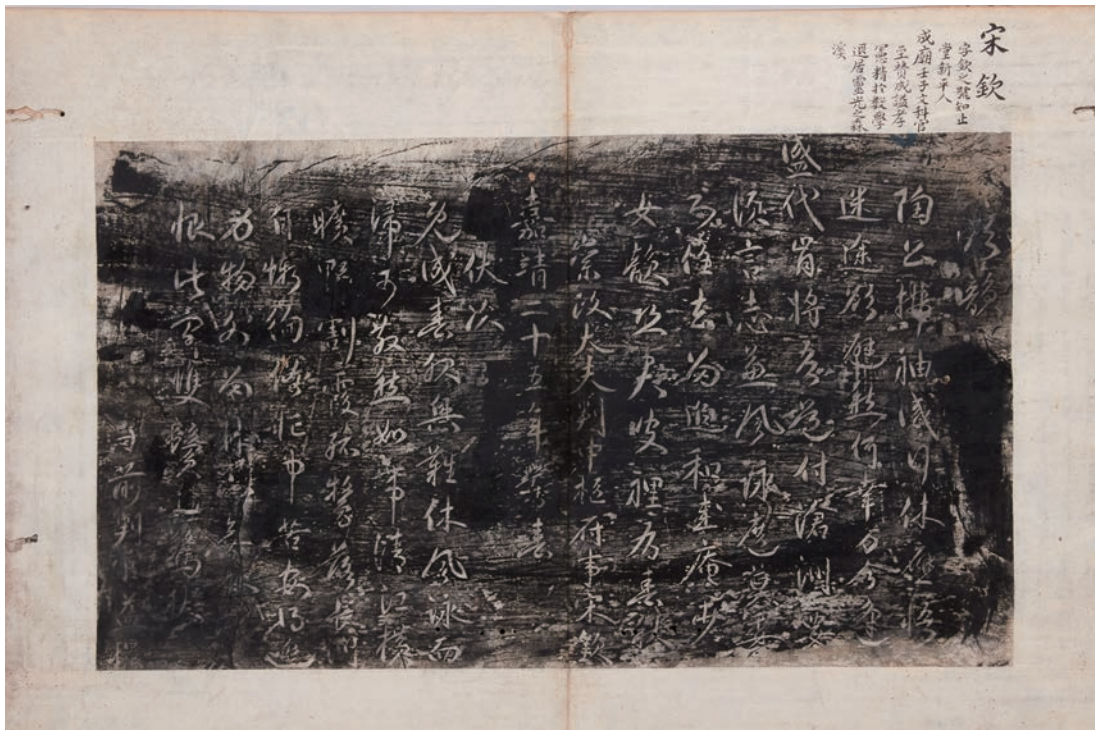
吾詩未就豈宜休
贏得清區分外愁
當日絃歌臥林壑
祇今鷗鷺管汀洲
危階近水梅全坼
古木交簷雪尙留
多少壁間難和句
好隨江月照千秋

제호 양경우 쓰다

霽湖梁慶遇稿

75) 양경우: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597년(선조 30) 참봉(參奉)으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죽산(竹山)·연산(連山)의 현감에 이어 판관(判官)이 되었다. 1616년(광해군 8)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로 급제, 교리(校理)를 거쳐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에 이르렀다. 이조 참의로 추증되었으며, 문집에 『제호집霽湖集』이 있다.

76) 『제호집』에 있는 시의 제목은 ‘次風詠亭板上韻’이다.



字欽之 號知止堂 新平人 成廟壬子文科 官至贊成 諡孝憲 精於數學 退居靈光之森溪

자는 흠지(欽之)이고 호는 지지당(知止堂)이며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성종 임자년(149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찬성을 지냈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수학에 정통하였으며 영광의 삼계(森溪)에 물러나서 살았다.

차운하다

次韻

도공 소매 떨치고 쉬려고 하니
 잘못을 깨달아 시름을 피하고자 해서라
 지금 태평성대 만나니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도를 창주⁷⁸⁾에 부칠 수 있네
 모쪼록 뜻도 말하면서 한가히 시 읊으니
 오고 감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네
 규암의 운에 추가로 화답하니
 그대가 속마음으로 시비할까⁷⁹⁾
 승정대부 판중추부사 송흠
 가정 25년(1546) 계춘

陶公拂袖感行休
 應悟迷途欲避愁
 何幸方今逢盛代
 肯將吾道付滄洲
 要須言志兼風詠
 遮莫委心任去留
 追和圭庵少女韻
 恐君皮裡爲春秋
 崇政大夫 判中樞府事 宋欽
 嘉靖 二十五年 季春

77) 송흠: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지극한 효성(孝誠)과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부임하거나 전임할 때 늘 세 필의 말만 사용해 김소하게 행차하여 삼마태수(三馬太守)라고 불렸다.

78) 창주(滄洲):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지은 「爲鄭冲勸晉王箋」의 “창주를 굽어보며 지백에게 사례하고, 기산에 올라가 허유에게 읊을 한다(臨滄洲而謝支伯 登箕山而誦許由)”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경치 좋은 은자의 거처로 흔히 쓰인다.〔문선文選〕

79) 피리춘추(皮裏春秋): 입으로 구태여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공자가 지은 『춘추春秋』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삼가 차운하다

이미 봄옷 지었으니 흥취를 그만두기 어렵고
 시 읊조리며 돌아오니 시름 풀리네
 맑은 강은 띠처럼 너른 들판 가로지르고
 노을을 가르는 고목⁸⁰⁾은 긴 물가에 날아드네
 바쁜 가운데 풍속 좇음을 스스로 부끄러우니
 어찌하면 몸을 피해 세상 밖에 머물 수 있으랴
 달 지고
 그사이 희끗한 귀밑머리 이미 노년에 놀라네

전판관 익경⁸¹⁾

伏次

既成春服興難休
 風詠而歸可散愁
 如帶清江橫曠野
 割霞孤鷺落長洲
 自慙徇俗忙中苦
 安得逃身物外留
 月落無□□□恨
 此間雙鬢已驚秋

時前判官益璟

80) 고목(孤鷺): 당나라 왕발(王勃)이 지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지는 노을 짙은 따오기와 나란히 날고, 가을 강물은 끝없는 하늘과 한 색이로다(落霞與孤鷺齊飛 秋水共長天一色)”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인데, 깊은 가을날의 저녁 경치를 절묘하게 묘사한 표현으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81) 송익경(宋益璟): 송흙의 아들이다.



字子雨 羅州人 肅廟庚午文科 官至教理

자는 자우(子雨)이며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숙종 경오년(169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교리를 지냈다.

협선루 판의 시에 차운하다

挾仙樓次板上韻

소동과 당시에는이 누각이 없어서
배 띄우고 놀며 읊조림이 또한 시를 깊었네
어찌 같으랴 높은 난간에 기대어
취해서 신선과 함께 가을을 감상함과

蘇子當年無此樓
泛舟游詠亦窮愁
爭如倚在危欄曲
醉挾飛仙賞索秋

임신년(1692) 윤달 하순
경차관(敬差官) 정시한

歲壬申潤月下澣
敬差官丁時翰

82) 정시윤: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정언, 지평, 헌납 등 주로 연관직에 있으면서 공정한 언론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字子容 號畸菴 延日人 澈子 光海丙辰文科 選湖堂 官至參判 典文衡

자는 자용(子容)이며 호는 기암(畸菴)이고,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정철(鄭澈)의 아들이며, 광해군 병진년(1616)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독서당에 선발되었으며 관직은 참판을 지냈으며, 문형을 맡았다.

백발이 성성하여 다시 높은 누에 오르니
선경 속의 풍월이야 고금의 수심이네
나그네의 회포는 서글픔만 감도는데
눈앞의 온갖 산 곱게 물든 가을이네

白首重登百尺樓
仙區風月古今愁
羈懷忽覺多悵悵
滿目千山錦樹秋

위

右

도성 떠나 하늘가까지 와 누각에 기대니
술잔 앞두고 시름 풀 길 없네
새로운 시 읊고 나니 유난히 더 쓸쓸하고
성성해진 허연 머리 가을을 견디지 못하네

去國天涯倦倚樓
樽前無地可埋愁
新詩詠罷偏蕭索
髣髴星星不耐秋

오천 정홍명

烏川鄭弘溟

83) 정홍명: 인조대 문신으로, 인조대 초기 공신 김류의 권력에 대한 소장 관인들의 비판에 참여하여 '소서(少西)'의 일원으로 지칭되었다. 병자호란 후에는 척화파를 두둔했다. 주요 저서에는 『기암집』, 『기옹만필』 등이 있다.



字尙之 號玄江 密陽人 仁廟庚午文科 官至兵判

자는 상지(尙之)이며 호는 현강(玄江)⁸⁵⁾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인조 경오년(163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병조판서를 지냈다.

취하여 지각(池閣)에 쓰다⁸⁶⁾

醉書池閣

연잎이 겹쳐있고 버들가지 드리웠는데
작은 누각 허공에 나고 연못엔 물이 가득하네
관청 술 몇 잔에 강 위에 달이 떠오르니
흥취 일어 석교가 높은 것도 잊었네

荷錢點點柳絲垂
小閣憑虛水滿池
官酒數杯江月上
興來忘却石橋危

병술(1646) 수하 관찰사 현계 박서

丙戌首夏 觀察使 玄溪 朴遼

84) 박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처음 홍문관과 사간원의 관직들을 역임하다가 대사헌·도승지·공조판서·우참찬·예조판서·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사은부사와 진향부사로 두차례 청나라에 다녀왔다.

85) 원본에는 호가 현강(玄江)으로 되어 있지만 현계(玄溪)로 알려져 있다. 본문에도 현계로 쓰여 있으므로 현강은 오자로 보인다.

86) 지각은 전라도 화순의 차군정(此君亭)으로 추정된다. 운자로 보아 차군정의 시의 운자가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서는 이 해에 평안도관찰사를 하고 있어서 당시 전라도까지 와서 시를 남겼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字士興 號晚洲 草溪人 仁廟丁丑文科 官至承旨

자는 사흥(士興)이며 호는 만주(晚洲)이고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인조 정축년(1637)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승지를 지냈다.

삼가 경양 선안에 올리다⁸⁸⁾

奉寄景陽仙案

눈 앞에 높이 솟은 용마루 보이니
 행인들 다투어 훌륭한 역승이 있었다 말하네
 오직 공께서 일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난간에 기대니 누른 구름이 평평한 들판을 애워싸고
 들녘 누런 구름 평평한 곳 난간에 기대어
 발 걸으니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려 있네
 올라보니 시 읊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바람이 연꽃향 날려 옥선에 가득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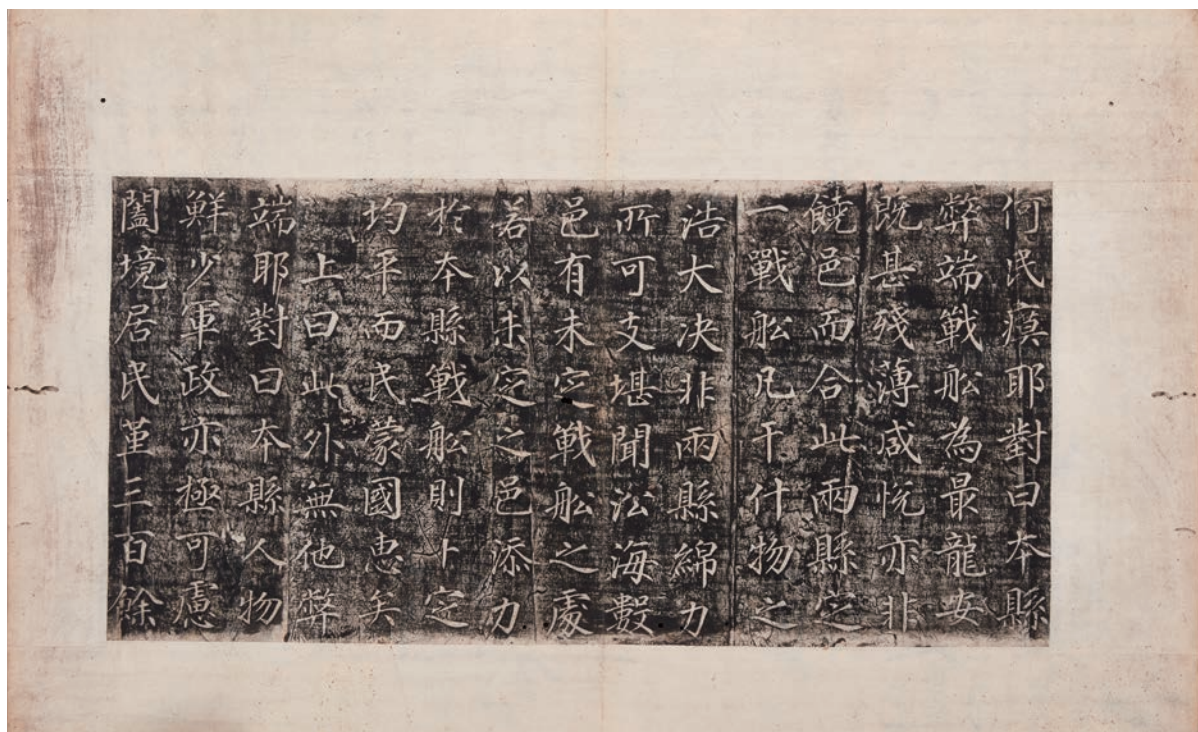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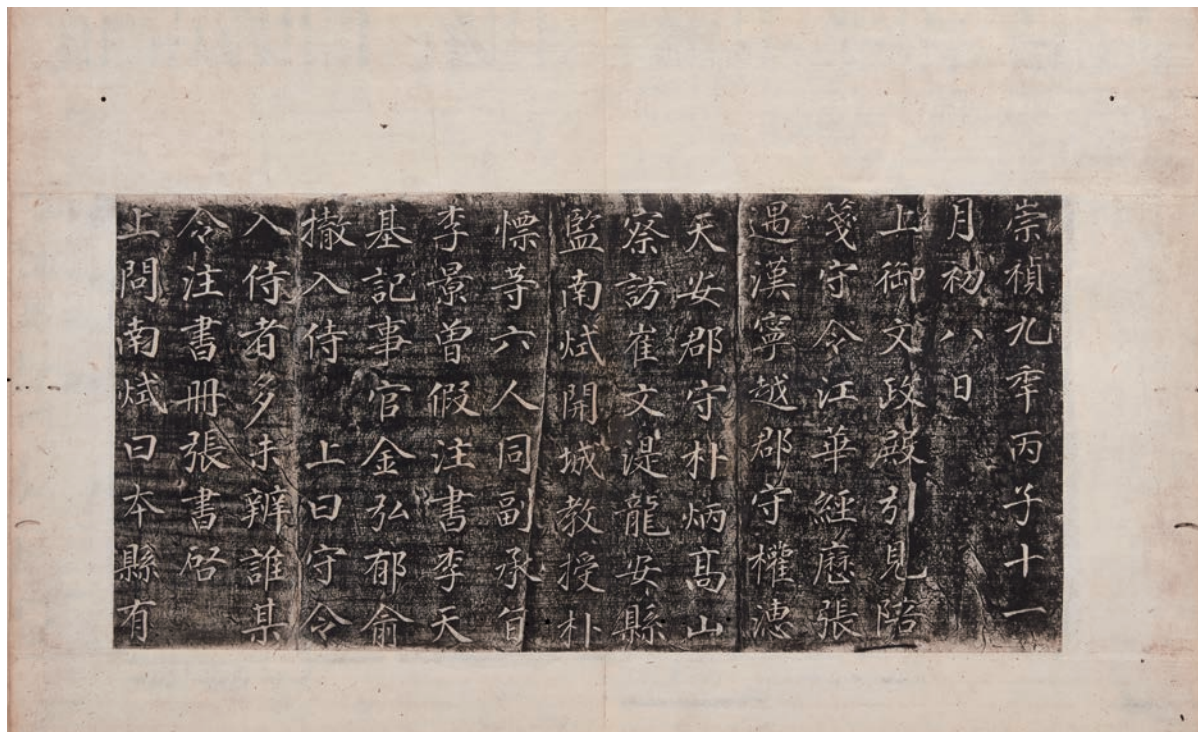
突兀飛臺出眼前
 路人爭道有丞賢
 不緣一念惟公耳
 那使殘郵兀翠然
 倚檻黃雲平匝野
 捲簾明月正流天
 登臨最合吟詩處
 風送荷香滿玉船

신묘년(1651) 가을 팔계 정창주
 경양역루에서 이후가 새로 지은 것을 웃으면서 쓰다.

辛卯 秋 八溪 鄭昌冑
 書于景陽驛樓 以笑

87) 정창주: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인조와 효종대 주요 관직을 역임했고, 문장이 뛰어났다고 전한다.

88) 경양역은 조선시대에 호남 지방의 광산·담양·화순·능성·동북·순창·옥과 등지에 설치된 역을 관할한 역도인 경양도에 속한 역이다. 정창주가 경양역의 누각에 지은 시이다.



戶而騎兵八十餘戶
步兵三十餘戶其間
閑丁殊極零星年例
逃故充定各年歲抄
之際若欲依法典十
五歲以上充定則萬
無准定之理不得已
以五六歲兒童苟充
其數每季收布民甚
冤苦此蓋列邑同然
之患而本縣最苦者
以民戶之數比他邑
十分之一故也上
曰言于該曹道內農
事如何對曰本縣少
豐矣上曰民食不

艱耶對曰足以供賦
役矣上曰道內同
然乎對曰海邊列邑
雖不夫稔亦多稍實
之處云矣上曰爾
之居官所務者何事
對曰臣赴任屬耳第
自為意則以賦役均
平軍政修舉為務矣
上曰爾言甚當罷
出時上教于李景
曾曰龍安縣監知治
縣宗要而奏對分明
極為可嘉言于該曹
表裏一襲賜給

崇禎九年丙子十一月初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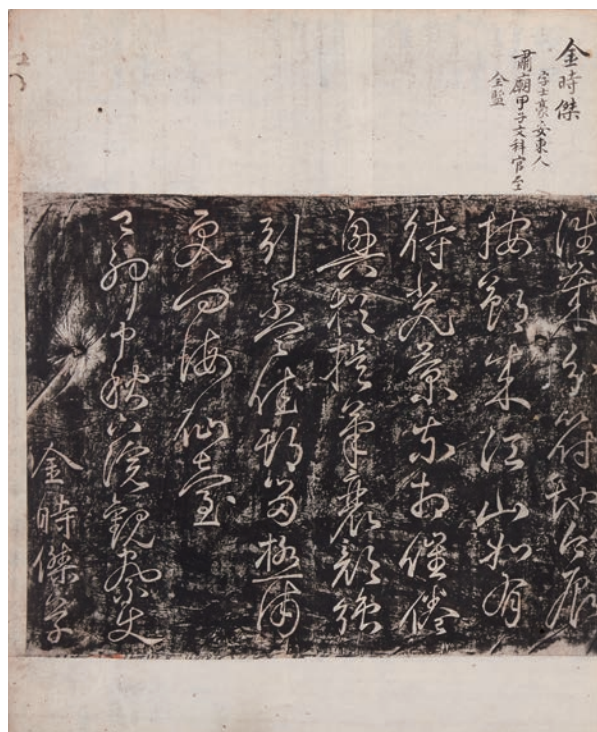
上御文政殿, 引見陪箋守令江華經歷張遇漢, 寧越郡守權漣, 天安郡守朴炳, 高山察訪崔文湜, 龍安縣監南炆, 開城教授朴慄等六人. 同副承旨李景曾, 假注書李天基, 記事官金弘郁·俞徹入侍. 上曰, 守令入侍者多, 未辨誰某, 令注書冊張書啓. 上問南炆曰, 本縣有何民瘼耶. 對曰 本縣弊端 戰船爲最龍安既甚殘薄, 咸悅亦非饒邑, 而合此兩縣 定一戰船, 凡干什物之浩大 快非兩縣綿力所可支堪, 聞沿海數邑 有未定戰船之處 若以未定之邑 添力於本縣戰船, 則卜定均平 而民蒙國惠矣. 上曰 此外無他弊端耶 對曰 本縣人物鮮少 軍政亦極可慮闔境居民僅三百餘戶 而騎兵八十餘戶步兵三十餘戶 其間閑丁殊極零星 年例逃故充定各季歲抄之際 若欲依法典 十五歲以上充定 則萬無准定之理 不得已以五六歲兒童, 苟充其數 每年收布, 民甚冤苦. 此蓋列邑同然之患 而本縣最苦者 以民戶之數 比他邑十分之一故也 上曰 言于該曹道內農事如何 對曰 本縣少豐矣 上曰民食不艱耶 對曰 足以供賦役矣 上曰 道內同然乎 對曰 海邊列邑 雖不大稔 亦多稍實之處云矣 上曰爾之居官所務者何事 對曰 臣赴任屬耳 第自爲意, 則以賦役均平軍政修舉爲務矣 上曰 爾言甚當 罷出時 上教于李景曾曰 龍安縣監 知治縣宗要而奏對分明 極爲可嘉 言于該曹 表裏一襲賜給

상이 문정전(文政殿)에 나아가 전문(箋文)을 올린 수령인 강화경력(江華經歷) 장우한(張遇漢), 영월군수(寧越郡守) 권혜(權漣), 천안군수(天安郡守) 박병(朴炳), 고산찰방(高山察訪) 최문식(崔文湜), 용안현감(龍安縣監) 남식(南炆), 개성 교수(開城教授) 박률(朴慄) 등 6인을 인견하였다. 동부승지 이경증, 가주서 이천기, 기사관(記事官) 김홍욱(金弘郁)·유철(俞徹)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입시한 수령이 많아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으니, 주서(注書)로 하여금 책장(冊張)에 써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상이 남식에게 묻기를, “본현에는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본현의 문제는 전선의 문제가 가장 큼니다. 용안현은 이미 매우 쇠잔하고 가난하고, 함열 역시 풍요로운 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현을 합하여서 전선을 하나 배정하여 온갖 필요한 집기와 물품이 방대하여 결코 두 개 현의 약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건대 바닷가 몇 개 고을에 전선을 배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니, 아직 배정해지지 않은 읍에게 본현의 전선에 힘을 보태게 한다면 고르게 정해져서 백성들도 나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상이 말씀하시길, “이 외에 다른 폐단은 없는가?” 대답하길, “본현의 인구가 매우 적어서 군정(軍政) 역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주변에 사는 민호가 거의 3백호로서, 기병은 80여호, 보병은 30여호인데, 그 사이에 한정(閑丁)이 매우 없어져서 매년 도망가기 때문에 매년 충정하여 세초(歲抄)하는 즈음에 만약 법전에 따라 15세 이상 충정한다면 따라 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5~6세 아동으로 그 숫자를 채우고 매년 포를 거두어 민성들이 고생이 막심합니다. 아러한 사례는 여러 읍이 비슷한 걱정이 있으나 본현이 가장 심하니 민호의 숫자가 다른 읍에 비해 1/10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이 말씀하시길, “해당 조에 얘기하겠다. 도내의 농사는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본현은 약간 풍년입니다.” 상이 말씀하시길, “백성들이 먹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대답하기를, “부역을 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상이 말씀하시길, “도내가 모두 비슷한가?” 대답하기를, “해변의 어려움은 비록 (곡식이) 잘 여물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익은 곳은 많다고 합니다.” 상이 말씀하시길, “네가 지방관을 하면서 힘쓰는 일은 어떤 것인가?” 대답하기를, “신이 부임하여 온 이후에 힘쓴 일은 부역을 고르게 하고, 군정을 잘 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상이 말씀하시길, “너의 말은 매우 좋다.” 마치고 나갈 때 이경증에게 말하길, “용안현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것을 잘 알고, 대답하는 것이 분명하여 매우 칭찬할 만하다. 해당 조에게 말하여 표리(表裏) 1습을 지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字士豪 安東人 肅廟甲子文科 官至全監

자는 사호(士豪)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숙종 갑자년(1684)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전라감사를 지냈다.

지난해 부절 받아 간 지방
오늘 부절 갖고 돌아오네
강산은 기다림이 있었던 듯
광경은 동쪽으로 서로 재촉하네
제 흥에 몰려 붓을 드니
노쇠한 얼굴에 억지로 인배하네⁹⁰⁾
좋은 때에 아득한 포구에 머물다
다시 해선대로 향하네⁹¹⁾

往歲分符地
今辰按節來
江山如有待
光景東相催
倦興猶提筆
衰顏強引盃
佳期留極浦
更向海仙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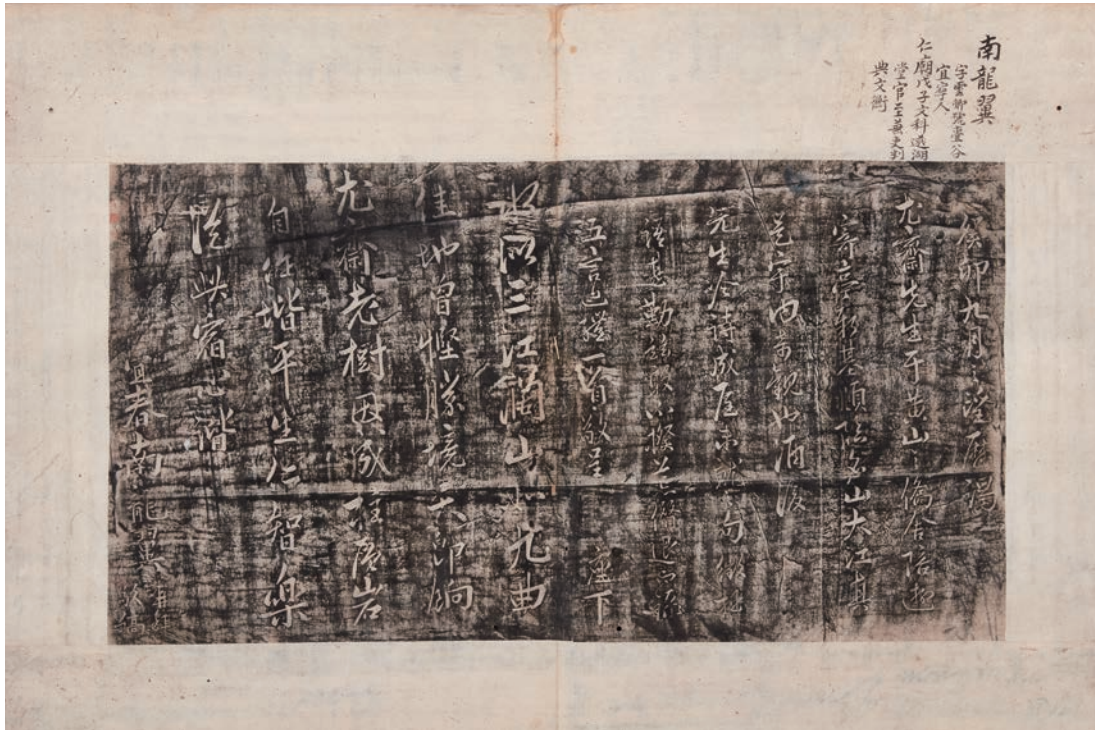
기묘년(1699) 중추 하순 관찰사 김시걸이 쓰다

己卯 中秋 下浣 觀察使 金時傑 草

89) 김시걸: 본관 안동, 자 사흥(士興). 호 난곡(蘭谷)이며 시호 헌간(獻簡)이다. 1684년(숙종 10)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1688년(숙종 14) 검열이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파직되었다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 후에 지평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1695년(숙종 21) 이후 부사직(副司直)을 비롯하여 사간·전라도관찰사 등 여러 관직을 거쳐, 1701년(숙종 27) 대사간에 올랐다. 문집에 『난곡집』이 있다.

90) 인배는 간검인배(看劍引杯)를 말한다. 시문을 지을 적에 책을 뒤지면서 어렵게 전거 자료를 찾고 나서, 스스로 대견하게 여겨 허리에 찬 검을 바라보며 통쾌한 심정으로 술잔을 든다는 뜻이다.

91) 해선대(海仙臺)는 전라도 부안현에 있던 곳이다. 변산의 불주암(佛住菴) 뒤편에 있던 봉우리의 이름이다.



字雲卿 號壺谷 宜寧人 仁廟戊子文科 選湖堂 官至吏判 典文衡

자는 윤경(雲卿)이고 호는 호곡(壺谷)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인조 무자년(1648)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으며 관직은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문형을 맡았다.

癸卯九月望日 謁尤齋先生于黃山之僑舍 陪往寄齋新基 實兼江山之勝 酒後 先生吟坡翁詩成屋未就之句 徵拙語甚急 辭不獲已 敬呈一律

계묘년(1663) 9월 보름날에 황산의 교사(僑舍:임시거처)에서 송시열선생을 만나서 기재하는 새로운 터를 모시고 가니 실제 강산의 뛰어남을 겸한 곳이다. 술을 마신 후에 선생은 소동파의 시성옥미취(詩成屋未就)의 시구를 읊고서는 나에게 시 한 수를 부탁하시니 나는 너무나 황송하여 잠시 물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오연 근체시 한 수를 지어 선생님 앞에 정중하게 드렸다.

92) 남용익: 1646년(인조 24) 진사(進士)가 되고, 2년 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효종 초에 3사의 벼슬을 두루 지냈다. 숙종대 기사환국으로 함경도 명천(明川)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뛰어났다. 문집에 『호곡집』이 전한다.

93) 팔괘정(八卦亭): 인조 때에 송시열(宋時烈)이 세운 건물로 이황과 이이를 추모하며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곳이다. 송시열은 스승인 김장생(金長生)이 임리정을 건립하고 강학을 시작하자 스승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서 임리정에서 150m 떨어진 곳에 팔괘정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강은 삼강평원처럼 넓디 넓고
 산은 마치 무이구곡처럼 아름답네
 땅은 이런 경승을 마련하여 잘 간수했고
 하늘은 이를 우재선생에게 베풀셨네
 오래된 나무가 그대로 기둥이 되고
 층층히 쌓인 바위들 자연스레 계단이 되었네
 평생 산수를 즐기며 사셨으니
 이를 따라 일찍 먹은 마음 이루셨네

水似三江闊
 山如九曲佳
 地曾慳勝境
 天卽餉尤齋
 老樹因成柱
 層巖自作階
 平生仁智樂
 從此宿心諧

의령사람 남용익이 두 번 절하고 삼가 적다.

宜春南龍翼再拜敬稿

삼가 차운하다⁹⁵⁾

奉次

강위에 높은 정자 다 실 만하니
 옷깃 헤쳐 망향의 시름 한번에 흘네
 청산은 왕관곡(王官谷)과 완전히 비슷하고
 방초는 사조의 물가 그대로 있네⁹⁶⁾
 이끼 낀 언덕에 자리 옮겨서 취하니
 물새가 이해하는 듯 사람을 불러 머물게 하네
 노년에 만사 모두 느껴움 일게 하니
 흰머리 다시 온 게 십오년이 지났네

江上高亭盡可休
 被襟一散望鄉愁
 青山宛似王官谷
 芳草依然謝眺洲
 苔岸更成移席醉
 水禽如解喚人留
 衰年萬事皆生感
 百首重來十五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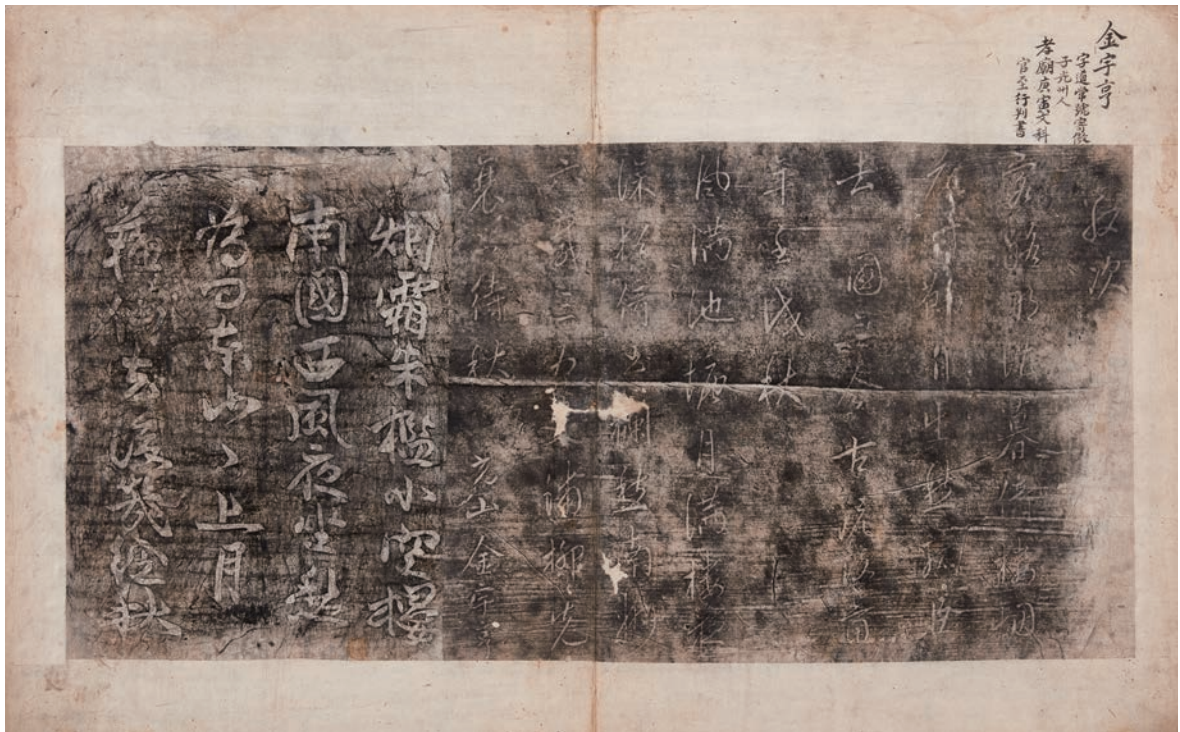
을미년(1655) 계추 남간(南澗) 홍자회(洪子晦)

乙未 季春 南澗 洪子晦

94) 홍처량: 조선 중기의 문신. 홍문관수찬, 이조정랑, 승지, 대사간, 예조참판, 대사헌, 이조판서, 판중추부사, 좌참찬 등을 지냈다.

95) 홍처량이 1655년(효종 6) 광주목사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96) 소식(蘇軾)의 시에 “우연히 만나 행차를 모시고, 사조의 물가에서 방초를 찾네. [邂逅陪車馬 尋芳謝眺洲]”라고 한 구절이 있다.(『소동파 시집蘇東坡詩集』「用前韻再和許朝奉」)



字道常 號寄傲子 光州人 孝廟庚寅文科 官至行判書

자는 도상(道常)이며 호는 기오자(寄傲子)이고,⁹⁸⁾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효종 경인(165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행판서를 지냈다.

삼가 차운하다

□次

여행길 저녁 누대에 기대어 어찌 견디리
연화피는 좋은 계절 시름 저절로 생겨나네
외로운 신하 도성 떠남은 예와 지금 없으니
이미 지난 날 임술년 가을 모습 되었네
바람은 못물에 가득 달은 누각에 가득하고
밤 깊어 옥 난간에 기대니 수심이 이네
남쪽 지방 육년 세 번
포구의 버드나무 가을을 기다리네

客路那堪暮倚樓
煙花時節自生愁
孤臣去國無今古
既復當年壬戌秋
風滿池塘月滿樓
夜深猶倚玉欄愁
南洲六載三爲□
浦柳先衰已待秋

광산(光山) 김우형

光山 金宇亨

안개와 서리낀 붉은 난간 허공의 누각을 작게 하고
남방의 서풍은 야밤에 앉아 시름을 자아내네
동쪽 산 위의 달에게 물으니
소동파 간 후에 가을이 몇 년이나 지났는가

煙霜朱檻小空樓
南國西風夜坐愁
爲問東山山上月
蘇仙去後幾綻秋

97) 김우형: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1650년(효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에 등용되고 이어 3사(三司)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글씨에 능하였고, 특히 예서에 뛰어나 숙종 때 보책(寶冊)을 자주 썼다. 문집으로 『옥산유고玉山遺稿』가 전한다.

98) 호는 기오당(寄傲堂)의 오자로 보인다.



字季應 永川人 明廟乙卯文科 官至 參判

자가 택지(擇之)이고 호가 지호(芝湖)이며 본관이 전주이다. 현종 갑진년(166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시호가 정간(正簡)이다.¹⁰⁰⁾

차귀를 유람하다¹⁰¹⁾

遊遮歸

삼신산이 푸른 바다에 우뚝 솟아있고
동쪽 벼랑에 새긴 글씨는 신의 솜씨를 다했네
지금 와서 홀로 천년의 비경을 방문하니
나는 봉호¹⁰²⁾의 머리 검은 신선이네¹⁰³⁾

矗立三山碧海中
東崖剗剛極神功
今來獨訪千年祕
我是蓬壺綠髮翁

붉고 푸른 벼랑이 비단처럼 아름다우니
동문이 깊이 잠겨도 이 몸은 넉넉하네
신선이 정말로 많은 곳에 없어서
물에 떠가는 복숭아 꽃잎이 보이지 않네

翠壁丹崖錦繡如
洞門深鎖自家餘
仙人定在無多地
不見桃花泛水於

을묘년(1675) 중하 순무사(巡撫使) 이선

乙卯仲夏 巡撫使李選

99) 이선: 숙종대 문신으로, 송시열의 문하이다. 응교 때 노산군(단종) 묘소에 시제를 올리고 황보인·김종서 등의 신원을 상소했다. 개성부유수·예조참판, 이조참판 등을 지내고 기사한국 때 귀양가 죽었다. 저서『지호집』 등이 있다.

100) 이선(李選)……정간(正簡)이다: 작가에 대한 주석이 원문에 “자가 계응(季膺)이고 본관이 영천(永川)이다. 명종 을묘년(155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字季膺 永川人 明廟乙卯文科 官至參判]”라고 되어있으나 잘못이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01) 차귀(遮歸)를 유람하다: 제주 순무사(濟州巡撫使) 이선이 1675년(숙종 1) 5월에 제주 차귀를 유람하며 지은 시이다.

102) 봉호(蓬壺):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봉래산(蓬萊山)과 방호(方壺, 방장산)의 합칭(合稱)이다. 삼신산은 봉래산·방장산·영주(瀛洲)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강산·지리산·제주도를 가리킨다고 여겼다.

103) 머리 검은 신선이네: 원문의 ‘녹발옹(綠髮翁)’은 머리카락이 검은 노인으로, 신선을 뜻한다. 이백(李白)의 「유태산遊泰山」에 “우연히 선동(仙童)을 만났는데, 두 귀밑 검은 머리를 틀어 올렸네.[偶然值靑童, 綠髮雙雲鬢.]”라고 하였다.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강원도



字君平 號東溟 溫陽人 仁廟己巳文科壯元 官至禮曹參判 弘文提學

자는 군평(君平), 호는 동명(東溟), 본관은 온양이다. 인조 을사년(1626) 문과 장원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예조 참판 홍문관제학에 이르렀다.

홍천 황 사군을 전송하다

送洪川黃使君

산골짜기 홍천현에서 뵈고

峽裏洪川拜

봄날 사군(使君)을 보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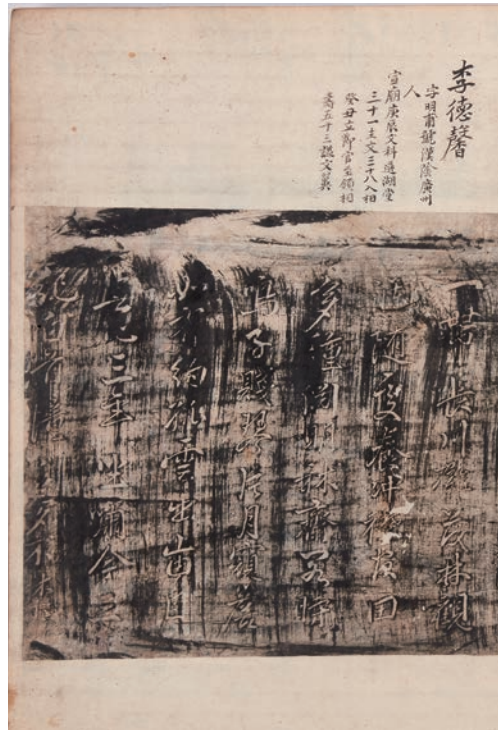
春天送使君

범파정 아래의 물에서

泛波亭下水

응당 흰 갈매기 무리와 함께 하리.

應與白鷗群

[이덕형李德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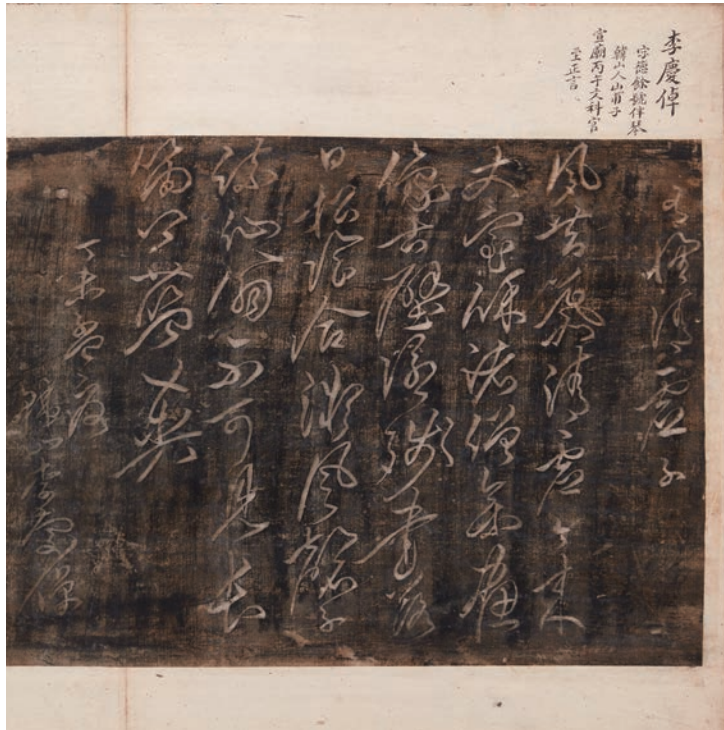
字明甫 號漢陰 廣州人 宣廟庚辰文科 選湖堂 三十一主文 三十八入相 癸丑立節 官至領相 壽五十三 諡文翼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 본관은 광주. 선조 경진년(1580)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뽑혔다. 31세에 문형을 관장했으며 38세에 재상이 되었다. 계축년 절의를 지켰다. 관직은 영상에 이르렀으며, 향년은 53세이다. 시호는 문익이다.

한 줄기 긴 강은 무성한 숲을 감싸 도는데
물결 바라보는 곳곳마다 넓고 담박한 마음 기른다.
관청 밭에는 도연명의 차조를 많이 심었고
건물에서는 때때로 자천(子賤)⁴⁾의 거문고 소리 울린다.
조각달은 약속 있는 것처럼 처마 엿보고
외로운 구름은 제 스스로 무심히 바윗굴에서 나온다.⁵⁾
삼 년 동안 편안히 다스린 지⁶⁾ 이제 삼십 년,
흰머리로 분주히 다니던 일 꿈에서도 못잊겠네.

一帶長川擁茂林³⁾
觀瀾隨處養冲襟
官田多種淵明秫
齋閣時鳴子賤琴
片月窺簷如有約
孤雲出岫自無心
三年坐嘯今三紀
白首憧憧夢不禁.

- 1) 심희수: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 또는 수뢰루인(水雷累人)이다. 선조대에 헌납, 대사헌, 예문관제학, 이조판서, 좌의정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뛰어났다.
- 2) 『청구제영』에는 이 작품을 이덕형이 지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심희수(沈喜壽)가 지은 것이다. 심희수의 문집인 『일송집一松集』에 「차홍천범파정운次洪川泛波亭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작자는 심희수로 바로 고치고, 부기사항은 그대로 번역하여 실었다.
- 3) ‘茂林’ 옆에 ‘深陰’이라는 글자가 판각되어 있다.
- 4) 자천(子賤) 공자의 제자로, 성은 복(宓), 이름은 부제(不齊)이고 자천은 그의 자이다. 단보(單父)의 읍재(邑宰)가 되었는데 거문고를 타면서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 5) 외로운 구름은 …… 나온다: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구름은 무심히 바위 굴에서 나온다”(運無心而出岫)라는 구절을 용사한 것이다.
- 6) 편안히 다스린 지: 원문은 坐嘯. 한가하게 앉아서 시를 읊조리고 휘파람을 분다는 뜻으로, 맑고 한가롭게 관직 생활을 하거나 혹은 정치를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字德餘 號伴琴 韓山人 山甫子 宣廟丙午文科 官至正言

자는 덕여(德餘), 호는 반금(伴琴),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산보(山甫)의 아들이다. 선조 병오년(1606)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정언에 이르렀다.

청허자를 그리워하며

有懷淸虛子

예부터 청허자를 그리워했는데

夙昔慕淸虛

오늘 그 방에 왔네.

今來丈室餘

여러 스님들 화상에 참배하고

諸僧參畫像

오랜 벽에는 남은 책 남아있네.

古壁隱殘書

저녁해는 소나무 그림자에 합쳐지고

落日松陰合

산들바람은 풍경에 불어온다.

微風磬子疏

선옹(仙翁)은 뵈을 길 없는데

仙翁不可見

긴 피리소리와 함께 남여(藍輿)에 오른다.

長笛上藍輿

정미(1607) 맹하 한산 이경탁

丁未孟夏 韓山 李慶倬.

7) 이경탁: 조선후기 문신이다. 1606년(선조 39) 문과에 급제하여 전직, 호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대 정언(正言)으로 임명되었지만 호패 법을 중시하도록 건의한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피(引避)하였다.

4 장신(張紳, ?~1637)⁸⁾

영월 청허루(청구제영 제1첩)



德水人 維弟 靖社功臣 丁丑以江留失守坐死

본관은 덕수. 장유(張維)의 동생이며 정사공신이다. 정축년(1637) 강화유수로 있다가 함락되었는데, 이에 연루되어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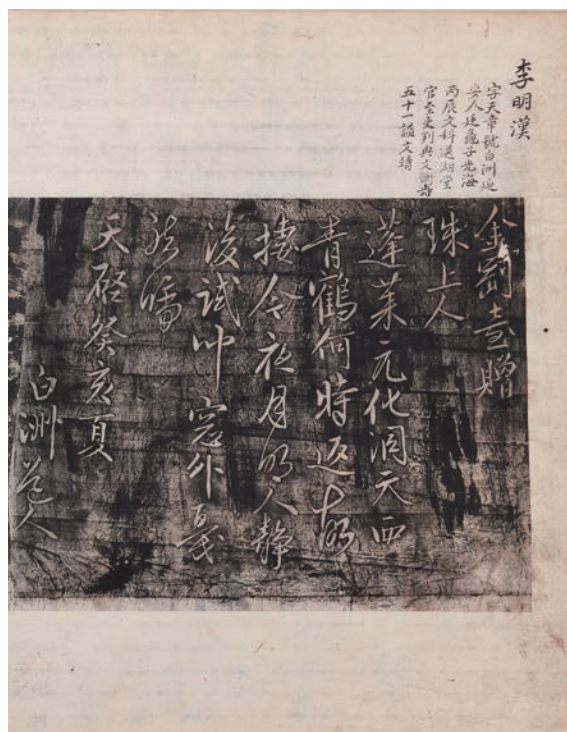
내원 서쪽에 작은 집 있는데
뜰 가득 가을달이 절로 처량하여라.
고승은 이미 떠나시고 영정만 남았나니
고요한 밤 부질없이 한 줄기 향만 피운다.

內院西頭有小堂
滿庭秋月自淒涼
高僧已去仍留影
靜夜空燒一瓣香

갑술년(1634) 추팔월 관찰사 장신

歲甲戌秋八月 觀察使 張紳

⁸⁾ 장신: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장유(張維)의 동생으로 인조반정에 참여하였다. 병자호란 때 강화유수(江華留守)였는데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죄로 자결하였다.



字天章 號白洲 延安人 廷龜子 光海丙辰文科 選湖堂 官至吏判 典門衡 壽五十一 諡文靖
 자는 천장(天章), 호는 백주(白洲), 본관은 연안. 이정구의 아들. 광해군 병진년(1616)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뽑혔다. 관직은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며, 문형을 관장했다. 향년 51세이며, 시호는 문정이다.

금강대에서 주상인에게 주다.¹⁰⁾

金剛臺贈珠上人

봉래산 원화동천(元化洞天)의 서쪽¹¹⁾

蓬萊元化洞天西

청학은 언제나 옛 둥지로 돌아올꼬.¹²⁾

靑鶴何時返故棲

오늘 밤 달 밝고 인적 고요해진 뒤

今夜月明人靜後

시험 삼아 창밖 학 울음소리를 들어본다.

試聞窓外戛然啼

천계 계해년 여름 백주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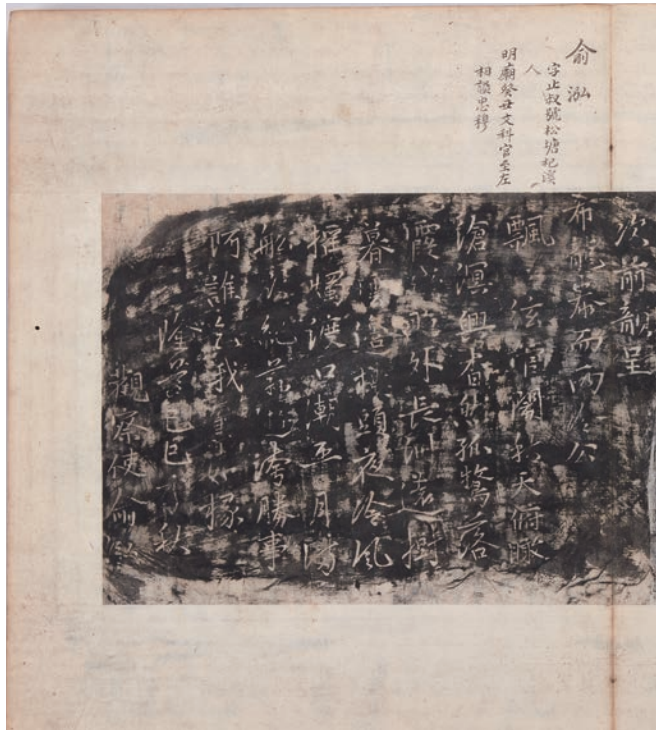
天啓癸亥夏 白洲道人

9) 이명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아버지는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이다. 대사헌,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으며 저서로 『백주집白州集』이 있다. 이괄의 난, 병자호란을 모두 겪었으며, 1644년(인조 22) 심양에 볼모로 있던 소현세자를 모셔왔다.

10) 이 작품은 『백주집』에 「만폭동萬瀑洞」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탁본첩에서는 제목을 「金剛臺贈珠上人」으로 판각해 놓았다. 만폭동 옆에 금강대라고 하는 바위가 우뚝 솟아있고, 아래쪽으로는 표훈사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시는 표훈사의 누정에 걸려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봉래산 …… 서쪽: 금강산 만폭동의 바위 위에 양사언(楊士彦)의 글씨로 전해지는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岳元化洞天)’이라는 초서가 새겨져 있다.

12) 청학은 …… 돌아올꼬: 금강대 꼭대기에 학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字止叔 號松塘 杞溪人 明廟癸丑文科 官至左相 諡忠穆

자는 지숙(止叔), 호는 송당(松塘), 본관은 기계. 명종 계축년(1553) 문과에 급제했다. 관직은 좌상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충목이다.

이전의 시에 차운하여 희룡, 태이 두 영공께 바치다

次前韻呈希龍泰而兩令公

나부끼는 음악 소리 가을 하늘에 요란한데
푸른 바다 굽어보니 흥취 아득하여라.
외로운 오리 저녁노을¹⁴⁾은 □□□□
저녁 구름 가에는 긴 모래톱에 멀리 나무 서있다.
누정에 밤은 서늘하고 바람에 촛불 흔들리는데
나루터엔 조수 잔잔하고 달은 배에 가득하다.
□□□□ 소동파의 뱃놀이¹⁵⁾ 멋진 일로 자랑할 만하니
그 누가 나에게 서까래 같은 붓¹⁶⁾을 빌려주리.

飄飄絃管鬧秋天
俯瞰滄溟興杳然
孤鶩落霞□□外
長洲遠樹暮雲邊
樓頭夜冷風搖燭
渡口潮平月滿船
□紀蘇遊誇勝事
阿誰乞我筆如椽

용경 기사년 계추 관찰사 유홍

隆慶己巳季秋 觀察使 俞泓

13) 유홍: 조선전기 한성판윤,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임진왜란 때에 선조를 호종했고, 1594년(선조 27) 해주에 있는 왕비를 호종하다가 객사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장서가 많았다.

14) 외로운 오리 저녁 노을 :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저녁 노을은 외로운 오리와 나란히 날아간다”(落霞與孤鶩齊飛)라는 구절을 활용하여 표현했다.

15) 소동파의 뱃놀이 : 소동파가 적벽(赤壁) 아래에 달밤에 배를 띄우고 술과 시로 즐긴 일.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에 나온다.

16) 서까래 같은 붓 : 진(晉)나라 왕순(王珣)이 꿈에서 어떤 사람에게 서까래와 같이 큰 붓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는 반드시 큰 붓으로 글을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얼마뒤 황제가 죽자 애책(哀冊)과 시호(諡號)를 모두 왕순이 기초하였다고 한다.



字君善 坡平人 明廟甲子文科 官至監司

자는 군선(君善), 본관은 파평. 명종 갑자년(156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감사에 이르렀다.

차운하다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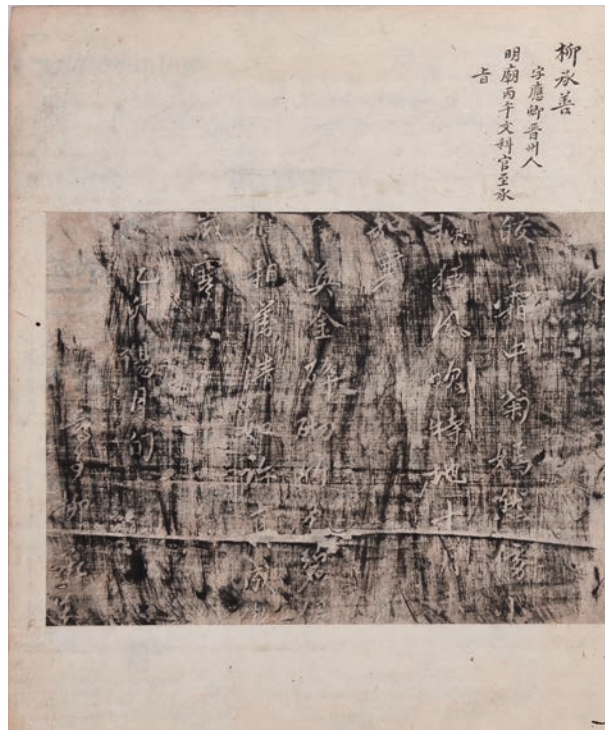
몸 튼튼하던 당년에 즐거이 홀로 올랐었는데
오늘 백발로 다시 난간에 기대어 기뻐라.
반쯤 걷은 주림으로 안개 비 자욱한 앞산 저무니
아름다운 누각 첫 번째 층이 황홀하구나.

身健當年快獨登
今來白髮喜重憑
半簾烟雨前山暮
悅在瓊樓第一層

관찰사 윤희길 만력 경인년(1590) 맹추

觀察使 尹希吉 萬曆庚寅孟秋

17) 윤희길: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1564년(명종 19) 식년시 문과에 급제했고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을 역임했다.



字應卿 晉州人 明廟丙午文科 官至承旨

자는 응경(應卿), 본관은 진주. 명종 병오년(1546)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다.

운자를 빌려서 짓다

次

희디 흰 서리 속의 국화

皎皎霜中菊

방긋 웃으며 작은 난간 옆에 피었다.

嫣然傍小欄

미친 듯한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니

狂風吹特地

시월에도 추위를 아직 모르겠네.

十月未知寒

국화 꽃잎은 금빛으로 섬돌에 부서지고

菊英金碎砌

대나무 빛은 푸르게 난간을 침노한다.

竹色碧侵欄

서로 마주하니 맑기가 이와 같은데

相對清如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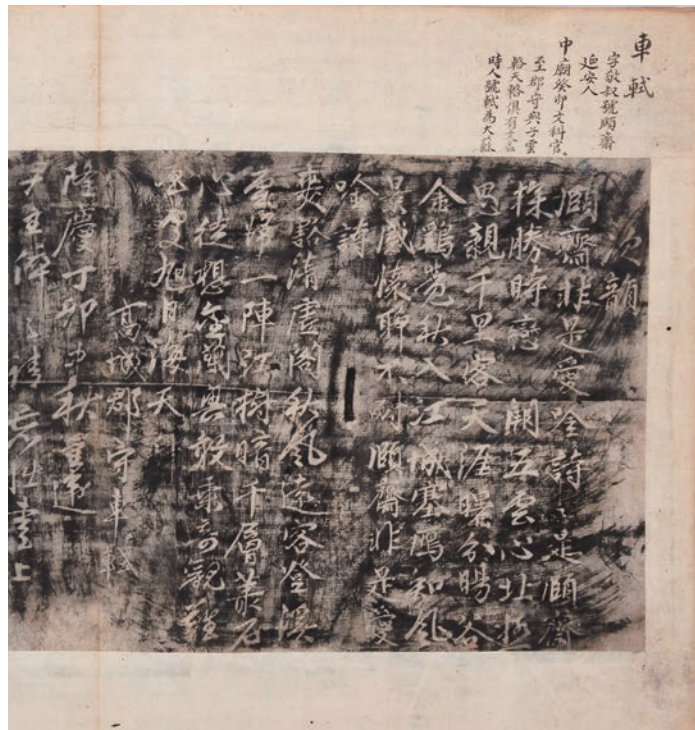
진실로 추위를 넘어서는 절의(節義) 만들었네.

眞成傲歲寒

을묘년¹⁸⁾ 10월 열흘날 도사 유승선.

乙卯陽月旬 都事 柳承善

18) 을묘년이라고 표기된 연대는 유승선(1491~1549)의 생몰연대와 비교할 때 맞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을묘년은 1555년이기 때문에 그 사후에 지어진 것이 되므로, 을묘년이라는 판각은 오류로 보인다.



字敬叔 號頤齋 延安人 中廟癸卯文科 官至郡守 與子雲輅天輅具有文名 時人號軾爲大蘇
 자는 경숙(敬叔), 호는 이재(頤齋),延安 사람. 중종 계묘년(1543) 문과에 급제하였다. 아들 운로(雲輅), 천로(天輅)와 더불어 모두 문명(文名)을 떨쳤는데, 당시 사람들이 차식을 대소(大蘇)라고 불렀다.

운자를 빌어서 짓다.

次韻

이재는 시 읊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이재가 탐승(探勝)할 때에는 시를 짓네.
 오색구름에 싸인 대궐 그리워 마음은 북극성에 있고
 천 리 밖에서 아버지 생각하는 나그네는 세상 끝에 있다.
 새벽이 양곡에 밝아오자 금계가 깨어나고
 가을이 강마일에 들자 북쪽 기러기가 알아챈다.
 풍경에서 느낀 생각 애오라지 참기 어려울 뿐,
 이재가 시를 읊는 것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네.

頤齋非是愛吟詩
 詩是頤齋探勝時
 戀闕五雲心北極
 思親千里客天涯
 曙分暘谷金鷄覺
 秋入江城塞雁知
 風景感懷聊不耐
 頤齋非是愛吟詩

19) 차식: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1543년(중종 38)에 문과에 급제했다. 유몽인(柳夢寅)이 쓴 신도비문에 의하면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경사와 문장에 능했다고 한다. 아들인 천로, 운로와 더불어 송나라의 삼소(三蘇: 蘇洵·蘇軾·蘇轍)에 비유되기도 했다.

시원하고 툇 트인 청허각
가을바람에 멀리서 온 나그네가 올랐다.
시냇가 구름은 한 무리 돌아가고
강가 나무는 천 겹이나 어둑하다.
총석²⁰⁾에서의 마음은 그저 생각만 할 뿐
금란굴²¹⁾에서의 흥취에 감히 올라탄다.
기이한 경관을 그려내기 어려운 곳에
아침 해가 바다에서 떠오른다.

爽豁淸虛閣
秋風遠客登
溪雲歸一陣
江樹暗千層
叢石心徒想
金蘭興敢乘
奇觀難畫處
旭日海天升

고성군수 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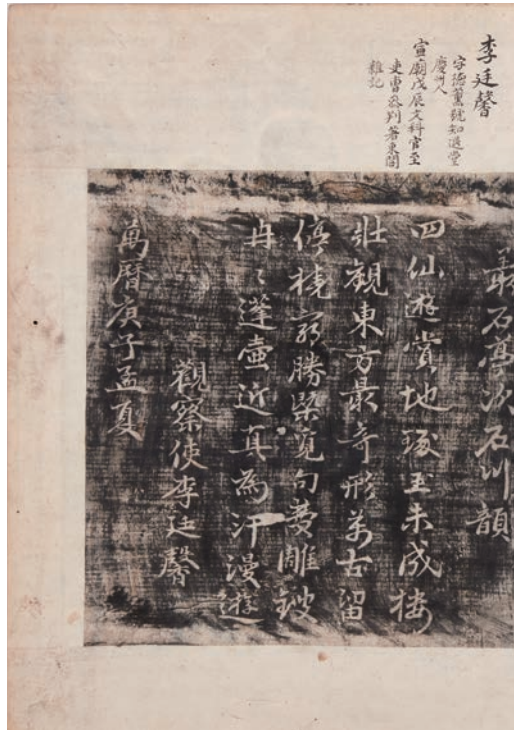
高城郡守 車軾

용경 정묘년(1567) 중추에 윤 군수의 요청을 거듭 여기면서 졸렬함을 잊고 써서 올리다.

隆慶丁卯中秋, 重違尹主倅之請, 忘拙書上.

20) 총석(叢石): 강원도 통천군 해금강 구역에 있는 주상절리로 형성된 일련의 바위들을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면서 명승 구역을 통칭하는 말이다.

21) 금란굴(金蘭窟): 강원도 통천군 바닷가에 있는 해식동굴로, 굴 안에 자라는 이끼가 마치 부처님이 입었다는 금란가사(金欄袈裟)와 같은 무늬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



字德薰 號知退堂 慶州人 宣廟戊辰文科 官至吏曹參判 著東閣雜記

자는 덕훈(德薰), 호는 지퇴당(知退堂), 본관은 경주. 선조 무진년(1568)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동각잡기東閣雜記』를 저술했다.

충석정, 석천의 시에 차운하다

叢石亭次石川韻

네 분 신선이 노닐며 완상하던 곳²³⁾
 옥을 쪼았지만 아직 누각 완성하지 못했네.
 장쾌한 경관은 동방에서 최고요,
 기이한 형상은 만고에 머무르고 있네.
 노 멈추고 멋진 곳 모두 구경하고
 시구 찾으며 아로새기느라 힘쓴다.
 어느새 봉호(蓬壺)²⁴⁾가 가까워
 진실로 느긋하게 유람하노라.²⁵⁾

四仙遊賞地
 琢玉未成樓
 壯觀東方最
 奇形萬古留
 停橈窮勝槩
 覓句費雕鏤
 苒苒蓬壺近
 眞爲汗漫遊

관찰사 이정형 만력 경자년(1600) 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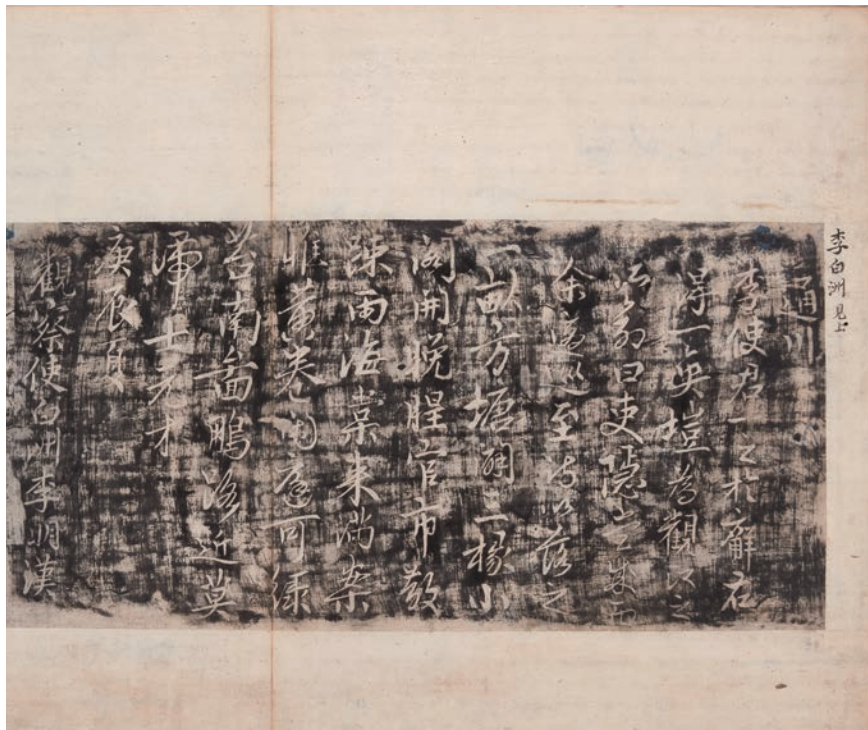
觀察使李廷馨 萬曆庚子孟夏

22) 이정형: 조선후기 학자이자 문신이다. 임진왜란 때 형 이정암과 황해도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동각잡기』 등이 있다.

23) 네 분 신선이 …… 완상하던 곳: 신라의 영랑(永郎), 술랑(述郎) 등 네 신선이 금강산을 두루 유람할 때 충석정에 들렀다는 고사가 전한다.

24) 봉호(蓬壺): 봉래(蓬萊)와 같은 말. 동해 바다에 있는 신선이 사는 세 섬인 삼신산(三神山) 중의 하나다.

25) 이 작품은 이정형(李廷馨)의 문집 『지퇴당집(知退堂集)』(권1)에 「叢石亭次石川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정형은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바 있는데,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李白洲 見上

이백주[이명한] 위에 보인다.

通川李使君一之, 於廨右得一爽塏, 爲觀政之所, 命曰吏隱. 堂成而余適巡至, 詩以落之.

통천부사 이일지(李一之)가 관아 옆에 시원하고 높은 곳을 발견하고 정사(政事)를 돌보는 곳으로 삼아 ‘이은(吏隱)²⁶⁾’이라고 명명하였다. 집이 완성되었는데 내가 때마침 순행(巡行)하다가 이곳에 이르러 시를 지어 낙성식을 축하하였다.

한 무(畝)짜리 연못 열치고
세 칸 작은 누각 열었다.
저물녘 비린내에 시장 흠어지고
성근 빗방울에 해당화 피어난다.
책상 가득 펼쳐놓은 것은 오직 책²⁷⁾이고
한가한 뜰에는 푸른 이끼 자라네.
남쪽 향해 도모하는 봉새의 길 가까우니
선비의 재주를 막히게 하지 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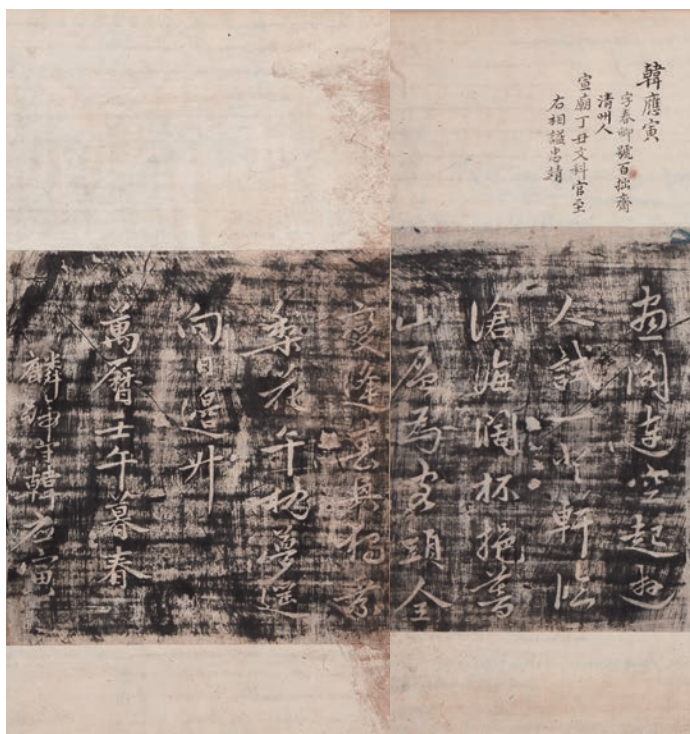
一畝方塘關
三椽小閣開
晚腥官市散
踈雨海棠來
滿案唯黃卷
閑庭可綠苔
南圖鵬路近
莫滯士元才

경진년(1640) 여름 관찰사 백주 이명한

庚辰夏 觀察使白洲李明漢

26) 이은(吏隱): 벼슬을 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영달을 바라지 않아서 마치 은거한 사람과 같다는 뜻이다.

27) 책: 원문은 황권(黃卷)으로, 책, 관리들의 공과를 기록한 문서, 조칙, 도교 서적이나 불경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여기서는 관리로서의 번다함을 벗어나서 마치 은거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맥락이므로 도교나 불교 쪽의 서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字春卿 號百拙齋 清州人 宣廟丁丑文科 官至右相 諡忠靖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졸재(百拙齋), 본관은 청주이다. 선조 정축년(1577)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우상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그림 같은 누각은 연이어 허공에 솟아 있어
노니는 사람 시험 삼아 한 번 올랐네.
추녀는 드넓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고
술잔은 저무는 산들을 담고 있어라.
나그네 위해 머리는 완전히 바꾸었고
봄을 맞아 흥취는 홀로 즐기고 있네.
배꽃 아래 한낮의 꿈을 꾸나니
아스라이 해를 향해 올라간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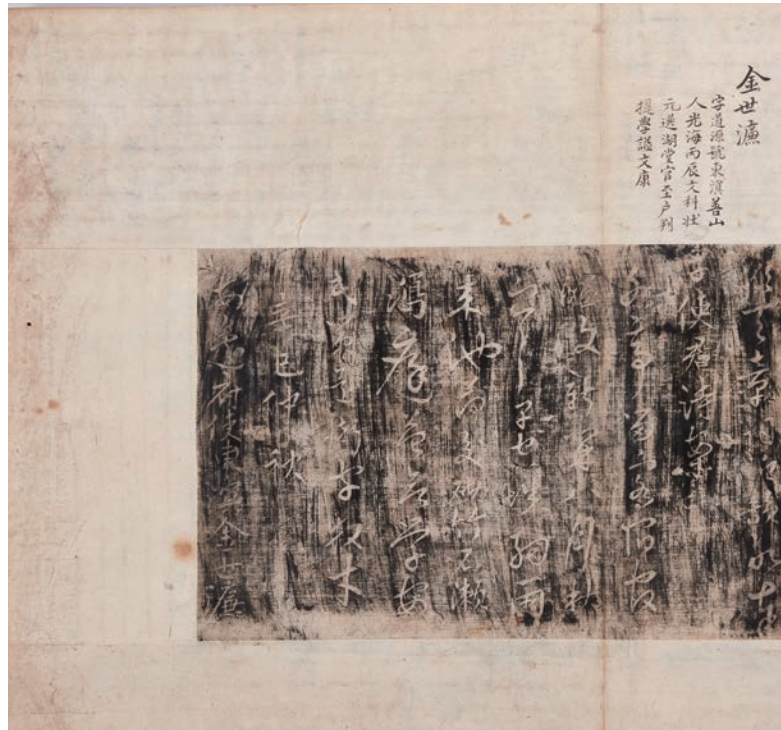
畫閣連空起
遊人試一登
軒臨滄海濶
杯挹暮山層
爲客頭全變
逢春興獨乘
梨花午枕夢
遙向日邊升

만력 임오년(1582) 모춘 인제군수 한응인.

萬曆壬午暮春 麟蹄守 韓應寅

28) 한응인: 선조대 문신이다. 중계변무의 공로로 광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우찬성,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29) 이 시는 한응인의 문집 『백졸재유고百拙齋遺稿』에 「通川淸虛閣」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道源 號東溟 善山人 光海丙辰文科壯元 選湖堂 官至戶判 提學 諡文康

자는 도원(道源), 호는 동명(東溟), 본관은 선산이다. 광해군 병진년(1616)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호당에 뽑혔다. 관직은 호조판서, 제학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천장³¹⁾ 사백의 시에 차운하여 삼가 이사군의 시안(詩案)에 받들다.³²⁾

次天章詞伯韻敬奉李使君詩案

물가 정자가 나그네 붙들어 묵으니
관청의 술독 다시 새로 열었다.
팔월 가을 추위 이른데
텅 빈 성에 가랑비 내린다.
연못의 연꽃은 섬돌 대나무와 엇갈리고
바위 사이 물살은 뜰의 이끼로 쏟아 내린다.
백성들 편안하게 할 계책 배우고 싶지만
도리어 목민관으로서의 재주 부끄럽구나.

水亭留客宿
官醞復新開
八月秋寒早
空城細雨來
池荷交砌竹
石瀨瀉庭苔
欲學安民策
還慙字牧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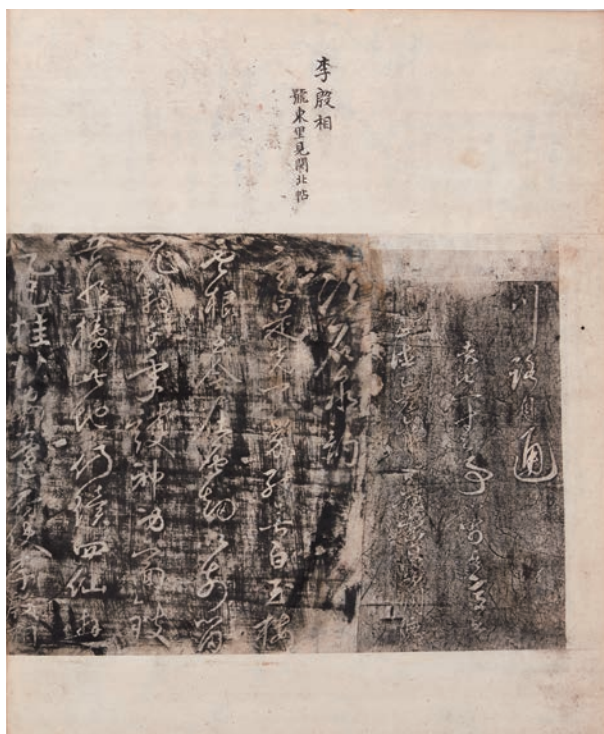
신사년(1641) 중추 안변부사 동명 김세렴

辛巳仲秋 安邊府使 東溟 金世濂

30) 김세렴: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광해군대 예조좌랑, 정언을 역임했다.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유배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등용되어 수찬, 응교 등을 지냈으며 황해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경서(經書) 연구와 시문에 능하였다.

31) 천장(天章): 이명한(李明漢)의 자이다.

32) 이 작품은 김세렴의 문집 『동명집東溟集』에 「通川蓮亭 次李天章明漢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號東里 見關北帖

호는 동리(東里) 「관북첩(關北帖)」에 보인다.

석천의 운을 빌려서 쓰다³⁴⁾

次石泉韻

진정 선천계³⁵⁾라면

定是先天界

능히 백옥루³⁶⁾가 없으랴.

能無白玉樓

구름 일어나는 바위는 지금도 남아있어,

雲根至今在

억겁 세월 이전에도 머물러 있었지.

灰劫以前留

귀신이 천 년토록 보호하였나니

鬼物千年護

신의 몸 육면에 새겨져있네.

神身六面鏤

내 장차 이곳에 살면서

吾將棲此地

네 신선의 유람을 이어보려네.

仍續四仙遊

을사년(1665) 가을 안변부사 이은상

乙巳桂秋 安邊府使 李殷相

33) 이은상: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열경(說卿), 호는 동리(東里). 1651년(효종 2) 별시문과에, 1656년(효종 7) 문과중시에 급제하였다. 이후 교리, 승지, 대사간, 도승지,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현종이 죽은 뒤 송시열이 복상문제로 유배를 당하자 자신도 벼슬에 나가지 않고 관동지역을 유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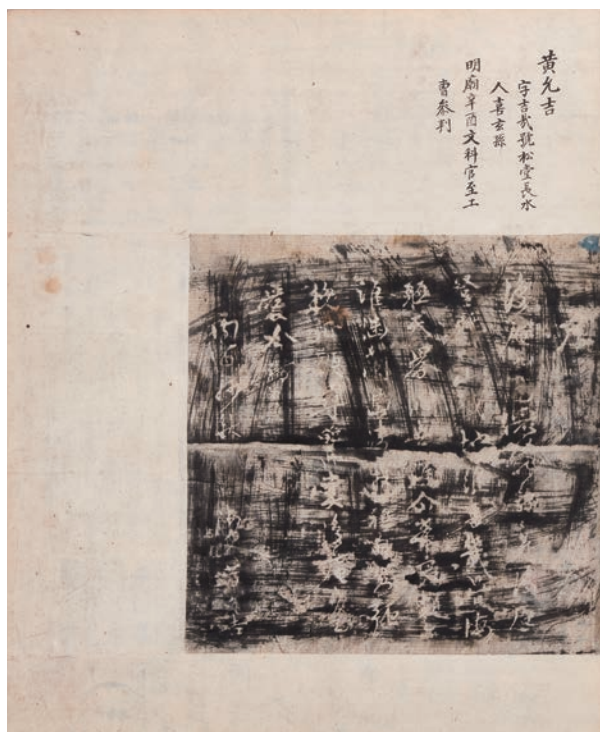
34) 이 시는 이은상의 문집 『동리집東里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면 창작 배경을 알 수 있다. 제목의 번역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집안 사람인 주부(主簿) 이정준(李廷俊)이 술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풀을 깔고 앉아서 각자 세 잔을 마셨다. 가을비가 살짝 뿌리고 있어서 도롱이를 헤치고 15리를 갔다. 통천태수 김정하(金鼎夏) 군이 중도에서 우리를 맞아서 함께 청허당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으며, 석천 임억령의 시에 차운하였다.(姓族李主簿廷俊甫, 携酒來訪, 藉草而坐, 各飲三盃. 秋雨微洒, 披蓑而行十五里, 通川太守金君鼎夏出迎於中路, 同入淸虛堂中火. 次林石川韻.)”

35) 선천계(先天界): 현재의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이다.

36) 백옥루(白玉樓): 신선들이 사는 곳에 있는 누정의 이름이다.

15 황윤길(黃允吉, 1536~?)³⁷⁾

통천 청허당(청구제영 제1첩)



字吉哉 號松堂 長水人 喜玄孫 明廟辛酉文科 官至工曹參判

자는 길재(吉哉), 호는 송당(松堂), 본관은 장수. 황희(黃喜)의 현손. 명종 신유년(1561)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차운하다³⁸⁾

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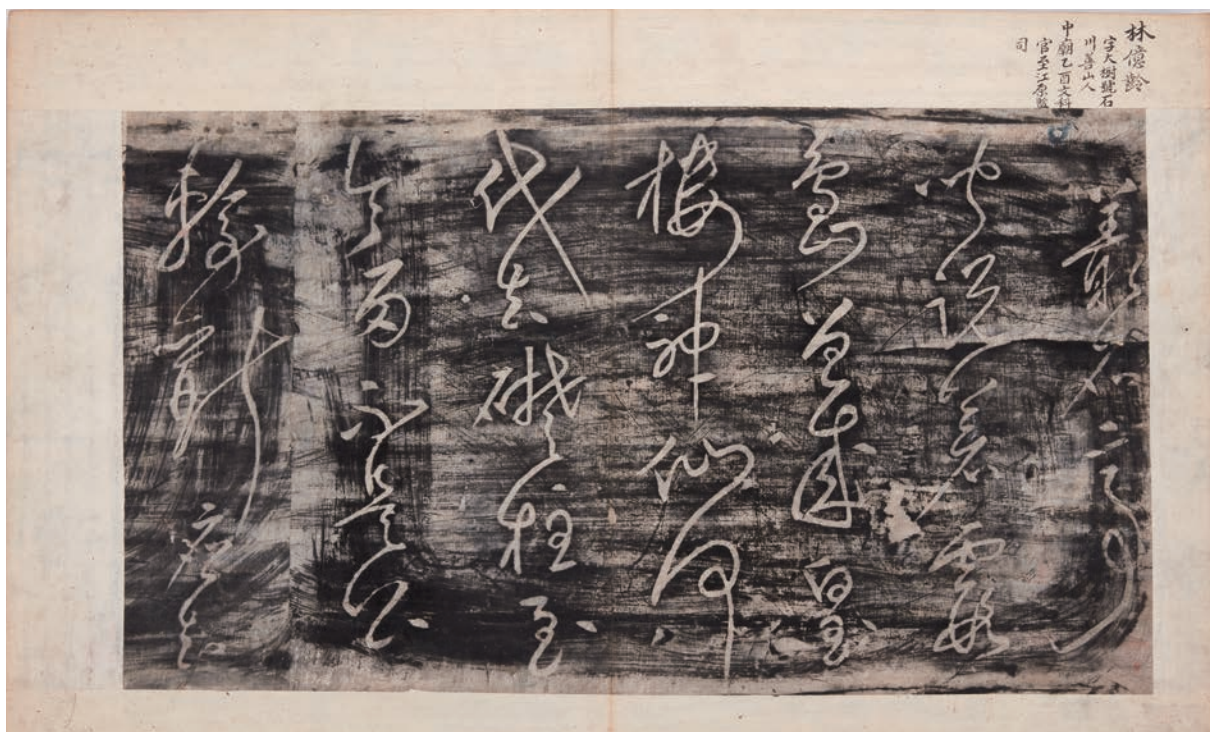
□□□□□□□□

병인년(1566) 초가을 어사 황윤길

丙寅初秋 御史 黃允吉

³⁷⁾ 황윤길: 조선전기의 문신 황희(黃喜)의 4대손이다. 선조대 문신으로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접견한 뒤, 부사(副使)였던 김성일의 의견과 다르게 일본의 내침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황윤길은 전하는 문집이 없다.

³⁸⁾ 이 작품은 탁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판독할 수 없었다.



字大樹 號石川 善山人 中廟乙酉文科 官至江原監司

자는 대수(大樹), 호는 석천(石川), 본관은 선산. 중종 을유년(1525)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강원감사에 이르렀다.

충석정³⁹⁾

叢石亭

들으니 신선들이 사는 섬에는
일찍이 백옥루가 있다고 하네.
신선은 어느 때에 떠나 갔는가
주춧돌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공수⁴⁰⁾가 깎은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귀신의 도끼로 새긴 것이겠지.
봉래산의 대궐을 지을 수 있다면
길이 적송자⁴¹⁾와 노닐 수 있을텐데.⁴²⁾

聞說蒼霞島
曾成白玉樓
神仙何代去
礎柱至今留
不是公輸斲
應知鬼斧鏤
如能架蓬闕
長與赤松遊

갑인년(1554) 모춘 관찰사 임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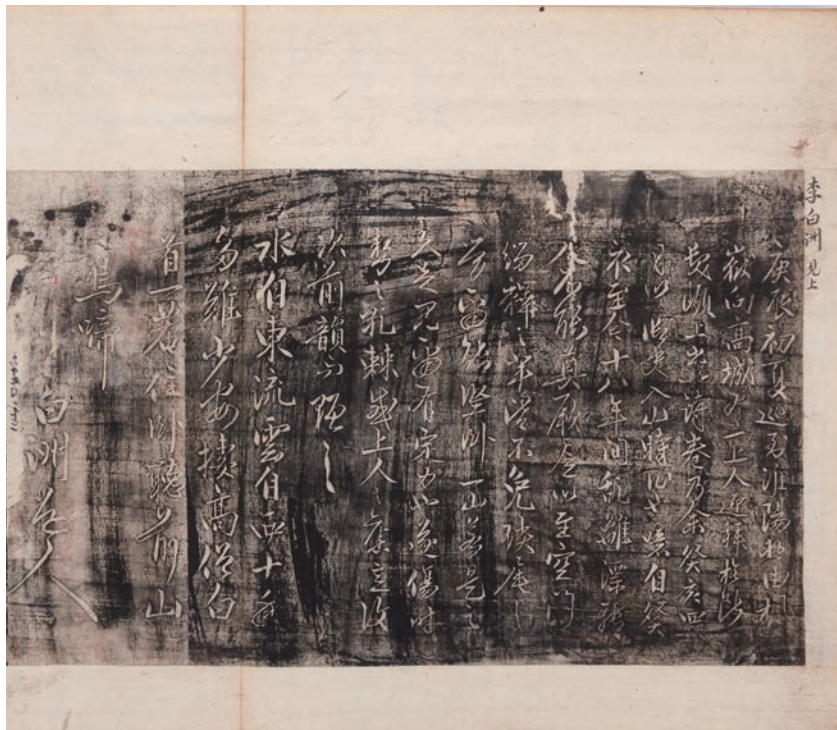
甲寅暮春 觀察使 林億齡

39) 이 시는 임억령의 문집 『석천집石川集』에 「題叢石臺」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40) 공수(公輸): 춘추시대 공수반(公輸班). 노반(魯班)이라고도 부른다. 노나라의 뛰어난 장인이었다.

41) 적송자(赤松子): 중국 전설 상의 신선으로, 신농(神農) 시대의 우사(雨師)였다. 후에 곤륜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42) 임억령은 1553년(명종 8)부터 강원도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李白洲 見上

이백주[이명한] 위에 보인다.

庚辰初夏, 巡到淮陽, 將由楓岳向高城, 有一上人迎拜於斷髮嶺上, 出一詩卷, 乃余癸亥四月, 以御史入山時作也. 噫! 自癸亥至今十八年間, 亂離漂轉, 人不能奠厥居, 以至空門緇釋之輩, 皆不免瑣尾之勞. 爾能堅臥一山若是之久, 足見爾有定力也. 遂傷時勢之孔棘, 感上人之舊意, 復次前韻而贈之.

경진년(1640) 초여름, 순력(巡歷)하면서 회양에 이르러 장차 풍악산을 경유하여 고성을 향하려 했다. 어떤 스님 한 분이 단발령 위에서 나를 맞이하여 인사를 하면서 시권(詩卷) 하나를 내놓았는데, 바로 내가 계해년(1623) 4월에 어사(御史)의 신분으로 금강산에 들어갈 때 지은 것이었다. 아! 계해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어지러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느라 사람들이 그 거소를 정할 수 없어서 불교의 스님들에게까지도 모두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너는 능히 한 곳의 산에 굳세게 누워 이처럼 오래도록 지냈으니 너의 수행력[定力]이 있음을 족히 알겠도다. 마침내 시세(時勢)의 어려움을 아파하고 스님의 옛 뜻에 감격하여 다시 이전의 운자를 빌려서 시를 지어 주노라.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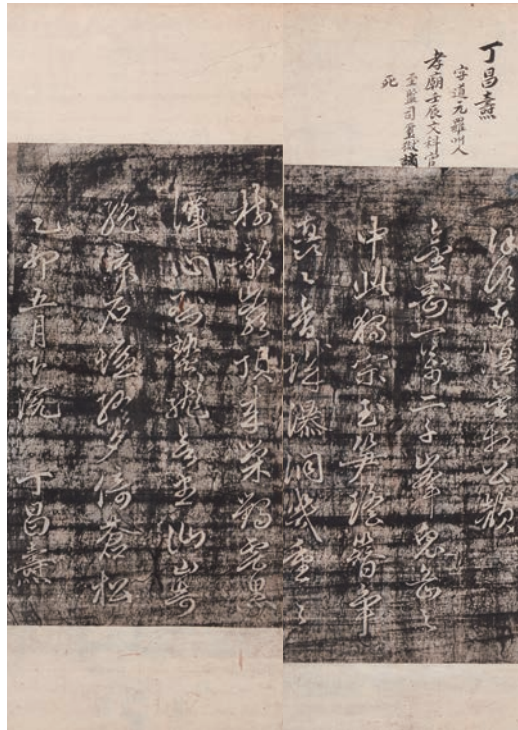
물은 동에서 흘러오고 구름은 서에서 흘러오니
십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에 편안히 지낸 적 적었지.
고승께서는 흰 머리로 암자에 머무르셨으니
앞산 산새 소리를 누워서 듣는구나.

水自東流雲自西
十年多難少安棲
高僧白首一菴住
臥聽前山山鳥啼

백주도인

白洲道人

43) 이 시는 창작 배경을 마치 서문을 쓰듯 길게 적은 동명(同名)의 제목으로 이명한의 문집 『백주집』에 수록되어 있다.



字道元 羅州人 孝廟壬辰文科 官至監司 璽獄謫死

자는 도원(道元), 본관은 나주. 효종 임진년(1652)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감사에 이르렀다. 허새(許璽)의 옥안(獄案)⁴⁵⁾으로 귀양 갔다가 죽었다.

삼가 동명 김상공⁴⁶⁾의 시에 차운하다

謹次東溟金上公韻

금강산 일만 이천봉

金剛一萬二千峰

못 산 중에 이 산이 으뜸.

衆岳之中此獨宗

옥순(玉筍)과 요잡(瑤簪)은 얼마나 뻥뻥하고

玉筍瑤簪爭矗矗

향성(香城)과 폭동(瀑洞)은 몇 겹이던가.⁴⁷⁾

香城瀑洞幾重重

나무는 바위 꼭대기에 기대어 학이 날아와 등지 짓고

樹欹巖頂來巢鶴

구름이 어둑하게 드리운 못 안에는 용이 누워 숨어있네.⁴⁸⁾

雲黑潭心臥蟄龍

신선의 산 기이한 경관 남김없이 보고 싶어서

欲盡仙山奇絕景

석단에서 저녁 내내 푸른 소나무에 기대있네.

石壇終夕倚蒼松

을묘년(1625) 5월 하순 정창도

乙卯五月下浣 丁昌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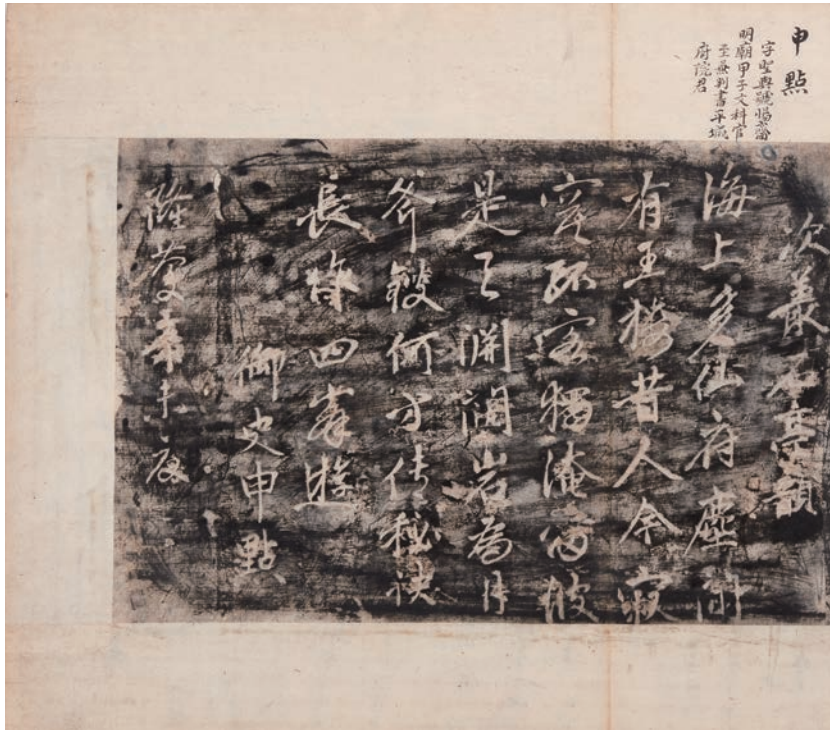
44) 정창도: 조선 후기 집의,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효종대 지평, 장령 등 청직에 10년 이상 몸담아 연관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45) 허새(許璽, ?~1682)는 조선 후기의 유생으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물러났던 남인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서인 세력이 일으킨 옥사에 걸려서 처형당했다.

46) 동명 김상공은 김세렴(金世濂)을 지칭한다. 이 작품은 김세렴의 시 「題正陽寺南樓」의 운자에 차운한 것이다.

47) 향성과 폭동: 중향성(衆香城)과 만폭동(萬瀑洞)을 뜻한다.

48) 구름이 …… 숨어있네: 만폭동 계곡에 있는 여덟 개의 못이 있는데, 그 중 흑룡담(黑龍潭)에는 검은 용이 숨어있다는 전설이 있다.



字聖與 號惕齋 明廟甲子文科 官至兼判書 平城府院君

자는 성여(聖與), 호는 척재(惕齋). 명종 갑자년(156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검판서에 이르렀으며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충석정의 시에 차운하다

次叢石亭韻

바다 위에 신선 세계 많은데
인간 세상엔 옥 같은 누각 있네.
옛사람 지금은 고요하고
외로운 나그네 홀로 머문다.
물결은 하늘뭇처럼 드넓고
바위는 달을 다듬는 도끼⁵⁰⁾로 아로새긴 듯.
어디서 비결을 전해 받아
길이 사선봉⁵¹⁾에서 노닐까.

海上多仙府
塵間有玉樓
昔人今寂寞
孤客獨淹留
波是天淵闊
岩爲月斧鏤
何方傳秘訣
長作四峯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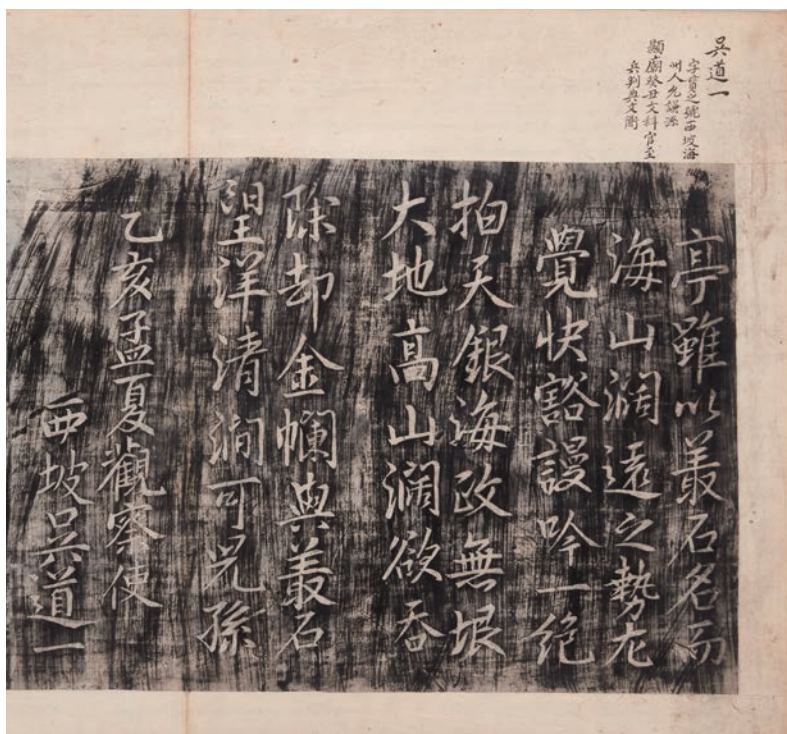
어사 신점 용경 신미년(1571) 여름.

御史申點 隆慶辛未夏

49) 신점: 도총관, 강릉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사문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있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을 알게 되었고, 명나라의 파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선무공신에 녹훈되었고 예제에도 뽑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50) 달을 다듬는 도끼: 『유양잡조酉陽雜俎』에 수록된 전설에 의하면 달은 칠보(七寶)로 만들어 졌는데, 항상 8만2천 호(戶)가 있어서 이것을 수리한다고 한다.

51) 사선봉(四仙峯): 강원도 통천군 해금강 구역의 충석정에 있는 네 개의 돌기둥. 전설에 의하면 옛날 술랑, 영랑, 남석, 안상이라는 네 신선이 이곳에서 즐겼다고 한다.



字貫之 號西坡 海州人 允謙孫 顯廟癸丑文科 官至兵判 典文衡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 본관은 해주. 오윤겸의 손자. 현종 계축년(167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문형을 관장했다.

정자는 비록 ‘충석(叢石)’으로 명명했지만 드넓은 바다와 먼 산의 형세는 더욱 장쾌하고 탁 트인 것을 깨닫고 절구 한 수를 느긋하게 읊조린다.

亭雖以叢石名, 而海山闊遠之勢, 尤覺快豁, 謾吟一絕.

하늘을 치는 은빛 바다 진정 끝이 없는데
커다란 땅과 높은 산 드넓어 삼킬 듯한다.
금란굴과 충석을 제외하면
망양정⁵³⁾과 청간정⁵⁴⁾은 아이들이라 하겠지.⁵⁵⁾

拍天銀海政無垠
大地高山闊欲吞
除却金欄與叢石
望洋清澗可兒孫

을해년(1695) 맹하 관찰사 서파 오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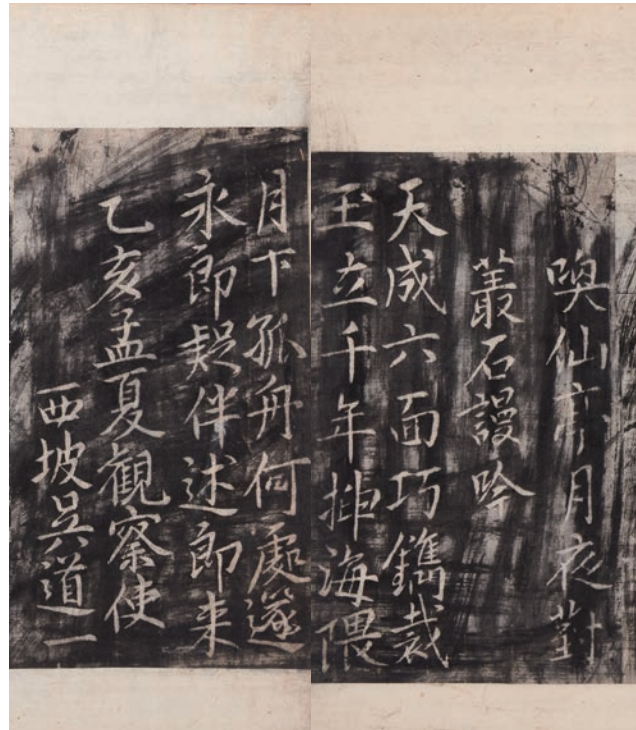
乙亥孟夏 觀察使 西坡 吳道一

52) 오도일: 부제학, 이조참판, 병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702년(숙종 28) 민언량의 옥사에 연루되었다가 유배되었다. 문장에 뛰어 세칭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라고 하였다. 문집 『서파집西坡集』이 전한다.

53) 망양정(望洋亭): 관동팔경의 하나. 지금은 경북 울진에 있지만, 조선 시대에는 강원도 관할이었다. 고려시대에 처음 세워졌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조선 시대 들어와서 1471년(성종 2) 평해군수 채신보(蔡申保)가 현종산(縣鍾山) 남쪽 기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기를 반복하다가, 현재의 모습은 2005년에 정비된 것이다.

54) 청간정(淸澗亭):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정자로, 관동팔경의 하나. 창건 연대와 건립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청간역(淸澗驛)의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 1520년(중종 15) 간성군수 최청이 중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81년에 해체 복원한 것이다. 바닷가에 있던 정자는 후대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55) 오도일은 1694~1695년에 강원도관찰사를 지냈는데, 이 때 지은 시이다. 다음 작품도 같은 시기에 지었다.



환선정⁵⁶⁾의 달밤에 총석을 마주하여 느긋하게 읊조린다.

喚仙亭月夜, 對叢石謾吟

하늘이 만들어 낸 여섯 면 정교하게 새겨져
서있는 옥은 천 년토록 바다 귀퉁이에 꽂혀있다.
달빛 아래 외로운 배 어디서 피리 소리 들리는가,
아마도 영랑이 술량을 짝하여 오는 것이리라.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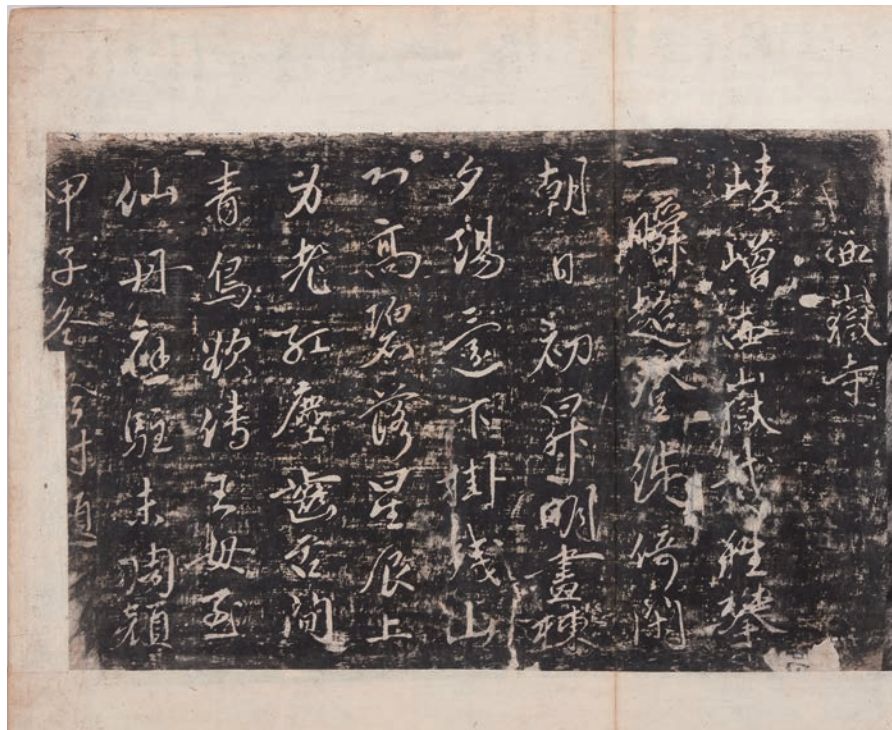
天成六面巧鐫裁
玉立千年挿海隈
月下孤舟何處簫
永郎疑伴述郎來

을해년(1695) 맹하 관찰사 서파 오도일

乙亥孟夏 觀察使 西坡 吳道一

56) 환선정(喚仙亭): 강원도 통천군 해금강 총석정 구역에 있던 정자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57) 총석정의 네 바위에서 신라의 네 신선이 노닐었다고 한다.



서악사

西嶽寺

드높은 서악은 깎아지른 듯 오르기 어렵지만
잠간 사이에 올라와 한가롭게 기대있다.
아침 해 막 떠오르자 그림 같은 기둥 밝아지고
저녁 햇살 떨어지며 남은 산에 걸렸다.
마음은 하늘의 별 위에 높고
몸은 속세의 소란스러움 사이에서 늙어간다.
파랑새는 왕모의 소식 전하러 날아왔으니⁵⁹⁾
신선의 단약은 머물렀으니 얼굴 시들지 않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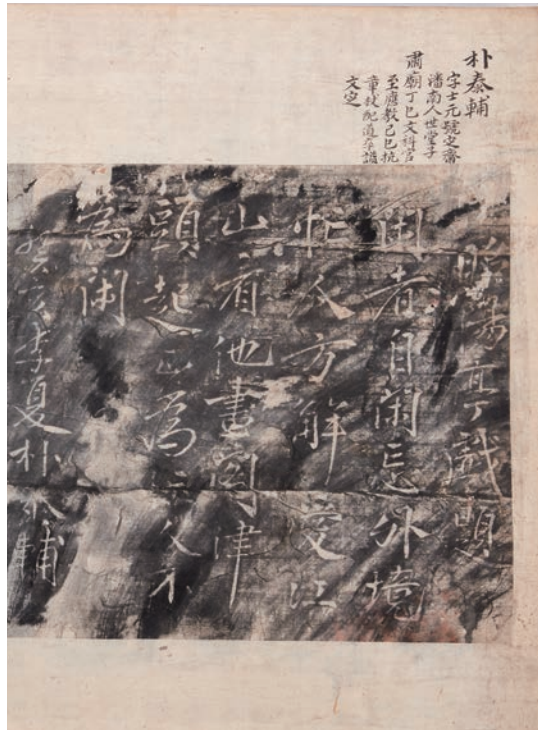
峻嶒西嶽截難攀
一瞬超登徒倚閑
朝日初昇明畫棟
夕陽還下掛殘山
心高碧落星辰上
身老紅塵齒舌間
青鳥欲傳王母至
仙丹應駐未凋顏

갑자년 겨울 □□ 쓰다.

甲子冬 □□題

58) 서악사(西嶽寺):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 서악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는 곳은 안동의 서악사지만, 이 작품들이 그곳을 배경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59) 파랑새는 …… 날아왔으니: 곤륜산 꼭대기 요지(瑤池)에서 사는 신선이 서왕모(西王母)이며, 서왕모의 말을 전하는 전령사가 파랑새다.



字士元 號定齋 潘南人 世堂子 肅廟丁巳文科 官至應教 己巳抗章 杖配道卒 諡文定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재(定齋), 본관은 반남이다. 박세당의 아들. 숙종 정사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응교에 이르렀다. 기사년 항장(抗章)⁶²⁾을 올렸다가 곤장을 맞은 뒤 유배를 가다가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소양정에서 장난 삼아 쓰다

昭陽亭戲題

한가한 사람은 스스로 바깥 경계(境界)를 잊고 한가롭지만
바쁜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강산을 사랑하는 것 알게 되지.
그림 같은 누각 나루터에 솟아있는 것 보나니
진정 바쁜 사람이니 한가한 사람은 아니로세.⁶³⁾

閑者自閑忘外境
忙人方解愛江山
看他畫閣津頭起
正爲忙人不爲閑

계해년(1683) 계하 박태보

癸亥季夏 朴泰輔

60) 박태보: 사간원 정언, 파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의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가는 길에 죽었다.

61) 소양정(昭陽亭):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인인 원천석(元天錫)의 시에 나올 정도로 오래 되었다. 봉의산 아래 소양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근대에 들어 현재의 위치인 봉의산으로 옮겨졌다. 원래 명칭은 산과 물을 모두 즐긴다고 하여 이요루(二樂樓)라고 하였으나, 후에 소양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강변에 있어서 홍수로 유실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춘천부사를 지낸 유희담(柳希聯), 이동형(李東馨, 1615~?) 등이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춘천부에서 경영하던 정자로, 많은 관리들과 묵객(墨客)들이 시문을 남겼다.

62)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당시 인현왕후 폐위에 반대하며 숙종에게 올린 글을 말한다. 이 때 폐위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주동자로 물려서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가던 도중 상처가 덧나서 노량진에서 세상을 떠났다.

63) 이 작품은 박태보의 문집 『정재집定齋集』에 「昭陽亭戲題」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應順 號酒隱 慶州人 明廟辛酉文科 官至領相 諡忠翼 壬辰都元帥

자는 응순(應順), 호는 주은(酒隱), 본관은 경주. 명종 신유년(1561)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영상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며, 임진왜란 때 도원수를 지냈다.

주인의 운자를 빌려서 쓰다

次主人韻

국화는 금빛 동전⁶⁵⁾을 쓸고 단풍은 붉은 빛을 열어젖히는데
집에서 새로 연 술동이 몇 사람이 함께 했던가.
나의 행차 이미 늦고 그대 장차 가려하니
뛰어난 행적은 오직 이상공께 구할 뿐.

菊掃金錢楓擺紅
一軒新甕幾人同
吾行已晚君將去
勝蹟唯徵李相公

앉아서 용정(龍旌)⁶⁶⁾을 감싸 안고 얼굴 다시 붉어졌는데
용렬한 재주로 감히 여러 분과 자리를 함께 할 것 생각했으랴.
임금 은혜 갚기 어렵고 변방 근심 무거운데
취한 뒤 소회를 여러 공(公)들과 나눈다.

坐擁龍旌面復紅
庸才敢謂與人同
君恩難報邊憂重
醉後攸懷說與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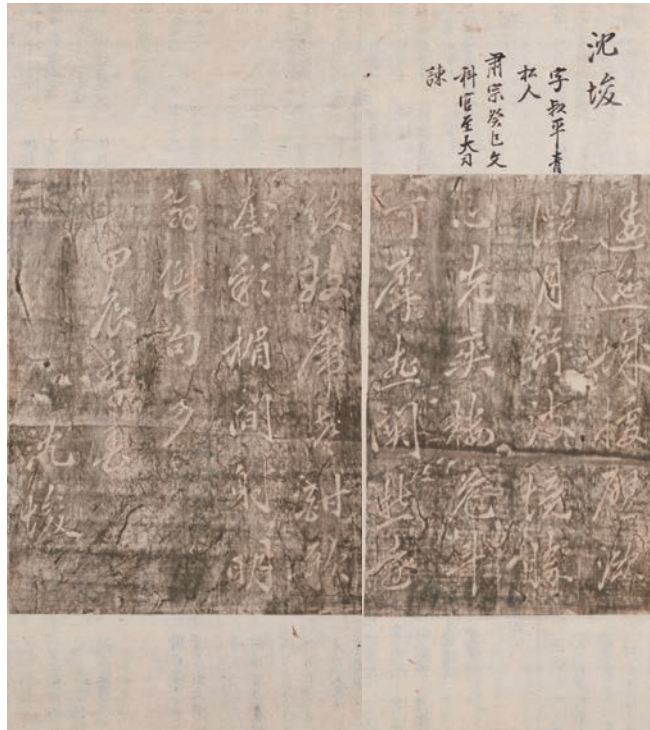
절도사 김명원

節度使 金命元

64) 김명원: 조선시대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임진왜란 때에 팔도 도원수로 임진강 방어전을 전개하여 적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65) 금빛 동전: 국화 꽃송이를 말한다.

66) 용정(龍旌): 용을 그린 깃발로 원래는 천자의 의장(儀仗)에 사용했지만, 후에 장수의 깃발로 사용되었다.



字叔平 靑松人 肅宗癸巳文科 官至大司諫

자는 숙평(叔平), 본관은 청송이다. 숙종 계사년(171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구불구불 성은 절벽에 기대있는데
 넘실넘실 달빛은 물결에 번진다.
 경계가 뛰어나니 마음 먼저 상쾌해지고
 누각 높으니 북두칠성도 어루만질 수 있을 듯.
 연경 관문에 먼 행역 근심스럽고
 기생과 함께 한 자리에 얼큰한 술과 노래 기쁘다.
 규성(奎星)⁶⁸⁾의 광채는 처마 사이로 쏘는데
 훌륭한 분들의 빼어난 구절 많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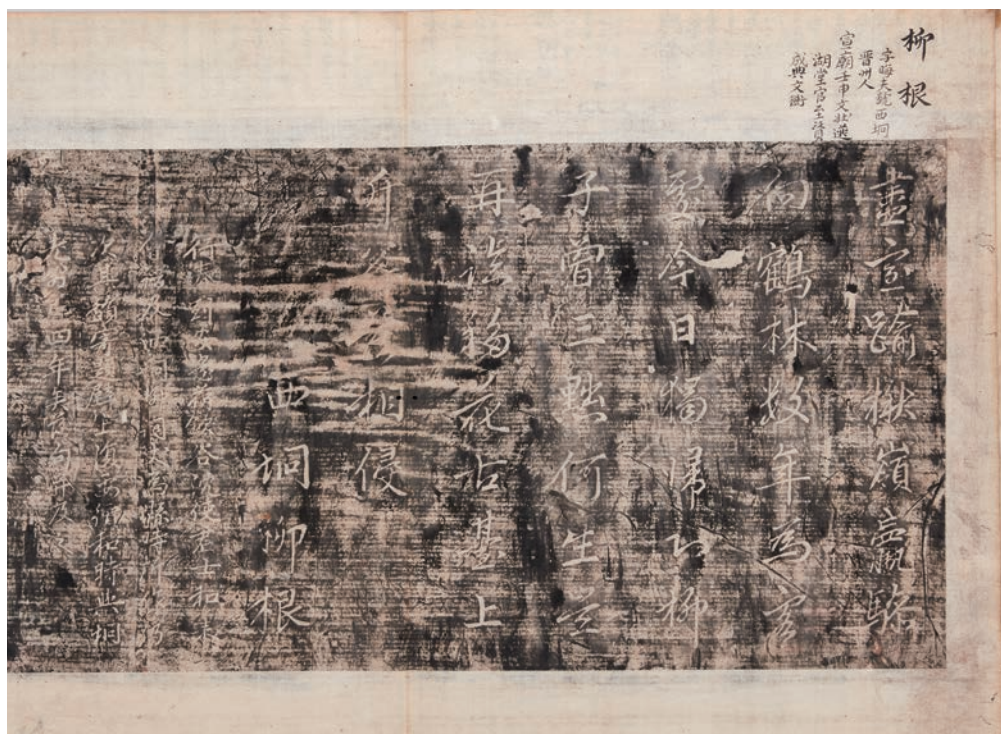
透迤城據壁
 瀲灩月舒波
 境勝心先爽
 樓危斗可摩
 燕關愁遠役
 妓席喜酣歌
 奎彩楣間射
 明翁傑句多

갑진년(1724) 계춘 심준

甲辰季春 沈竣

67) 심준: 숙종대부터 영조대까지 정언,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숙종대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문집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68) 규성(奎星): 문장을 관장하는 별이다.



字晦夫 號西峒 晉州人 宣廟壬申文壯 選湖堂 官至贊成 典文衡
 자가 회부(晦夫)이고 호가 서경(西峒)이며 본관이 진주(晉州)이다. 선조 임신년(1572)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호당(湖堂)에 선발되었고,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으며 문형을 맡았다.

온 가족이 추령⁷⁰⁾을 넘어서
 야윈 말 타고 학림⁷¹⁾으로 향했네
 몇 년 동안 객지에서 지내다가
 오늘 홀로 도성으로 돌아가네
 유하혜가 일찍이 세 번 쫓겨났으니⁷²⁾
 하옹⁷³⁾이 어찌 다시 오겠는가
 오래된 누대 가에 꽃을 옮겨 심으니
 도끼 들고 침입하여 베지 말라

서경 유근

盡室踰楸嶺
 羸驂向鶴林
 數年爲客處
 今日獨歸心
 柳子曾三黜
 何生豈再臨
 移花古臺上
 斤斧莫相侵

西峒柳根

69) 유근: 선조대 좌승지,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정철의 일파로 몰려 탄핵을 받았지만 그 문재(文才)를 아낀 선조의 두둔으로 화를 면했다. 임진왜란 당시 경성안무사 등을 역임하며 민심을 수습했고, 정묘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던 중 사망했다. 문집으로 『서경집西峒集』이 전한다. 이 시는 유근이 1580년(선조 13)(흙곡 현령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 지은 시로 보인다.

70) 추령(楸嶺): 추가령(楸哥嶺)으로, 강원도 평강군 고삼면과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면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71) 학림(鶴林): 흙곡(歙谷)의 옛날 이름이다.

72) 유하혜(柳下惠)는……쫓겨났으니: 원문의 ‘유자(柳子)’는 노(魯)나라의 현자인 유하혜(柳下惠)를 말한다. 유하혜가 사사(士師, 옥관)가 되어 세 번 내침을 당하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는 아직 떠날 만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유하혜가 대답하기를 “도를 굳게 하여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세 번 내침을 당하지 않겠으며, 도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어찌 굳이 부모의 나라를 떠나겠는가?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라고 하였다.([논어論語] 「미자微子」)

73) 하옹(何顙): 원문의 ‘하생(何生)’은 후한 남양(南陽) 사람인 하옹을 말한다. 젊어서 곽태(郭泰) 등과 낙양에서 유학하여 태학에 이름을 떨쳤고, 환제(桓帝) 말년에 당고(黨錮)의 화가 일어나자 여남(汝南)에 망명하였다. 순상(荀爽)·왕윤(王允) 등과 함께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죽었다.([후한서後漢書] 「당고열전黨錮列傳」)



韓柳川, 見上

한유천[한준겸]앞에 보인다.⁷⁴⁾

行春到安邊 荷歛谷沈使君士和來會 昉及西垞柳詞丈爲縣時所作 仍次其韻 寄題壁上 復要續和 時與垞老別已四年矣 落句并及之

봄에 순시하다가 안변에 도착했을 때 흙곡 현령 심사화⁷⁵⁾가 모임에 왔다. 윤방⁷⁶⁾과 문단의 어른인 서경 유근이 현령으로 있을 때 지은 시에 차운하여 벽 위에 붙여두고 다시 이어서 화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서경 노인과 헤어진 지 이미 4년이 지나서 마지막 연에서 언급하였다⁷⁷⁾

문단의 어른을 멀리서 생각하니
일찍이 가시나무 숲에서 머물렀네
시를 지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남긴 사랑이 백성 마음에 있네
고개 달을 서로 보며 근심하고
누대 가의 꽃을 함께 가서 보지 못했네
4년 헤어져 공연히 마음 아파
머리에 백발이 많이 돋았네

緬憶文章伯
曾栖枳棘林
題詩藉人口
遺愛在民心
嶺月勞相望
臺花負共臨
空傷四年別
贏得鬢毛侵

만력(萬曆) 계축년(1613) 행직(行職) 함경도 관찰사 유천 한준겸

萬曆癸丑 行咸鏡道觀察使柳川韓浚謙

74) 한준겸은 『청구제영』 제5첩에 나온다.

75) 심사화(沈士和): 사화는 심현(沈顯, 1568~1637)의 자(字)이다. 1610년(광해군 2) 흙곡 현령으로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웠다.

76) 윤방(尹昉): 1588년(선조 21)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흙곡 현령·수찬·형조판서·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77) 봄에……언급하였다: 함경도 관찰사 한준겸이 1613년(광해군 5)에 흙곡 객사에 들러 윤방(尹昉)과 유근(柳根)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유천집柳川集』에 이 시가 실려 있지 않다.

역사자료총서 21

청구제영 靑丘題詠 I

총괄 김상태
기획 김동우 김진실
편집 김진실
한문탈초 번역 김남기 김풍기 정재훈
감수 황위주
교정·교열 김진실 하서정

사진 한정엽(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el. 02.2077.9000 Fax. 02.2077.9925
<https://www.museum.go.kr>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ISBN 978-89-8164-252-5
978-89-8164-054-5 (세트)

©2022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